

봄호
1983

韓國開發研究

- 產業別 賃金隔差의 特性과 變化 朴 壷 求
- 高等教育擴大가
- 勞動市場에 미치는 影響(II) 朴 世 逸
- 間接稅 適正稅率構造의 理論과 實際(I) 崔 洪
- 實物部門에의 外生的 攪亂과
- 換率政策의 長·短期效果 嚴 峰 成
- 韓國의 國際收支와 換率의 同時的
決定에 대한 通貨論의 接近 金 仁 哲
- 農家所得構造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柳 炳 瑞
- 機械工業育成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金 勝 鎮



韓國開發研究院

季刊 韓國開發研究

第5卷 第1號

1983. 3

產業別 賃金隔差의 特性과 變化 ……朴 垣 求…	2
高等教育擴大가 勞動市場에 미치는 影響 (II) ………………朴 世 逸…	26
間接稅 適正稅率構造의 理論과 實際 (I) ………………崔 洪…	53
實物部門에의 外生的 攪亂과 換率政策의 長·短期效果 ……嚴 峰 成…	75
韓國의 國際收支와 換率의 同時的 決定에 대 한 通貨論의 接近……金 仁 哲…	92
農家所得構造의 問題點과 改編方向……柳 炳 瑞…	108
機械工業育成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金 勝 鎮…	128

編輯委員

李 奎 億(委員長)
李 德 勳(幹 事)
金 勝 鎮 李 榮 九
張 五 鉉 崔 洪

編輯問議：編輯委員會(967-1609)
購讀問議：出版課(967-3287)

「韓國開發研究」는 우리나라 經濟·社會開發과 관련되는 諸般課題를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다룬 論文과 關聯研究 資料를 수록하여 年 4回(3月, 6月, 9月, 12月) 發行한다.

이 研究誌는 本研究院의 研究結果에 立脚한 論文과 研究資料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紹介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特別招請形式으로 外部人士의 原稿도 수록할 수 있다.

本誌에 실린 論文의 結論과 政策建議를 포함한 모든 内容은 論文作成者의 意見이며 결코 本研究院이나 編輯委員會의 公式意見을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本誌의 内容은 出處明示 慣例를 지키는 限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다.

產業別 賃金隔差의 特性과 變化

朴 煊 求

▷ 目 次 ◁

- I. 序 論
- II. 產業別 賃金隔差의 實態
- III. 產業別 賃金水準의 決定要因
- IV. 產業別 賃金隔差의 變化
- V. 賃金構造의 變化要因과 展望
- VI. 要約 및 結論

I. 序 論

이 글의 目的은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에서 나타나는 產業別 賃金隔差의 實態와 變化過程을 분석하고 產業間 賃金隔差를 규정하는 諸要因을 규명하여 產業間 賃金隔差에 대한 理解를 보다 명백히 함과 동시에 賃金隔差에 관련된 政策的 示唆點을 밝히고자 함이다.

우리나라에서 產業間의 賃金隔差를 볼 때 大分類產業에서 金融保險業이나 建設業은 高賃

金產業으로 製造業은 低賃金產業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製造業내에서도 섬유·봉제업의 賃金水準과 石油化學工業의 賃金水準 사이에는 큰 폭의 격차가 있다. 그러나 勤勞者의 人的屬性이나 資格要件 등을 감안하여 어떤 特定職種에서의 賃金水準을 볼 때 어떤 產業에서이건 대략 일정수준의 報酬가 지불되고 있다. 즉, 產業別 賃金隔差의 問題를 각 產業의 平均賃金의 比較라는 觀點에서 볼 때는 어떤 特定產業을 高賃金產業이나 低賃金產業으로 規定지을 수 있겠으나 產業間에 어떤 特定한 技術水準이나 資格要件을 감안하여 賃金隔差의 問제를 볼 때는 그 樣相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產業間 賃金隔差를 檢討하는 데 있어서는 產業間 賃金의 比較對象을 具體的으로 설정함으로써 賃金隔差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1950年代 이후의 賃金에 대한 많은 研究는 크게 두 칸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번째 부류의 研究에서는 研究의 焦點을 여러개로 나뉘어진 勤勞者集團의 平均賃金의 決定要因分

析에 두어 勞動市場에서의 勞動組合의 역할, 商品市場의 構造, 資本蓄積度, 勞動生產性 等의 產業의 特性이 各產業의 賃金水準決定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美國을 중심으로 1950年代에 걸쳐 이루어진 勞動市場 및 賃金에 관한 많은 研究들이 이러한 接近方法을 공통적으로 지녔음을 많은 문현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

이에 반하여 1960年代 이후로 크게 學問的發展을 이루어온 人間資本論學派의 研究에서는 個個 勤勞者의 勞動所得과 개인의 잠재적 生產性을 決定하는 教育訓練등의 人間資本과의 關係를 규명하는데 研究의 초점이 두어졌다²⁾.

위와 같은 賃金에 대한 研究의 接近方式을 종합하여 볼 때 個人的 屬性과 勞動市場의 構造의 要因이 複合的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個人의 賃金決定要因을 勤勞者의 性, 年齡, 學歷, 經歷 等의 個人的 屬性에 관한 부분과 勤勞者가 속해 있는 產業의 特性, 地域, 企業의 特性, 勞動組合 等의 構造의 要因으로 나누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研究에서는 產業間 賃金隔差의 問題를 보는 視角을 產業別 勤勞者의 平均賃金에 대한 比較를 떠나서 產業間에 同一勞動에 대한 同一給付의 원칙이 어떻게 適用되는가를 규명하는데 두고 產業間에 各產業의 特性에 의하여 同一한 労動에 대하여 상이한 賃金이 지불된다면 이러한 現象이 어떻게 연유되는가를 규명하는 데 論議의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따라서 本論文에서의 첫 번째 課題는 學歷, 經歷, 性, 年齡 等의 個人的 屬性이 동일한 勤勞者들의 賃金이 產業間에 어떠한 隔差를 보이고 있나를 밝히는 것이며 또한 同一勞動에 대한 同一給付의 原則이 產業間에 適用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현상에 대한 勞動市場의 構造의 原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本研究에서는 各產業에서의 勤勞者의 人的屬性이외에 勞動生產性, 商品市場의 構造의 特性이 各產業의 賃金水準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檢討하고자 한다.

本研究의 두번째 課題는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隔差가 1970年代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變化는 어떠한 要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產業間 賃金隔差의 變化過程을 검토함에 있어서 本研究에서는 특히 各產業의 勞動生產性의 變化와 扱傭의 變化가 產業間 賃金構造의 變化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變化過程을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金隔差가 어떠한 方向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解釋을 試圖하여 이에 따른 政策的 示唆點을 찾아 보고자 한다.

II. 產業別 賃金隔差의 實態

1. 產業間 平均賃金의 隔差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隔差를 各產業의 勤勞者 平均賃金으로 나타내면 1981年の 경우

1) Cullen(1956), Eckstein and Wilson(1962), Dunlop (1964), Weiss(1966) 등 참조.

2) Mincer(1974) 참조.

製造業의 平均賃金이 가장 낮아 176,176원이며³⁾ 이를 100으로 할 때, 전기·가스·수도업의 平均賃金은 203, 建設業은 181, 金融保險業은 19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195로서, 產業間에 매우 큰 隔差를 보이고 있다(表 1 참조). 또한 製造業內에서도 이를 中分類로 나누어 平均賃金을 비교하여 보면 섬유, 의복 및 가죽제조업의 平均賃金이 제 1차 金屬產業의 平均賃金의 60%미만에 그치고 있다^{4).}

產業別 賃金隔差를 勤勞者の 質的構成을 감안하여 비교하여 보면 먼저 男子勤勞者를 중심으로 보면 全體勤勞者를 대상으로 비교할 때의 隔差보다 작은 隔差를 보이나, 女子勤勞者를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產業間의 賃金隔差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產業間의 賃金隔差를 學歷別로 나누어 비교하면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와 매우 다른 양상을 짚우고 있음을 <表 1>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먼저 大卒者를 중심으로 볼 때에는 產業間의 平均賃金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

으며 오히려 高賃金產業으로 알려진 전기·가스·수도업의 大卒者 平均賃金이 他產業에 비해 낮음 水準임을 볼 수 있다. 또한 高卒者를 중심으로 產業別 隔差를 볼 때에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본다. 이에 반해 學歷水準이 낮은 中卒以下의 勤勞者들을 대상으로 產業別 賃金水準을 살펴보면 그 隔差가 매우 커, 같은 學歷內에서 製造業의 賃金은 전기·가스·수도업의 약 절반가량에 머물어 學歷水準이 낮음에 따라 產業間의 賃金隔差가 더욱 擴大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職種內에서 產業間에 어느 정도의 賃金隔差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熟練度나 資格要件이 產業間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두 職種을 택하여 產業別로 賃金水準을 비교한 결과가 <表 2>에 나타나 있다. 表에 나타난 두 職種은 職種分類 985의 自動車 運轉士와 331의 經理員으로 이들 職種은 性別로 뚜렷이 구분되어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技術熟練度에서 產業別로 큰

<表 1> 產業別 賃金隔差(1981)

(단위: %, 원)

	平 均	男	女	中卒以下	高 卒	大卒以上
全 产 业	120.6 (212,477)	114.8 (269,023)	111.8 (120,517)	105.7 (136,528)	113.7 (186,193)	101.3 (396,373)
鑄 业	138.3	106.2	117.9	176.2	131.9	112.9
製 造 业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電 氣·水 道·가 스	202.6	159.3	171.4	188.5	125.6	85.1
建 設 业	181.5	142.6	141.0	161.6	124.4	104.8
都·小 賣, 飲食·宿泊	140.3	130.4	130.8	117.4	97.3	108.2
運 輸·倉 庫	135.3	110.2	139.3	163.5	116.7	114.8
金 融·保 險	192.8	172.5	200.2	146.2	113.5	101.3
社 會 및 個 人 服 务	194.7	165.4	215.2	129.6	113.2	97.8

註: 위 表의 月給與額은 年間 보너스의 月平均을 포함한 것임.
資料: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1.

3) 위의 賃金은 年間 보너스의 月平均値를 포함한 月總給與額임.

4) <表 8> 참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두 職種에서의 產業間 賃金隔差는 平均賃金의 產業間 隔差보다는 적게 나타나지만 두 職種 모두 金融保險業에서 他產業에 비해 높은 賃金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賃金水準을 나타내고 있어 資格要件이同一한 職種內에서도 產業間에 賃金隔差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產業間의 賃金隔差를 各產業의 全體勤勞者 平均賃金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와 學歷, 性, 職種 등 勤勞者의 人的屬性을 감안하여 各產業의 賃金을 비교할 때는 서로 상이한 양상을 띠운다. 그러나 위에서 提示된 몇 개의 表에 의해서는 各產業에 있어서의 人的構成의 隔差를 調整한 후에 나타나는 賃金隔差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賃金函數의 推定을 통해 產業間 賃金隔差를 分析하고자 한다.

〈表 2〉 職種內 產業別 賃金隔差(1980)
(단위: 원)

	985 運轉士	331 經理員
鐵業	207,757	142,596
製造業	227,913	136,745
전기·가스	239,372	232,579
建設業	207,877	179,347
都小賣·飲食	235,123	143,048
運輸·倉庫·通信	206,325	134,232
金融·保險	267,229	205,107
社會 및個人서비스	239,502	170,504

資料：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1.

5) 人的屬性을 감안한 產業別 賃金隔差의 分析은 몇몇 研究에서 찾아볼 수 있음. 예로 Haworth and Rasmussen(1971) 참조.

2. 賃金函數의 推定을 통한 產業別 賃金隔差⁵⁾

가. 賃金函數의 設定

賃金函數는 從屬變數로서의 勤勞者 個人의 賃金水準과 獨立變數로서의 勤勞者의 教育, 經歷등의 個人的 屬性을 나타내는 變數 및 기타 労動市場의 與件을 나타내는 諸變數의 函數的關係를 지칭한다. 人間資本理論(human capital theory)에 의하여 여러가지의 形態로 開發된 賃金函數의 가장 보편적인 函數形態(functional specification)는 한 개인의 勤勞所得 y 와 教育年數 S 및 正規教育以後의 労動市場에서의 經歷年數 T 사이의 關係를 아래와 같이 規定하여 使用하고 있다.

$$\text{즉}, \ln y = a_0 + a_1 S + a_2 T + a_3 T^2 \dots \dots \dots \quad (1)$$

本研究에서는 基礎資料로 사용되는 勞動部의 職種別 賃金實態調查를 통해 正規教育以後의 勤勞者의 勤續年數 및 經歷年數 등의 資料를 구체적으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賃金函數의 形態를 아래와 같이 規定한다.

$$\begin{aligned} y &= f(S, T_1, T_2, T_3) \\ &= a_0 + a_1 S + a_2 T_1 + a_3 T_2 + a_4 T_3 + a_5 T_1^2 \\ &\quad + a_6 T_2^2 + a_7 T_3^2 \dots \dots \dots \quad (2) \end{aligned}$$

위 式에서

S : 教育年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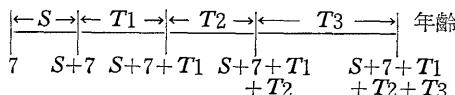
T_1 : 職種外 經歷年數

T_2 : 外部 經歷年數

T_3 : 内部 勤續年數

위에 나타난 經歷에 대한 세 가지 變數 T_1 ,

〔圖 1〕 經歷期間의 區分



S : 教育年數

T_1 : 職種外 經歷年數(outside occupational experience)

T_2 : 外部經歷年數(outside firm experience)

T_3 : 內部經歷年數(firm experience)

T_2, T_3 는 定規教育 후의 期間을 [圖 1]에서와 같이 세 가지로 区分함으로써 유도된다. 즉, 正規教育以後의 勤勞市場의 經歷期間은 첫째, 現在의 職種에 종사하기 전까지의 期間인 職種外 經歷年數(T_1), 둘째, 現在의 職種에 종사한 기간중 現在의 職場外에서의 勤勞期間(T_2), 그리고 現職場에서의 勤續期間(T_3)로 나누어 진다.

나. 賃金函數의 推定과 產業間 賃金隔差

本研究의 첫번째 課題 즉, 各產業에서의 人的屬性의 差異를 除去하였을 때 產業間에 나타나는 賃金의 隔差는 얼마나 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式(2)에 나타난 賃金函數에 產業「더미」(Dummy)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賃金函數를 推定하였다⁶⁾.

$$\begin{aligned} TW = & a_0 + a_1 S + a_2 T_1 + a_3 T_2 + a_4 T_3 + a_5 \\ & T_1^2 + a_6 T_2^2 + a_7 T_3^2 + d_1 I_2 + d_2 I_4 \\ & + d_3 I_5 + d_4 I_6 + d_5 I_7 + d_6 I_8 \\ & + d_7 I_9 \dots \dots \dots \quad (3) \end{aligned}$$

위에서 勤勞者가 소속된 產業이,

礦業이면 $I_2=1$, 나머지는 0,

電氣·水道·가스業이면 $I_4=1$,

나머지는 0,

建設業일때 $I_5=1$, 나머지는 0,

都·小賣·宿泊業일때 $I_6=1$,

나머지는 0,

交通·運輸業일때 $I_7=1$, 나머지는 0,

金融·保險業일때 $I_8=1$, 나머지는 0,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일때 $I_9=1$,

나머지는 0이며

$TW = \text{月平均總給與額}/1,000$ 이다.

위의 式에서 產業「더미」의 係數 d_i 가 0이 아님이 統計的有意性을 가질 때 이는 人的屬性的 차이를 제외하였을 때 i 產業과 製造業사이에 賃金의 隔差가 有意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같은 人的屬性 S, T_1, T_2, T_3 를 지닌 두 勤勞者가 각기 製造業과 i 產業에서 종사할 때 이들의 賃金隔差는 d_i 만큼 된다는 뜻이다.

1980年的 資料를 사용하여 勤勞者를 男女別로 区分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式(3)의 賃金函數를 OLS方式에 의해 推定한 結果가 〈表 3〉에 나타나 있다. 推定結果에 의하면 男子勤勞者の 경우 賃金水準의 결정에 가장 크게 作用하는 變數는 教育年數이며, 그 다음으로 T_3 즉, 勤續年數가 主要變數로 나타난 반면에 女性勤勞者の 경우에는 賃金水準의 결정에 있어 勤續年數가 學歷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產業「더미」變數의 推定係數는 I_4 를 제외하고 모두 統計的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男子勤勞者の 경우에는 I_5 와 I_8 에서 「더미」값

6) 回歸分析에 사용된 자료는 1980年 勤勞部의 職種別 賃金實態調查에서 짐계된 原資料중에서 農林水產業從事者를 제외한 26,718名에 대한 調查資料임. 통계처 토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勤勞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참조.

이 큰 것으로 나타나 金融保險業과 建設業에서 人的屬性을 감안한 후에도 높은 賃金이 지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女子勤勞者の 경우에는 I_7 , I_8 및 I_9 의 「더미」값이 매우 커서 이들 세 產業에서의 賃金水準이 人的屬性을 감안하더라도 他產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男女別로 各 產業에서의 「더미」값을 비교해 보면 女子의 경우 「더미」값變化의 폭이 男子의 경우보다 커서 人的屬性을 감안할 때 女子勤勞者에서 產業間 賃金隔差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產業「더미」變數를 사용한 賃金函數를 製造業內에서의 勤勞者를 中心으로 製造業의 中分類產業을 「더미」變數로 하여 推定한 式은 아래와 같다.

$$TW = a_0 + a_1S + a_2T1 + a_3T2 + a_4T3 + a_5T1^2 + a_6T2^2 + a_7T3^2 + d_1I_{32} + d_2I_{33} + d_3I_{34} + d_4I_{35} + d_5I_{36} + d_6I_{37} + d_7I_{38} + d_8I_{39} \dots \dots \dots (4)$$

위에서 근로자가 소속한 製造業中分類產業이

飲食料品製造業이면 $I_{32} = \dots = I_{39} = 0$,

섬유, 의복 및 가죽產業이면 $I_{32} = 1$,

나머지는 0,

나무 및 나무製造業이면 $I_{33} = 1$,

나머지는 0,

종이 및 종이製品製造業이면 $I_{34} = 1$,

나머지는 0,

石油化學, 고무 및 플라스틱製造業이면

$I_{35} = 1$, 나머지는 0,

〈表 3〉 賃金函數 推定結果(1980)

	全 產 業					製 造 業				
	男		女			男		女		
	係 數	t-統計值	係 數	t-統計值		係 數	t-統計值	係 數	t-統計值	
常 數	-175.13		-9.16		常 數	150.33		20.21		
S	24.97	73.80	7.83	38.42	S	23.48	61.82	5.24	30.79	
$T1$	7.27	23.10	2.59	14.82	$T1$	7.17	20.23	1.42	10.30	
$T2$	6.62	20.35	5.97	15.91	$T2$	4.37	10.10	4.58	15.10	
$T3$	16.67	29.58	8.64	24.27	$T3$	15.72	22.41	7.15	21.58	
$T1^2$	-0.11	-11.9	-0.07	-13.22	$T1^2$	-0.12	-11.70	-0.04	-9.58	
$T2^2$	0.01	0.72	0.04	1.21	$T2^2$	0.11	5.00	-0.08	-2.53	
$T3^2$	-0.17	-5.25	0.12	3.87	$T3^2$	-0.08	-1.70	0.09	2.41	
I_2	22.47	4.10	-5.23	-0.73	I_{32}	-6.61	-1.48	1.08	0.82	
I_4	-12.57	-1.40	3.72	0.37	I_{33}	-14.40	-2.21	2.79	1.04	
I_5	29.00	5.98	12.75	2.21	I_{34}	-9.43	-1.67	15.33	6.84	
I_6	15.66	3.61	6.47	3.19	I_{35}	9.48	2.05	3.51	2.26	
I_7	12.20	4.00	38.57	19.57	I_{36}	5.27	0.95	4.35	1.90	
I_8	33.18	8.41	38.47	19.05	I_{37}	-4.30	-0.77	24.66	4.98	
I_9	12.83	3.61	48.93	25.71	I_{38}	-7.10	-1.70	-5.03	-3.58	
					I_{39}	-19.20	-2.77	-3.83	-2.17	
R^2	0.442		0.447		R^2	0.449		0.288		
F	884.7		573.5		F	528.2		218.3		
N	15,659		9,959		N	9,744		8,098		

非金屬礦物製品製造業이면 $I_{36}=1$,
나머지는 0,
第1次金屬產業이면 $I_{37}=1$, 나머지는 0,
組立金屬製品 및 機械製造業이면 $I_{38}=1$,
나머지는 0,
其他製造業이면 $I_{39}=1$, 나머지는 0이다.

<表 3>에 나타난 式(4)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먼저 男子勤勞者의 경우 I_{36} 과 I_{37} 의 推定係數의 t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賃金隔差가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타 產業에서의 「더미」係數의 推定值는 統計的으로 有意하게 나타났다. 「더미」係數 d_i 의 推定值의 크기는 男子勤勞者의 경우 I_{35} 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며 I_{39}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人的屬性을 조정한 후에 나타나는 高賃金產業은 製造業中 分類中에서 石油 및 石油化學製造業이고 低賃金產業은 其他製造業과 종이 및 종이製品, 印刷業과 나무製品製造業이다.

女子勤勞者의 경우 中分類製造業의 「더미」係數는 I_{32} 및 I_{33} 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하지 않다. 또한 人的屬性을 조정한 후에 나타나는 高賃金產業은 종이 및 종이製品製造業과 第1次 金屬產業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低賃金產業은 組立金屬, 機械, 裝備製造業 및 其他製造業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사항은 女性勤勞者가 主宗을 이루며 低賃金產業으로 알려진 섬유, 의복 및 가죽製品製造業에서는 勤勞者의 人的屬性을 調整할 때 상대적으로 賃金이 높은 飲食料品製造業에 비해 賃金隔差를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않으며 오히려 組立金屬產業

에서 人的屬性 조정후에 低賃金現象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III. 產業別 賃金水準의 決定要因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에서 產業間의 賃金水準은 各產業에서의 人的構成의 隔差를 調整하여 비교할 때에도 상당한 隔差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동일한 또는 유사한 노동력에 대하여 產業間에 서로 다른 수준의 賃金이 支拂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論議를 전개하기 위하여 本章에서는 賃金決定에 대한 主要理論과 이들이 우리나라의 勞動市場與件에서 產業間 賃金隔差에 관해서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⁷⁾.

賃金決定에 관한 代表的인 理論으로는 一般價格理論에 근거한 競爭市場의 限界學說을 들 수 있다. 限界學說에 의하면 競爭的 勞動市場에서의 賃金水準은 各企業의 勞動의 限界收益生產額(value of marginal revenue product of labor)에 의하여 결정되는 需要曲線과 勞動力의 크기, 教育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供給曲線의 相互作用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렇게 결정된 勞動市場의 賃金水準에 따라 各企業에서는 주어진 賃金水準과 限界勞動生產額이 일치하도록 雇傭水準을 결정한다. 즉, 거시적인 차원에서 限界學說은 한 단위의 勞動市場에서 賃金水準이決定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微視的인 次元에서 個個企業의 雇傭水準 즉, 生產要素의 量的水準을決定하는 과정

⁷⁾ 本章에서는 產業間 賃金水準의 靜態的比較를 中心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動態的 의미에서의 產業間賃金構造의 變化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서술하고자 함.

을 설명하고 있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限界學說에서 論議되고 있는 巨視的 次元에서의 勞動市場의 개념이 各產業에서마다 獨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그 產業內에서의 賃金水準은 產業內의 特유한 需要 및 供給與件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各產業내에서의 勞動生產性水準, 그 產業에서 필로 하는 人力에 대한 供給量등에 의해 產業間에는 賃金隔差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限界學說에서 想定되는 勞動市場의 概念을 어떤 특정한 產業마다 하나씩 獨립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產業間에 勞動移動이 완전히 규제되어 있고 어떤 社會制度에 의해 특정 산업에서의 雇傭이 社會階層間に 염밀히 구분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獨립적인 勞動市場의 概念이 產業間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現實的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반면에 勞動市場에서 勞動力의 移動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勞動市場의 雇傭條件에 관한 정보가 勞動市場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정확하게 주어진다면 어떤 特定한 勞動力에 대하여 限界學說에서 의미하는 勞動市場의 概念은 各產業을 망라한 한 地域에서의 勞動市場概念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勞動力에 대한 賃金水準은 產業을 망라한 勞動市場全體에서 균일하게 결정되며 따라서 產業間의 賃金水準은 生產性等 產業에서의 特殊與件에 관계없이 일정한 水準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勞動移動에 대한 극단적인 假定은 現實的으로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 章에서 檢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에서 產業間에 人的構成의 差를 調整한 후에도 상당한 賃金隔差가 나타남을 보더라도 完全競爭市場理論에 입각한 限界學說이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金隔差를 설명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勞動力에 대한 各產業의 賃金水準은 各產業에 있어서의 勞動市場與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으며, 各產業에 있어서의 勞動市場與件을 규정하는 變數로서는 生產性水準, 勞動組合의 劑力, 商品市場의 構造등이 많은 研究의 대상이 되고 있다.

產業間의 勞動生產性과 賃金水準의 관계는 歐美各國에서 많은 研究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金秀坤(1978), 金滉爗(1976) 등의 研究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金秀坤의 研究에 의하면, 1975年의 製造業內 20個의 部門에서 勞動生產性과 賃金사이에는 正의 關係를 보이고 있으며 勞動生產性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두 變數間의 相關係數는 0.3에서 0.45사이의 크기를 보인다고 하였다⁹⁾.

本研究에서는 우리나라의 製造業小分類 產業에서의 勞動生產性과 賃金水準의 相關係係를 推定함에 있어서 勞動生產性의 推定單位를 韓國銀行의 『企業經營分析』에 나타난 各產業의 從業員 1人當 附加價值額(年間)을 사용하였으며 勞動部의 勞動統計에 나타난 各產業의 月平均 賃金總額을 賃金으로 사용하였다¹⁰⁾. 1980年的 資料를 사용할 때 製造業 27個 小分類 產業에서 두 變數사이의 상관계수는 +0.927¹¹⁾로

8) 이러한 지적은 金秀坤(1978)에서 찾아볼 수 있음.

9) 위에서 勞動生產性의 測定單位로 鎭工業統計調查報告書에 의한 就業者當 附加價值와 就業者當 生產額을 같이 사용하였음.

10) 따라서 勞動生產性은 生產職 및 非生產職을 모두 포함하는 從業員數로 產業의 總附加價值額을 나눈 수임.

11) 順位相關係數는 Pearson Rank Order Correlation Coefficient임.

推定되었으며 順位相關係數는 +0.847로 推定되어 두 變數사이에 매우 높은 相關關係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위의 檢證이 1980年 한해에 국한된 것으로 労動生產性과 賃金사이의 相關關係를 論함에 있어 약간의 制約를 가지나 賃金構造가 어느期間을 통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임을 감안할 때 1980年的 결과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製造業에 있어서 從業員 1人當 附加價值額으로 표시된 労動生產性과 賃金사이에는 높은 相關關係를 갖는다고 結論을 내릴 수 있다.

各產業의 賃金構造를 論議함에 있어 各產業의 生產物의 市場構造와 해당 產業의 賃金水準의 關係가 흔히 거론됨을 볼 수 있다. 이하 한 論議의 要旨는 市場集中率이 높은 產業에서는 市場支配力이 커서 超過利潤이 쉽게 얻어지며 따라서 超過利潤이 勤勞者에게 부가적으로 지불된다는 것이다. 超過利潤이 勤勞者에게 부가적으로 지불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解釋이 있는 바, 초과이윤으로 보다

〈表 4〉 市場集中度와 賃金

(上位 24個 產業)

(단위 : 원)

分類番號 ¹⁾	分類名	CR ₃ ²⁾	生産從業員 1人當 給與額	事務・其他 從業員 1人 當 給與額
31123	아이스크림製造業	0.965	1,109,397	1,719,484
31173	국수製造業	0.937	523,259	1,437,457
31182	설탕精製業	1,000	1,333,701	1,372,561
31190	설탕과자製造業	0.950	570,889	1,593,253
31213	조미료生産業	0.906	1,050,971	2,109,010
31216	糖類製造業	0.902	1,000,323	1,750,319
31331	麥酒製造業	1,000	2,500,472	2,060,050
31402	담배製品製造業	1,000	1,634,270	684,228
34114	크라프트지製造業	0.902	926,271	1,823,655
35121	窒素質肥料製造業	1,000	1,775,472	2,701,508
35122	磷酸質肥料製造業	1,000	1,589,858	2,450,456
35124	複合肥料製造業	0.999	1,967,545	3,392,960
35131	合成고무製造業	1,000	1,874,536	1,618,159
35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醫藥品製造業	0.951	783,241	1,127,508
35292	폭약 및 풍물製品製造業	0.997	641,559	2,890,597
35301	燃料油製造業	0.984	2,746,885	2,729,568
36201	第1次 유리製造業	0.997	1,415,258	2,193,848
38111	金屬材食卓用品製造業	0.953	380,227	1,936,034
38394	乾電池製造業	0.994	482,116	2,195,963
38412	鋼線建造 및 修繕業	0.923	1,340,569	1,507,620
38423	鐵道車輛部品製造業	0.992	1,066,123	1,147,513
38431	自動車製造業 部品除外	0.928	983,369	1,667,133
38442	모터싸이클製造業	0.952	809,242	1,620,723
38523	寫眞機製造業	0.902	590,216	1,217,589
給與平均			1,212,324	1,872,799

註 : 1) 韓國標準產業 分類에 의한 細細分類產業의 分類番號.

2) CR₃는 各產業에서 上位 3個企業의 出荷額이 차지하는 比重.

資料 : 市場集中度는 李奎億(1981).

給與額은 經濟企劃院, 『鐵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78.

(下位 20個 產業)

分類番號	分類名	CR ₃	生産從業員 1人當給與額	事務・其他 從業員 1人 當給與額
31131	파실 및 야채 통조림業	0.218	353,958	914,340
31142	海產物加工貯藏業	0.200	459,320	1,087,460
31220	配合飼料製造業	0.189	1,045,650	1,534,624
31321	약주 및 탁주製造業	0.093	705,394	823,911
32111	製絲業	0.187	583,964	1,567,833
32117	錦絲製造業	0.252	490,358	1,109,951
32131	編織 양말製造業	0.218	486,788	1,159,561
32133	編織以外製造業	0.201	538,269	1,086,065
32170	織維漂白染色業	0.135	593,364	1,224,475
32202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製造業	0.223	460,930	1,232,836
32332	製ガ방製造業	0.277	415,461	1,281,748
33111	製材業	0.263	747,491	1,113,992
34116	韓紙製造業	0.259	455,075	500,519
34121	플판지 및 플판지상자製造業	0.178	662,120	1,087,461
34213	書籍出版業	0.291	868,089	1,208,390
35224	藥製品製造業	0.279	744,212	1,622,402
35401	煉炭製造業	0.253	741,640	1,041,820
35602	플라스틱包裝用器製造業	0.216	537,274	1,237,039
36991	시멘트 및 콘크리트製品製造業	0.233	703,003	1,106,969
37106	鑄造業	0.201	670,450	1,062,251
38242	纖維用機械製造業	0.158	686,825	1,066,984
38411	船舶用機關 및 部品製造業	0.151	852,702	1,224,609
給與平均			627,379	1,149,783

높은 賃金을 지불함으로써 해당기업은 離職率을 낮출 수 있고 근로자의 士氣振作으로 生產性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볼 수 있으며¹²⁾, 높은 賃金을 지불함으로써 獨占으로부터 오는 사회의 비난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볼 수 있다¹³⁾.

또한 市場集中度와 賃金의 關係를 勞動組合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견해도 볼 수 있다. 즉 市場集中度가 큰 產業에서의 企業은 대부분 大單位 事業場을 갖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勞

動組合의 組織化가 용이하며 높은 團體交涉力を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勞動組合의 壓力에 의해 超過利潤이 勤勞者에게 부가적으로 移轉된다는 것이다¹⁴⁾. 또한 超過利潤으로 支拂能力이 높은 企業에서는 勞動組合의 組織化를 事業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賃金을 지불한다는 주장도 찾아 볼 수 있다¹⁵⁾.

우리나라의 경우 市場集中度와 賃金水準과의 關係를 검토하기 위하여 <表 4>에 集中度가 높은 产业과 낮은 产业을 뽑아 賃金을 비교

12) Slichter(1950) 참조.

13) Weiss(1966) 참조.

Weiss(1966)은 또한 市場集中度가 높은 产业의 企業들은 高賃金을 통해 상대적으로 보다 우수한 勤勞力を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음.

14) Segal(1964) 참조.

15) Levinson(1967) 참조.

하였다. <表 4>에는 1977年 製造業 細細分類 產業中에서 年間出荷額이 100億이상인 產業에 서 CR_3 , 즉 產業總出荷額中 上位 3個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가장 높은 24個 產業과 가장 낮은 20個 產業을 뽑아 그들 產業에서의 年間 1人當 從業員 平均人件費를 비교하였다. 이 表를 통해서는 市場集中度와 賃金水準의 相關 關係를 정확히 推定할 수는 없으나 集中度가 극히 높은 產業의 平均賃金과 集中度가 극히 낮은 產業의 平均賃金을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集中度와 賃金의 關係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위 表에서 CR_3 가 0.9이상인 24個 細細分類 產業의 生產從業員의 年平均 給與額은 1,212,324원이며, 事務 및 其他從業員의 年平均 給與額은 1,827,799원으로서 集中度가 가장 낮은 20個 細細分類 產業의 平均給與額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市場集中度가 높은 產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賃金이 지불되고 있는 背景에 대한 해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勞動組合이 勞動市場, 특히 賃金決定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勞動組合 劍勢說은 큰 說明力を 지니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市場集中度가 높은 產業을 大企業의 比重이 높은 產業으로 보고, 市場集中度가 낮은 產業을 中小企業의 比重이 높은 產業으로 봄으로써 集中度와 賃金의 문제를 企業規模간의 賃金水準의 隔差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상당한 賃金隔差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隔差는 주로 大

企業과 中小企業의 勞動市場에서의 雇傭 및 賃金慣行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⁶⁾. 즉, 大企業에서는 採用, 訓練, 昇進, 賃金 등의 諸般人事管理가 長期勤績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大企業의 勤勞者들은 상대적으로 離職率이 낮고 勤績年數가 높으며 賃金決定慣行이 年功序列形式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大企業의 賃金이 中小企業보다 높은 水準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大企業이 큰 부문을 차지하는 產業에서는 그 產業의 雇傭慣行이 中小企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產業에서의 雇傭慣行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러한 雇傭慣行의 차이가 產業間의 賃金水準의 隔差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變數로 작용할 것이다.

產業間의 雇傭慣行의 隔差를 數量化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雇傭慣行의 결과로 나타난 離職率을 비교해 보면 賃金水準이 상대적으로 높은 金融·保險業, 電氣·가스·水道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에서의 離職率은 全產業의 平均보다 매우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음을 <表 5>를 통하여 볼 수 있다¹⁷⁾.

위의 論議를 종합하여 볼 때, 各產業의 賃金水準은 各產業에서의 人的構成의 特性과 各產業에서의 勞動生產性의 水準, 市場構造등에

<表 5> 產業別 離職率

(단위 : %)

全 产 业	4.5
鑄 造 业	3.0
製 造 业	5.3
電 氣 · 가스 · 水 道 业	2.0
建 設 业	4.7
都 小 賣 · 宿 泊 业	3.6
運 送 · 倉 庫 · 通 信 业	2.9
金 融 · 保 險 业	2.5
社 會 · 個 人 服 务 业	2.1

註 : 1975~81年的 平均 離職率.

資料 : 勞動部, 『勞動統計年鑑』, 1982.

16) 拙稿(1980).

17) 離職率과 產業間 賃金隔差에 대한 유사한 論議는 Lutz (1977) 참조.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論議된各變數가 각 產業의 平均賃金水準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統計的檢證을 위하여 製造業內 小分類產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¹⁸⁾.

$$y_i = \alpha_0 + \alpha_1 S_i + \alpha_2 T_i + \alpha_3 F_i + \alpha_4 NP_i + \alpha_5 LP_i + \alpha_6 KL_i \quad \dots \dots \dots \quad (5)$$

위 式에서,

S_i : i 產業勤勞者의 平均教育年數

T_i : i 產業勤勞者의 平均勤續年數

F_i : i 產業의 女性勤勞者 比重

NP_i : i 產業의 勤勞者 1人當 純利益

(1/1,000)

LP_i : i 產業의 勤勞者 1人當 附加價值

(1/1,000)

KL_i : i 產業의 勞動裝備率(1/1,000)

y_i : i 產業勤勞者의 月平均賃金

위 式의 推定에 있어 y 는 1980年 製造業

小分類產業의 全體勤勞者 平均賃金을 사용하였고 產業別 勤勞者의 平均教育年數, 勤續年數 및 女性勤勞者의 比重은 1980年的 職種別賃金調查結果를 사용하였다. 또한 各產業에서의 勞動生產性指標로는 韓國銀行의 企業經營分析에 나타난 1980年的 各產業에서의 勤勞者 1人當 附加價值額을 사용하였으며 勤勞者 1人當 純利益은 매년 变動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1978~80년 새해의 平均值를 사용하였다. 回歸分析에 포함된 產業은 製造業內의 27個 小分類產業으로서 回歸方程式은 全體勤勞者, 男子, 女子에 각각 推定되었으며 그 결과가 <表6>에 나타나 있다²⁰⁾.

<表6>에 나타난 推定結果에 의하면 추정계수의 t 값은 各產業의 勞動裝備率 KL_i 를 제외하고 모두 5%의 有意水準을 나타내었으며 產業의 人的構成을 나타내는 S_i , T_i 및 F_i 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各產業의 勞動生產性 및 純利益에 대한 推定係數보다 매우 크다. 또한

<表 6> 回歸方程式(5)의 推定結果

	全體		男		女	
	係數	t	係數	t	係數	t
常數	7.0493	—	-32.1162	—	2.8757	—
S	11.0092	4.11	13.7247	3.91	6.1856	3.65
T	24,8757	4.76	26.5547	4.82	14.7179	2.45
F	-2.7276	-5.77	—	—	—	—
NP	0.0113	1.79	0.0184	2.07	-0.0017	-0.34
LP	0.0008	4.24	0.0007	2.74	0.0004	2.86
KL	-0.0004	-0.90	-0.0001	-0.19	0.0007	1.62
R^2	0.977		0.944		0.853	
F	143.8		70.9		24.4	
N	27		27		27	

18) 아래와 같은 分析方法을 우리나라의 資料에 적용한 예는 金湜嶠(1977)에서 찾아 볼 수 있음.

19) 위 식에서 KL_i 는 各產業에서의 大企業의 比重을 나타내기 위한 變數로 사용되었으나 推定結果에 의하면 α_6 가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못해 大企業의 比重을 나타내는 變數로 적합치 못한 것으로 생각됨.

20) 男子, 女子勤勞者에 대하여 각각 回歸方程式을 推定할 때, 變數 F 는 제외됨.

위의 회귀方程式推定過程에서 各變數의 R^2 에 대한 寄與度를 分離하여 보면 S_i , T_i 및 F_i 의 세 變數에 의한 R^2 의 變化는 0.46이며 NP_i 와 LP_i 의 두 變數에 의한 R^2 의 증가는 0.52로서各產業의 賃金의 分散이 人的構成의 變化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약 46%, 勞動生產性 및 純利益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52%라고 해석될 수 있다.

男·女로 나누어 推定된 결과를 보면 男子勤勞者の 경우에는 各產業의 勤勞者 1人當 純利益에서의 推定係數는 통계적으로有意한 값을 지니나($t=2.07$), 女子勤勞者の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推定되었다.

위의 結果에서 各變數 S , T , LP 및 NP 의 平均값에서 各變數의 1%의 증가에 의한 TW 값의 증가는 0.99, 0.67, 0.075, 0.026으로 推定되어²¹⁾, 各產業에서의 賃金水準을 결정하는데는 學歷 및 經歷등의 人的要素가 勞動生產性 및 純利益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 產業別 賃金隔差의 變化

1. 平均賃金에 의한 分析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隔差의 變化를 1970年代를 통해서 살펴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번째의 특징은 1970年代를 통해 우리나라

의 經濟規模나 產業構造가 1970年代를 통해 커다란 變化를 보여 왔으나 產業間의 賃金構造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 점이다. 1970年代를 통해서 產業間의 平均賃金의 隔差가 부분적으로는 축소 또는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平均賃金의 產業間의 優位順位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전기·가스·수도업, 金融保險業 등의 高賃金產業은 1970年代를 통해 계속 優位를 점하고 있으며 製造業, 鑛業등의 平均賃金의 相對的位置는 계속해서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金構造가 1970年代를 통해 안정적이었다고 하겠다.

1970年代를 통한 產業間 賃金構造變化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產業間의 平均賃金의 隔差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年에 電氣·가스·水道業과 金融保險業에서의 平均賃金은 製造業 平均賃金의 약 2.6倍에 달했으나 1981年에는 2倍이하로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전기·가스·수도업과 金融保險業에서의 1970年代를 통한 平均賃金上昇速度가 다른 產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 연유하는 것으로 두 產業의 賃金順位에서의 相對的 position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절대적인 隔差가 감소되었던 것이다.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1年과 1970年的 各產業에서의 名目賃金을 比較하여 보면 전기·가스·수도업과 金融保險業에서는 1981年的 名目賃金이 1970年的 9倍가량이나 他產業에서는 위의 倍率보다 크게 높은 12~14배이다. 위의 두 產業에서의 賃金上昇率이 다른 產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두 부분이 모두 公企業의 성격이짙어 賃金決定에 있어 政府의

21) S , T , LP 및 NP 의 평균값은 각각 9.7, 2.7, 9427, 232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1970年代에 金融保險業에서는 이 부분의 賃金變化를 주도하는 銀行의 賃金水準이 의도적으로 他產業에 비해 小幅으로調整되어 왔던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외에 지적될 수 있는 產業間 賃金構造變化는 아래와 같다. 먼저 建設業의 경우에는 1970年代 중반부터 시작된 海外建設의 급격한 成長과 더불어 建設關聯技能人力의 需要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70年代 후반에는 建設業의 平均賃金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8年에는 建設業의 平均賃金이 餘他產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景氣擴大趨勢가 진정되고 勞動市場의 人力需給事情이 완화됨에 따라 賃金上昇率도 크게 떨어져서 1981年에는 建設業의 平均賃金이 金融保險業과 전기·가스·수도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음을 볼 수 있다.

建設業이외에도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의 平均賃金의 相對的 位置가 1970年代를 통해 크게 바뀌었음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製造業의 平均賃金에 대한 서비스業의 平均賃金指數는 1974年的 150에서 1981年的 195로大幅 上升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의 主宗을 이루는 教育從事者, 保健醫療從事者의 平均賃金이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製造業內의 中分類 產業의 賃金隔差의 變化가 <表 8>에 나타나 있다. 製造業內에서의 賃金隔差의 變化에서도 全產業에 걸친 賃金隔差의 變化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特徵을 찾아볼 수 있다. 製造業 중에서 가장 賃金이 낮은 產業은 섬유, 의복 및 가죽製品製造業과 其他製造業으로 이들 두 產業의 製造業內에서의 賃金의 相對的 位置는 1970年代를 통해서 그대

<表 7> 產業別 月平均賃金¹⁾ 隔差

	礦業	製造業	電氣·加 工·水道業	建設業	都小賣 ·宿泊業	交通·運 輸業	金融·保 險業	社會 및 個 人服務業
1970	129.9	100.0	259.8	169.9	138.5	129.5	265.1	170.3
1974	135.9	100.0	244.1	145.6	119.4	120.8	244.1	156.2
1978	137.4	100.0	226.7	239.8	133.2	128.4	222.1	174.7
1981	138.3	100.0	202.7	181.5	140.3	135.3	192.8	194.8
名目賃金上昇 ²⁾	(13.12)	(12.32)	(9.61)	(13.16)	(12.48)	(12.86)	(8.96)	(14.09)

註 : 1) 賃金總額(正額給與, 超過給與 및 特別給與 포함).

2) 1981年 名目賃金總額/1970年 名目賃金總額.

資料 : 勞動部, 『毎月勞動統計調查報告書』, 1982. 1.

<表 8> 製造業中分類別 月平均賃金¹⁾ 隔差

	製造業 平均賃金	飲食料品 · 담 배	纖維衣服 및 가죽	나무 및 나무製品	종이 및 종이製品	化學物· 化學纖維	非金屬 鑄物製品	第1次 金屬產業	組立金屬 · 機械 · 裝	其 製 造 業
1970	100.0	111.0	78.6	102.9	129.7	123.5	104.5	143.9	109.9	73.7
1974	100.0	106.1	85.3	96.3	120.2	115.7	116.3	160.1	101.9	73.8
1978	100.0	115.3	74.6	101.5	134.5	113.6	127.1	150.7	109.2	76.2
1981	100.0	121.7	79.3	96.2	124.6	115.1	114.6	138.4	107.7	78.3

註 : 1) 賃金總額(定額給與, 超過給與 및 特別給與 포함).

資料 : 勞動部, 『毎月勞動統計調查報告書』, 1982. 1.

로 지속되어 왔다. 또한 製造業內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賃金水準을 보이고 있는 第1次 金屬產業과 종이 및 종이製品製造業의 경우에는 이들 產業의 賃金의 相對的位置가 1970年代를 통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製造業內에서의 賃金의 相對的位置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高賃金產業과 低賃金產業의 平均賃金의 絶對的 隔差는 1970年代를 통해서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表 8>를 통해 볼 수 있다.

특히 第1次 金屬產業은 1970年代 중반까지만 해도 매우 높은 賃金上昇勢를 보여 同產業의 平均賃金이 製造業 平均賃金의 1.5倍 이상으로 隔差가 커졌으나 1981年에는 다시 1970年代 初盤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1970年代 中盤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인 重化學工業

에서의 技能人力不足現象으로 인해 賃金水準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70年代 後盤에 들어서는 技能人力의 供給이 보다 원활하여 치고 重化學工業의 성장이 不況으로 침체됨에 따라 賃金上昇速度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賃金函數의 推定을 통한 分析

가. 1972年的 賃金函數 推定

앞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賃金函數의 推定을 통해서 產業間의 人的構成의 隔差를 調整한 후의 產業間의 賃金隔差를 알아낼 수 있었다. 여기서는 두 時點(즉, 1972年과 1980年)에서 각각 產業「더미」變數를 使用한 賃金函數

<表 9> 賃金函數 推定結果(1972)

	全 產 業					製 造 業				
	男		女			男		女		
	係 數	t-統計值	係 數	t-統計值		係 數	t-統計值	係 數	t-統計值	
常 數	-21.75		-7.86		常 數	-19.60		-4.40		
S	3.79	68.04	1.65	46.75	S	3.13	59.57	1.16	33.32	
T ₁	1.00	19.77	0.84	23.66	T ₁	0.86	15.76	0.56	16.49	
T ₂	1.78	28.01	1.40	15.13	T ₂	1.52	15.90	1.38	15.86	
T ₃	2.20	31.37	2.17	30.49	T ₃	3.47	29.68	2.52	36.32	
T ₁ ²	-0.01	-8.17	-0.02	-20.05	T ₁ ²	-0.01	-6.50	-0.01	-13.77	
T ₂ ²	-0.02	-7.48	0.01	0.78	T ₂ ²	-0.02	-4.47	-0.02	-1.80	
T ₃ ²	0.01	3.26	-0.04	-6.65	T ₃ ²	-0.08	-10.02	-0.12	-14.64	
I ₂	0.60	1.21	-0.18	-0.20	I ₃₂	-1.68	-2.93	0.59	2.72	
I ₄	16.50	15.45	19.45	7.79	I ₃₃	-4.38	-5.71	0.08	0.21	
I ₅	1.12	1.28	3.05	2.80	I ₃₄	-5.35	-7.74	3.32	7.94	
I ₆	0.31	0.31	-0.11	-0.22	I ₃₅	2.40	4.02	1.93	7.07	
I ₇	2.17	5.53	1.54	6.65	I ₃₆	-0.16	-0.23	-1.10	-2.43	
I ₈	21.12	29.88	11.87	26.19	I ₃₇	3.22	3.99	8.43	7.31	
I ₉	6.17	9.95	8.11	22.45	I ₃₈	-3.14	-5.54	1.84	6.71	
R ²	0.409		0.449		I ₃₉	-4.22	-3.82	4.29	16.34	
F	942.6		656.6		R ²	0.413		0.310		
N	19,036		11,291		F	524.4		283.5		
					N	11,212		9,466		

의推定을 통해 1970年代에 걸쳐 人的構成의 差異를 調整한 후의 產業別 賃金隔差가 어떻게 變化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表 9>에는 式(2)로 표시된 賃金函數의 1972年 資料에 의한 男女別 推定의 結果가 나타나 있다. 먼저 1972年의 推定結果에 의한 同年の 產業別 賃金構造의 特徵을 살펴보면, 男子의 경우 「더미」變數 I_4 및 I_8 의 推定係數는 각각 16.5와 21.1로서 전기·가스·수도업 및 金融保險業에서 產業間의 人的構成의 差異를 調整한 후에도 이를 두 產業의 賃金은 他產業에 비해 월등히 높다. 女性勤勞者の 경우에도 역시 I_4 및 I_8 의 「더미」變數의 推定係數가 높은 값을 보여 이를 두 產業에서의 賃金의 相對的 優位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製造業內에서의 賃金隔差를 賃金函數의 推定을 통해서 分析하여 보면, 먼저 男子勤勞者の 경우, 1972年을 기준으로 高賃金產業으로 나타나는 것은 I_{35} 와 I_{37} , 즉 石油化學工業과 第1次 金屬產業이며 低賃金產業으로는 종이, 종이製品製造 및 印刷業, 나무 및 나무製品製造業, 其他製造業등이다. 女子勤勞者の 경우에는 製造業中에서 I_{37} 과 I_{39} , 즉 第1次 金屬產業과 其他製造業이 高賃金產業으로 판명되었으며 非金屬礦物製品製造業이 低賃金產業으로 나타났다.

4. 产业間 賃金隔差의 變化

앞에서 살펴본 1972年의 賃金函數의 推定結果와 1980年의 賃金函數의 推定結果를 비교함으로써 두 時點사이에 产业間의 人的構成의 差를 調整한 후에 나타나는 产业間의 賃金隔差의 變化를 알 수 있다.

우선 大分類產業에서의 變化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男子勤勞者の 경우, 人的構成의 差를 調整하였을 때 1972年에는 전기·가스·수도업 및 金融保險業이 高賃金產業으로 나타났으나 1980年에는 建設業과 金融保險業이 高賃金產業으로 등장해 전기·가스·수도업이 實質적으로 1980年에 와서는 高賃金產業이 아닌 것으로 變化되었고 대신 建設業이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女子勤勞者の 경우에는 전기·가스·수도업과 金融保險業이 1972年에 高賃金產業으로 나타났으나 1980年에는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金融保險業, 交通運輸業이 高賃金產業으로 黑혀져 전기·가스·수도업의 产业別 賃金構造에서의 相對的 位置가 크게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製造業內에서의 产业間 賃金隔差를 1972年과 1980年의 두 時點을 비교하면, 먼저 男子勤勞者の 경우에는 1972年的 高賃金產業이었던 第1次 金屬產業과 石油化學工業 중 石油化學工業의 相對的 位置는 1980年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第1次 金屬產業대신 非金屬礦物製造業이 高賃金產業으로 등장하였음을 볼 수 있다. 女子勤勞者の 경우에는 第1次 金屬產業과 종이 및 종이製品製造業이 1972年과 1980年의 두 時點에서 계속해서 高賃金產業으로서의 位置를 유지하고 있다.

한 時點에서의 产业間의 人的構成의 差를 調整한 후의 賃金隔差의 크기는 賃金函數에 포함된 产业「더미」變數와 全體對象勤勞者の 平均賃金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表示될 수 있다.

$$D = \frac{\hat{d}_{\max} - \hat{d}_{\min}}{\bar{W}} \quad (6)$$

위에서 D : 产业間 賃金隔差度

\hat{d}_{\max} : 产业「더미」變數의 推定值中 最大

值

\hat{d}^{\min} : 產業「더미」變數의 推定值中 最小

值

\bar{W} : 對象勤勞者의 平均賃金

위의 式에서 D 의 值은 賃金函數에서 產業「더미」變數의 推定值 中 최대값과 최소값의 差를 對象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나누어 일어진 값이다. 產業間의 賃金隔差의 變化를 產業別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產業間의 人的構成의 隔差의 變化를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나 위의 D 값을 사용하면 產業間 賃金隔差의 變化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表 10>에 나타난 1972年과 1980年の D 값을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먼저 男女 모두 1980년이 1972년보다 훨씬 적은 D 값을 보여 產業間 賃金隔差의 크기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全產業에서는 D 값이 男女 모두에 있어 약 1/3로 減少하여 製造業內에서의 D 값의 變化보다 더 큰 變化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全產業에 있어서나 製造業內에서도 人的要因을 調整한 후의 產業間 賃金隔差가 男子勤勞者보다 女子勤勞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表 10> D 값의 變化

	男		女	
	1972	1980	1972	1980
全 產 業	0.644	0.209	1.441	0.567
製 造 業	0.296	0.148	0.764	0.350

V. 賃金構造의 變化要因과 展望

1. 賃金構造의 變化要因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金隔差는 1970年代를 통하여 점차 축소되었다. 本章에서는 產業別 賃金構造의 變化要因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構造가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產業間 賃金構造의 變化는 一定期間을 통한 各產業에서의 賃金上昇率의 隔差에서 결과되는 것이므로 產業間 賃金構造의 變化에 대한 檢討는 결국 各產業에서 賃金上昇이 어떻게 연유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價格理論이 產業間 賃金構造의 變化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 이러한 시사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短期的인 觀點에서 勞動需要가 상대적으로 빨리 增加하는 產業에서는 他產業에 비하여 높은 賃金上昇率을 보일 것이다. 이는 短期에서 労動供給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假定하에서 증가되는 労動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他產業보다 높은 賃金을 지불함으로써 他產業의 勤勞者의 移動을 유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一般價格理論이 短期의in 產業間 賃金構造의 變化에 시사하는 바는 各產業에서의 賃金上昇率과 雇傭增加率사이에 正의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歐美諸國의 資料를

중심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는 위의 두 變數사이에 뚜렷한 正의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²²⁾. 우리나라의 경우 1970年代를 통하여 賃金上昇率과 雇傭增加率사이의 相關係數를 推定하여 본 결과가 〈表 11〉에 제시되어 있다.

〈表 11〉에는 賃金上昇率과 雇傭增加率사이의 相關係數를 大分類 產業과 製造業內의 中分類 產業으로 각각 나누어 1973~75年, 1976~78年, 1979~80年, 세기간에 걸쳐 각각 추정하였다. 〈表 11〉의 결과에 의하면 1979~81年 사이의 製造業 中分類 產業에서의 相關係係가 負의 부호를 나타낸 것 이외에는 모두 正의 相關係係로 推定되었으나 相關係數의 크기가 작고 信賴度가 낮아 두 變數사이의 相關係係는 統計的으로 有意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²³⁾.

1970年代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雇傭增大가 급격한 賃金上昇을 초래한 예는 建設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76年の 建設業에서의 名目賃金上昇率은 87.2%로서 이는 海外建設擴大로 인한 建設業에서의 급격한 雇傭增大에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相關係數推定을 통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全產業에서나 製造業 中分類 產業의 경우 短期의으로 賃金上昇率과 雇傭增大率사이에는 높은 相關係係를 찾아 볼 수 없어 賃金上昇이 雇傭增大

〈表 11〉 賃金上昇率과 雇傭增加率의 相關係係

	產業大分類	製造業中分類
1973~75	0.1666	0.0896
1976~78	0.2471	0.4770 ¹⁾
1979~81	0.1519	-0.1424

註 : 1)는 有意水準 10%을 나타냄.

22) Reder(1962) 참조.

23) 1976~78年 사이의 製造業中分類 產業에서는 통계적으로 有意한 相關係數 +0.4701 推定되었음.

에 결대적으로 연유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한 시점에서 볼 때 各產業에서의 勞動生產性의 水準과 賃金水準사이에는 높은 相關關係가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靜態의인 관계가 動態의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즉, 生產性上昇率과 賃金上昇率사이에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檢證은 특히 賃金調整에서 生產性의 增加가 第1次의인 기준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다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두 變數사이의 相關係數를 推定함에 있어 勞動生產性增加의 測定單位로는 鎌工業調查結果에 나타난 從業員 1人當 附加價值와 生產性本部에 의해 추계·공표되고 있는 物的生產性指數를 사용하였다. 勞動生產性 增加率과 名目賃金上昇率사이의 相關係數는 製造業 中分類 9개 產業에 대해 1973~75年, 1976~78年, 1979~80년의 세期間과 1970~80年 全期間에 걸쳐 추정되었으며 그 결과가 〈表 12〉에 제시되어 있다.

〈表 12〉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製造業 中分類 產業에서 名目賃金上昇率과 從業員 1人當 附加價值生產額 增加率로 표시된 勞動生產性 增加率사이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相關關係를 찾아 내지 못하였으며 物的勞動生產性 增加率과 名目賃金增加率사이에도 뚜렷한 관

〈表 12〉 賃金上昇率과 勞動生產性上昇率의 相關係係

	從業員 1人當 附加價值額	物的勞動生產性
1973~75	0.0230	-0.2638
1976~78	-0.0187	0.8676 ¹⁾
1979~80	0.2096	-0.1776
1970~80	-0.0036	-0.1179

註 : 1) 有意水準 1%을 나타냄.

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²⁴⁾.

이론적으로 物的勞動生產性 增加率보다는 1 인당 附加價值生產額의 增加率이 賃金上昇率과 勞動生產性 增加率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推定單位일 것이다. 이는 物的勞動生產性指數의 增加가 生產品價格의 上昇으로 반영되었을 때 勞動所得으로의 配分可能額인 支拂能力의 變化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나 1人當 附加價值生產額의 變化는 支拂能力의 變化를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推定結果에서는 두 가지 指標의 사용이 相關係數推定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며 오히려 한 기간에는 物的勞動生產性指數와 名目賃金上昇率사이에 뚜렷한 正의 關係가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각產業에 있어서의 賃金上昇率隔差를 설명하는 데 있어 勞動生產性의 變化는 큰 說明力を 지니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產業間에 賃金隔差가 1970年代를 통하여 감소된 主要要因의 하나로 勞動市場의 構造의 變化를 생각할 수 있다²⁵⁾.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서 勞動力供給이 無制限的일 때 未熟練勞動者의 賃金은 生存費水準(subsistence level)에서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供給이 不足한 「화이트·칼라」職種의 賃金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經濟成長이 가속화되고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無制限의 供給이 점차 制限되고 국민의 전반적인 教育水準向上으로 상대적으로 희귀직종이었던

「화이트·칼라」職種의 供給이 점차擴大됨으로 미숙련노동자와 「화이트·칼라」職種의 賃金隔差는 점차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숙련노동자의 比重이 높은 製造業과 「화이트·칼라」職種의 比重이 높은 金融保險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등의 高賃金產業과의 賃金隔差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또한 製造業內部에서도 經濟成長에 따른 產業構造의 高度化로 숙련노동자의 比重이 높아감에 따라 製造業과 他產業의 賃金隔差가 점차 완화될 것이다. <表 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職種別 賃金隔差變化를 1970年代를 통하여 볼 때 1970年代 중반을 기점으로 隔差가 크게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1970年代를 통한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

<表 13> 職種間 賃金隔差變化

	1971	1975	1981
專門技術職	235.3	256.6	210.5
行政管理職	354.3	451.2	342.7
事務職	198.3	200.7	148.0
生産職	100	100	100

資料：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2.

<表 14> 規模別 賃金隔差變化

	1975	1977	1979	1980
男 子				
10~ 29	72.5	72.2	81.1	83.8
30~ 99	83.2	83.9	84.7	87.3
100~499	89.4	92.8	91.6	95.7
500 以上	100.0	100.0	100.0	100.0
女 子				
10~ 29	91.5	99.7	105.8	103.1
30~ 99	99.8	103.9	106.8	102.1
100~499	87.5	91.9	95.2	97.1
500 以上	100.0	100.0	100.0	100.0

資料：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各年度.

24) 단, 1976~78년의 기간에 賃金上昇率과 勞動生產性 增加率사이에 높은 相關係數가 나타났음.

25) 韓國勞動市場의 構造의 變化에 대하여는 裴茂基(1982) 참조.

金隔差의 縮少現象에는 勞動市場에서의 職種間 供給構造의 變化, 즉, 未熟練勞動者의 相對的 供給制限과 高等教育履修者の 供給擴大를 통한 職種間의 賃金隔差 緩和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產業間 賃金隔差가 1970年代를 통하여 축소되어온 현상은 企業規模別 賃金隔差의 緩和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²⁶⁾. 1970年代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企業規模別 賃金隔差는 조금씩 감소하였음을 <表 14>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企業規模別 賃金隔差가 점차 축소된 배경은 1970年代를 통해 勞動力의 需要가 급격히 增大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低賃金을 지불하고 있는 中小企業에서 必要人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賃金水準을 상대적으로 向上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企業規模別 賃金隔差가 점차 축소함에 따라 大企業이 主宗을 이루는 產業과 中小企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產業間에 賃金隔差도 縮少되는 결과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앞으로의 展望

1979年の 日本의 產業別 賃金隔差를 살펴보면, 日本의 경우에도 金融保險業이나 전기·가스·수도업등이 다른 產業에 비해 높은 賃金水準을 보이고 있으나 製造業의 賃金을 100으로 할 때의 이들 두 產業의 賃金水準은 142와 133으로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金隔差가 外國

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²⁷⁾.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金隔差가 외국에 비해 큰 폭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產業間의 賃金隔差의 縮少는 所得分配의 改善을 위해서 또는 低所得勤勞者의 生活改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목표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隔差의 變化를 展望함에 있어 먼저 經濟理論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여 보자.

競爭的 市場에서 產業間 賃金構造의 長期的 인 變化는 產業間 賃金構造의 長期的 均衡狀態, 즉, 各產業의 賃金水準이 產業間의 生產性, 支拂能力등의 特性에 구애받지 않고, 各產業에서의 勤勞者의 人的構成 또는 技術水準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에로의 접근을 의미한다. 따라서 長期的으로 各產業에서의 勤勞者的 人的屬性이나 技術水準의 隔差가 產業間에 長期間을 통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低賃金產業에서 高賃金產業에로의 產業間 勞動移動을 통하여 產業間의 賃金隔差가 점차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長期間의 經濟成長을 통해 教育機會가 擴大되고 勞動市場이 安定되면서 各產業에 있어서 學歷·經歷·技術水準등의 人的屬性의 隔差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作用 즉, 競爭市場의 勞動移動으로 인한 產業間의 賃金水準調整과 產業間 人的屬性隔差의 감소가 長期的 인 관점에서 產業間 賃金隔差를 감소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勞動市場의 構造的 變化가 產業間 賃金構造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에서 1970年代 중반을 기점으로 無制限의 勞動供給

26) 우리나라의 企業規模別 賃金隔差는 摘稿(1981) 참조.

27) 1979년 日本의 『勞働統計年鑑』에 의하면 製造業을 100으로 할 때 각 產業의 賃金水準은, 鎌業 116.3, 建設業 103.3, 小賣業 99.5, 金融保險業 133.5, 不動產業 118.1, 運輸通信業 117.4, 電氣·가스·水道業 141.7, 서비스업 120.3으로 나타남.

에서 勞動力不足狀態로 점차 構造的인 變化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賃金隔差가 여려側面에서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勞動市場의 構造的 變化的 分歧點인 1950年代末을 전후에서 賃金隔差가 계속해서 감소되어 왔다²⁸⁾.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이 어느정도로 유지될 것인가에 따라 勞動市場의 需給狀態는 변할 것이며 또한 長期的인 관점에서 技術革新이 勞動需要에 미칠 영향도 우리나라 勞動市場에서의 構造的 變화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農業部門에서 勞動人力의 老齡化·女性化로 農業部門이 미숙련노동력의 供給源으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기는 어렵고 또한 離農勞動力を 중심으로 하는 都市傳統部門의 많은 労動力은 年齡·經歷등의 人的要件을 감안할 때 近代部門으로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勞動市場의 構造的 變化가 現狀態대로 진행된다면 전반적인 賃金隔差의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세째로, 勞動市場의 制度的인 側面에서 볼 때 최근 몇년동안의 賃金調整에 있어서 賃金隔差 緩和가 중요한 賃金政策課題로 등장하고 있어 下厚上薄型 賃金調整方式을 통해 企業內에서의 賃金構造가 變化되고 있을 뿐 아니라 低賃金產業에 대한 賃金改善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現段階에서는 最低賃金制가 獨立法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行政指導를 통

한 低賃金產業에서의 賃金改善努力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產業間의 賃金隔差가 점차 緩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우기 最低賃金制가 실시되면 현재의 行政指導보다는 法的拘束力이 크므로 賃金隔差의 緩和가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勞動組合活性化를 통한 交涉力增大가 勞使關係에 대한 長期的인 方向에서 본다면 이 또한 產業間 賃金隔差緩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外國의 경験에서 勞動組合의 勢力이 확대됨에 따라 低賃金產業의 賃金改善와 전반적인 賃金隔差緩和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고²⁹⁾ 이에 따라 產業間 賃金隔差가 점차 緩和될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勞動組合의 活動이 보다 擴大되고 賃金交涉에서 보다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되면 產業間 賃金隔差를 위시한 각종 賃金隔差緩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諸般與件을 감안할 때 長期적으로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隔差는 점차 緩和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自然의인 趨勢에 부가하여 最低賃金制가 어느 형태로든 實施된다면 產業間 賃金隔差의 감소추세가 보다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VI. 要約 및 結論

本研究에서는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隔差의 實態와 變化過程을 序論에서 提示된 몇 가지 課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本研究를 통해 나타난 主要 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28) 日本의 賃金構造變化에 대하여는 Taira(1971) 참조.

29) 勞動組合의 勢力擴大를 위해 정책적으로 미숙련 저임금노동자 보호가 매우 유효한 구호로 사용될 수 있음을. Evans(1971) 참조.

첫째, 賃金函數의 推定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金隔差를 產業間의 人的屬性의 隔差를 조정하고 볼 때 平均賃金의 產業間 比較를 통해 나타나는 產業間 隔差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대부분의 產業을 중심으로 볼 때 平均賃金이 높은 金融保險業 建設業 등에서는 산업간 인적속성을 조정한 후에도 높은 賃金이 支拂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電氣·가스·水道業의 경우에는 오히려 人的屬性을 감안할 때는 低賃金으로 나타난다. 製造業中分類產業에서 볼 때에도 平均賃金이 가장 높은 第1次 金屬產業과 食·飲料品產業이 人的屬性을 조정한 후에는 石油化學產業 및 非金屬礦物製品製造業보다 낮은 賃金水準을 보이고 있음을 보았다.

둘째, 우리나라의 製造業에 있어 各產業의 賃金水準과 勞動生產性 사이에는 높은 相關關係가 있음을 보았다. 또한 企業集中度가 높은 產業에서의 賃金水準이 企業集中度가 낮은 產業의 賃金水準보다 크게 높아 各產業의 商品市場構造가 賃金水準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產業別 賃金水準을 從屬變數로, 各產業의 人的屬性 및 勞動生產性, 純利益, 勞動裝備率 등을 獨立變數로 하는 回歸方程式을 推定하여 볼 때, 產業別 賃金隔差의 약 절반가량이 各產業의 人的屬性의 特性의 變화에 의해 설명되며 나머지가 生產性 純利益 등의 產業的 特性의 變化에 의해 설명됨을 보았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隔差는 1970年代를 통해서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보았다. 高賃金產業으로 일컫는 金融保險業과 電氣·가스·水道事業의 70年代를 통한 賃金上昇幅은 他產業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으며 社

會 및 個人서비스業의 賃金上昇幅이 他產業에 비해 높아 새로이 高賃金產業으로 부각되고 있다. 製造業內에서 볼 때에도 產業間의 賃金隔差는 1970年代를 통해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產業間의 賃金隔差가 1970年代를 통하여 점차 減少하는 가운데에도 產業間의 賃金의 順位는 매우 安定的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네째로, 各產業에서의 賃金上昇과 雇傭變化의 相關關係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1970年代를 통해서 各產業에서의 勞動需要增加가 短期的으로 賃金上昇과 뚜렷한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一般價格理論에서 시사하는 바로는 短期的으로 產業間의 賃金變化와 雇傭變化사이에 正의 關係가 나타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正의 관계는 大分類產業에서나 製造業내에서 뚜렷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또한 各產業에서의 生產性增加率과 賃金上昇率사이에도 뚜렷한 正의 關係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各產業내에서의 勞動生產性의增加나 雇傭增加가 各產業에서의 賃金上昇率과는 밀접한 關係를 지니지 못함에 비추어 1970年代를 통한 우리나라의 賃金變化는 新古典學派에 입각한 賃金理論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겠다.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1970年代의 產業別 賃金隔差의 減少現象은 勞動市場의 構造의 變化 즉, 無制限的 勞動供給狀態에서 勞動力不足 狀態로 移轉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職種間, 특히 生產職과 「화이트·칼라」職種사이의 賃金隔差의 減少,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賃金隔差의 減少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構造를 展望할 때 產業間 人的屬性의 隔差가 점차 減少

되고,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은 勞動市場의 構造的 變化가 계속 進行됨에 따라 長期的으로 우리나라의 產業間 賃金隔差는 점차 減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아직도 우리나라의 產業別 賃金

隔差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低賃金產業에 대한 賃金規制 또는 最低賃金制의 實施는 이러한 長期的인 賃金隔差緩和趨勢를 보다 加速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19, 1978.
- 金湜岡, 「勞動生產性과 賃金構造」, 『大韓產業工學會誌』, Vol. 3, No. 1, 1977.
- 朴烜求, 「企業規模別 賃金隔差分析」, 『韓國開發研究』, 第 3 卷 第 3 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 裴茂基, 「韓國勞動經濟의 構造變化」, 『韓國經濟의 構造變化』,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82.
- 李奎億, 『韓國 製造業의 產業集中分析』,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書, 1982.
- 經濟企劃院, 『礦工業實態調查報告書』, 各年度.
- _____, 『主要業務指標』, 1982.
- 勞動部, 『勞動統計年鑑』, 各年度.
- _____,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各年度.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 日本法政大學 大原社會問題研究所, 『日本勞動年鑑』, 勞動旬報社, 1981.
- Cullen, Donald E., "The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1899~1950",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56.
- Dunlop, John T., ed., *The Theory of Wage Determination*, London: Macmillan, 1964.
- Eckstein, Otto, and Thomas A. Wilson,
- "The Determinants of Money Wages in American Indus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50.
- Evans, Jr. Robert, *The Labor Economics of Japan and the U.S.*, New York: Praeger, 1971.
- Haworth, Charles T., and Pavid W. Rasmussen, "Human Capital and Inter-Industry Wages in Manufactur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71.
- Kim, Hwang Joe, "Changes in Industrial Wages and Employment", 『勞動經濟論集』, 1977.
- _____, "Determinants of Interindustry Wage Structur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延世論叢』第13輯, 1976.
- Levinson, Harold M., "Unionism, Concentration, and Wage Changes: Toward a Unified Theor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Jan. 1967.
- Lutz, Mark A., "Quit Rates and The Quality of Industrial Wage Structure", *Industrial Relations*, Feb. 1977.
- Mincer, Jacob,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NBER, 1974.
- Reder, Melvin, "Wage Differential: Theory and Measurement",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Segal, Martin, "The Relation between Union Wage Impact and Market Structu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64.

Slichter, Sumner, "Notes on the structure of Wage", *The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Feb. 1950.

Taira, Koji,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Labor Market in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Weiss, Leonard, "Concentration and Labor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6.

高等教育擴大가 労動市場에 미치는 影響(Ⅱ)

朴 世 邇

▷ 目 次 ◁

- I. 序
- II. 教育市場과 労動市場과의 關係
- III. 労動市場行態에 대한 假說
- IV. 職種別 教育一生產性函數
- V. 學歷인플레와 教育需要
- VI. 60年代, 70年代의 變化分析
- VII. 向後 20年間의 展望과 問題點
- VIII. 要約 및 政策方向

V. 60年代, 70年代의 變化分析

本章에서는 1960年代와 70年代 우리나라 學歷別 労動市場의 變化——勞動市場의 諸指標의 變化——를 관찰함으로써 同期間中 우리나라 學歷別 勞動力의 需要와 供給狀況이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가를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첫째, 同期間中 職種의 學歷構成의 變化,

둘째, 學歷別 相對賃金率의 變化, 세째, 各學歷內 賃金不平等度의 變化를 관찰하려 한다. 이러한 労動市場의 諸指標의 變化를 分析함으로써 우리는 同期間中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 變化가 어떠하였고 그것이 労動市場에 어떠한 結果를 招來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分析過程은 한편으로는 本稿가 第Ⅲ章, 第Ⅳ章에서 제시한 労動市場行態에 대한 假說의妥當性을 우리의 理實 속에 檢證해 보는意義도 내포되어 있다.

1. 職種의 學歷構成의 變化

가. 1960~70年間의 變化

앞의 第Ⅳ章에서 労動市場은 需給變化에 대하여 短期내지 中期까지는 採用 및 升進基準의 上下移動을 통한 量的調整(quantity adjustment)을 함을 밝혔다. 學歷別 労動市場에서 이 量的調整을 나타내는 指標는 곧 職種別 學歷構成의 變化일 것이고, 이 變化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學歷別人力의 需給變化를 分析할

筆者：韓國開發研究院 副研究委員

*本稿의 I ~ V章은 第1部로서 本誌 第4卷 第4號에掲載되었음。

수 있다. 이 職種의 學歷構成의 變化를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分解法(decomposition method)을 使用하기로 하자.

$$\begin{aligned}\Delta L &\equiv L_{70} - L_{60} = \sum_i \sum_j E_{70}^{ij} S_{70}^{ij} - \sum_i \sum_j E_{60}^{ij} S_{60}^{ij} \\ &= \sum_i \sum_j [S_{60}^{ij} (E_{70}^j - E_{60}^j) + (S_{70}^{ij} - S_{60}^{ij}) E_{60}^j + (S_{70}^{ij} - S_{60}^{ij}) (E_{70}^j - E_{60}^j)]\end{aligned}$$

이는 1960~70年間의 總就業者數의 變化($L_{70} - L_{60}$)를 分解한 것으로 여기서

E_{60}^j, E_{70}^j : 60年과 70年 각各 j th職種의 總就業者數

S_{60}^{ij}, S_{70}^{ij} : 60年과 70年 각各 i th 教育을 받은 사람들이 j th職種의 總就業者數에서 차지하는 比重(比重)

을 意味한다. 따라서 각項의 意味를 보면

$\sum_i \sum_j S_{60}^{ij} (E_{70}^j - E_{60}^j)$ 은 職種別 學歷構成(比重)이 同期間中 不變인 경우의 各學歷別 勞動需要의 增加分을 意味한다. 換言하면 產業化過程이 進展됨에 따라 就業構造가 高度化 되어 上位職種의 增加가 下位職種의 增加보다 빠르게 될 것인 바 이와 같은 職種間伸張率의 差異을 反映하여 特定職種의 增加率과 같은 速

度로 特定職種內 各學歷別 人員이 增加했을 경우(이는 結국 職種別 學歷構成의 不變을 意味한다) 各學歷別 勞動需要의 增加分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는 就業構造의 變化分이라 할 수 있다.

$\sum_i \sum_j (S_{70}^{ij} - S_{60}^{ij}) E_{60}^j$ 은 60年의 各職種別 就業者數를 基準으로 하여 그 以後 各職種別 學歷構成의 變化로 因해 생긴 就業者의 增加分만을 意味하고 $\sum_i \sum_j (S_{70}^{ij} - S_{60}^{ij}) (E_{70}^j - E_{60}^j)$ 은 一종의 相互作用項이 된다. 여기서相互作用分의 存在를 無視하면 $L_{70} - L_{60} - \sum_i \sum_j S_{60}^{ij} (E_{70}^j - E_{60}^j)$, 즉, 60年과 70年 사이의 總就業者數의 變化에서 순수한 就業構造의 變化分을 뺀 部을 우리는 職種別 學歷構成 變化分이라 부를 수 있다.

이 學歷構成變化分은 그 發生原因을 보면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職種의 高級化 · 高度化 傾向이다. 產業化에 따른 技術革新, 職務內容의 高級化 등으로 말미암아 各職種의 質的 變化가 일어나고 그 결과同一職種일지라도 과거보다 高級人力을 더 需要하게 된다. 예컨대 같은 事務職이라 할지라도 職務處理能力의 提高를 위해 業務의 電算

〈表 1〉 學歷別, 職種別 就業者數變化의 分解(1960~70)

	大卒者	中高卒者			(단위: 千名)		
		1960~70 大卒者實際 增加分	就業構造變 化分(學歷 構成不變時 需要增加分)	學歷構成變 化分(學歷 의 職種間 移動分)	1960~70 中高卒者 實際增加分	就業構造 變化分	學歷構成 變化分
專門・技術		124.0	52.5	71.5	32.5	84.5	-52.0
行政・管理		28.1	0.67	27.4	9.9	2.2	7.7
事務職	事務職	151.1	81.2	69.7	242.9	238.1	4.8
販賣職	販賣職	60.9	10.5	50.4	296.4	89.3	207.1
服務職	服務職	10.1	10.2	-0.06	135.0	67.8	67.2
農業職	農業職	8.6	2.3	6.3	283.4	35.7	247.7
生產職	生產職	55.2	13.7	41.5	706.0	235.2	470.8
合計	合計	437.81	171.07	266.74	1,706.1	752.8	953.3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1960, 1970에 서 計算.

化 등이 소개되면 過去보다 보다 높은 高學歷者를 需要하게 되므로, 이로 因해 發生하는 職種의 學歷構成變化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學歷別 人力의 需給變化로 發生하는 學歷의 職種間 上下方移動(filtering up or down)을 들 수 있다. 예컨대 大卒者の 供給이 需要에 比하여 過剩하여 過去에는 高卒者の 職種이었던 곳에 大卒者가 下方移動하는 경우 即 學歷 인플레이션 한 職種의 學歷構成變化를 생각할 수 있다. 勞動力의 需給變化에 대하여 勞動市場이 量的調整을 함으로써 發生되는 學歷構成變化를 意味한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간단히 整理하면, 一定期間의 就業者의 變化는 大別하여 就業構造의 變化分과 職種內 學歷構成의 變化分으로 나눌 수 있으며 後者는 다시 職務高度化分과 需給

調節을 위한 學歷의 職種移動分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分解法은 就業者의 變化를 就業構造의 變化分과 學歷構成 變化分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以上的 分解는 不可能하다. 本稿에서는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變化를 보는 것이 主目的이므로 여기서는 學歷構成 變化分을 그대로 需給調節을 위한 職種移動分을 나타내는 代理值(first approximation)로서 使用하기로 한다.

위의 分解法을 利用하여 1960~70年間 學歷別, 職種別 就業者數의 變化를 分解한 結果를 <表1>에 整理하였다. <表1>을 보면 1960~70年間 約 43.8萬名의 大卒就業者 增加分中 約 70%에 해당하는 30.3萬名이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 및 事務職種에 취업할 수 있었고 나머지 30%가 販賣·서비스·農業 및 生產職

<表 2> 學歷別 勞動市場 新規流入勞動力(1970~80)

(단위 : 千名)

	中 學		高 等 等		2 年 制		4 年 制		大 學 院		高等 教育 機關 計	
	卒業者	流入 勞動力	卒業者	流入 勞動力	卒業者	流入 勞動力	卒業者	流入 勞動力	卒業者	流入 勞動力	卒業者	流入 勞動力
1970	312.8	72.5	145.1	75.0	11.6	8.6	23.5	17.6	2.2	1.6	37.3	27.8
1971	364.2	86.4	173.9	88.2	10.7	8.1	27.2	20.3	2.0	1.6	39.9	30.0
1972	427.2	118.9	183.6	92.1	11.8	8.9	29.5	21.8	2.3	1.7	43.6	32.4
1973	467.7	115.6	205.6	104.5	13.6	10.0	28.8	21.4	2.5	1.9	44.9	33.3
1974	554.4	131.3	234.8	122.1	16.3	11.9	30.2	22.1	2.9	2.1	49.4	36.1
1975	568.6	111.5	263.3	138.1	19.7	13.9	33.6	24.6	3.5	2.6	56.8	41.1
1976	629.6	119.5	310.1	167.2	23.4	15.9	34.7	25.5	4.2	3.1	62.3	44.5
1977	651.1	116.8	367.3	204.0	26.3	17.7	37.4	27.3	4.7	3.5	68.4	48.5
1978	675.3	108.1	400.5	220.8	33.0	20.7	41.7	30.2	5.0	3.7	79.7	54.6
1979	732.0	107.7	439.8	230.4	41.2	27.4	45.4	32.3	3.9	2.8	90.5	62.5
1980	741.6	89.1	467.4	240.5	54.0	33.3	49.7	34.2	5.6	3.9	109.3	71.4
1970~75計	2,694.9	636.2	1,206.3	620.0	83.7	61.4	172.8	127.8	15.4	11.5	271.9	200.7
1976~80計	3,429.6	541.2	1,985.1	1,062.9	177.9	115.0	208.9	149.5	23.4	17.0	410.2	281.5
1970~80計 年平均增加率 (%)	6,124.5	1,177.4	3,191.4	1,682.9	261.6	176.4	381.9	277.3	38.8	28.5	682.1	482.2
1970~75	12.7	9.0	12.7	13.0	11.2	10.1	7.4	6.9	9.7	10.2	8.8	8.1
1976~80	5.6	-4.4	12.2	11.7	22.3	19.1	8.1	6.8	9.9	8.4	14.0	11.7
1970~80	9.0	2.1	12.4	12.4	16.6	14.5	7.8	6.9	9.8	9.3	11.4	9.9

資料：文教部, 『文教統計年報』, 各年度, 流入勞動力推計는 <附表 1> 參照.

에 흡수되었다. 이를 下位職種에 흡수된 大卒者 13.4萬名中 이들 職種의 學歷構成 變化分 인 約 9.8萬名을 소위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差로 인해 發生된 職種下方移動分으로 본다면 이는 同期間 全大卒者就業者 變化分中 約 22.4 %에 달하는 셈이 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下位職種自體의 職務內容의 高級化傾向으로 생기는 大卒者 需要增加를 감안하지 아니했으므로 약간 過大評價되었을 것이나 그 크기는 크지 아니할 것이라도 이 점을 감안하여도 대략 同期間中 大卒者 5~6人中 1人은 大卒者의 需要에 비해 供給이 초과되어 發生한 下位職種 移動分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中高卒就業者の 경우를 보면 同期間中 約 170.6萬의 增加分中 過半數인 58% (98.9萬名) 가 農業과 生產職에 흡수되었다. 또한 就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職種의 學歷構成 不變을前提할 때)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 事務職에도 1960~70年中 約 32.5萬의 中高卒就業者の 增加가豫想되었으나 實際增加分은 28.5萬에 그쳤고 그 反面에 販賣職, 서비스職, 農業, 生產職에는 本來 職種의 學歷構成不變을前提할 때 約 42.8萬名의 中高卒就業者の 增

加가豫想되었으나 實際로는 142.1萬名이 增加하여 約 99.3萬名 정도가 이를 職種에 追加 移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60年代의 學歷인플레傾向(過剩供給)은 大卒者の 경우에도 명백히 나타나나 그리 커다고 할 수는 없고, 中高卒者の 경우는 비록 職種自體의 高級化로 인한 職種移動을 감안하여도 學歷인플레로 인한 職種의 下方移動이 甚大했음을 알 수 있다.

나. 1970~80年間의 變化

〈表2〉를 보면 中學卒業者は 1970~80年 全期間을 통하여 年平均 約 9%씩 증가하여 왔으나 이들의 上級學校 進學率의 提高로 인하여 勞動市場에 流入되는 中卒勞動力은 年平均 約 2%씩 밖에 增加해 오지 않은 셈이었다. 그것도 70年代 後半期에는 流入勞動力의 絶對水準이 지속적으로 減少하고 있는 實情이다. 요즈음 특히 地方의 中小企業에서 나타나고 있는 中卒女子의 不足現象은 70年代 後半에 中卒勞動力의 年平均 4.4%씩 감소해 오고 있는 경향을反映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高等學校 卒業者の 경우를 보면 70年代 全期間을 통하여 年平均 12% 以上的 빠른 增加

〈表 3〉 職種別 就業者數의 變化 (1970, 1975, 1980)

(단위 : 千名)

	專門技術	行政管理	事務	販賣	서비스	農業	生產職	計
1970	322.8	95.8	593.5	1,028.1	678.6	5,148.0	2,197.8	10,064.6
1975	417.4	102.3	844.2	1,317.1	815.8	6,190.0	2,890.7	12,577.5
1980	580.9	133.6	1,203.2	1,531.1	894.6	4,768.4	3,569.7	12,681.5
1970~75差	94.6	6.5	250.7	289.0	137.2	1,042.0	692.9	2,512.9
1975~80差	163.5	31.3	359.0	214.0	78.8	-1,421.6	679.0	104.0
1970~80差 年平均增加率(%)	258.1	37.8	609.7	503.0	216.0	-379.6	1,371.9	2,616.9
1970~75	5.3	1.3	7.3	5.1	3.8	3.8	5.6	4.6
1975~80	6.8	5.5	7.3	3.1	1.9	-5.1	4.3	0.2
1970~80	6.1	3.4	7.3	4.1	2.8	-0.8	5.0	2.3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各年度.

推勢를 보여 왔으며 1978年以後 大學進學率이 높아져 流入勞動力의 증가가 약간 鈍化되는 傾向도 보이기는 하나 全般的으로 70年代高卒者勞動力의 供給은 急成長했음을 알 수 있다. 70年代 前半期에는 勞動市場에 年平均 約10萬名씩 供給되던 高卒者가 70年代 後半期에는 年平均 約21萬名씩 供給된 셈이 된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大卒者의 경우 특히 4年制大學의 경우 入學定員의 非彈力的 運用으로 인하여 1970~80年間 追加供給勞動力은 年平均一高卒者의 12.4%에 比하여 훨씬 낮은—6.9%씩밖에 伸張하지 못했다. 그러나 2年制大學의 경우는 特히 70年代 後半期부터 急成長하여 勞動市場流入量이 1975年 1.4萬名 水準에서 1980年의 3.3萬名 水準으로 확대되었으며 伸張率도 1975~80年間 年平均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大學院卒業者の 경우도 2年制大學보다 그 成長率은 낮으나 4年制大學보다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오고 있음은 特記할 사실이다.

1970~80年間 中卒者는 約118萬名, 高卒者는 約168萬名, 4年制大卒者는 約28萬名, 2年

制大卒者는 約18萬名, 大學院은 約3萬名 程度의 新規勞動力이 同期間中 우리나라 勞動市場에 供給된 셈이고 이를 70年代 後半期에 局限해서 보면 中卒者는 每年 約10萬名, 高卒者는 每年 約21萬名, 2年制大卒者는 每年 約2萬名, 4年制大卒者는 每年 約3萬名, 大學院卒業者は 每年 約3~4千名씩 供給되어온 셈이다.

<表3>에서 勞動需要의 側面을 보면, 1970~75年間 大卒者의 傳統的 就業職種인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은 約10.1萬名程度 증가하였고 事務職까지 포함하면 約35.2萬名程度가 增加한 反面, 同期間中 2年制 및 大學院을 包含한 大卒者의 勞動供給量은 <表2>에서 본 바와 같이 約20萬名에 그치고 있어 大卒者의 경우 약간의 供給不足現象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1975~80年間을 보면 上位職種의 增加率이 빨라져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은 約19.5萬名, 事務職까지 포함하면 55.5萬名의 需要增加가 있었으나 同期間中 大卒者(高等教育機關)供給은 <表2>에서 본 바와 같이 約28萬名線에 그치고 있었으므로 70年代 後半에도 大卒者供給不足은 더욱 深化되어 가는 樣相을

<表 4> 學歷別, 職種別 就業者數 變化의 分解 (1970~80)

	<大卒者> ¹⁾		<中高卒者>		(단위 : 千名)	
	1970~80 大卒者實際 增加分	就業構造變 化分 (學歷 構成不變時 需要增加分)	學歷構成 變化分 (學歷의 職 種間移動分)	1970~80 中高卒者 實際增加分	就業構造 變化分	學歷構成 變化分
專門・技術	215.8	143.4	72.4	48.8	97.3	-48.5
行政・管理	36.0	15.1	20.9	9.8	17.0	-7.2
事務職	96.3	192.3	-96.0	518.9	358.2	160.7
販賣職	31.2	36.4	-5.2	448.9	200.9	248.0
サービス	6.5	8.3	-1.8	234.0	76.4	157.3
農業	-3.4	-2.1	-1.3	326.0	-43.6	369.6
生產職	14.8	40.7	-25.9	1,239.6	547.9	691.9
計	397.2	434.1	-36.9	2,825.9	1,254.1	1,571.8

註 : 1) 大卒者는 2年制, 4年制, 大學院卒業者를 意味,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書』, 1970, 1980에서 計算.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大卒者 특히 4年制大卒者의 供給增加가 入學定員에 뛰어 비교적 완만했었다는 사실과 그것도 70年代 後半에 이르러 大學院進學率이 急速히 높아지면서 4年制大卒者의 勞動市場流入率이 약간 鈍化되는 傾向을 보였다는 사실에 供給側 原因이 있었다 할 수 있다, 需要側面에서 보면 1976~78年間 우리 經濟가 年平均 GNP 成長率 約 12% 以上의 高度成長을 경험하게 됨에 따른 上位職種의 需要增大가 大卒者의 供給不足을 더욱 심각하게 하였던 것이다.

보다 자세히 이 問題를 分析하기 위하여 앞에서 提示한 分解法을 利用하여 1970~80年間의 學歷別, 職種別 就業者의 變化를 分析하여 그 結果를 <表4>에 要約하였다.

<表4>를 보면 우선 大卒者의 경우 1970~80年間 大卒就業者 增加分 40萬名中에서 約87.6%에 해당하는 35萬餘名이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 및 事務職에 就業할 수 있었다. 이는 <表1>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1960~70年間에는 大卒者就業者의 69.2%만이 위의 3個上位職種에 就業되었던 것과 對比하여 보면 1970~80年間은 需要對比 大卒者供給이 1960~70年間에 비해 완만했던 것을 보여 준다. 또한 <表4>에서 學歷構成變化分을 보면 上位職인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에서는 大卒者比重이 크게 上升했으나 販賣職, 서비스職, 生產職等뿐아니라 事務職에서도 大卒者比重이一律적으로 下落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가 곧 同期間中 大卒者의 供給이 不足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中高卒者의 경우를 보면, 1970~80年間 中高卒就業者 增加分 282.6萬名中에서 約55.4%가 生產職과 農業職에서 就業機會를

發見한 것으로 나타났다. 專門技術職과 行政管理職의 경우에는 就業構造의 變化(高度化)를 감안한 需要豫想分보다 오히려 5.6萬名程度 적은 高卒者만이 就業된 反面, 서비스職, 農業職, 生產職등에는 就業構造의 變化를 감안한 需要豫想分보다 훨씬 많은 즉, 約122萬名程度가 이를 下位職에 就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同期間동안 職種別 中高卒者의 構成比는 下位職에서는 크게 增加하고 上位職에서는 下落하였으나 이는 곧 中高卒者들의 職種의 下方移動, 換言하면 1970~80年間 中高卒者 供給이 相對的 過剩이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1970~80年間에는 中高卒者는 學歷인플레, 大卒者의 경우에는 學歷디플레現象이 있었다고 要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職種의 學歷別構成의 變化를 中心으로 過去20年間의 學歷別 人力의 需給變化를 分析하여 왔으나 이 需給變化를 관찰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重要한 勞動市場指標가 學歷別 相對賃金率의 變化라 하겠다. 이제 이에 대한 分析으로 넘어가자.

2. 學歷別 相對賃金率의 變化

學歷別 相對賃金率은 두 가지 種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學歷間의 平均賃金을 比較하는 相對賃金率, 예컨대 大卒者平均賃金 對 高卒者平均賃金이 있고, 둘째는 特定學歷의 平均賃金과 全勤勞者平均賃金과를 對比하는 相對賃金率, 예컨대 大卒者平均賃金 對 全勤勞者平均賃金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第N章에서 勞動市場의 行態分析과 관련하여 이를 相對賃金率의 變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理論的 推論을 하였다.

〈表 5〉 大卒者の相對賃金率의 變化 (1971~81)

	4 年制大卒 全勤勞者	2 年制大學 全勤勞者	全大學 全勤勞者	4 年制大學 高		2 年制大學 高		全大學 本 高	標準事業體 數	調查基準 期	標準「三計」印
				高	本	高	本				
1971			2.1639					1.7721	2.014	71. 4. 1~4. 30	70년事業體 경과에 서標本事業體 勞動實態報告書
1972			2.2906					1.8470	3.549	72. 4. 1~4. 30	71年事業體 경과에 서標本事業體 勞動實態報告書
1973			2.2676					1.8723	2.847	73. 4. 1~4. 30	(76-8-10人 이상) 上 同
1974	2.3430	1.6171	2.2137	2.0243	1.3972	1.9126	2.862	74. 4. 1~4. 30			同
1975	2.5726	1.6343	2.4262	2.1439	1.3620	2.022	1.7108	75. 4. 1~4. 30			同
1976	2.6121	1.6523	2.4632	2.2966	1.4527	2.1656	2.726	76. 3. 1~3. 31			71年事業體 경과에 서標本事業體 勞動實態報告書
1977	2.6489	1.6945	2.4817	2.3044	1.4742	2.1590	3.347	77. 3. 1~3. 31			(76-8-10人 이상) 上 同
1978	2.5928	1.6755	2.4298	2.3097	1.4925	2.1645	3.347	78. 3. 1~3. 31			71年事業體 경과에 서標本抽出 勞動實態報告書
1979	2.4857	1.5963	2.3123	2.3069	1.4759	2.1460	3.347	79. 3. 1~3. 31			71年事業體 경과에 서標本抽出 勞動實態報告書
1980	2.3870	1.5291	2.2118	2.2845	1.4634	2.1169	3.865	80. 3. 1~3. 31			78년事業體 경과에 서標本抽出 勞動實態報告書
1981	2.3447	1.4934	2.1706	2.2496	1.4329	2.0826	3.865	81. 3. 1~3. 31			78년사업체 경과에 서標本抽出 勞動實態報告書
1972~74平均									1.8773		
1977~79平均									2.1565		

註：全大學은 2年制大學 以上을 91%입니다.
資料：勞動部, 「職種別賃金眞態調査報告書」, 各年度.

첫째, 勞動需給의 變化에 대하여 價格調整이 먼저 일어난다면 特定學歷者의 供給過剩은 學歷間 相對賃金率의 下落, 供給不足은 이의 上昇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그러나 勞動需給變化에 대하여 量的調整이 먼저 일어난다면 特定學歷者의 供給過剩은 그들의 下位職으로의 移動, 供給不足은 上位職으로의 移動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學歷間相對賃金率의 變化는 어느 方向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一律의 方式로 推論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隣接職種間의 賃金隔差가 上位職으로 갈수록 크다는一般的인 경우를前提한다면 위의 경우, 즉 特定學歷者의 供給過剩은 이들의 學歷間 相對賃金率을 낮출 것이다.

세째, 위와 같은 量的調整이前提되는 경우, 需給狀況의 變化를 보기 위해서는 特定學歷平均賃金과 全勤勞者平均賃金과를 對比하는 相對賃金率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보다妥當하다. 즉, 供給過剩인 경우는 職種構成의 下方移動을 통하여 全勤勞者平均賃金과 對比한

相對賃金率이 반드시 下落할 것이고 供給不足의 경우에는 職種構成의 上方移動을 통하여 이 相對賃金率이 반드시 上昇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1970~80年間 이들 學歷別 相對 賃金率의 變化를 보자.

본래 勞動部의 職種別賃金實態調查는 몇 차례의 標本「프레임」의 變化가 있었는데 1972~74年間과 1977~79年間은同一標本「프레임」을 使用했으므로 1970年代를 前後期로 나누어 長期的 傾向을 比較하는 데는 이 두期間 사이의 變化를 보는것이 合當하다 하겠다. 〈表5〉에서 이 두기간 동안의 全大卒(2年制大以上) / 全勤勞者平均을 보면 1972~74年間은 平均 2.26이던 것이 1977~79年間에는 2.41로 擴大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1970年代全期間 동안 大卒者의 過少供給으로 이들의 上位職에의 移動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證表라 하겠다.

다음 高卒/全大卒의 相對賃金變化를 보아도 1972~74年間 平均은 1.88이던 것이 1977~79

〈表 6〉 高卒 以下者의 相對賃金率의 變化 (1971~80)

	高卒平均 全勤勞者	中卒平均 全勤勞者	國卒平均 全勤勞者	高卒平均 中卒平均	中卒平均 國卒平均
1 9 7 1	1.2211	0.7970	0.6544	1.5321	1.2180
1 9 7 2	1.2401	0.8116	0.6620	1.5280	1.2259
1 9 7 3	1.2111	0.7626	0.6450	1.5882	1.1823
1 9 7 4	1.1574	0.7775	0.6422	1.4886	1.2107
1 9 7 5	1.1999	0.7430	0.6285	1.6149	1.1822
1 9 7 6	1.1374	0.7257	0.6141	1.5673	1.1817
1 9 7 7	1.1495	0.7306	0.6544	1.5734	1.1163
1 9 7 8	1.1226	0.7365	0.6492	1.5242	1.1345
1 9 7 9	1.0775	0.7446	0.6620	1.4470	1.1249
1 9 8 0	1.0449	0.7350 ¹⁾	0.6730 ¹⁾	1.4205 ¹⁾	1.0929 ¹⁾
1972 ~ 74	1.2028	0.7839	0.6497	1.5349	1.2063
1977 ~ 79	1.1165	0.7372	0.6552	1.5149	1.1252

註 : 1) 1980年 職種別賃金調查에이프레임에서 추출.

資料 : 勞動部, 『職種別賃金實態調查報告書』, 各年度.

年間에는 2.16으로 擴大되어 웠음을 알 수 있다. 隣接職種間의 賃金隔差가 上位職으로 갈수록 큰 것이一般的인 경우이므로 이를前提한다면 高卒/全大卒의 相對賃金의 擴大는 곧同期間中 大卒者의 相對的 過少供給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表6>에서 高卒 以下者의 相對賃金의 變化를 보면

첫째, 高卒/全勤勞者나 中卒/全勤勞者의 相對賃金率은 1970年代 前後半을 비교할 때 高卒者가 1972~74年間 平均 1.203에서 1977~79年間 平均 1.117로 下落하였고 中卒者도 같은期間中 0.78에서 0.74로 下落하였다. 이는 中高卒者의 供給過剩으로 職種構成의 下方移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指標라 하겠다. 이는 앞에서 全大卒/全勤勞者의 相對賃金이 同期間中 上昇한 것과는 完全 對照가 된다.

둘째, 1970年代 後半期에 들어서면서 高卒者/全勤勞者의 相對賃金率은 급속히 下落하여 1975년 1.20에서 1980년 1.04로 떨어져 過多供給으로 인한 下位職 移動이 격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中卒/全勤勞者의 경우는 1970年代 前半期에는 下落하다가 1976年을 경계로 反轉하여 1976년의 0.726에서 1979년의 0.735로 점차 上昇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中卒者의 進學率提高로 앞의 <表2>에서 보았듯이 中卒者勞動市場流入量이 1970年代 後半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減少하고 있음이 賃金構造에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세째, 國卒/全勤勞者의 相對賃金의 경우는 1970年代 全期間을 통하여 큰 變化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약간 上昇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新規國卒者의 職種構成은 下方移動이 있었겠지만 中學에의 進學率提高로 勞動

市場에 나오는 新規國卒者自體가 激減하였을 것이고 이미 就業中인 國卒者는 年齡과 勤續年數가 높아감에 따른 賃金引上效果가 커서 이 두가지 效果가 相互 反對方向으로 作用했을 것 이므로 國卒/全勤勞者의 相對賃金率은 큰 變化가 없었다 하겠다.

네째, 高卒/中卒 및 中卒/國卒의 相對賃金率은 1972~74年間 平均 1.535, 1.206에서 1977~79年間 平均 1.515, 1.125로 각각 隔差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이는 앞의 <表5>에서 全大卒/高卒의 差가 擴大되어 온 것과는 對照的이라 할 수 있다. 高卒의 持續的 供給增加와 中卒의 특히 1970年代 後半期의 供給減少가 中卒/高卒의 隔差縮少의 第1次的原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1977年以後 中卒/高卒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오고 있음을 볼 때 더욱 명백하다. 또한 中卒/國卒의 相對賃金率이 縮小되어 오고 있는 理由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勞動市場에 새로 들어오는 新規國卒者의 減少와 이미 就業中인 國卒者の 中高齡화에 따른 賃金上昇效果 때문일 것이다.

3. 學歷別 賃金不平等度의 變化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變化를 관찰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指標는 各學歷內 賃金不平等度의 變化이다. 앞의 第IV章에서 예컨대 特定學歷者의 供給不足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採用基準, 升進基準의 緩和로 上位職으로 移動을 하게 되고, 이러한 職種의 上方移動은一般的으로 「로그 노멀」(log normal)形態를 가지는 賃金分布에서 集中度(density)가 낮은 部分으로의 移動을 의미하게 되므로 그 特定學歷內 賃金分布는 보다 不平等한 方向으로 움직일 것

이라고推論하였다.換言하면一般的으로上位職種으로갈수록職種內賃金不平等度는높아지기때문에(行政管理職內賃金不平等度는生產職內그것보다높다)特定學歷者들의職種의上方移動은그들의賃金分布를보다不平等하게한다.반면에같은論理로特定學歷者들의過多供給은下位職에의移動을激化시켜學歷內賃金分布는보다平等해지게된다.

그러면1971~80年間우리나라의경우이學歷內賃金分布에는어떠한變化가있어왔는가를分析하여보자.本研究에서는1971年과1980年勞動部의職種別賃金實態調查베이프에서無作爲抽出하여1971年の29,871名과1980年の25,705名의學歷別賃金分布度를구하여보았다.이때구한지표는變異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와log賃金의標準偏差이다.

<表7>을보면첫째,全般的不平等度는減少의推勢를보이고있다.1971~80年間log標準偏差는0.743에서0.714로,變異係數는0.8283에서0.8041로줄어오고있다.이는產業化過程이進行됨에따라격렬해지는勞動移動을통하여勞動市場에서의非競爭그룹의漸進的解體,能力과業務內容間의不一致(mismatch)의

漸進的解消,賃金管理및賃金體系의合理화등으로開發初期에生產性差를反映하지못했던賃金隔差部分이점차縮小되어가는過程으로解釋할수있다.

둘째,男子의賃金不平等度가女子의경우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女子가男子보다下位職種에보다많이集中되어있기때문이고,下位職일수록上位職보다賃金不平等는낮기때문일것이다.또한女子의경우가男子의경우보다1971~80年間賃金不平等度의縮小가크게나타나는데이는同期間中女子의下位職移動이보다컸음을보여준다하겠다.

세째,大卒者的경우는期待했던대로1971~80年間賃金不平等度가증대한것으로나타났다.變異係數는0.5523에서0.5909로,log標準偏差는0.517에서0.608로增加하였다.또한그크기를보면中下位賃金階層의變化를보다잘反映하는log標準偏差가全般的傾向을보다잘나타내는變異係數의경우보다더욱크게증대하였다.이는곧大卒者中下位職從事者の中位職으로의上方移動이中位職에서上位職으로의移動보다빨랐던것으로解

<表7> 學歷別 賃金不平等度의 變化 (1971, 1980)

	1 9 7 1			1 9 8 0		
	log s.d.	coefficient of variation	標本數(名)	log s.d.	coefficient of variation	標本數(名)
國卒	0.685	0.7493	1,3940	0.593	0.5948	6,102
中卒	0.627	0.7179	8,876	0.607	0.6043	8,864
高卒	0.598	0.6388	5,931	0.613	0.5971	7,641
大卒	0.517	0.5523	3,170	0.608	0.5909	3,098
男	0.670	0.7031	19,234	0.651	0.6984	15,734
女	0.587	0.7444	10,137	0.514	0.5418	9,971
全體	0.743	0.8283	29,871	0.714	0.8041	25,705

註: log s.d.는 log 賃金의 標準偏差임.

coefficient of variation은 標準偏差/平均값임.

資料:勞動部,各年度職種別賃金實態調查報告베이프에서 추출.

釋할 수 있다.

네째, 變異係數를 보면 大卒者의 경우와는 對照的으로 高卒, 中卒, 國卒의 경우는 모두 同期間中 賃金不平等度가 완화·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期待한 대로 大卒者는 上方移動, 高卒 以下者는 下方移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이 變異係數의縮小幅을 보면 高卒에서 中卒, 國卒로 내려갈 수록 職種의 下方移動이 격렬했었다는 사실과 下位職일수록 賃金隔差가 작다는 사실을 모두反映한다 하겠다. log 標準偏差를 보아도 대체로豫測한 대로 나타났다. 즉, 大卒者の 경우의擴大와 中卒, 國卒者の 경우의縮小이다. 그러나 高卒者の log 標準偏差가 同期間中 약간增加한 것은 우리의理論의豫測과 實態值變化와의 사이의 「갭」(gap)을 의미한다. 高卒者를 다시男女로 나누어 1971~80年間의 變化를 보았다. 高卒男은 log 標準偏差가 0.584에서 0.573으로期待대로縮小하였고, 高卒女도 0.539에서 0.532로期待한 바와 같이縮小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高卒男과女는 각각 賃金不平等度가 축소되었는데 왜男과女를 합한高卒者全體의 不平等度는擴大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아마도 이는 高卒의 경우 男女間 賃金隔差가 同期間中 보다擴大되어 나타난 現象이 아닌가하는暫定的說明이可能하다고 본다. 보다具體的인 說明을위해서는別度의研究가 필요할 것이다.

여하튼 <表7>의 學歷別 賃金不平等度의 變化를 보아도 1970~80年間 大卒者の過少供給과 高卒 以下者の過多供給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는 바 이는 앞의 第Ⅲ章과 第Ⅳ章에서 提示한 労動市場行態에 대한 假說이 무리없이 우리나라에 適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VII. 向後 20年間의 展望과 問題點

本章에서는 1980年의 教育改革後 急增의豫想되는高等教育機關修了者의 문제를 中心으로 1980年代의 學歷別 勞動力의 需給狀況을 展望하고, 이와 關聯되어 發生할 社會經濟的問題들을 分析하려 한다.

1. 1981~91年間의 學歷別 人力의 需給展望

1980年의 教育改革으로 1980年代에는 大卒者(2年制以上)의大幅的供給增加가豫想되는 바, 1980年의 教育改革案과 第5次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1982~86)의 文教部門實行計劃을 토대로各學歷別卒業豫定者와卒業者中勞動市場에 나와求職活動을 할新規流入勞動力を 1981~91년까지推定한結果는 <表8>과 같다. 名學歷別卒業者推定值에서上級學校進學者推定值과經濟活動參加率등을 잡안하여當該年度에勞動市場에새로나올新規流入勞動力を 계산하였는 바, 자세한推定方法은 <附表1>을參照하면될것이다.

<表8>을 보면中學校卒業하고高等學校에進學하지 않고곧바로勞動市場에流入될人力은 1970~80年間보다 1981~91年間에 큰減少가豫想된다. 1970~80年間實績值은約118萬名이었으나 1981~91年間新規流入勞動力의豫想值은約64萬名으로推計되었다. 減少의 주된原因是高等學校進學率이 1980年代後半에는約90%線을 넘을것이豫想되기 때

문이다.

反面에 高等學校卒業者中 勞動市場新規流入勞動力은 1970~80年間에는 約168萬名이었으나 1981~91年間에는 大幅擴大되어 290萬名線이 될 것이豫想된다. 이는 大學定員의 擴大로 上級學校進學率이 높아지기는 하나, 中學에서 高校에의 進學이 增加하는 幅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高等教育機關의 경우를 보면 2年制大學은 1970~80年間의 17.6萬名에서 1981~91年間 約90萬名, 4年制大學은 27.7萬名에서 約100萬名, 大學院은 3萬名에서 約21萬名線으로 각각大幅의增加가豫想된다. 이는 2年制의 경우 約5.1배, 4年制의 경우는 約3.6배, 大學院은 約7배의 急增을 意味한다. 주로 1980年の教育改革을 通한 高等教育機關定員의 대대적인 擴大때문이다.

물론 비록 高等教育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擴大되었다 하더라도 高等教育에 대한 需要가 많지 않다면, 高等教育修了者의 急增은豫想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大卒者와 高卒者의 生涯賃金의 隔差가 커서 大學教育의 私的 投資收益率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1980年基準 4年制男은 12.1%, 4年制女는 8.0%) 高等教育 기회의 擴大는 곧 高等教育履修者の 擴大로 나타날 것이다¹⁾. 즉,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의 경우는 곧 供給이 需要를決定한다 할 수 있다.

高等教育機關 全體의 卒業者(2年制以上 大學院까지)中 勞動市場에 新規流入되는 労動力은 1970~80年間이 約48.2萬名이던 것이 1981~91年間에는 約211.1萬名으로 約4.4倍의 增加가豫想되며 이는 過去에는 單純平均하여 每年 約4~5萬名의 新規勞動力이 供給되던 것이 1980年代前半期에는 每年 約15萬名, 後半期에는 每年 約25萬名정도의 大卒者가 新規流

〈表 8〉 學歷別 卒業者 및 新規流入勞動力推定(1981~91)

(단위: 千名)

	中 學		高 等		2 年 制		4 年 制		大 學 院		高等敎育機關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卒業者	新規流入勞動力
1981	773.4	80.9	497.0	227.5	64.6	43.2	55.8	37.8	7.9	1.2	128.3	87.2
1982	822.3	79.6	548.5	237.2	90.0	60.1	70.5	47.6	12.0	9.4	172.5	117.1
1983	813.8	72.5	579.5	248.0	103.2	69.0	98.6	65.8	16.0	12.6	217.8	147.4
1984	872.8	71.0	618.9	265.7	111.6	74.6	115.9	76.5	20.0	15.7	247.5	166.8
1985	849.5	62.5	668.6	288.3	119.6	79.9	142.9	93.1	23.0	18.1	285.5	191.1
1986	871.4	57.4	669.2	275.1	127.0	84.9	150.8	97.1	26.0	20.4	303.8	202.4
1987	883.5	54.9	738.1	294.1	136.1	91.0	161.7	102.8	29.0	22.8	326.8	216.6
1988	831.3	48.3	755.7	291.7	140.1	93.6	171.7	107.9	31.0	24.3	342.8	225.8
1989	813.2	44.1	764.6	282.7	145.6	97.3	184.7	116.0	33.0	25.9	363.3	239.2
1990	764.8	38.6	765.0	268.6	150.6	100.6	199.7	125.5	35.0	27.5	385.3	253.6
1991	730.6	34.0	724.7	225.3	155.6	104.2	207.8	130.5	37.0	29.1	400.4	263.8
1981~91計 (推定值)	9,026.6	643.8	7,329.6	2,904.2	21,344.6	898.2	1,560.1	1,000.6	269.9	211.9	3,174.0	2,110.7
1970~80計 (實績值)	6,124.5	1,177.4	3,191.4	1,682.9	261.6	176.4	381.9	277.3	38.8	28.5	682.1	482.2

註: 卒業豫定者 및 新規流入勞動力推計方法은 〈附表 1〉 參照.

1) 朴世逸(1982) 參照.

入됨을 意味한다.

위와 같은 供給側變化가豫想되는 1981~91年間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需要側變化를 감안한 후豫想되는 各學歷別需給展望, 즉 需給差는 어떠한가를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1991年 우리나라 就業者數 및 그의 職種別構成에 대한 推定值가 必要한 바, 이는 既存의 KDI 朴恒求 博士의 研究結果를 利用하였다²⁾. 이 資料에 의하면 1991年豫想總就業者數는 1,873.3萬名으로 이는 1981~91年間 約 605.1萬名 정도의 就業者 純增加를 意味한다. 이 總就業者의 增加豫想分을 勞動需要增加로 보고, 여기에서 各學歷別需要純增加豫想分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方法을 使用하였다. 第1方法은 各職種別學歷構成이 同期間中 變化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1991年各職種別就業者豫側值에 1980年 人口센서스에 나타난 各職種別學歷構成比를 代入하여 同期間中 各學歷別需要純增加豫想分을 구하는 方法이다 (推定方法 I). 그러나 이 方法은 低學歷者の概略的需要變化를 보는 데는 意味가 있으나, 高學歷者の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產業化와 技術革新이 進展됨에 따라 職務內容自體가 高度化되므로 同一職種에서도 過去보다 高學歷者를 需要하게 되는 勞動需要側變化가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第2方法은 職種別學歷構成이 不變이라는 假定을 修正하여 過去 1966年부터 1980年까지 職種別學歷構成變化의 時系列資料를 利用하여 1991年에 職務의 高度化로 인해豫想되는 職種別學歷構成比를 推定, 이를 1991年各職種別就業者豫側值에 代入하여 1981~91年間의 學歷

別需要純增加分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 方法은 2年制以上의 高等教育機關修了者의 경우에만 適用해 보았다.

다음은 供給側面을 보면 <表8>의 新規流入勞動力에는 이미 生殘率이 감안되어 있다. 따라서 1980年現在의 既存各學歷別就業者「스톡」(stock)들의 生殘率만을 추가로 고려하여 <表8>의 1981~91年間의 流入豫想勞動力에서 1980年現在 既存學歷別人力의 1981~91年間의豫想脫落值(1一生殘率)만을 공제하여 1981~91年間 供給純增加豫想分을 求하였다. 이렇게 구한 結果가 <表9>에 나타나 있다.

<表9>를 보면 1981~91年間의 學歷別勞動의 需給狀況을豫測할 수 있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職種의 學歷別構成不變을前提했을 때, 즉 同期間中就業構造의 高度化만을 감안하고 職務의 高級化는 감안하지 않는다면, 中卒者의 경우 需要純增加分은 150萬名인데 반하여 供給純增加分은 60.5萬名에 不過하여 약 89.5萬名 정도의 供給不足이豫想된다.

둘째, 高卒者의 경우는 위와 같은 가정아래 需要純增加는 207.6萬 정도인데 반해 供給純增加는 286.4萬名이므로 約78.8萬 정도의 供

<表9> 教育程度別勞動力의 需給豫想

(1981~91) (단위: 千名)

	1981~91年間 供給純增加豫想分	1981~91年間 需要純增加豫想分	豫想需給差
中 學	604.9	1,500.3	-895.4
高 等 學 校	2,863.5	2,075.5	788.0
高等敎育機關 (2年制大 以上)	2,095.8	1,513.9	581.9

註: 1) 中學校와 高等學校의 需要純增加豫想分은 職種內學歷構成不變을 가정한 推定方法 I에 의한 結果이고 高等敎育機關의 需要純增加豫想分은 職務의 高級化로 인한 學歷構成變化를 감안한 後의 結果임(推定方法 II).

2) 具體的推定方法은 <附表2> 參照.

2) 朴恒求(1981)参照.

給超過가豫想된다.

세째, 高等教育機關卒業者의 경우, 需要推計에 있어서 앞의 中高卒者の 경우와는 달리, 技術革新에 따른 業務內容의 多樣化·高級化로 因한 職種別學歷比重의 上昇分이 반드시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業務의 高級化로 인한 需要增大分이 中高卒者の 경우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職種의 學歷構成不變을 前提하고도 需給狀況을豫測함에 큰 無理는 없겠으나 大卒者の 경우는 이러한 業務高級화로 인한 需要增大分이 작지 않으리라 料되기 때문이다. 이 點을 감안한 後(推定方法Ⅱ)의 大卒者(2年制以上)의 需給豫想을 보면 需要純增加는 1981~91年間 約151.4萬名인데, 供給純增加는 約209.6萬名이어서, 約58.2萬名의 供給超過가豫想된다³⁾.

네째, 1981~91年間 超過供給이豫想되는

58.2萬名의 高等教育機關卒業者의一部는 自發的이든 非自發의이든 失業을 하게 되나, 大部分은 從前의 高卒者職種으로 下方移動하여 就業機會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소위 大卒者の「블루 칼라」化 혹은「그레이 칼라」化 경향을 結果할 것이다. 이 下位職移動量은 1980年代 前半期에는 每年 平均 約4~5萬名, 後半期에는 6~7萬名의 수준이 되리라 보이고, 2年制大卒者の 高卒者 職種에의 移動이 우선하리라豫想된다.

다섯째, 1981~91年間 中卒者の 供給不足分과 高卒者の 供給超過分의 크기를 봄 때, 高卒者が 종래 中卒者の 主職種이었던 下位生產職과 下位販賣職, 下位서비스職 및 農業에 大量 下方移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高

〈表 10〉 就業者の職種別、學歷別構成比의 韓日間比較

	韓國		日本			
	1980 (實績值)	1991 (推定值)	1960 ²⁾	1970 ²⁾	1975 ³⁾	1979 ⁴⁾
專門技術	4.6	7.6	4.9	6.6	7.6	8.3
行政管理	1.1	1.9	2.3	3.9	4.4	4.4
事務職	9.5	13.2	10.4	14.0	16.8	17.1
販賣	12.1	14.4	10.6	12.0	13.4	13.6
サービス	7.1	9.5	6.5	6.5	8.4	8.9
農業	37.6	20.0	32.6	19.5	12.6	10.9
生産職	29.7	33.3	32.7	37.5	36.7	36.7
計	100	100	100	100	100	100
大卒者 ¹⁾ /全就業者	7.2	16.5	6.7	10.8	14.5	18.0
高卒者/全就業者	21.2	29.8	23.3	33.6	38.2	42.7

註: 1) 2年制以上 包含, 中退者 除外

2) 1960, 70年: 日本勞働省, 『勞動白書』昭和51年版.

3) 1975: 日本通商產業省『80年度の産業構造の展望と課題』.

4) 1979: 『日本統計年鑑』1982.

資料: 1980年은 經濟企劃院『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1991年 推定值는 朴烜求博士 推計值임.

3) 大卒者の 경우 職務의 學歷構成不變을前提하면, 同期間中 純需要豫想值은 117.8萬名, 純供給豫想值은 209.6萬名으로 나타났다. 즉, 約91.8萬名(2年制大: 70.1萬名, 4年制 以上: 21.7萬名)의 供給超過를 意味한다. 이를 本文에서의 純需要豫想值 151.4萬名과 比較하면 現在 33.6萬名 정도의 大卒者が 業務高級화로 인한 職種의 大卒者比重增加로 消化가豫想됨을 意味한다.

等教育履修者が高卒者の主職種이었던 下位事務職, 販賣職, 서비스職, 上位生産職 등에下方移動하는 것은 이러한 職種에서의 企業주의 高學歷選好度가 대단히 높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高等教育履修者 특히 2年制履修者の失業率의增加가豫想된다⁴⁾.

2. 中途脱落者의 勞動市場

1980年の高等教育改革과 第5次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의 文教部門計劃을 보면 4年制大學의 경우 卒業定員의 130%를 入學시켜 卒業까지 30%를 탈락시키고 專門大의 경우는 卒業定員의 115%를 入學시켜 超過分 15%를 탈락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는 入學者數를 基準하여 보면 4年制大學의 경우는 入學者의 約23.1

%, 專門大의 경우는 入學者의 約13%가 學業中中途脱落되어야 하는 것을 意味한다. 물론 과거에는 自發的인 自然脱落者는 있었다. 1975~81年間 4年制大學의 경우 自然脱落率은 年平均 入學者의 約13.1%정도의 水準이었고, 專門大의 경우는 約14.9%였다. 따라서 卒業定員制가 實施되어도 專門大의 경우는 별 무리가 없으나 4年制의 경우는 脱落되어야 할 23.1%中 13.1%정도는 自然脱落者(voluntary drop out)가 차지한다고 보아도 入學者의 10%는 強制脱落되어야 함을 意味한다.

이와 같이 强制脱落될 사람들의 規模는 어찌한가. 4年制大學의 경우를 1981年的 實績值와 第5次經濟開發計劃 教育部門 實行計劃에 나타난 卒業定員計劃을 基礎로 하여 보면 1981~86年間 總入學者數는 約131.8萬名이고 이들

〈表 11〉 大學中退者와 卒業者의 就業職種比較 (1980)

(단위 : 千名)

	高卒者	構成比 (%)	4年制大學中退者	構成比 (%)	4年制大學卒業者	構成比 (%)
專門技術	125.7	(4.8)	13.9	(9.9)	305.4	(36.8)
行政管理	345.5	(1.3)	6.6	(4.7)	71.5	(8.6)
事務職	703.5	(26.7)	42.9	(30.7)	253.8	(30.6)
販賣職	448.7	(17.0)	29.1	(20.9)	93.6	(11.3)
서비스業	209.2	(7.9)	12.8	(9.2)	26.9	(3.2)
農業	309.3	(11.7)	8.2	(5.9)	17.7	(2.1)
生產職	806.1	(30.6)	26.2	(18.8)	60.9	(7.3)
計	2,637.1	100	139.7	100	829.8	100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1980.

4) 〈表10〉을 보면 우리나라 總就業者中 大卒者が 차지하는 比重이 1980年 7.2%에서 1991年 16.5%로 增加할 것이豫想되는 바, 이는 日本의 1977~78年の 水準이라 할 수 있다.

反面, 需要側 事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就業構造를 對比하면, 1991年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就業構造와 日本의 1970年 직전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農業從事者가 全就業者의 約20% 水準을 擁하고 있으며, 專門技術・行政管理・事務職 등의 上位職種從事者の 構成比가 日本의 1970年에 約24.5% 우리나라의 1991年에 約22.7%로 나타나 勞動力需要構造面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就業構造의 高度化라는 勞動需要構造侧面에서 우리나라의 1991年은 日本은 1970年 직전과 유사한 반면, 總就業者中 大卒者比重은 우리나라 1991年豫想値가 日本의 1977~78年과 유사하다는 점은 日本에서는 高卒者が 就業하는 職種에 우리는 앞으로 大卒者が 就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日本에서도 1970年代 後半以來 高學歷화에 따른 勞動問題, 예컨대 大卒者の 「블루 칼라」화 등이 심각히 論議되어오고 있는 바(1976年 日本勞動省, 『勞動白書』參照)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 日本의 70年代보다 더욱 심각한 高學歷화의 下位職種問題가 當面하게 될 것이다.

이 1985~90年間 年次의으로 卒業하게 되는바, 1985~90年間 卒業定員制에 둑인 卒業豫定者는 約101.4萬名이므로, 約30.4萬名이 中途脫落을 하게 된다.

이 中途脫落시켜야 할 30.4萬名中 17.3萬名은 自然脫落으로 해결한다고 보아도 強制脫落은 約13.1萬名線이 될 것이다. 卒業定員制로 인하여 自然脫落이던, 強制脫落이던 脱落이豫想되는 規模는 1981~86年間 入學者中 4年制大學의 경우 約30.4萬名, 專門大의 경우 約10.6萬名 合計 約41萬名이 中途脫落者로서 勞動市場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들 中退者·中途脫落者들은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에서 어떠한 待遇를 받는가. 이 점을 就業構造面과 賃金構造面으로 나누어 관찰하기로 한다.

우선 雇傭面 즉, 就業構造面을 보면 1980年現在 人口센서스資料에 의하면 <表11>과 같다. 上位職이라 할 수 있는 專門技術 및 行政管理職을 보면 4年制大卒者의 경우는 約45.4%가

이 職種에 就業하고 있는 反面, 4年制大學中退者は 14.6%만이 이들 上位職에 就業한 것으로 나타났다. 下位職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農業·生產職에도 4年制大學卒業者는 12.6%만이 이 分野에 종사하고 있는 反面, 中退者の 경우는 33.9%가 이들 職種就業者로 나타났다. 물론 大學中退者들이 高卒者보다 雇傭面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大卒者對比 不利益이 高卒者對比 利益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雇傭面에서의 差等待遇는 곧所得面에서의 隔差로 연결된다. <表12>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高卒者를 100으로 보았을 때 大學中退者は 平均 118, 大卒者는 169로 나타난다. 즉, 大學中退者は 大卒者보다 高卒者에 가까운 平均賃金을 받고 있다. 이는 美國의 경우(白人) 大卒者와 高卒者의 賃金隔差의 約37.8%정도를 大學中退者が 高卒者보다 많이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大卒者와 高卒者 賃金隔差의 約26.5%만을 大學中退者が 받고 있

<表 12> 大學中退者와 卒業者의 賃金隔差比較

	高卒者	大中退者	大卒者
韓國(1974) 平均(원)	38,492(100)	45,508(118)	64,966(169)
專門技術	49,315(100)	49,512(100)	63,937(132)
行政管理	70,432(100)	72,558(103)	105,850(150)
事務	40,399(100)	46,050(114)	66,153(164)
販賣	31,565(100)	40,455(128)	47,657(151)
服務	33,892(100)	39,914(118)	47,047(139)
生産	36,134(100)	43,524(120)	58,579(162)
美國(1973) ¹⁾ 平均(\$)			
白人	231(100)	265(115)	321(139)
非白人	178(100)	209(117)	241(135)

註 : 1) 35~44歲 常用工의 週給

高卒은 12年教育받은者, 中退은 13~15年, 大卒은 16年教育받은者로 区分.

資料 : 韓國資料은 經濟企劃院 1974年 特別雇用統計調查에이프에서 추출하였으며 非농가부문의
被고용자 男子의 平均賃金水準임. 美國資料는 週 35시간 以上 일하는 就業者中 男子의
平均賃金水準임. Chiswick, B.R. and June A. O'Neil,『Human Resources and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1977), Table 1-4.

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이 中退者에 보다 不利한 대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記할 점은 위와같이 中退者가 卒業者에 비해 勞動市場에서 받는 不利한 差等待遇는 專門技術, 行政管理, 事務職 등의 上位職으로 올라갈수록 크고 下位職일수록 낮다는 事實이다. <表12>를 보면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의 경우 高卒者賃金과 大卒中退者賃金의 差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卒業狀이 가지는 「스크리인」機能이 上位職일수록 強하여 學歷의 差가 그대로 賃金差로 反映되나 生產職, 販賣職, 서비스職 등의 경우에는 資格證으로서의 學歷보다는 勤勞者의 勞動生產性 自體가 보다 중요한 賃金水準決定要因임을 알 수 있는 예라 하겠다.

여하튼 中退者가 卒業者보다 雇傭機會面에서나 所得面에서 매우 不利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慣行이라면 個人の 次元을 떠나 社會的 觀點에서 볼 때, 強制脫落의 制度화로 인해 發生될 經濟的 損失은 얼마나 되는가를 概算하여 보자.

<表13>를 보면, 社會的 現在 消費選好度(social internal rate of time preference)⁵⁾를 약간 낮게 10%로 잡아도 中途脫落者 1人의 배출로 結果되는 社會的 損失은 1980年 基準價格으로 約152萬원이 된다. 1981~86年間 4年制大學者中 中途脫落豫定者數가 約30.4萬名이므로 總 損失은 80年價格으로 約4,621억원이나 된다. 이 中 自然脫落分을 빼고 強制脫落分만을 본다해도豫定者가 約13.1萬名이므로 約1,991

억원의 社會的 費用(social cost)⁶⁾이 發生하는 셈이 된다.

만일 社會的 現在消費選好度를 15%水準으로 잡는다면 中途脫落者 1人의 배출로 結果되는 社會的 損失은 1980年 價格으로 約282萬원, 따라서 4年制大學 中途脫落豫定者數를 감안한 社會的 總損失分은 約8,573억원에 이르고, 自然脫落分을 빼고 卒業定員制로 因해 세로이 發生하는 強制脫落分만을 보아도 約3,694억원의 社會的 損失이 發生하는 셈이다.

따라서 大學過程의 中途脫落者가 增大하여 생기는 여러가지 政治·社會的 費用을 감안하지 않고 순수 經濟的 費用의 側面만을概算하여 보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큰 損失이 發生한다. 따라서 現 卒業定員制의 導入으로 強制되는 中途脫落者の 문제는 政策的再考가 要請된다 하겠다. 물론 위와 같은 社會的收益·費用分析은 賃金隔差가 生產性隔差를反映한다는 가정, 즉 賃金隔差가 社會的으로는 GNP 增大에 대한 기여의 差로 볼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의 論議라는 점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表 13> 大學(4年制) 中途脫落者 1人의 社會的收益·費用分析(1980年 基準)
(단위: 萬원)

割引率	收 益	費 用	差
2%	1,494	521	973
5%	772	2499	273
10%	314	466	△152
15%	157	439	△282

註: 費用: 直接費用 + 機會費用: 4年制 卒業者の 50% 적용.

收益: 大卒과 高卒의 生涯賃金差의 26.5% 적용.

<表 12> 참조.

'△'는 마이너스를 의미.

大卒, 高卒의 生涯賃金과 學歷別 教育投資費用資料는 朴世逸(1982) 參照.

5) 우리나라의 社會的 現在消費選好度(社會的 割引率)는 具本英博士 推計에 의하면 年間 12~14%, 洪元卓 博士는 14~15%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具本英(1981), Wontack Hong(1979) 參照.

3. 高學歷者의 海外流出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0年代에 豫想되는 高學歷者의大幅的增加는必然的으로勞動力의地域間移動, 즉離農向都現象을촉진시킬것이고 동시에 소위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라고表現되는高學歷者의海外移住問題를深刻하게만들 것이다.

本稿에서는離農문제에대한論議는略하고高學歷者와高級人力의海外流出문제에局限하여보기로한다.

高學歷者·專門技術職從事者の海外流出, 특히後進國에서先進國으로의移住問題는經濟開發理論家나勞動經濟學者の많은注目을끌어왔다. 海外移住의경우高學歷者일수록移動性向이높은것은이미經驗的으로나實證的으로밝혀진사실이다. 高學歷者일수록移住로인하여발생하는期待生涯賃金의差(現地와海外間)가크고또한海外勞動市場情報에도밝으며, 移住後의雇傭機會도넓은반면, 高學歷일수록海外移住過程내지定着過程에서발생하는非經濟的, 특히心理的費用(psychic cost)이낮기때문에移動性向이높아할수있다. 過去10年間(1971~80)海外移住者的公式集計는約33萬7千名線에달하고이들의學歷構成을보면高學歷者の集中度가非移住者보다훨씬높게나온다. 80年現在우리나라經濟活動人口에서男子의경우約12.2%,女子의경우約3.4%가大卒者임에반하여, 1972~76年間移住者를標本調查한결과를보면海外移住者的大卒構成比는男子가約34.9%,

女子가約20.5%로높게나오고있다⁶⁾. 또男子移住者の約70%以上이高卒以上의學歷者이고女子移住者の約44%以上이高卒以上者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高級人力의海外流出은우선그들에대한社會的教育投資分의流失을招來한다할수있는바그規模를概算하여보기로한다. 예컨대男子大卒者1人을教育시키기위하여國民學校부터大學까지드는公私教育費의總額은1980年현재가격으로約1,137萬원이고, 이education期間中生產活動에종사할수없어발생하는機會費用, 즉GNP損失分이約793萬원이므로이들을합계한社會的教育投資總費用은約1,930萬원이된다⁷⁾. 같은방법으로계산한,男子高卒者1人을교육시키는데드는社會的總費用은約856萬원,男子中卒者1人の경우는約495萬원이된다. 1972~76年間移住者の標本調查結果의平均值를적용하여1971~80年間海外移住의學歷構成을구한결과에各學歷別1人當社會的教育投資의總費用을곱하면海外移住로인하여발생하는대략의社會的教育投資의流失分을구할수있다. 일단中卒以上者에만限定하여이를계산해보면1971~80年間1980年不變價格으로約20兆6,535億원의社會的教育投資가流失된것으로잡을수있다. 물론海外移住者들의韓國에의送金도결코적은金額은아니므로이를감안하여야할것이나, 반면正式海外移住가아니라留學·研究·商事등의관계로出國後永住하는소위現地移民으로인하여발생하는社會的教育投資의損失도이들의教育水準이특히높은점을고려하면그크기가적지않으리라생각된다.

앞으로1980年代에大卒者の大幅의in供給

6) 洪思媛·金思憲(1979) 참조.

7) 朴世逸(1982) 참조.

增加가 예상되고 韓國의 勞動市場이 이를 充分히 吸收하기 어려워 大卒者의 下位職 移動이나 失業問題가 一般化한다면 이는 分明 海外頭腦流出을 더욱 促進할 것이 틀림없으며, 1981年에 斷行한 일련의 海外旅行 自由化措置는 이러한 趨勢를 더욱 촉진시키리라 料된다. 이러한 傾向은 앞에서 본 社會的 教育投資費用의 流失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派生效果를 招來할지 모른다.

첫째, 高等教育에 대한 私的 需要를 더욱 增가시킨다. 換言하면 海外移住를前提로 한 教育熱의 上昇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高學歷者 일 수록 海外移住 및 就業이 容易하고 또한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生涯所得의 差가 크다면 이는 분명히 高等教育에 대한 私的 需要를 높여 社會的 觀點에서 볼 때 教育에 대한 過多投資(overinvestment)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高級人力 특히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의 海外流出은 현재 우리나라 人力問題중의 하나인, 「豐饒속의 貪困」현상을 더욱 惡化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產業화의 speed가 빠르고 產業構造의高度化的 진행이 급속하기 때문에, 비록 大卒者등의 高級人力은 1980年代에는 풍부한 供給이 예상되어도 部門別로 들어가면 實際 專門 必要人力의 不足現象이 나타날 것인 바 高級頭腦의 海外流出은 이러한 문제를 惡化시킬지 모른다.

세째, 高級人力의 海外流出과 관련하여 國內에 남아있는 高級人力의 價值觀의 變化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소위 「精神的 移民 現象」의 문제이다. 仔細한 論議는 本稿의 研究分野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를 略한다.

앞으로 國民經濟가 國際化・開放化됨에 따라 海外旅行, 留學등도 보다 권장하여 海外의 先進文物・技術등에 접할 기회를 擴大함으로써 우리나라 高級人力의 國際競爭力を 더욱 提高할 필요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直接移民의 形태 혹은 海外旅行者, 留學者에 의한 現地移民의 形態등으로 高級頭腦의 移動이一方의 으로만 이루어질 때 그동안 國內에서 들인 社會的 教育投資費用의 流失이라는 문제는 물론, 上記한 몇 가지 否定的 問題들을 惹起시킬 가능성이 크고, 특히 1980年代에 量產이豫想되는 大卒者의 供給을 國內 勞動市場에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때 高學歷者の 海外移住라는 문제が 激化될 위험성이 있다.

이 問題에 대한 對應策으로서는 물론 國內雇傭機會의 創出이 시급하다 하겠고 동시에 高學歷者の 海外流出의 幅을 줄이기 위해 海外移住者, 現地移住者들에 대하여 教育水準에 따른 累進的「教育投資還收稅制」의 導入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 料된다.

VII. 要約 및 政策方向

1. 要 約

가. 教育에 대한 個人의 需要是 教育에 대한 投資收益으로부터, 즉, 勞動市場에서 좋은 職場과 高賃金 職場에 就業하고자 하는 需要로부터 誘發된 需要(induced or derived demand)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教育에 대한 私的 需要在存在하는 限 政府는 教育機會의 供給을 擴大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壓力を

받는다. 그런데 教育需要의 重要 決定要因의 하나인 教育投資收益은 곧 教育을 받음으로써 保障되는 높은生涯所得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教育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發生하는 期待生涯所得이 差, 즉 教育投資收益은 教育水準別 勞動供給에 대하여 勞動市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크게 左右된다. 特定水準의 教育을 받은 人力의 供給이 지속적으로擴大되면 長期的으로는 그의 相對賃金率(期待生涯賃所得의 差)은 縮小의 方向으로 움직일 것이다, 적어도 短期 内지 中期的으로는 勞動市場은 相對賃金率의 縮小라는 價格調整보다는 採用 및 昇進基準의 上昇이라는 量的 調整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勞動力需給變化에 適應하게 된다. 예컨대 大卒者の 供給增加가 있을 때 需要擴大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企業主는 採用 및 昇進基準을 높임으로써 종래의 高卒者の 職種에 大卒者를 要求하게 되고 中卒者가 從事하던 職種에 高卒의 資格證을 要求하는 소위 學歷「인플레」現象으로 發展한다. 勞動市場이 이와같이 量的 調整의 「메카니즘」을 가지면 高學歷者の 供給이 持續的으로 增加하여 學歷別 期待生涯所得의 差, 즉 學歷別 相對賃金率은 크게 變化되지 않기 때문에 教育投資收益이 낮아지지 않아 高等教育에 대한 私的 需要是 持續的으로 增大하고 따라서 高學歷者の 供給過剩狀態는 더욱 惡化될 수 있다.

나. 勞動市場이 이와같이 勞動力需給調整을 賃金構造의 變化로 흡수하지 못하고 採用 및 昇進基準의 上下方移動으로 對處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大卒者の大幅의 供給增加가 있으면, 첫째, 從來 大卒者の 傳統的 就業職種

이었던 上位職에 취업하지 못한 大卒者의 下位職移動이 나타나 職種別·學歷別 就業構造가 變化할 것이다. 換言하면, 下位職種에서의 大卒者 構成比의 增加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는 결국 大卒者 平均賃金/全勤勞者 平均賃金의 相對賃金率을 축소시킬 것이다. 세째, 一般的으로 賃金分布는 「로그 노멀」(log normal)形態를 취하므로 大卒者の 下位職 移動은 위와 같은 賃金分布에서 보다 集中度(density)가 높은 部分에로의 移動을 의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大卒者內의 賃金不平等度는 낮아질 것이다. 네째, 大卒者 平均賃金/高卒者 平均賃金의 相對賃金率은 同一職種內의 大卒者 平均賃金/高卒者 平均賃金의 相對賃金率이 變化해서가 아니라 大卒者の 下方移動과 또한 이에 밀려난 高卒者の 職種下方移動으로 인하여(一般的으로 隣接 職種間의 賃金隔差가 下位職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 隔差는 축소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學歷「인플레」의 경우가 아니라 供給不足으로 인한 學歷「디플레」의 경우에는 같은 論理로 위의 諸指標는 反對의 方向으로 움직일 것이 예상된다.

다. 60年代와 70年代 우리나라의 學歷別 勞動力需給狀況을 보기 위해 우선 職種別·學歷別 就業者構成 分析結果를 보면 60年代에는 大卒者の 경우 약간의 供給過剩이 있어 5~6人의 大卒者中 1人은 下位職 移動分으로 나타나, 全般的으로 學歷「인플레」現象은 커다고 할 수 없는 반면, 中高卒者は 명백히 供給過剩으로 同期間中 供給增加分의 58%가 農業職과 生產職에 就業하지 않을 수 없었고 專門技術職등의 上位職의 中高卒者の 構成比는 低下되었다.

70年代에는 高度成長에 따른 大卒者需要의 急增이 있었으나 供給은 大學定員의 硬直的 運營으로 需要變化에 따르지 못하여 學歷「디플레」現象 즉, 大卒者의 職種上方移動이 심하였다. 그 결과 특히 事務職, 販賣職, 서어비스職, 生產職등에 大卒者比重의 下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同期間中 4年制大卒者の 供給伸張率이 특히 낮았으며 70年代後半에 들어와 2年制大卒者の 供給增加趨勢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反面 中高卒者の 경우는 60年代와 거의 마찬가지로 供給過剩에 의한 下位職移動이 계속됐으며 中高卒者中 中卒者勞動供給의 伸張率은 上級學校 就學率 提高로 70年代中半以後에는 오히려 감소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高卒者勞動供給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월등이 특기할 만하다. 要約하면 70年代에는 大卒者の 경우 學歷「디플레」(職種上方移動)와 中高卒者の 學歷「인플레」(職種下方移動)가 共存했다 할 수 있다.

70年代 變化를 學歷別 相對賃金率의 變化를 통하여 관찰하면 기대한 대로 全大卒者 平均賃金/全勤勞者 平均賃金은 1972~76年間의 2.26에서 1977~79年間의 2.41로 擴大되어 職種의 上方移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高卒 平均賃金은 1972~74年間의 1.203에서 1977~79年間의 1.117로, 中卒 平均賃金/全勤勞者 平均賃金은 0.78에서 0.74로 각각 縮小되어 이들中高卒者の 職種下方移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學歷別 賃金不平等度의 變化를 보아도 앞의 勞動市場에 대한 우리의 假說에서 期待한 대로 供給不足이었던 大卒者は 70年代 賃金不平等度가 증가했고, 供給過剩이었던 中高卒자는 賃金不平等度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 80年代의 教育改革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는 高學歷者의 大幅의 供給急增이豫想된다. 卒業豫想者에서 進學豫想者, 經濟活動參加率, 生殘率등을 고려한 후 勞動市場에 新規流入될 労動力을 1981~91年間 各學歷別로 推定하여 이를 過去 1970~80年間의 實績值와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中卒 流入勞動力은 1970~80年間의 117.7萬에서 1981~91年間 64.4萬으로 供給減少가 예상되고, 高卒 流入勞動力은 1970~80年間의 168.3萬에서 1981~91年間 290.4萬으로 增加가 예상되며, 4年制大卒 流入勞動力은 27.7萬에서 100萬으로 約3.6倍의 供給增加, 2年制大學과 大學院까지 포함한 高等教育機關 全體를 보면 1970~80年間의 實績值 48.2萬에서 1981~91年間의豫想值는 211.1萬으로 約4.4倍의 急增이豫想된다.

앞으로豫想되는 勞動需要側 變化를考慮, 1981~91年間 純需求差를 學歷別로 推定해 보면 中卒 労動力의 경우는 上級學校 進學率提高등의 要因 때문에 1981~91年間 約89.5萬의 供給不足, 高卒 労動力의 경우는 同期間中 約78.8萬의 供給超過, 高等教育機關은 同期間中 約58.2萬의 供給超過를豫想할 수 있다.

高卒者の 供給超過分은 職種下方移動에 의해 中卒者 不足分을 補充하면 큰 問題가 없을 것이다 1981~91年間 約58.2萬이 超過供給되는 高等教育機關卒業 労動力은 그 일부는 自發的이든 非自發의이든 失業을 擇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종래의 高卒者が 就業하고 있던 職種으로 下方移動하여 就業機會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換言하면, 大卒者の 「블루 칼라」(blue collar)化 혹은 「그레이 칼라」(grey collar)化를 招來할 것이다. 超過供給으로 인한 高等教育機關 出身者の 下位職 移動率은 1980年代 前半期는 每年 平均 4~5萬, 後半期

에 이르면 6~7萬의 水準이 되리라 보이며, 우선 2年制大學卒業者부터 高卒者 職種에로의 移動이 시작되리라 예상된다.

마. 1980年 教育改革의 内容을 보면 4年制大學者는 卒業定員의 130%를 入學시켜 卒業까지 30%를 脱落시키고, 專門大는 卒業定員의 115%를 入學시켜 15%를 탈락시키게 되어 있다. 이는 入學者數를 基準하면 4年制大學은 入學者의 23.1%, 專門大는 入學者의 13%를 中途脫落시킴을 의미한다. 그러나 過去에도 自然脫落率은 1975~81年間 4年制大學의 경우가 入學者의 13.1%, 專門大의 경우가 14.9%였으므로 專門大의 경우는 별문제 없으나, 4年制의 경우 中途脫落되어야 할 入學者의 23.1%中 13.1%정도는 자연탈락될 것으로 보아도 入學者의 約10%정도는 强制脫落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4年制大學의 1981~86年間 總入學豫定者 131.8萬名中 約30.4萬名이 中途脫落해야 하고 이 中 17.3萬名은 自然脫落分이라 하여도 約13.1萬名은 卒業定員制의 導入으로 인해 强制脫落돼야 함을 의미한다. 自然脫落이든 强制脫落이든 中途脫落돼야 할 人員은 1981~86年間 入學者中에서 4年制, 2年制 合하여 約41萬名線에 이른다.

이들 中途脫落者들은 屢僑市場에서나 賃金市場에서 大卒者에 비해 심한 不利益을 받고 있다. 專門技術職, 行政理職등의 上位職 就業이 어려울 뿐 아니라 賃金面에서도 高卒者를 100으로 볼 때 大卒者가 169인 반면, 大退자는 118에 불과하여 大退자는 高卒者와 大卒者間의 賃金隔差의 約26.5%만을 高卒者보다 많이 받는 셈이다. 이와 같이 勞動市場에서 中途脫落者가 받는 不利益 때문에 中途脫落者를 制度의으로 量產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費用이 발생하는 바 그中 오직 經濟的 費用만을概算하여 보는 경우, 社會的 現在消費選好度를 10%로 낮게 잡아도, 1981~86年間 入學者中 4年制大學中途脫落豫定者 30.4萬名으로 인해 발생하는 經濟的 損失은 約4,621億원이나 되고, 自然脫落豫想分을 빼고 强制脫落者만을 잡아도 約1,991億원의 社會的 費用(GNP 損失)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마. 高學歷者의 供給急增과 더불어 80年代에 예상되는 또 다른 問題는, 國內의으로는 地域間 勞動移動 즉, 離農向都現象이 進展되고 國際의으로는 高學歷者·高級人力의 海外流出이 激化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 두 가지의 勞動移動은 高學歷者일 수록 移動性向이 높기 때문에 勞動力 全般의 學歷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이들의 移動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高學歷者의 海外移住는 高學歷供給이 國內 勞動市場의 吸收力を 넘어서 激化될수록 크게 增加할 것이다.

高級頭腦의 海外流出은 우선 그동안 國內에서 행했던 社會的 教育投資의 損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는 바, 過去 10年間(1971~80年) 公式集計된 33萬7千名의 海外移住者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社會的 教育投資 損失分은, 國民學校 과정의 교육투자를 공제하고 中學以上만을 計上하여도, 1980年 價格基準으로 約2兆6千億에 달한다. 同時에 高學歷人力의 海外流出이 增大되면 海外移住를前提로 한 教育熱, 高等教育에 대한 需要를 增大를 유발할 수도 있고, 專門技術職 및 行政管理職의 特定分野에 나타나고 있는 專門高級人力의 不足問題를 深化시킬지도 모른다.

사. 끝으로 指摘되어야 할 문제점은 이미 量產體制로 들어간 高等教育機關의 質低下의 문제이다. 教授要員의 質的·量的 確保나 必要教育施設 確保가 어려울 것이며, 現在와 같은 硬直的인 定員管理制度 및 彈力性 없는 教科課程·教科內容下에서는 急變하는 產業社會의 需要變化에 잘 對處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教育의 質低下問題는 우리나라의 教育과 勞動市場間의 連繫性 不足이라는 既存의 問題를 더욱 惡化 시킬 것이다. 量的으로는 高等教育機關 卒業者의 一般的 供給過剩이豫想되지만 質的인 面에서는 80年代에豫想되는 產業構造의 高度化, 急速한 技術革新, 海外競爭의 激化등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갈 수 있는 高級 技術·技能人力과 高級 專門行政經營人們은 여전히 不足하게 될 것 같다.

2. 政策 方向

가. 우선 勞動需要面에서 볼 때 80年代의 經濟開發計劃에서는 雇傭의 極大化를 第1次 目標로 삼아야 한다. 우리 經濟는 向後 10年間 年平均 40~50萬의 새로운 職場을 提供하여야 하고 非農林漁業部門에서만도 約35萬의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어야 現在의 失業率水準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失業率에는 잘 잡히지 않으나 적지 않은 人力이 特히 도시의 第3次 產業部門에 半雇傭 내지 半失業狀況에 있으며 더구나 앞으로 年5~6萬의 超過供給되는 大卒者가 종래의 大卒者の 傳統的職種에 就業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 특히 80年代豫想되는 高學歷者の 供給過

剩問題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現在의 第5次5個年經濟社會發展計劃의 大學의 入學 및 卒業定員水準을 축소조정해 나가거나 적어도 86年以後에는 現定員水準以上의 定員增大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長期의이고 根源의으로는 高等教育에 대한 一般國民의 私的 需要를 國民經濟의 雇傭創出能力을 감안한 社會의 適正水準으로 낮추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高等教育費用을 높이는 方向과 高等教育收益을 낮추는 方向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教育에 對한 政府의 支援幅이 外國에 비해 낮고, 費用의 大部分을 학부모들이 負擔하고 있으며 그 水準이 80年現在 大學生 1人の 학부모부담교육비가 이미 도시 봉급생활자가구소득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教育費를 높이는 政策方向을 생각할 수 없다.

다. 결국 教育投資收益을 낮추어 高等教育에 대한 過剩需要를 줄일 수 밖에 없는 바, 첫째, 우리나라의 雇傭과 賃金構造面에 나타나는 身分的 差別에 가까운 정도의 學歷主義를 줄여나가야 한다. 우선 公務員·國營企業·大企業體부터 始作하여 採用基準에서부터 昇進·昇給 및 教育訓練에 이르는 勞務人事政策에서 學歷主義는 成果와 能力本位의 實力主義·能力主義로 代替되어야 한다. 둘째, 現行의 賃金體系속에 있는 學歷爲主의 屬人給의 賃金貫行은 業務의 性格·難易度·成就度 등에 따라 賃金水準을 決定하는 職務給·成果給의 賃金慣行으로 移行되어야 하며 이 過程에서 기존의 學歷別 賃金隔差는 축소될 것이고 이러한 賃金慣行의 變化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볼가피 職務分析 및 評價制度의 改善普及이 있어야 한다.

야 한다. 세째, 이와 關聯하여 企業안에서 學歷에 관계없이, 作業·實務經驗을 통하여 必要한 產業技術과 知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制度化되어야하고 低學歷者도 이를 통하여 技術과 知識을 습득하면 그 습득정도를 客觀的으로 證明할 수 있는 資格證制度가 各 技術別, 分野別(販賣·서비스分野까지)로 多樣하게 開發·擴大되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은 慣行의 修正·制度의 改善을 위해 政府의 선도적이고 계통적인 기능이 크게 要求되며 필요시 私企業에 대한 財政·金融上의 誘因도 제공되어야 身分의 差別에 가까운 정도의 우리나라의 學歷主義는 改善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看板爲主」의 高學歷에 대한 過度한 私的 教育需要를 낮추어 長期的으로는 高學歷者の 過剩供給趨勢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利點뿐 아니라 앞으로 國際競爭이 더욱 격화되는 80年代에 있어 종전의 賃金 및 扱傭慣行속에 있는 非合理的인 요소들을 改善하여合理화한다면 生產性과 費用面에서 우리 經濟의 國際競爭力を 크게 提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利點도 있다 하겠다. 특히 學歷主義로부터 能力·成果主義로의 改善은 그동안 行政管理職·事務職에 종사하는 勞動力의 生產性向上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마. 現在 入學定員의 約23%(卒業定員의 30%)가 學業中 強制脱落되어야 하는 바, 中途脫落者의 문제는 基本的으로 政策的 再考가 요청된다. 中途脫落者가 量產되어 생기는 政治的·社會的 費用은 물론이고, 순수히 經濟的 損失만을概算하여도 대단히 크다는 점을 이미 本論에서 밝혔다. 大學의 定員管理는 처음부터 勞動市場의 需要變化側面을 充분히 감안하여

彈力的으로 決定하고 一旦 入學한 人力은 中途脫落이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個人은 물론 國民經濟的 觀點에서도 利益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大卒者의 過剩供給이豫想되면 入學定員을 낮추어 對處하여야 하고 入學定員과 卒業定員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 高學歷의 增大에 따른 高級人力의 海外流出問題는 國民經濟의 開放化·國際化추세와 密연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人口增加壓力의 面도 있기 때문에 海外移民·就業을 적극 권장해야 할 사정도 있다. 다만 海外移住者的 學歷構成이 高學歷者에 현중되어 있고 이들 高學歷者の一方의 海外流出이 지속적으로 擴大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政策方向은 國民一般의 海外移住·海外就業 등은 적극 권장하되 海外永久移住者的 경우 學歷水準別로 「教育投資還收稅」를 附加하여 그동안 이들에 대한 社會的 教育投資費用의一部만이라도回收하여 低所得層의 장학사업 등에 活用, 國內人力의 高級化를 提高시키는 方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하겠다.

사. 高學歷者の 大量生產에 따라 수반되는 高等教育의 質低下問題와 그 結果로 더욱 深化될 教育과 勞動市場의 連繫性 不足問題가 앞으로 激化되는 國際競爭속에서 高生産性, 高賃金時代로 들어가는 80年代 우리 經濟가 當面할 가장 重要한 問題中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對處하기 위해

첫째, 高等教育機關의 教科課程, 教科內容의 決定, 新設學科의 설치여부, 學科別 定員管理 등에서부터 學事行政 一般에 이르기까지의 諸問題를 경직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해 오

던 종전의 文教政策을 보다 自律性과 弹力性을 높이는 方向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둘째, 同時에 勞動市場의 情報가 보다 組織的이고 迅速하게 高等教育機關에 전달될 수 있는 情報傳達體係가 確立되어 現代產業社會의 急變하는 技術 및 管理體係의 變化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高等教育機關의 教育內容 속에 反映,吸收되도록 해야 한다.

세째, 反面에 企業은 必要한 專門技能人力과 專門經營管理人力을 종전과 같이 高等教育機關에만 의존하려는 安易한 勞務·人力政策의 前近代性을 탈피하여야 한다. 社內訓練 및 教育의 強化, 勤績의 長期化 誘導 등을 통해 必要專門人力을 社內에서 自體的으로 育成 調選하려는 努力이 절대 必要하다.

네째, 위와 같은 方向으로의 政策摸索을 위한 하나의 制度的 裝置로서 勞動部, 科技處, 文教部가 共同으로 常設「人力開發委員會」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國民經濟的 次元에서의 人力需給 및 活用狀況의 수시 점검, 中·短期 人力의 需給計劃의 공동작성 및 집행, 그리고 微視的으로는 產學協同을 위한 現場教育強化, 公共教育機關과 社內教育訓練機關의 優秀教員確保, 卒業後 進路, 就業指導強化, 產業 및 勞動市場構造變化에 따른 현행 교육기관의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의改善, 職業訓練 및 職業安全網擴大 등등, 人力開發과 效率的 人力活用을 위해 研究改善되어야 할 諸問題들을 보다 有機的으로 검토, 종합적인 對策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教育과 勞動市場의 連繫性을大幅 強化하여 人力의 보다 效率的인 開發, 配分, 活用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人力問題의 最大難題인 소위 「豐饒 속의 貧困」이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具本英, 「韓國의 潛在價格係數推定」, 『韓國開發研究』, 第3卷 第2號, 韓國開發研究院。
朴世逸, 「우리 나라教育投資收益率分析」,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朴烜求, 「職種別 人力需給展望과 對策」, 『韓國開發研究』第3卷 第2號, 韓國開發研究院。

- 洪思媛·金思憲, 『韓國海外移民研究』, 研究·調查報告 第79-03卷, 韓國開發研究院。
Koo, Sung-Yeal, *A Demographic-Economic Model for Korea: Long-term Demographic Prospect and policy Impacts*, Working Paper 8201, KDI, 1982.
Hong, Wontack,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DI, 1979.

〈附表 1〉 學歷別 卒業者 및 新規流入勞動力 推定方法

(1) 卒業者數

우선 1982~86年間은 文教部 第5次5個年經濟社會開發計劃을 토대로 하였다.

1987~91年間의 推定은 다음과 같다.

中卒者=(15세 人口)×(15세 人口對比 中卒率)

高卒者=(18세 人口)×高卒率

高卒率=(人口對比 中卒率)×(高等學校 進學率)×(1-中退率)

2年制卒業者=(1988年 졸업정원에서 每年 5千名씩 증가)+(教大 5.5千)

大學院卒業者=81年以後 每年 2~4千名씩 증가

(2) 新規流入勞動力

流入勞動力人口=潛在勞動力人口×經濟活動參加率×生殘率에서

潛在勞動力人口의 推定은 다음과 같다.

中卒勞動力=中卒者×(1-進學率)

高卒勞動力=高卒者-(高等教育機關 入學定員)×(1-再修率)

2年制勞動力=2年制卒業者

4年制勞動力=4年制卒業者×(1-進學率)

大學院勞動力=大學院卒業者

여기에서의 經濟活動參加率은 朴世逸(1982)의 〈附表 1〉의 經濟活動參加率의 10年間 男女平均值을 적용하였고, 生殘率은 1980年 人口센서스의 死亡率의 10年間 平均值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年齡別 人口推計는 具成烈(1982)推計를 使用하였다.

〈附表 2〉 教育程度別 勞動力의 需給豫想 推定方法

우선, 供給純增加豫想分=(1981~91年間 各學歷別 新規勞動力 合計)-(1980年 以前의 各學歷別 勞動力人口 「스톡」)×(1991年까지의 生殘率)의 式에서 구하였다,

需要純增加豫想分(I)은 1980年 學歷別 構成比를 不變이라고 가정하고 1991年的 各 學歷別 需要를 推定하고, 여기서 80年的 既存 需要在 「마이너스」하여 구하였다. 자세한 자료는 〈附表 2-1〉에 수록하였다.

需要純增加豫想分(II)은 1966年, 70年, 75年, 80年的 職種別 學歷別 構成比를 單純回歸分析 推定에 의해 1991年的 構成比를 구하고, 그다음은 方法(I)과 마찬가지로 하였다. 자세한 자료는 〈附表 2-2〉에 수록하였다.

〈附表 2-1〉 1980年 學歷別 比率不變時 1991年 需要豫想分

(단위 : 千名)

	1980年 計 A	1991年 計 B	1980 中卒數 C	1980 中卒比率 C/A	1991 比率不變時 中卒數 B·C/A	1980 高卒數 D	1980 高卒比率 D/A	1991 比率不變時 高卒數 B·D/A
專門技術	580.9	1,433	28.5	4.9	70.2	125.7	21.6	309.5
管理行政	133.6	365	11.3	8.5	31.0	34.6	25.9	94.5
事務	1,203.2	2,480	112.6	9.4	233.1	703.5	58.5	1,450.8
販賣	1,531.1	2,693	372.7	24.3	654.4	448.6	29.3	789.0
服務	894.6	1,785	246.4	27.5	490.9	209.2	23.4	417.7
農業	4,768.4	3,737	587.5	12.3	459.7	309.3	6.5	242.9
生產	3,569.7	6,240	1,232.6	34.5	2,152.8	806.1	22.6	1,410.2
計	12,682.4	18,733	2,591.8	21.8	4,092.1	2,637.0	20.7	4,714.6

	1980 2年制 卒數 E	1980 2年制 比率 E/A	1991 比率不變時 2年制數 B·E/A	1980 4年制 卒數 F	1980 4年制 比率 F/A	1991 比率不變時 4年制數 B·F/A	1980 大學以上 數 G	1980 大學以上 比率 G/A	1991 比率不變時 大學以上數 B·G/A
專門技術	89.7	15.4	220.7	305.4	52.6	753.8	395.1	68.0	974.5
管理行政	2.7	2.0	7.3	71.4	53.4	197.1	74.1	55.4	204.4
事務	29.7	2.5	62.0	253.8	21.1	523.3	283.5	23.6	585.3
販賣	12.1	0.8	21.5	93.6	6.1	164.3	105.7	6.9	185.8
服務	5.6	0.6	10.7	26.9	3.0	53.6	32.5	3.6	64.3
農業	7.5	0.2	7.5	17.7	0.4	15.0	25.2	0.6	22.5
生產	19.1	0.5	31.2	60.9	1.7	106.1	80.0	2.2	137.3
計	166.4	1.3	360.9	829.7	6.5	1,813.2	996.1	7.8	2,174.1

〈附表 2-2〉 1991年 職種高級化時 大學以上數

(단위 : 千名)

1991年 職種高級化時 大學以上의 比率	1991年 職種高級化時 大學以上 數
84.9	1,216.6
68.3	249.3
20.4	505.9
9.7	261.2
4.4	78.5
0.6	22.4
2.8	174.7
	計 2,508.6

資料：經濟企劃院，『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各年度。

實物部門에의 外生的 摘亂과 換率政策의 長·短期效果

嚴 峰 成

▷ 目 次 ◁

- I. 序 論
- II. 基本模型
- III. 油價引上의 影響과 對應政策
- IV. 硬直的 貨金과 物價下에서의 換率引上의 效果
- V. 収益性과 資本의 蓄積—長期分析
- VI. 結 論

I. 序 論

70年代의 두 차례에 걸친 油價引上波動과 그에 副應한 國際原資材價格의 暴騰은 世界經濟를 「스태그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데 決定的 役割을 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輸入原資材에의 依存度가 높은 경우 더욱 심각했다. 물론 石油를 비롯한 其他原資材 價格은 그간의 節約 努力과 景氣沈滯로 因한 需要減退등으로 最近 많이 安定되었

고 심지어 下落되기까지 하였으나 우리는 결코 새로운 價格引上충격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現實의 重要性에 비추어 그동안 輸入原資材 價格上昇의 巨視經濟的效果와 그에 대한 對應政策에 關하여 많은 研究가 있어왔다.例를 들면, 「턴노브스키」와 「카스푸라」(Turnovsky & Kaspura, 1974)가 「케인즈」類의 模型을, 그리고 「슈미트」(Schmid, 1976)가 通貨論者模型을 각각 通用하여 分析한 以來 最近엔 「핀들레이」와 「로드리게즈」(Findlay & Rodriguez, 1977), 「보루노」와 「삭스」(Bruno & Sachs, 1979) 그리고 「옵스트펠트」(Obstfeld, 1980) 等이 있다. 이런 最近 研究들은 變動換率制度下에서의 經濟의 調整問題를 主研究對象으로 하였으며, 예전의 研究들에 비해, 最適生產決定에 입각하여 財貨의 供給側面을, 그리고 資產選擇理論에 基礎하여 資產市場의 動態的 側面을 더욱 發展시킨 模型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投資 및 資本量의 變化로 發生하는 長期의 인構造調整問題는 論外로 하여 주로 短期 安定

化問題의 分析에만 置重하였다.

本研究의 目的은 油價引上의 巨視經濟의 波及效果와 對應政策(特司 換率政策)의 長·短期役割의 分析에 있다. 이를 위해 輸入原資材를 生產要素로 追加한 小規模 2部門(交易財와 非交易財¹⁾) 開放經濟模型이 使用되었다.

油價引上과 같은 實物部門에의 攪亂은 그것이 生產과 消費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交易財와 非交易財의 相對價格, 所謂 實質換率(real exchange rate)을 變化시킨다. 그리고 換率政策은 그 세로운 均衡 實質換率水準으로의 接近을 促進시켜줄 수 있다는 點에서 훌륭한 對應政策이 될 수 있으며 이는 通貨論者 模型에 있어서一般的으로 成立되는 名目變數의 長期的 中立性에 의해 看過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토대로 本研究는 「케인즈」派와 通貨論者들의 主張을 綜合한 흥미있는 對應政策을 끌어낼 수 있었다. 長期的으로는 均衡實質換率이 經濟의 實物側面으로부터 決定되어 주어지고 投資의 收益性 變化를 통한 實質換率과 資本量間의 動態的 關係가 성립한다. 이 關係는 또한 硬直的 貨金下에선 雇傭과 經濟成長의 週期的 變化現象을 빚어낸다.

本研究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基本模型이 II章에서 要約되며, III章에서는 油價上昇의 物價, 部門別 生產 및 雇傭, 그리고 國際收支에

대한 영향과 對應政策의 效果가 論議된다. IV章에선 貨金과 ·價格의 硬直性이 經濟의 調整에 대해 갖는 意味와 이 경우의 政策代案을 고려한다. V章에선 長期에 있어서 油價引上의 雇傭 및 成長에의 波及效果와 換率政策의 役割에 대한 分析을 한다.

II. 基本模型

I章에서는 本研究에 使用될 理論的 模型의 構造를 實物的 側面과 金融的 側面으로 나누어 간단히 소개하고 그 두 側面의 긴밀한相互作用下에서의 產出量, 雇傭, 物價 및 國際收支의 決定過程을 說明하고자 한다.

먼저 實物的 側面을 살펴보면 典型的인 小規模 開放經濟模型에 非交易財部門을 追加하였다²⁾. 이 경우 交易財와 非交易財란 각각 「 Hicks」型의 複合財(Hicksian composite commodity)로서 그 部門內의 諸財貨間의 相對價格은 不變이라 假定된다. 小規模經濟에 있어선 世界市場에서 決定된 交易財價格이 外部로부터 一方的으로 주어지므로 國內交易財市場에서의 需給不均衡은 價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貿易收支의 變動을 招來하게 된다. 反面에 非交易財市場에서의 不均衡은 價格變動에 의해서 解消된다. 價格은 完全伸縮的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硬直的인 價格變動의 效果도 아울러 分析된다.

한편 交易財와 非交易財間의 相對價格³⁾은 各 財貨의 需要와 供給에 영향을 미쳐 經濟의 自生的 調整을 可能하게 하는 重要한 變數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實物側面의 構造에 本研

1) 交易財, 非交易財의 區分은 現實的으로 보호할 경우가 많으며 엄밀한 意味에선 時間의 흐름에 따라 그 構成이 바뀌는 動態的 개념이다.

2) 이런 模型은 「솔터」(Salter), 「스완」(Swan), 「코든」(Corden)等에 의해 開發되어 '오스트랄리아 模型'이라 불리운다. 이에 關한 仔細한 說明과 이와 비슷한 '스칸디나비아 模型'과의 根本的 差異에 關해선 「돈부쉬」(Dornbusch, 1980) 參照.

3) 非交易財의 存在를 無視한 경우엔 보통 輸出財와 輸入財間의 相對價格, 즉 交易條件이 重要變數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기서 輸出財와 輸入財 모두가 交易財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究의 分析에 꼭 必要한 다음 두 가지 要素를 몇 불인다. 첫째, 우리나라처럼 資源의 海外依存度가 높은 나라의 경우, 總輸入中 輸入原資材가 차지하는 比重이 크므로, 이 輸入原資材(以下에선 石油로 代表된다고 간주함)를 勞動, 資本과 더불어 하나의 獨立된 生產要素로서 포함시킨다. 둘째, 短期分析에서는 資本은 固定된 것으로 假定되나 長期分析에선 投資收益性의 變動에 따른 資本量의 變化를 고려한다. 以上的 두 가지 特性은 各財貨의 生產函數와 投資行爲에 關한 特定한 假定下에 追加되어 그 假定은 나중에 소개하기로 한다.

아직 未發達된 金融制度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開發途上國의 金融的側面은 매우 간단한 構造로 되어 있다. 우선 通貨供給은 다음 세 가지 要因에 依해 變動된다. 첫째, 對民間部門與信을 通한 通貨量變動으로서 이는 政策變數이므로 달리 言及되지 않는 한 一定하고 간주된다. 둘째, 財政證券市場의 未發達로 因하여 財政赤字는 거의 대부분 中央銀行으로부터의 借入으로 補填됨으로써 財政赤字 또한 重要한 通貨量變動要因이 된다. 이 점은 특히 金融面의 波及效果를 고려하지 않은 純粹한 財政政策이란 現實經濟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 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財政赤字와 通貨量과의 密接한 關

係로 인하여 油價引上에의 難題한 對應政策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開放經濟에선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量變動을 無視할 수 없다. 즉, 國際收支不均衡으로 인한 純外貨資產의 增減으로 發生하는 通貨量增減要因이다.

한편 個個의 經濟主體는 所得의 一定比率만큼의 通貨保有를 希望하고 있다고 假定한다. 이는 通貨政策의 實物面의 波及效果가 「캐인즈」流의 利子變動으로 因한 最適資產選擇效果(portfolio effects)를 通해서 라기보다는 「캐임브리지」流의 實質殘高效果(real balance effects)를 通해서 實現된다는 것을 暗示한다. 이와 같이 單純화된 通貨需要의 決定 및 通貨政策의 實物效果 波及經路는 理論的 分析을 為해서 必要한 節次이기도 하지만, 利子率이 기본적으로 政策當局의 管理를 받아온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보면 그다지 큰 歪曲은 없으리라 판단된다⁴⁾.

1. 生產, 雇傭 및 消費

分析의 厥의를 위해 非交易財의 生產에는 勞動만이 投入되고, 交易財部門에서는 勞動과 함께 石油와 資本財도 使用된다고 假定한다⁵⁾. 이 假定은 海外依存度가 높고 工業化 進行速度가 빠른 나라들 特有의 產業構造에 비추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一般的으로 非交易財는 勞動集約의인 서비스部門의 產物이고, 輸出의 大部分이 石油 및 資本集約의인 工產品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小規模經濟에 있어서의 交易財生產은 有效需要에 의해 制約되지 않는 反面, 모든 需要面에서의 變化는 非交易財部門에 영향을 미친다. 勞動은

4)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狀況에서도 通화량變動은 期待物價上昇의 變化를 招來하여 資產選擇效果를 통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可能性은 本研究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5) 이 假定은 다음과 같은 分析의 厥의를 가져다 준다. 첫째, 非交易財生產에는 勞動만이 唯一한 生產要素이므로 非交易財價格은 貨幣水準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非交易財市場을 分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둘째, 자본은 交易財生產에만 投入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資本量變化에 따른 長期分析을 단순화 시켜준다. 왜냐하면 各部門間의 分配를 고려할 必要가 없고 단지 資本의 蓄積率을 分析하면 되기 때문이다.

部門間에 自由롭게 移動할 수 있어 勞動市場의 不均衡은 賃金의 變動에 의해 解消된다. 資本量은 短期分析에서는 固定된 것으로 假定되며 資本量變化의 可能性은 長期分析 (V章)에서 고려된다. 規模에 대한 收益不變(Constant Returns to Scale)인 生產函數를 假定하면 交易財部門에서의 競爭的企業의 利潤極大化로부터 다음과 같은 交易財供給(S_t)과 勞動需要(L_t^d)을 구할 수 있다.

$$S_t = S_t [W/P_t, P_z/P_t] \bar{K} \text{ 그리고} \\ L_t^d = L_t^d [W/P_t, P_z/P_t] \bar{K},^6 \dots \dots \dots (1)$$

여기서

W =名目賃金

P_t =交易財의 國內價格, 즉 $P_t \equiv E \cdot P_t^*$ (E 는 換率, $*$ 는 外國通貨表示價格을 의미함).

P_z =石油(Z)의 國內價格, 즉 $P_z \equiv E \cdot P_z^*$ (眞美分치의 부호는 각 說明變數의 바로 밑에 표시됨).

한편 勞動이 競爭的 交易財 部門의 유일한 生產要素라는前述한 假定은 交易財의

6) 労動需要函數의 眞美分치부호는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주어진 고역재의 生산함수 $Q_t = F_t[L_t, Z, \bar{K}]$ 로부터 이윤극대화는 $F_t[L_t, Z] = W/P_t$, $F_t[Z] = P_z/P_t$ 를 의미한다. 이 한계조건을 전미분하면 $dL_t = \frac{F_{zzd}(W/P_t) - F_{Lzd}(P_z/P_t)}{F_{LL}F_{zz} - F_{Lz}^2}$ 가 된다. 여기서 생산함수의 強한 오목성(strict concavity, 즉 $F_{LL}F_{zz} - F_{Lz}^2 > 0$)과 労動과 石油의 相互補完性을假定하면 (즉 $F_{Lz} > 0$), $dL_t/d(W/P_t) < 0$ 그리고 $dL_t/d(P_z/P_t) < 0$ 가 된다.

7) 労動生産性은 一定하여 1이라假定한다.
8) 實質通貨量을 交易財에 對한 購買力으로서만 測定함으로써 通貨論者模型에서 흔히 主張되는 換率變動의 直接的 流動性效果(實質通貨量을 求할 때 交易財價格이나 交易財價格과 交易財價格의 加重平均價格으로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음)을無視한다. 이는 換率變動의 直接的 流動性效果는 總輸入에서 消費財輸入의 比重이 낮은 經濟狀況에선 그 說得力이 弱하기 때문이다.

價格(P_n)은 名目賃金率에 의해, 그리고 勞動需要(L_n^d)는 非交易財에 대한 需要(C_n)에 의해決定됨을暗示한다. 즉, 離隔한 計算單位를 사용하면⁷⁾,

$$P_n = W \dots \dots \dots (2)$$

$$L_n^d = C_n \dots \dots \dots (3)$$

그리고 交易財와 非交易財에 대한 需要是 相對價格(P_t/P_n)과 實質消費支出(C)에 의해決定된다.

$$C_t = C_t [P_t/P_n, C] \text{ 그리고}$$

$$C_n = C_n [P_t/P_n, C] \dots \dots \dots (4)$$

한편 實質消費支出은 實質所得(Y)과 實質通貨量(M/P_n)의 합수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說明한 대로 各經濟主體는 所得의 一定比率만큼의 實質通貨量을 希望하며 實際 保有한 實質通貨量이 이와 差異가 있을 때엔 그의 過不足에 따라 貯蓄(S)이나 消費支出(C)을 發生시킨다는 「메츨러」(Metzler)의 主張에서導出할 수 있다.

$$\text{즉, } S = s(\tilde{M}/P_n - M/P_n) \text{ 그리고 } \tilde{M}/P_n = kY,$$

$$\text{따라서 } C = Y - S = (1 - sk)Y + sM/P_n \dots \dots \dots (5)$$

여기서 \tilde{M}/P_n ⁸⁾은 保有希望하는 實質通貨量이며 $Y = (P_t/P_n)(S_t - P_z Z/P_t) + S_n = Y[P_t/P_n, P_z/P_t]$ 로서 實質附價價值이다.

2. 市場均衡

i) 基本模型의 分析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세 가지 實質變數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q \equiv P_t/P_n$: 交易財와 非交易財의 相對價格, 即은 實質換率(real exchange rate)⁹⁾

$z \equiv P_z/P_t$: 石油와 交易財의 相對價格,
즉 實質油價

$m \equiv M/P_n$: 實質通貨量

이들 實質變數들을 利用하여 方程式(1)에서 (5)까지를 代入, 整理하면 內的均衡(勞動市場均衡)과 外的均衡(交易財市場均衡)의 條件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begin{aligned} \bar{L} &= L^i[q, z] \bar{K} + C_n[q, (1-sk)Y[q, z] \\ &\quad + sm] + G : \text{內的均衡} \end{aligned} \quad (6)$$

$$\begin{aligned} S_t[q, z] - zZ - C_t[q, (1-sk)Y[q, z] \\ &\quad + sm] = X : \text{外的均衡} \end{aligned} \quad (7)$$

여기서 \bar{L} 은 固定된 勞動供給

G 는 非交易財에 대한 政府支出¹⁰⁾

X 는 貿易收支黑字를 表示한다.

어떤 一定時點에서 外生的인 實質油價와 그 時點의 通貨量이 주어지면, 經濟는 一時的 均衡(temporary equilibrium)에 도달하고, 非交易財價格, 貿易收支, 部門別雇傭과 生產量等의 內生的 变數들의 均衡值가 決定된다. 이령

게 決定된 貿易收支는 다음의 動態方程式에 따라 通貨供給을 週期變化시킨다.

$$\dot{M} = P_t X + P_n G^{11)} \dots \quad (8)$$

따라서 經濟는 一聯의 一時的均衡들을 거쳐 마침내 더 以上 通貨量 增減이 없어지는 ($\dot{M} = 0$) 完全均衡(full equilibrium)을 向해 收斂하게 된다. 아래의 分析에 있어선 이와 같은 經濟의 動態的 調整過程을 簡化하여 外部擾亂要因의 週期效果와 지연된 효과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III. 油價引上의 影響과 對應政策

方程式 (6)과 (7)을 全微分하여 얻은 內的均衡과 外的均衡의 간단한 圖解가 [圖1]에 그려져 있다. 曲線 LL 은 內的均衡을 가져올 수 있는, 즉 勞動市場을 均衡狀態에 끌어들이는, 實質換率(q)과 實質通貨量(m)의 組合을 表示한다. 曲線 LL 이 右下向하는 理由는 다음의 간단한 例에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曲線 LL 위의 어떤 均衡點에서 갑자기 通貨供給의 增加가 있다고假定해보자. 이는 非交易財需要를 增大를 招來하여 非交易財 部門에서의 勞動需要를 增加시킨다. 勞動市場의 均衡 회復을 위한 유일한 方法은 實質換率의 下落(appreciation)¹²⁾을 通過해서 交易財部門에서의 勞動需要가 減少되는 것이다. 한편 換率의 自生的變化를 期待할 수 없는 固定換率制度下에서 實質換率의 下落은 非交易財價格의 上昇으로 實現될 수 있다. 曲線 LL 의 基本特徵은 다음과 같다.

9) 小規模開放經濟에선 外國通貨表示交易財價格은 外生變數이므로 $q (\equiv P_t/P_n \equiv E \cdot P_t^*/P_n)$ 의 變화는 사실상 E/P_n 의 變化로 볼 수 있기 때문에 q 를 實質換率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關稅 및 非關稅等 其他 交易財의 國內價格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 存在할 경우엔 $q \equiv P_t/P_n \equiv \frac{E(1+T) \cdot P_t^*}{P_n}$ 으로 表示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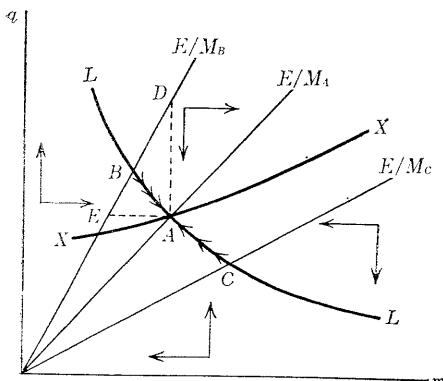
여기서 T 는 關稅 및 非關稅를 가리킨다.

10) 交易財에 대한 政府支出의 增加는 國內經濟問題를 해소하는데 그나지 기여하지 못하고 다만 貿易收支만을 惡化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1) 純政府支出(G)은 財政政策의 效果를 分析할 때를 제외하고는 零으로假定된다.

12) 名目換率이건 實質換率이건 換率은 보통(英國除外)外國通貨 1單位의 國內通貨表示價格으로 表現되므로 換率의 下落은 國內通貨價值의 appreciation을 말하며 換率의 上昇은 depreciation을 말한다.

[圖 1] 內的 및 外的均衡



$$\frac{dq}{dm} = -\frac{sC_{nc}^+}{L_{tq}^+ + C_{tq}^+ + C_{nc}^+(1-sk)Y_q^+} < 0$$

曲線LL의 右上方에서는 超過勞動需要가 있게되어 貨金(따라서 非交易財 價格)이 上昇하며 左下方에서는 그 反對가 成立한다.

曲線XX는 外的均衡(貿易收支均衡) 狀態를 유지하기 위한 q 와 m 의 組合을 보여준다. 曲線XX의 기울기는

$$\frac{dq}{dm} = \frac{sC_{tc}^+}{S_{tq}^+ - zZ_q^+ - C_{tq}^- - C_{tc}^-(1-sk)Y_q^+} > 0$$

인데,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現實的 可能性이 큰 다음 두가지 假定下에서 右上向하게 된다. 즉, 實質換率의 變化에 따른 交易財 消費需要에 있어서의 代替效果가 所得效果를 능가하고(즉, $|C_{tq}| > C_{tc}(1-sk)Y_q$) 또한 實質貨金(q 의 逆數)의 變化가 石油需要¹³⁾에 미

치는 영향(Z_q)이 충분히 작다는 假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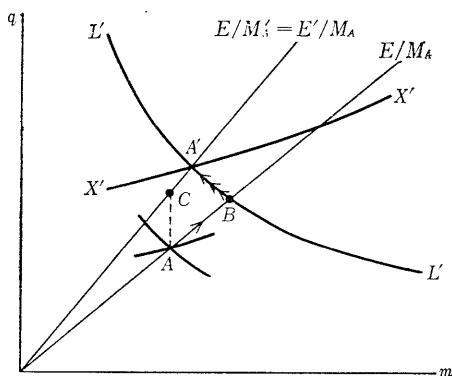
XX曲線의 左上方에서는 貿易黑字가 있게된다. 한편 원점으로부터의 直線은 一時의으로 固定된 換率과 名目通貨量(E/M)의 比率을 나타내며 通貨量變化나 換率引上等에 의해 原點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된다. 貨金과 價格이 완전히 伸縮的이라고 假定하면 一時的均衡點들은 항상 曲線LL上에 있게되고 그 구체적 위치는 그 時點에서의 通貨量에 따라 設定된다.

[圖 1]에서 보면 通貨量이 각각 M_B 와 M_C 일 때의 一時的 均衡점인 B와 C는 그 狀況에서의 貿易不均衡(B에서는 黑字, C에서는 赤字)이 外貨資產增減을 통해 通貨量 變動(monetization of trade imbalance)을 招來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完全均衡점인 A로 接近해 간다. 여기서 $M_B > M_A > M_C$ 임을 주의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은 貨金과 價格이 完全硬直的이지 않는 한 經濟는 恒常 完全均衡點을 向해 수렴될 수 있다는(즉 安定的이라는) 것을 [圖 1]에서의 動的變化方向을 表示한 華 살표들로부터 알 수 있다. 한편 伸縮的인 貨金과 價格下에선 名目變數의 變動은 長期的으론 實物效果가 없다는 가설(long-run neutrality)은 이 模型에서도 역시 立證될 수 있다. 換率引上은 貿易收支의 一時的 改善을 가져올지 모르나 時間이 감에 따라 이와 같은 短期的 利益은 사라지고 만다. 왜냐하면 貿易黑字로招來된 通貨量增加는 消費需要를 振作시켜 貿易收支는 다시 惡化되기 때문이다. 이 中立性의 論理는 [圖1]에서 明確히 알 수 있다. 經濟가 처음에 完全均衡點 A에 있다고 假定하면 換率引上이나 通貨供給減少에 의해 經濟는 一時的 均衡點 B로 이동한다¹⁴⁾. 그러나 點 B에서 발생한 貿易黑字에 의해 通貨量 및 物價가 원래

13) 石油需要와 그의 乘미분치는 勞動需要의 경우와 비슷하게 誘導될 수 있다.(註6 參照).

14) 經濟가 통과하는 經路는 換率引上이나 通貨供給減少이나에 따라 약간 달라서 換率引上의 경우에는 ADB, 通貨緊縮時에는 AEB를 따르는데 이는 또한 物價에 대한 반대의 效果를 의미한다. 즉 換率引上의 경우 物價는 올라가고 通貨緊縮時엔 物價는 내려간다.

[圖 2] 油價引上의 效果



의 完全均衡點 A 로 曲線 LL 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물론 完全均衡點 A 는 名目變數의 變化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一時的 貿易收支改善을 오랫동안 持續시킬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은 平價切下와 함께 緊縮通貨政策을 併行實施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미이드」(Meade, 1951)의 主張으로서 後에 需要의 轉換(absorption switching)과 需要의 抑制(absorption reduction)로 불리워진 有名한 政策配合인 것이다.

1. 油價上昇의 影響

油價上昇은 生產과 雇傭의 決定에 있어서 重要的 相對價格變數들 中의 하나인 實質油價(z)를 變化시킴으로써 通貨量이나 換率과 같은 名目變數의 變化와는 달리 直接的인 實物效果를 가진다.

方程式(6)에서 $dq/dz > 0$ 이고 $dm/dz > 0$ 이므로 石油의 相對價格(z)上昇은 曲線 LL 을 右側으로 移動시킨다. 다시 말하면 油價引上은 勞動需要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內的均衡의 회복을 위해선 實質換率의 上昇내지는 實質通貨量의 增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勞動需要의 減少는 交易財生產意慾의 減退로 因하여 直接的으로 뿐만 아니라 油價引上의 負(—)의 所得效果에 의한 非交易財 需要減少로 인하여 間接的으로도 招來된다.

한편 交易財需要에 대한 所得效果가 交易財供給에 대한 直接效果보다 그 絶對值로 보아 작으며 石油消費가 價格非彈力의이라고 假定한다면, 油價引上은 曲線 XX 를 左側으로 移動시킨다¹⁵⁾. 이에 따라 發生한 貿易赤字로부터 外的均衡의 回復되기 위해서는 實質換率의 上昇이나 實質通貨量의 減少가 必要하다.

油價引上에 따른 經濟의 動態的調整過程이 [圖2]에 그려져 있다. 經濟가 처음에 完全均衡點 A 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油價引上衝擊時에 內的均衡을 유지하기 위해 非交易財價格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經濟는 새로운 內的均衡曲線($L'L'$)上의 一時的 均衡點 B 로 옮겨가나 이 과정에선 原點으로부터의 直線(E/M_A)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既存의 換率과 通貨量의 比率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發生되는 貿易赤字로 인해 通貨量이 減少됨에 따라 經濟는 점차 曲線 $L'L'$ 를 따라 새로운 完全均衡點(A')로 움직인다. 이 点 A' 가 一時的 均衡點(B)의 위에 놓여지는지 아래에 놓여지는지의 與否와 따라서 實質換率이 一時的으로 새로운 長期均衡水準을 넘어서는지 아니면 못미치는지(overshooting or undershooting)는 先驗的으로는 알 수 없다. 이는 交易財의 供給과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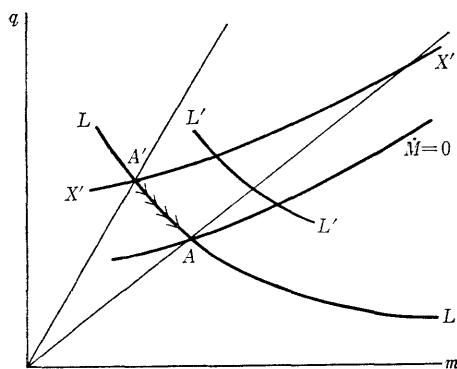
15) 方程式(7)을 全微分하면

$$\frac{dq}{dz} = -\frac{\bar{S}_{tz} - z\bar{Z}_z - Z - C_{tc}^+(1-sk)\bar{Y}_z}{\bar{S}_{tq} - z\bar{Z}_q - C_{tq}^- - C_{tc}^+(1-sk)\bar{Y}_q} \text{이다.}$$

반일 $|S_{tz}| > |C_{tc}(1-sk)Y_z|$ 이고 $Z > |zZ_z|$ 이면

$$\frac{dq}{dz} > 0$$
이다.

[圖 3] 財政政策의 경우



要의 彈力性, 따라서 曲線 XX 의 移動의 크기 가 알려져야만 對答될 수 있는 實證的인 問題 이다.

2. 油價上昇에 따른 對應政策 —換率, 通貨供給 및 財政支出을 中心으로

앞에서 言及된 名目變數의 長期的 中立性을 감안한다면, 換率引上이나 一回의 通貨供給變化 等은 實物部門에 의해서 決定된 새로운 完全均衡點으로의 經濟調整이 보다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政策手段으로 講究되어야 한다. 換言하면, 名目政策變數의 人爲的 操作을 통해 實物經濟의 흐름을 逆行하려는 (leaning-against-the-wind)試圖는 長期的인 觀點에서 보면 失敗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實物經濟調整의 促進을 겨냥한 기민한 政策對應은 持續的인 貿易赤字 및 外貨資產 고갈로 점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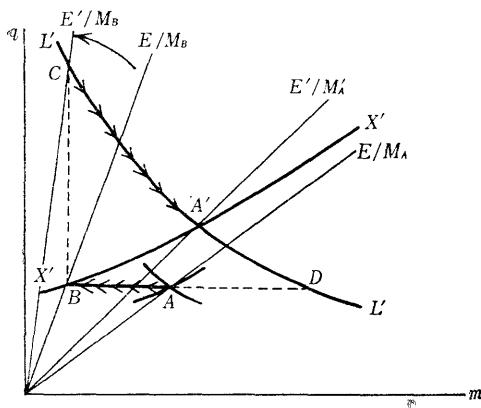
된 忍苦의 適應過程을 短縮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 점은 [圖2]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換率引上이나 通貨緊縮은 둘 다 原點으로부터의 直線 E/M_A 를 E'/M_A (혹은 E''/M_A)로 회전시킴으로써 비슷한 經濟的 效果를 가진다¹⁶⁾. 여기서 $M_A' < M_A$ 이고 $E' > E$ 인 것에 注意해야 한다. 이러한 政策이 취해지면, 經濟는 最初의 均衡點 A에서 곧바로 C로 移行했다가 그 후 貨金과 物價가 下落함에 따라 새로운 均衡點 A'로 收斂해 갈 것이다.

[圖3]에 그려진 財政政策의 경우에는, 財政支出에 수반되는 動態的 通貨量變動效果를 아울러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財政支出의 增加는 油價上昇충격으로 因한 曲線 LL 의 右上向 移動效果를 相殺시켜 원래의 위치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曲線 XX 는 財政支出 增加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¹⁷⁾ 이 때에도 역시 $X'X'$ 로 移動될 것이다. 여기서有意해야 할 점은 財政支出增大의 通貨量增大效果로 因하여 曲線 $X'X'$ 上의 外的均衡이 더以上 通貨量의 安定($\dot{M}=0$)을 意味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즉, 安定通貨量 曲線($\dot{M}=0$)은 $X'X'$ 로부터 右側으로 떨어져 나오게 된다. 外的均衡만으로선 더 이상 通貨量安定을 이룰 수 없다는 事實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意味를 가진다. 油價上昇 충격後 政府의 財政支出이 增大되어서 最初의 均衡點 A에서 A'로 移動했다고 하자(圖3 참조). 그러면 外的均衡은 이를 수 있으나 通貨量은 계속 늘어나 曲線 LL 를 따라 궁극적으로 通貨量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 點A로 經濟를 이동시킨다. 그러나 貿易赤字로 인해 外貨資產이 계속 감소되므로 點A에서 그대로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다. 어떤 時點에 이르러 政府當局은 換率引上来를 통

16) 硬直의인 貨金과 物價下에선 換率引上과 通貨緊縮의效果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는 N章에서 설명될 것이다.

17) 이는 財政支出은 全部 非交易財에 對해서만이라고 假定했기 때문이다(註10 참조).

[圖 4] 貨金과 價格의 下方硬直性下에서의 調整



해 經濟를 다시 A' 點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貿易赤字解消를 기한다. 그러면 全過程이 다시 反復되고 結果的으로 曲線 $A'A$ 上을 계속 往復하게 되는 합정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는 週期的 外貨資產의 고갈과 그에 따른 支拂能力의 危機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換率引上과 物價上昇의 惡循環을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論議되는 換率引上과 인플레의 惡循環은 換率引上 自體의 物價上昇效果 때문이라기 보다는 좀더 根本的으로는 放漫한 通貨增發내지는 通貨量增大效果를 감안하지 않은 財政支出의 擴大등에서 緣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硬直的 貨金과 物價下에서의 換率引上의 效果

이제 까지 우리는 貨金과 物價¹⁸⁾의 完全伸縮

18) 本模型에선 非交易財價格이 貨金에 運動되어 있는 것을 상기할 것. 따라서 아래에선 貨金과 非交易財價格을同一한 概念으로 使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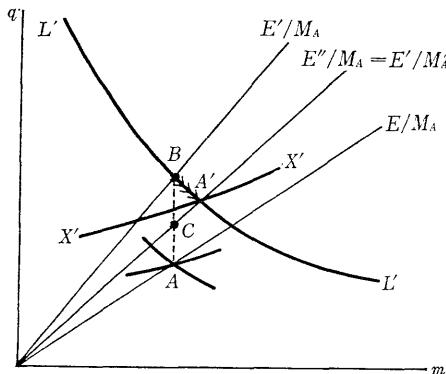
19) 좀더一般的인 貨金調整動態方程式에 依한 分析은 附錄에 포함됨.

性이란 假定下에서 內的均衡이 恒常 維持된다고 간주해 왔다. 그러나 좀더 現實性 있는 硬直的 貨金下에선 이와 같은 內的均衡의 持續은 어려워지므로 이에 수반되는 狀況 및 政策手段의 變化를 分析해 보는 것이 必要하다. 여기선 分析의 質의上, 貨金이 下方으로 完全硬直的인 反面, 上方으로 伸縮的이라는 간단한 假定을 取하기로 한다¹⁹⁾. 이는 本研究의 目的이 量的分析보다는 質的分析 為主임에 비추어 큰 無理가 없을 것이다.

貨金의 下方硬直性은 非交易財 價格의 下落에 依한 實質換率의 上昇을 期待할 수 없게 됨을 意味한다. [圖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油價引上時 招來되는 內的 不均衡은 伸縮的價格下에서 貨金 및 非交易財 價格의 下落을 通過해서 直線 E/M_A 를 따라 재빨리 解消되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점점 더 惡化될 可能性이 크다. 이는 油價引上後 發生한 貿易赤字의 通貨量 減縮效果로 인하여 經濟가 點B로 서서히 움직여나가기 때문이다. 點B에선 外的均衡은 回復되지만 그간 持續된 內的不均衡으로 深刻한 失業問題가 摆頭하게 될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의 政策手段은 极히 制限되어 있다. 예를 들어 通貨供給의 增大는 經濟를 點D쪽으로 옮겨나가는 것을 意味하여 貿易赤字의 擴大라는 비싼 代價를 치러야하는 一時的彌縫策에 불과하다. 財政支出의 增大 역시 Ⅲ章에서 說明된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換率引上이 새로운 균형점 A' 로 移行하기 위한 거의 唯一한 政策手段이고 또한 그것이 흔히 論議되는 것과는 달리 外的均衡 目的이 아닌 內的均衡 目的을 위해 使用된다는 것을 留意해야 한다.

換率引上으로 우리는 새로운 一時的 均衡點

[圖 5] 適切한 換率引上의 경우



C 로 옮아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 非交易財價格의 上昇과 貿易黑字로 인한 通貨量增加를 통해 점차 曲線 $L'L'$ 을 따라 完全均衡點 A' 로接近할 수 있게 된다.

以上의 分析을 基礎로 換率引上政策에 關해 아래의 두 가지 提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油價引上과 같이 外部로부터 實物面에 충격이 加해졌을 때, 이에 對한 對應策으로서의 換率引上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點이다. 이는 產出量의 減少와 外貨資產의 漏出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圖 5]는 이와 같은 適切한 換率引上의 效果를 보여준다. 둘째, 硬直的 物價下에서 最適의 換率引上幅 (E')은 새로운 均衡點 A' 에 의해 直接的으로 示唆되는 것 (E'')보다 커야된다는 點이다. 換言하면, 最適의 換率引上은 그것으로 招來되는 物價上昇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實質換率이 均衡水準(完全均衡點 A' 에서 暗示되는 水準)을 超過하도록 計劃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換率引上幅이 充分하지 못하면(예를 들어 E 에서 E'' 로 引上되었다면) 經濟는 [圖 5]의 C 點으로 옮아간 뒤 左側으로 水平移動하게 되어 결국은 完全均衡點 A' 에 到達할 수 없게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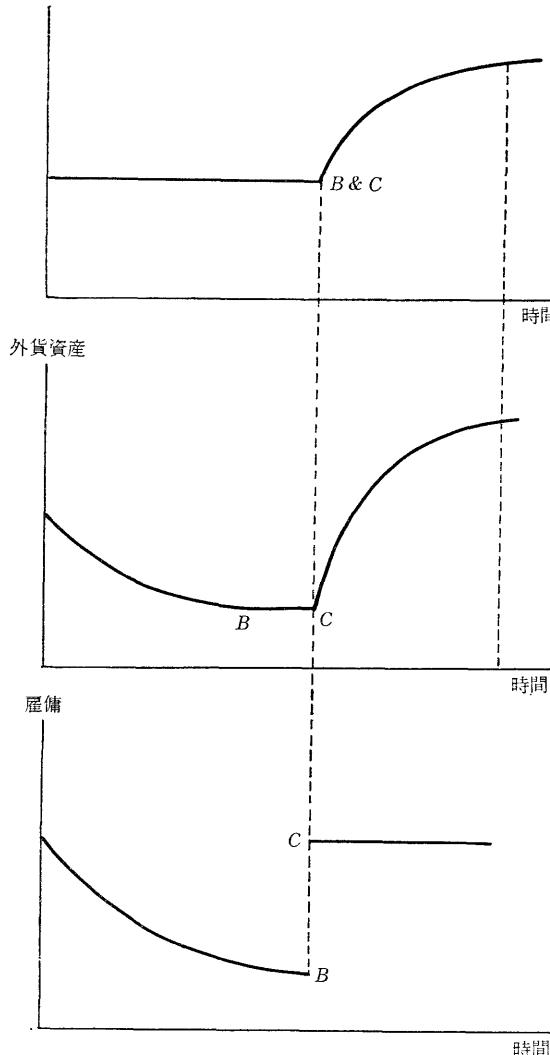
것이다. 參考로 [圖 6]에는 遲延된 換率引上과 時期適切한 換率引上의 物價, 外貨資產, 雇傭에 미치는 效果가 相互比較되어 있다. 時期適切한 換率引上에 依해 失業과 外貨資產의 漏出을 防止할 수 있다는 利點은 遲延된 換率引上의 경우 단지 인플레를 遲延시킬 수 있다는 近視眼的 利點을 輝선 능가할 것이다.

V. 收益性과 資本의 蓄積 —長期分析

이제 까지는 長期巨視經濟의 調整過程에 있어서의 重要한 變數인 投資를 무시함으로써 資本量이 固定되어 있는 경우만을 分析하였다. 그런데 이 假定을 완화하여 資本量이 短期에선 固定되어 있으나 長期의으로는 可變的임을 認定한 理論的研究는 「뮤싸」(Mussa, 1978), 「나어리」(Neary, 1978) 等이며 最近에는 「브루노」(Bruno, 1982), 「나어리」와 「펄비스」(Neary & Purvis, 1981)等의 研究가 이런 理論的 틀을 使用하여 實物的衝擊에 依해 야기되는 資本의 部門間移動과 長期의 構造調整을 說明하였다. 所謂 ‘네덜란드病(Dutch Disease)’라고 알려져 있는, 새로운 資源(石油)發見으로 因한 製造業部門의 萎縮現象은 이들의 主要 分析對象이 되어왔다. 이런 類의 分析을 위해서 다음의 두가지 接近方法中 하나가 採擇될 수 있다. 하나는 生產要素의 供給量은 固定된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 그分配가 焦點이 되는 「헥서-올린」(Heckscher-Ohlin) 模型이다. 다른 하나는 資本의 國際間移動을 인정하여 資本供給이 固定되어 있다는 假定을 완화시키는 方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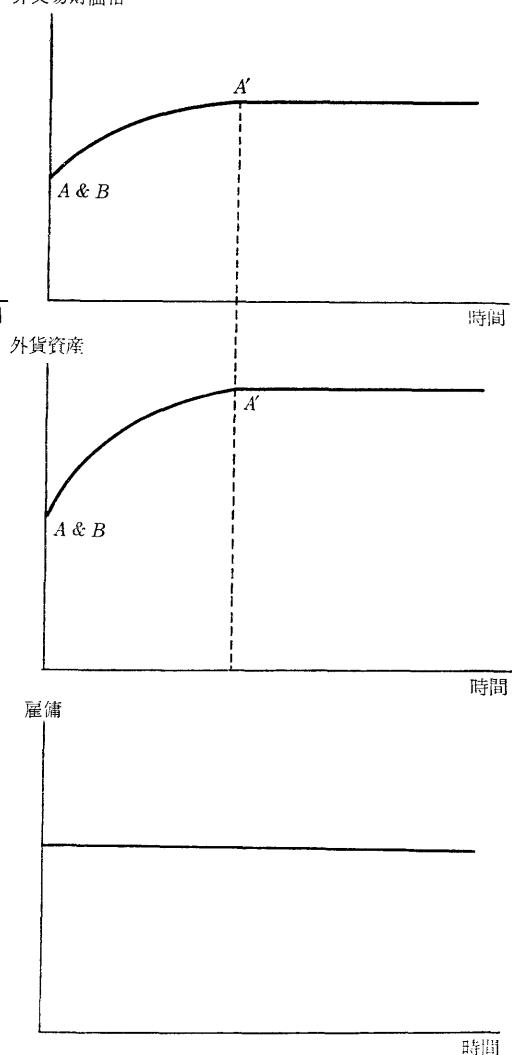
[圖 6] 遲延된 换率引上과 適切한 换率引上の 경우

• 遅延된 换率引上의 경우
非交易財價格



(B,C는 [圖 4]의 點들에 對應한다)

• 適切한 换率引上의 경우
非交易財價格



(A,B,A'는 [圖 5]의 點들에 對應한다)

後者는 國內資本收益率이 長期的으론 國際資本市場의 水準과 같게되는 小規模 國家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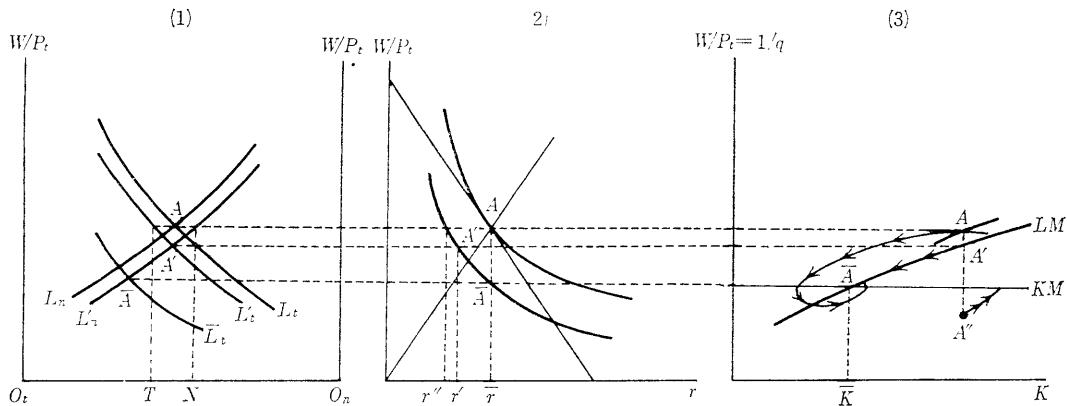
20) 이런 단순한 生產構造로 인해 部門間 資本移動 및 配分에 대한 分析은 할수 없게 되지만, 이 簡単化가 本章의 分析結果를 歪曲시키지는 않는다. 비슷한 分析體系가 「쿠리」(Kouri, 1979) 및 「니어리」와 「펄비스」(Neary & Purvis, 1981)에 의해 使用되었다.

21) 「무사」(Mussa, 1978)는 方程式 (9)에 의한 投資行爲에선 未來收益에 대한 期待가 靜態的(static)으로 간주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우 특히 간단히 適用할 수 있다.

本研究에서는 II章에서 소개된 簡単化된 生產構造²⁰⁾ 위에 國際資本移動을 認定하는 後者的方法을 使用하였다. 資本量(交易財 生產에만 使用됨)은 現在의 實質收益(r)과 國際資本市場의 實質收益(r')의 差異에 따라 變化된다²¹⁾.

[圖 7] 實質賃金과 資本量의 動態的 變化



$$\dot{K} = \phi[r - \bar{r}], \text{ 단, } \phi' > 0 \text{ 이고 } \phi'[0] = 0 \quad \dots \dots \dots \quad (9)$$

本研究의 目的上 生產可能曲線(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의 雙對(dual)인 要素價格曲線(factor price frontier)²²⁾를 使用하는 것 이 편리하다. 이 曲線은 完全競爭下에서 交易財價格이 一定하고 利益이 零일때 要素에 對한 最大補償의 組合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어진 油價에 대해 右下向하고 原點에 대해 볼록하다. 그리고 그 曲線에 대한 接線의 기울기는 接點에서의 特定한 要素價格下에서의 資本과 労動의 投入比率을 나타낸다. 實質油價의 上昇은 이 曲線을 左下方으로 移動시킨다²³⁾. 즉, 石油使用이 줄어들어 労動과 資本의 限界生産性이 낮아지게 되고 企業은 製品價格이 上

22) 國際貿易理論分野에서의 要素價格曲線을 응용한例는 뮤사(Mussa, 1979) 參照.

23) 交易財 生產函數의 弱分離性(weak separability)를 假定하면 즉, $Q_t = F[V(L_t, K_t), Z]$, 단 V 는 附加價值, 要素價格曲線에 있어서도 弱分離性이 成立된다. 즉, $r[f(W/P_t, r), P_z/P_t] = 0$, 따라서 實質油價(P_z/P_t)가 上昇하면 이 曲線은 左下方으로 移動한다.

24) [圖 7-1]~[圖 7-3]에서 A, A', \bar{A} 로 표시된 經濟狀況은 相互一致한다. 즉, 세 그림에서 A 는 最初의 長期均衡點이고 A' 는 처음의 固定된 資本量下에서의 一時的 均衡이며, \bar{A} 는 資本量이 完全히 조절된 후의 새로운 정기균형을 표시한다.

昇하지 않는 한 生產要素에 대한 補償을 출일 수 밖에 없어진다. [圖 7-1]은 勞動供給이 固定되었을 때 交易財, 非交易財 部門의 勞動需要를 나타내고 있다. [圖 7-3]에서는 두개의 主要變數(實質賃金과 資本量)의 動態的 變化 경로가 그려져 있다. 經濟가 처음에 長期均衡點인 A 에 있다고 假定하자²⁴⁾. 油價上昇은 交易財 및 非交易財部門의 勞動需要를 낮추는 한편 要素價格曲線 또한 左下方으로 移動시켜 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要素價格들을 變化시킨다. 그러나 A' 에서 資本收益率(r')은 長期均衡水準(\bar{r})보다 작기 때문에 [圖 7-2 참조] 負(-)의 投資를 통해 資本量이 점차 減縮되어 結局 새로운 長期均衡點 \bar{A} 에 到達할 것이다. [圖 7-3]은 資本量과 實質賃金의 動態的 變化過程을 說明해 준다. 즉, 賃金이 伸縮의 個定하면 短期에서의 資本의 不變性에 由於 經濟는 油價引上의 충격에 A' 로 移動하고 그後 實質賃金과 資本量이 서서히 下落되며 緩少調整됨에 따라 $A'\bar{A}$ 를 따라 점진적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圖 7-1]을 좀더 주의깊게 관찰하면 이 過程에서 非交易財 部門은 髴창하지만, 交易財 部門은 위축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長期 調整過程에서 實質換率의 下落은 非交易財의 消費需要를 增加시킴으로써 非交易財部門의 雇傭이 늘어나는 한편, 交易財部門에서는 資本量 減少추세에 따라 勞動需要는 계속 減少한다는 것이다. 이는 石油發見에 따르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네덜란드 痘’ (Dutch Disease)라고 불리워지는 데 반하여 油價引上충격후의 ‘非產油開途國病’ (Non-oil DC Disease)라고 불리워 질 수 있을 것이다.

分析의 마지막 段階로서 貨金이 硬直的인 경우를 檢討해 보자. 여기서는 勞動需要(L^d)가 限定된 勞動供給을 超過하면 貨金이 上昇하고 또한 그 逆도 成立한다고 하자²⁵⁾. 즉,

$$\dot{W} = \psi[L^d - \bar{L}], \text{ 단 } \psi' > 0 \text{이고 } \psi'[0] = 0 \quad (10)$$

方程式(6)의 勞動市場均衡條件과 한편 完全競爭下에서의 要素價格과 製品價格間의 다음과 같은 關係로부터

$$P_t = a_l W + a_k R + a_z P_z \quad (11)$$

단, a_i ($i=l, k, z$)는 交易財生產에 있어서 單位生產에 대한 投入系數들이고 R 은 名目利子率을 表示한다.

우리는 特定한 (K, w) 에 1:1로 對應하는 (r, L^d) 가 存在함을 證明할 수 있다. 따라서

$$r = r[K, w], \quad L^d = L^d[K, w] \quad (12)$$

단, w 는 交易財 部門의 實質貨金이다 ($w \equiv W/P_t$).

25) 인플레 期待가 첨가된 필립스型의 (Expectations-augmented phillips type) 貨金調整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期待인플레에 의한 追加的 貨金上昇要因은 여기서 排除되었다.

이들을 動態調整方程式 (9)와 (10)에 代入하면

$$\dot{K} = \phi[K, w] \quad (9')$$

$$\dot{w} = \psi[K, w] \quad (10')$$

(9')와 (10')으로 構成된 動態的 體系는 一定한 初期條件들(initial conditions)下에서 經濟의 動態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때 나타나는 各市場均衡曲線(equilibrium locus)를 上의 각點은 短期의均衡點들이다. 長期均衡은 $\dot{K} = \dot{w} = 0$ 일 때만이 成立한다.

이제 이 體系의 局部的 安定性(local stability)에 대해 分析해 보자. 이 體系를 長期均衡을 中心으로 線型化 시켜보면 다음과 같아 된다.

$$\begin{bmatrix} \dot{K} \\ \dot{w} \end{bmatrix} = \begin{bmatrix} \phi_K & \phi_w \\ \psi_K & \psi_w \end{bmatrix} \begin{bmatrix} K - \bar{K} \\ w - \bar{w} \end{bmatrix} \quad (13)$$

安定性 分析을 위해 필요한 Jacobian行列과 其他關聯이 있는 事項들의 誘導는 附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安定性을 위한 必要充分條件를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例外的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 體系는 局部的으로 安定의이라고 結論지을 수 있다. 그 두 가지 例外的 경우는 交易財 生產에 있어 要素代替가 不可能하거나 非交易財에 대한 消費需要가 實質換率에 대해 完全非彈力인 경우다.

[圖 7-3]에서 보면 油價引上은 資本市場(KM)과 勞動市場(LM)의 均衡을 표시하는 曲線(equilibrium locus)들을 모두 下向 移動시킨다. 따라서 硬直的貨金下에선, [圖 7-1]과 [圖 7-2]에서 각각 TN 과 r'' 로 표시되는, 失業과 낮은 資本收益 rate이 不可避해지고 이는 또한 實質貨金과 資本量이 逐차 下向調整되도록 壓

力を加한다。經濟는 初期 均衡點 A 로부터 出發하여 時計反對方向으로 複雑하게 된다。이에 따라 두개의 均衡曲線(KM 과 LM)에 依해 四分된 영역에서 각각 시사되는 바와 같이 實質貨金과 資本收益率 및 資本量의 連續的 變化를 거쳐 結果的으로 物價, 雇傭 및 生產量의 週期的인 變動現象을 招來하게 된다。한편 그調整過程은 貨金이 硬直의 일수록, 生產過程에서 要素間 付替可能性이 낮을수록, 그리고 非交易財에 대한 消費需要가 덜 強力의 일수록 더욱 더 서서히 오펙동안에 걸쳐 進行될 것이다。

위의 論議를 基礎로 하여 換率政策의 長期的效果²⁶⁾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圖 7-3]을 보면 一般的으로 均衡水準보다 높이 換率을 유지함으로써 實質換率을 높일 수 있어²⁷⁾ 急速한 成長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이런 觀察로부터 크롤링·peg(crawling peg)이나 類似한 其他 換率政策을 通해 實質換率을 繼續充分히 높게 維持하여야 한다는 政策提案을 하기 쉽다。例를 들어 [圖 7-3]의 A'' 水準에 維持하여 完全雇傭과 더불어 急速한 成長을 可能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實質換率의 高水準維持는 그 政策施行上의 어려움은 물론 A'' 로부터의 調整過程에 수반된 持續的인 貨金 및 物價의 인플레를 誘發할 危險을 안고 있다。이런 成長指向의 換率政策에 대한 좀더 說得力 있는 評價는 과도한 인플레로 야기되는 損失과 高度或長으로부터 얻은 利得

을 經濟構造에 대한 實證的 知識을 바탕으로 比較分析함으로써 可能할 것이다。

本研究의 模型은 換率政策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政策의 問題에도 適用될 수 있다。예를 들면 輸出補助, 輸入關稅 및 資本輸入에 대한 課稅等은 모두 實質換率이나 資本收益率을 歪曲시킬 目的의 政策手段들이므로 이 模型으로 分析될 수 있을 것이다。이런 政策들이 正當화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世界資本市場의 實質收益率에 의해 外生的으로 주어진 長期均衡 實質換率水準이 貿易收支均衡을 위한 實質換率水準과 乖離될 때, 즉 構造的 不均衡 狀態라 불리울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이때 생길 수 있는 長期的 成長과 短期的 安定에 對한 實質換率의 相反된 役割 및 그런 마찰을 解決하기 위한 政策의 有效性에 대한 仔細한 分析은 本研究의 目的을 넘어서 선 것이다。

VI. 結論

本研究는 非交易財와 輸入原資材의 重要性을 分明히 고려한 간단한 開放經濟模型을 수립分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事實들을 發見하였다。첫째, 名目變數의 變化는 다른 與件의 變化가 없다면 長期的으로는 實物效果를 持續的으로 維持할 수 없다는 長期中立性의 假說이 立證되었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는 반드시 換率引上의 政策的 有用性을 排除하지는 않는다는 點이다。다시 말하자면 貿易收支改善이란 通念上의 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換率引上은 國內支出抑制를 위한 다른 政策手段과 併

26) 金融政策의 長期的 中立性이 成立되는 體系內에서 換率政策의 長期的效果를 論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보일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아래에서 論議되는 換率政策은 지속적인 小規模 換率變動이나 crawling peg 等에 依한 계속된 換率變動을 지칭한다。

27) 높은수준의 實質換率은 낮은 實質貨金을 意味한다.

行되지 않는 한 그 有有用性이 半減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油價上昇과 같은 外生的 교란의結果로 나타나는 實物面의 不均衡 除去를 위한 換率의 役割이 看過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많은 開發途上國에서 혼히 볼 수 있는 持續的인 貿易赤字, 그리고 換率引上과 인플레의 악순환은 그 根本原因을 放漫한 通貨量 增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財政證券市場이 發達되지 않은 狀態에서의 無分別한 財政支出의 擴大에 의해 招來되기 쉽다는 점이다.

세째, 油價上昇 및 그에 對應한 換率引上의 效果가 長期와 短期로 區分되어 分析되었다. 短期에 있어선 油價上昇時 發生하는 貿易赤字와 失業(賃金이 硬直의인 경우)을 解消하기 위해 實質換率의 上昇이 必要하게 되며, 換率引上은 이를 앞당겨 實現시킴으로써 自生的調整過程에서 必然的으로 수반되는 持續的 貿易赤字와 失業의 問題를 防止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換率引上이 成功的이기 위해선 그 時期와 引上幅을 注意깊게 決定해야 한다. 成功的 平價切下로부터의 利益은一般的으로 賃金이나 物價가 下方硬直의인 경우에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長期的 觀點에서 보면 油價上昇은 投資의 收益性을 低下시킴으로써 資本量의 縮小調整 및 實質賃金의 下落(즉, 實質換率의 上昇)을 招來한다. 한편 이 變化過程에 있어서 賃金이 硬直의일 경우 雇傭과 成長의 週期的 増減現象을 보이게 되나 이는 存在可能性이 희박한例外的 狀況을 除外하곤 대체적으로 새로운 均衡點으로 安定的으로 수렴해 갈 것이다. 이 경우 換率政策(크롤링·peg, crawling peg)과 같은 連續的 換率變動은 國際的 資本收益率과 附合되는 均衡實質換率을 中心으로 成長과 인플레에 대한 換率의 相

對的 效果를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附 錄

一資本市場과 勞動市場均衡曲線의 誘導와 動態的 安定性分析—

이 附錄에서는 V章의 微分方程式體系의 解를 구하고 그 安定性을 分析한다. 그 方程式體系는 아래와 같이 資本量(K) 및 賃金(W)의 두 개의 狀態變數들(state variables)에 대한 行態方程式들(equations of motion)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dot{K} = \phi[r - \bar{r}], \text{ 단 } \phi' > 0 \text{이고 } \phi'[0] = 0 \quad \dots \quad (9)$$

$$\dot{W} = \psi[L^d - \bar{L}], \text{ 단 } \psi' > 0 \text{이고 } \psi'[0] = 0 \quad \dots \quad (10)$$

첫째, 資本市場均衡曲線(KM)은 다음과 같이 誘導될 수 있다. 完全競爭下에서 要素價格과 生產物價格間의 關係式인 方程式 (11)로부터

$$\hat{P}_t = \theta_i \hat{W} + \theta_k \hat{R} + \theta_z \hat{P}_z \quad \dots \quad (11)'$$

단, θ_i 는 生產額中 i 要素의 比重이고 變數의 기호($\hat{\cdot}$)는 變化率을 나타냄.

이 式으로부터

$$\hat{r} = (\hat{R} - \hat{P}_t) = -\frac{\theta_i}{\theta_k}(\hat{W} - \hat{P}_t) - \frac{\theta_z}{\theta_k} \hat{P}_z : \\ KM$$

國際間 資本移動下에서는 長期의 實質資本收益率은 國際收益率(\bar{r})와 같아져야 하므로

$\hat{R} - \hat{P}_t = \hat{\pi}$ 이다. 資本市場均衡曲線(KM)은 現行 資本量과는 관계없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勞動市場均衡曲線(LM)은 方程式 (6)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誘導될 수 있다.

$$0 = \hat{L}^d = \lambda_{lt}(\hat{a}_l - \hat{a}_k - \hat{K}) + \lambda_{ln}\hat{L}_n \quad \dots\dots (6)'$$

단, λ_{lt} 는 總勞動需要에 대한 i 部門에서의 勞動需要의 比重을 말한다. 方程式 (6)'는 交易財生產過程에서의 代替彈力性(σ_i)를 써서 더 축약될 수 있다. 즉, $\hat{a}_l - \hat{a}_k = -\sigma_t(\hat{W} - \hat{R})$ 의 關係를 利用하여

$$\begin{aligned} & \left(\frac{\lambda_{lt}\sigma_t}{\theta_k} + \lambda_{ln}\varepsilon_{nw} \right) (\hat{W} - \hat{P}_t) = (\lambda_{lt} + \lambda_{ln}\varepsilon_{nk}) \hat{K} \\ & - \frac{\lambda_{lt}\theta_z\sigma_t}{\theta_k} \hat{P}_z : LM \end{aligned}$$

단, ε_{nw} 와 ε_{nk} 는 각각 實質換率과 資本量에 대한 非交易財消費需要의 彈力性을 表示함. 여기서 $|\partial(\hat{W} - \hat{P}_t)/\partial\hat{P}_z|_{KM} > |\partial(\hat{W} - \hat{P}_t)/\partial P_z|_{LM}$ 이며 이에 의해 油價引上後 資本量이 減少한다는 것이 證明된다.

長期均衡點 中心으로 體系를 線型化하면

$$\begin{bmatrix} \dot{K} \\ \dot{w} \end{bmatrix} = \begin{bmatrix} \phi_K & \phi_w \\ \psi_K & \psi_w \end{bmatrix} \begin{bmatrix} K - \bar{K} \\ w - \bar{w} \end{bmatrix}$$

단, Jacobian 行列의 各 원소는 $\phi_K=0$, $\phi_w = -\varepsilon_\phi \frac{\theta_t}{\theta_k}$, $\psi_K = \varepsilon_\phi(\lambda_{lt} + \lambda_{ln}\varepsilon_{nk})$ 그리고 $\psi_w = -\varepsilon_\phi \left(\frac{\lambda_{lt}\sigma_t}{\theta_k} + \lambda_{ln}\varepsilon_{nw} \right)$

局部的 安定의 必要充分條件은 $trace < 0$, $det > 0$ 이다. 이 條件들은 $\sigma_t = \varepsilon_{nw} = 0$ 의 경우를 除外하곤 충족된다. 이例外的 경우의 經濟的 意味는 本文에서 說明되었다. Jacobian 行列의 特性根(characteristic roots)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begin{aligned} & -\varepsilon_\phi \left(\frac{\lambda_{lt}\sigma_t}{\theta_k} + \lambda_{ln}\varepsilon_{nw} \right) \\ & \pm \sqrt{\varepsilon_\phi^2 \left(\frac{\lambda_{lt}\sigma_t}{\theta_k} + \lambda_{ln}\varepsilon_{nw} \right)^2 - 4\varepsilon_\phi\varepsilon_\psi \frac{\theta_t}{\theta_k} (\lambda_{lt} + \lambda_{ln}\varepsilon_{nk})} \end{aligned}$$

따라서 σ_t , ε_ϕ 혹은 ε_{nw} 가 를수록 빨리 均衡點으로 收斂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Bruno, M. and J. Sachs, "Supply versus Demand Approaches to the Problem of Stagflation," NBER working paper, No. 382, 1979.

Bruno, M., "Adjustment and Structural Change under Supply Shocks," Seminar paper No. 193, University of Stockholm, 1982.

Dornbusch, R. *Open Economy Macroeconomics*,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 York, 1980, Ch. 6, pp.93~116.

Findlay, R. and C.A. Rodriguez, "Intermediate Imports and Macroeconomic Policies Under Flexible Exchange Rat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X, No. 2, 1977, pp.208~217.

Kouri, P., "Profitability and Growth in a Small Open Economy," in A. Lindbeck (ed.), *Inflation and Employment in Open Economies*, Amsterdam: NorthHolland, 1979, pp.129~142.

Meade, James E., *The Balance of Payments*

- (*The Theory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Vol. 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 Mussa, M., "Dynamic Adjustment in the Heckscher-Ohlin-Samuelson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No.86, 1978, pp.775-791.
- Mussa, M., "The Two-sector Model in Terms of Its Dual Geometric Expos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No.9, 1979, pp.513-526.
- Neary, J.P., "Short-run Capital Specificity and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Journal*, No.88, 1978, pp.488-510.
- Neary, J.P. and D.D. Purvis, "Real Adjustment and Exchange Rate Dynamics,"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n 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NBER, 1981.
- Obstfeld, M., "Intermediate Imports, the Terms of Trade, and the Dynamics of the Exchange Rate and Current Accou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No. 10, 1980, pp.461-480.
- Schmid, M., "A Model of Trade in Money, Goods and Fac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No.6, 1976, pp.347-361.
- Turnovsky, S.J. and A. Kaspura, "An Analysis of Imported Inflation in a Short-Run Macroeconomic Model,"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II, No. 3. 1974.

韓國의 國際收支와 換率의 同時的 決定에 대한 通貨論의 接近

金 仁 哲

.....▷ 目 次 ◇.....

- I. 序 論
- II. 國際收支·換率決定에 대한 通貨的 接近
- III. 實證的 分析
- IV. 要約과 結論

I. 序 論

本稿의 目的은 管理變動換率制度(managed floating system)를 實施하는 開放經濟體制下에서 國內與信이 國際收支나 換率에 어여한 影響을 미치는지를 檢討해 보는 데 있다. 종래의 우리나라 國際收支나 換率決定에 대한 研究分析에 있어서 國內通貨供給이나 信用創出이 理論上으로 중요한 說明變數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事例가 드물기 때문에 本研究에서 點한 國內信用과 國際收支 또는 換

率과의 體系의인 관계는 開放經濟體制下에서의 通貨政策樹立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年 2月末부터 소위 管理變動換率制度를 實施한 이래 換率은 계속 變動되어 왔다. 그리고 純海外資產變動의 개념을 통해 본 國際收支도 계속적인 變動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本研究에서는 國際收支와 換率의 同時變動을 從屬變數로, 總通貨베이스(monetary base)의 중요한 부분인 國內與信의 變化를 說明變數로 취급하여 그 理論的 背景을 살펴보고 實證的 分析을 시도하였다.

第Ⅱ章에서는 本研究의 근거가 되는 論理的 모델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國際收支에 대한 通貨的 接近(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 of payments), 換率決定에 대한 通貨的 接近(monetary approach to the exchange rate determination) 그리고 끝으로 管理變動換率모델(monetary model of managed floating system)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國貨幣間의 交換比率이 換率의 定義이며 相對國貨幣를 기준으로 한 自國貨幣의 價格決定은 兩國貨幣의 相對的 需要와 供給에 크게 依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돈·부쉬 (Dornbusch, 1976)가 전개한 換率方程式의 유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換率決定의 通貨的 모델은 購買力平價條件을 利用하고 있다. 즉, 兩國間의 交易財價格은 交易財市場에서의 效率性에 立脚한 一物一價의 法則이 適用된다고 가정하였다.

$$P_T = SP_T^* \quad \dots \dots \dots (5)$$

여기서 P_T 는 國內交易財價格, 「*」은 相對國을 표시하여 S 는 名目換率을 나타낸다. 交易財價格은 各國의 一般物價水準 P 와 P^* 에 일정한 비례 θ 와 θ^* 만큼 연结된다고 하여 다음 式이 성립한다.

$$P_T = \theta \cdot P ; P_T^* = \theta^* P^* \quad \dots \dots \dots (6)$$

(5)와 (6)을 결합시키면

$$S = \left(\frac{P}{P^*} \right) \left(\frac{\theta}{\theta^*} \right) \quad \dots \dots \dots (7)$$

이 성립한다.

이제 各國의 貨幣市場의 均衡條件을 구하면

$$\frac{M_s}{P} = m_d ; \frac{M_s^*}{P^*} = m_d^* \quad \dots \dots \dots (8)$$

이 된다.

그러면

$$S = \left(\frac{M_s}{M_s^*} \right) \left(\frac{m_d^*}{m_d} \right) \left(\frac{\theta}{\theta^*} \right) \dots \dots \dots (9)$$

의 換率 決定方程式이 유도될 수 있다.

(9)에 대수미분을 취하면

$$\hat{S} = (\hat{M}_s - \hat{M}_s^*) + (\hat{m}_d^* - \hat{m}_d) + (\hat{\theta} - \hat{\theta}^*) \quad \dots \dots \dots (10)$$

이 추출되어 換率變化의 主要因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10)의 첫째 항목 ($\hat{M}_s - \hat{M}_s^*$)는 餘他變數가 一定할 때 兩國中 通貨供給率이 높은 나라의 貨幣가 平價切下됨을 보여준다. 이것은 곧 兩國間의 長期均衡인 평率의 差와 換率과의 관계를 말해주기도 한다.

둘째 번 항목의 兩國間의 實質貨幣需要差 ($\hat{m}_d^* - \hat{m}_d$)는 各國의 實質所得이나 金利, 期待인플레이션 등의 變數의 變動에 따라 實質貨幣需要가 变하는데 이것이 換率變動에 연结되고 있다. 예를 들어 相對國의 生產性增加는 自國貨幣의 平價切下를 초래한다는 논리가 成立한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모델에서는 兩國의 一般國民은 相對國貨幣를 직접 各民間人의 資產保有形態로 需要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²⁾

(10)의 세째 번 항목 ($\hat{\theta} - \hat{\theta}^*$)는 각국의 交易財對非交易財間의 相對價格構造가 換率에 미치는 效果를 나타낸다. 즉 名目貨幣供給과 實質貨幣需要上에는 아무런 變動이 없어도 自國에서 非交易財에 대한 交易財의 相對價格이 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문다고 하면 이것은 곧 自國貨幣의 平價切下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總支出의 規模는 变함이 없는데 嗜好의 变화로 總支出에서 좀 더 많은 豊算을 交易財購入에 사용했을

2) 소위 「貨幣代替」(currency substitution) 모델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함께 포함시켜 換率의 變動을 分析하는 연구가 아직도 한창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 Guillermo Calvo and Alfredo Rodriguez, "A Model of Exchange Rate Determination Under Currency Substitution and R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No. 85, May/June 1977, pp. 617~625. 參照.

$$\hat{P} = \hat{P}_T - \hat{\theta} = \hat{S} + \hat{P}_T^* - \hat{\theta} \dots \dots \dots (6)''$$

i) 성립한다. i) 結果를 (4)에 대입하면

$$\begin{aligned} \frac{1}{R+D} \cdot \Delta R &= \hat{S} + \hat{P}_T^* - \hat{\theta} + \hat{m}_d - \hat{a} \\ &- \frac{1}{R+D} \cdot \Delta D \dots \dots \dots (11) \end{aligned}$$

i) 유도된다. 여기서 $\hat{\theta}$ 는 交易財와 非交易財의 相對價格變化를 나타내며, 經濟의 產業構造上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本研究에서 는 標本期間이 짧아(1980年 2月~1982年 10月) $\hat{\theta}=0$ 로 취급한다. \hat{P}_T^* 는 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 는 外生變數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模型의 貨幣스톡需要는 주로 實質所得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回歸分析 例의상 \hat{m}_d 를 實質所得을 나타내는 \hat{y} 로 대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實質所得은 國內與信에 의해 규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通貨베이스에 입각한 通貨乘數 \hat{a} 變數와 함께 實質所得變數를 外生變數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left(\frac{1}{R+D} \cdot \Delta R - \hat{S} \right) = \hat{P}_T^* + \hat{y} - \hat{a} - \frac{1}{R+D} \cdot \Delta D \dots \dots \dots (12)$$

i) 유도된다.

III. 實證的 分析

1. 「外換市場壓力方程式」의 回歸分析

여기서는 II章 3節에서 최종적으로 유도된

3) 1981年 12月 韓國銀行이 발간한 『韓國의 外換管理』, pp.117~136 參照.

4) 1982年 經濟企劃院의 『業務便覽』(貿易 및 國際收支編) 參照.

「外換市場壓力모델」에 입각한 國際收支·換率의 同時的 變動方程式(12)를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그 有效性與否를 檢證해 보았다. 回歸分析의 標本期間은 우리나라가 소위 管理變動換率制度를 채택한 1980年 2月부터 1982年 10月까지이며 總標本數는 月別單位로 33個이다.

解放以後 우리나라의 換率制度는 附錄에 실린 表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복잡한 變遷過程을 겪어왔다³⁾. 1945年부터 1964年까지의 換率制度는 기본적으로 固定換率制度였으나 積여차례에 걸친 換率引上措置등 실로 복잡다기한 公定換率變遷過程을 겪었으며 1964年 5月 3日 單一變動換率制度로 轉換한 이후에도 實제 外換市場에서의 우리나라 貨幣의 交換性(convertibility) 缺如와 中央銀行의 繼續적인 市場介入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對美換率은 固定運營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0年 2月 27日 複數通貨「바스켓」制度로 이행된 후 실질적으로 換率流動化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對美換率도 一日單位로 變動되고 있어 現在 우리나라의 換率制度는 中央銀行의 能動的介入이 허용되는 이론바 管理變動換率制度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總通貨(M_2)는 通貨機構의 通貨性負債이므로 總通貨上의 海外部門은 通貨機構의 外換賣買에 수반하는 원貨의 還收·撒布를 나타내는 國際收支表의 綜合收支 또는 通貨「서베이」(monetary survey)上의 純海外資產(net foreign assets)과 원칙적으로 일치한다⁴⁾. 그러므로 本實證研究에서 사용된 通貨概念은 總通貨이며 國內與信(domestic credit)도 國內의 民間信用과 政府信用 및 政府代行機關信用을 합계한 것이 된다.

回歸方程式(12)上의 外國의 交易財價格上昇

〈表 1〉 「外換市場壓力」모델의 回歸分析 結果(標本期間 1980年 2月～1982年 9月)

推定	從屬變數	常數	\hat{P}_T^*	\hat{y}	\hat{a}	d	R^2	D.W.	ρ
CORC	$r+e$	0.010 (3.42)	0.701 (1.16)	0.072 (3.77)	-0.599 (-5.58)	-0.779 (-6.32)	0.673	1.92	-0.058

註 : OLSQ = 通常最少自乘法(ordinary least squares); CORC = 「코크란·오겔」反復法(cochrane-orcutt iterative technique); r = 總通貨ベース에 대한 外換保有變動比率 $\frac{4R}{R+D}$; e = 換率變動率 $(\frac{1}{S} - \frac{1}{S})$; \hat{P}_T^* = 日本의 都賣物價指數變化率; \hat{y} = 所得變化率; \hat{a} = 總通貨乘數變化率 $(\hat{M}_2/R+D)$; d = 總通貨ベース에 대한 國內與信變化率 $(\Delta D/R+D)$;

R^2 = 回歸方程式 推定係數; D.W. = Durbin Watson 統計量; ρ = 誤差項의 時系列相關係數. ()안은 係數의 t값

資料 : 韓國銀行, 『統計月報』에 수록된 月別資料

率을 나타내는 \hat{P}_T^* 의 代行으로 本研究에서 日本의 都賣物價指數의 上昇率을 사용하였다. 貿易去來上의 主要對象國은 美國과 日本인데 地理的 理由때문으로 美國보다 日本에 비중을 더 둔다는 것에는 별로 異意가 없겠으나 美國都賣物價指數를 함께 써 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서 日本都賣物價指數만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表 1〉에 나타난 t統計值가 「코크란·오겔」反復法에 의해 1.16으로 海外物價變數의 有意度는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貨幣需要函數로서 實質所得, 名目金利 및 期待인플레이션의 變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標本資料가 月別單位이고 市中金利와 公金利의 상습적인 乖離와 期待인플레이션의 대한複雜性·任意性 때문에 여기서는 貨幣需要方程式上의 機會費用變數를 제외하고 月別單位로 쉽게 資料를 얻을 수 있는 規模變數만 고려하였다. 經濟活動과 貨幣需要를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規模變數를 찾던 중 產業生產指數를 사용해 본즉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製造業常備從業員 月給與額을 사용한 결과 〈表 1〉에 나타난 대로 그 係數는 비록 작으나 「코크란·오겔」일 때 3.77의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貨幣乘數變化率과 國內與信變化率變數는 각각 係數도 높고 t統計值도 5~7로 推定方程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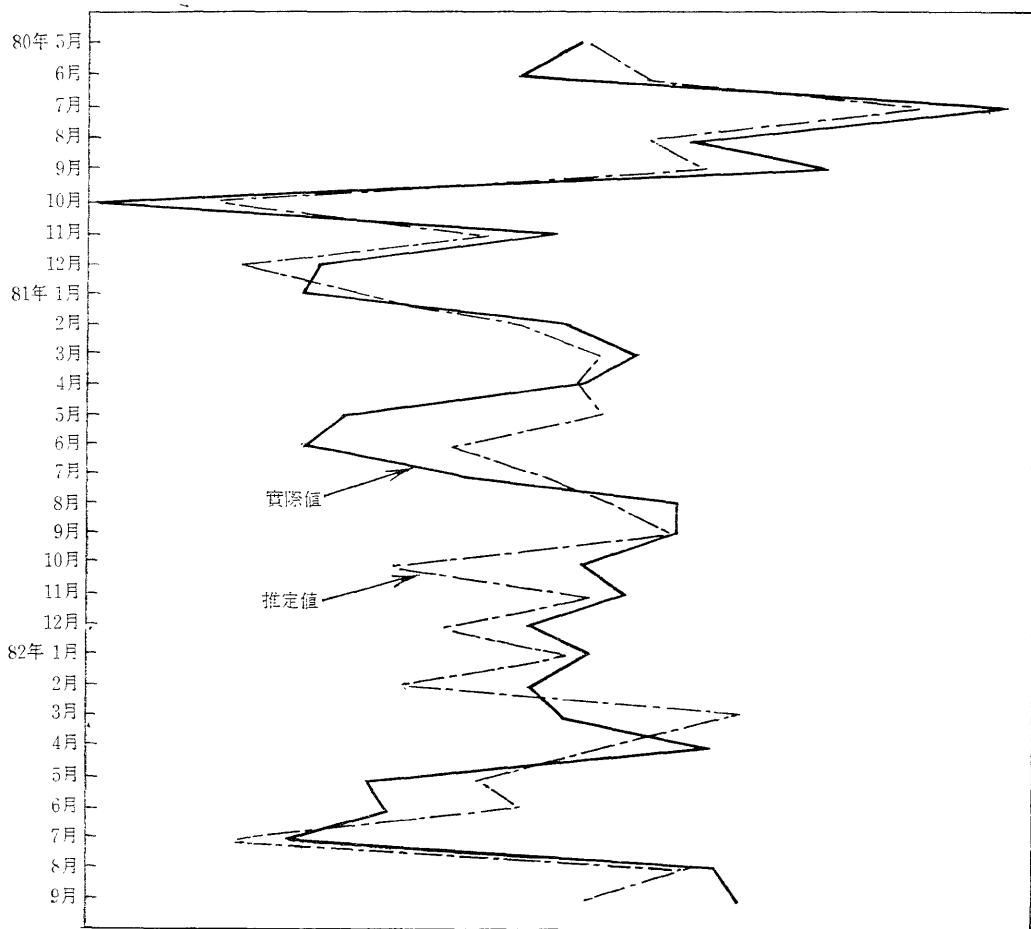
에서의 有意性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圖 1]은 回歸方程式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過去值의 豫測度를 보여준다.

2. 因果關係의 檢證

〈表 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소위 「外換市場壓力」의 理論的모델이 實際의으로 그 有效性이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이 모델에 의하면 國內與信이 外生的으로 增加했을 때 이에 따른 貨幣需要增加分을 초과하는 部分中一部는 國際收支의 칭구를 통해서 빠져나가 貨幣供給이 그만큼 줄어드는 한편, 自國貨幣의 平價切下는 國內交易財 價格引上을 통하여 國內物價가 引上됨으로써 그만큼 名目貨幣需要는 增加되어 貨幣市場의 均衡을 이루하게 된다. 그래서 因果는 國內與信에서 「外換市場壓力」 變數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으나 管理變動換率制度下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因果는 그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海外資產의 增加는 總通貨上의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供給의 增加를 초래하는데 中央銀行이 일정한 通貨水準을維持하려 할 때는 國內資產 즉, 國內與信을 줄임으로써 通貨의 超過分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國際收支變數와 國內與信變數와는 계

〔圖 1〕 「시뮬레이션」에 의한 過去值의豫測度



속 負의 關係를 유지하나 因果關係는 그 반대
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中央銀行의 能動的인 介入이나 民間銀行측의 與信政策으로 管理變動換率制度下
에서는 國內與信에서 「外換市場壓力」 變數로
의 일방적인 因果는 보장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本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因果가 어
떻게 나타나는지 「ℂ兹」 檢證方法을 써서 알
아내려고 하였다.

「ℂ兹」檢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國內與
信變數 d 를 從屬變數로, 그리고 國際收支變數
 γ 의 現在值, 過去時差 및 未來時差值을 說明

變數로 취급한 두개의 方程式을 다음과 같이
세운다.

$$d = c_1 + \sum_{i=-n_1}^{n_2} \beta_{t+i} \gamma_{t+i} + \varepsilon_1 \quad \dots \dots \dots \quad (13)$$

$$\gamma = c_2 + \sum_{i=-n_1}^{n_2} \phi_{t+i} d_{t+i} + \varepsilon_2 \quad \dots \dots \dots \quad (14)$$

여기서 n_1 과 n_2 는 過去와 未來時差의 期間을
나타낸다.

「ℂ兹」檢證에 의하면 만일 (13)에서의 γ 의
未來變數가 전체적으로 零과 가깝지 않게 나
타난다면 國內與信變數에서 國際收支變數로 因
果가 成立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4)에서의

〈表 2〉 國內信用回歸方程式

$$(d_t = c_1 + \sum_{i=-n_1}^{n_2} \beta_{t+i} \gamma_{t+i} + \varepsilon_1)$$

時差	A	B	C	D
-6	-0.3933 (-0.9592)	-0.3465 (-1.2214)		
-5	-0.6905 (-1.6778)	-0.3694 (-1.3136)		
-4	0.0233 (0.0516)	-0.0867 (0.2970)		
-3	0.6879 (1.4025)	0.5596 (1.6186)	0.5866 (1.8558)	0.6419 (2.0488)
-2	-0.9315 (-1.9684)	-0.6022 (-2.1576)	-0.5369 (-1.8468)	-0.2626 (-1.0329)
-1	0.2171 (0.4871)	0.4142 (1.3400)	0.3046 (1.0240)	0.1234 (0.4744)
0	-0.2541 (-0.5044)	-0.4022 (-1.3010)	-0.1934 (-0.5388)	-0.1526 (-0.5176)
1	0.5028 (-1.0311)		-0.5368 (-1.8088)	
2	-0.3556 (-0.6254)		0.2066 (0.6164)	
3	-0.0665 (-0.1042)		-0.2800 (-0.8181)	
4	-0.0482 (-0.0822)			
5	-0.5748 (-0.8743)			
6	0.0310 (0.0466)			
R^2	0.6412	0.5649	0.4184	0.2829
D.W.	2.7013	2.5275	2.3371	2.3502
F_f	0.4254		1.6308	
	$F(6.18)=2.66$		$F(3.24)=3.01$	

註 : F_f 는 A, B와 C, D의 회귀결과를 이용하여 얻은 F 값임. 추정계수 아래에 위치한 () 안의 값은 t統計值. OLSQ推定技法을 썼음.

d 의 未來變數係數가 전체적으로零에 가깝지 않게 나타난다면 因果는 國際收支에서 國內與信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바꿔 풀이하면 n 이零보다 큰 값을 취할 때 $\beta_{t+i}=0$ 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면 國內與信이 國際收支에 영향을 주기 드문 경우이며, n 이零보다 큰 값을 취할 때 $\theta_{t+i}=0$ 에 가까운 결과가 생기면 國際收支가 國내信用에 영향을 주기는 드문 경우를 가리킨다는 뜻이다.

〈表 2〉는 方程式(13)의 회귀分析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A欄은 時差를 過去와 未來各

〈表 3〉 國際收支 回歸方程式

$$(\gamma_t = c_2 + \sum_{i=-n_1}^{n_2} \phi_{t+i} d_{t+i} + \varepsilon_2)$$

時差	A	B	C	D
-6	0.0333 (0.2223)	0.0055 (0.0396)		
-5	0.9701 (0.5989)	0.1238 (0.7993)		
-4	0.2166 (1.3000)	0.1885 (1.1952)		
-3	-0.0394 (-0.2182)	-0.0936 (-0.6136)	-0.2126 (-1.5141)	-0.0622 (-0.4711)
-2	-0.0641 (-0.3076)	-0.0636 (-0.3831)	-0.3636 (-2.3131)	-0.1705 (-1.2845)
-1	-0.1015 (-0.4936)	-0.1184 (-0.7020)	-0.4659 (-2.9175)	-0.3488 (-2.4843)
0	-0.2950 (-1.4222)	-0.2817 (-1.8687)	-0.4210 (-2.7105)	-0.3532 (-2.5367)
1	-0.1516 (-0.7570)		-0.2391 (-1.4227)	
2	-0.3028 (-1.5424)		-0.3518 (-2.0825)	
3	-0.0078 (-0.0414)		0.1192 (0.7918)	
4	-0.2007 (-0.9879)			
5	-0.3443 (-1.7131)			
6	-0.0261 (-0.1305)			
R^2	0.6241	0.4044	0.5044	0.3065
D.W.	1.3430	1.5209	1.4366	1.7982
F_f	1.169		2.795	
	$F(6.18)=2.66$		$F(3.24)=3.01$	

各 6개씩 포함시켜 회귀分析한 것이고 B欄은 未來時差는 빼고 過去時差만 포함시킨 것이다. C, D欄은 時差를 6개에서 3개를 줄인 경우이다. $\beta_{t+i}=0$ 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時差가 6인경우에는 F統計值가 0.43으로 낮게 나왔으므로 國내與信이 國際收支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彙無假說(null hypothesis)을 기각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彙無假說을 95%有意水準에서 기각하려면 F_f 統計值가 2.66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時差를 줄인 경우에는 F統計值가 조금 상승하여 1.631로 되었으나 여전히 基準值 3.01

〈表 4〉 管理變動換率方程式

$$(r+e)_t = c_3 + \sum_{i=-n_1}^{n_2} \varphi d_{t+i} + \varepsilon_3$$

時差	A	B	C	D
-6	-0.3465 (-1.0119)	-0.3500 (-1.4617)		
-5	-0.5395 (-1.6359)	-0.3988 (-1.6938)		
-4	-0.0138 (-0.0400)	0.0771 (0.3235)		
-3	0.5508 (1.6117)	0.5441 (2.0548)	0.5620 (2.0487)	0.6300 (2.2841)
-2	-0.7408 (-2.1823)	-0.6195 (-2.6966)	-0.4988 (-1.9072)	-0.2825 (-1.2260)
-1	0.1856 (0.5692)	0.3095 (1.2342)	0.2221 (0.8559)	0.1340 (0.5754)
0	-1.3079 (-0.8904)	-0.3563 (-1.4120)	-0.2603 (-0.8843)	-0.1713 (-0.6547)
1	-0.2465 (-0.7056)		-0.4196 (-1.6154)	
2	-0.2451 (-0.5101)		0.1457 (0.5093)	
3	-0.0576 (-0.1112)		-0.2926 (-1.0061)	
4	0.1464 (0.3000)			
5	-0.4414 (-0.7670)			
6	0.0302 (0.0518)			
R^2	0.6570	0.6090	0.4358	0.3247
D.W.	2.6965	2.6008	2.2532	2.3500
F_f	0.2798		1.3784	
	$F(6.18)=2.66$		$F(3.24)=3.01$	

〈表 5〉 逆管理變動換率方程式

$$(d_t = c_4 + \sum_{i=-n_1}^{n_2} \varphi(r+e)_{t+i} + \varepsilon_4)$$

時差	A	B	C	D
-6	0.1881 (0.1296)	-0.0235 (-0.1573)		
-5	0.1485 (0.9472)	0.1733 (1.0396)		
-4	0.3331 (2.0647)	0.2903 (1.7098)		
-3	0.0420 (0.2398)	-0.0357 (-0.2174)	-0.2146 (-1.4607)	-0.0505 (-0.3589)
-2	0.0058 (0.0289)	0.0025 (0.0138)	-0.3469 (-2.1091)	-0.1373 (-0.9714)
-1	-0.0337 (-0.1693)	-0.0431 (-0.2376)	-0.4507 (-2.6974)	-0.3250 (-2.1725)
0	-0.2665 (-1.3271)	-0.2493 (-1.5364)	-0.4412 (-2.7144)	-0.3719 (-2.5069)
1	-0.1775 (-0.0154)		-0.2559 (-1.4554)	
2	-0.4003 (-2.1061)		-0.3867 (-2.1877)	
3	-0.0360 (-0.1984)		0.1392 (0.8835)	
4	-0.2436 (-1.2389)			
5	-0.4181 (-2.1491)			
6	-0.0439 (-0.2268)			
R^2	0.7037	0.4198	0.5019	0.2774
D.W.	1.5590	1.6915	1.4215	1.8595
F_f	1.9162		3.1550	
	$F(6.18)=2.66$		$F(3.24)=3.01$	

을 下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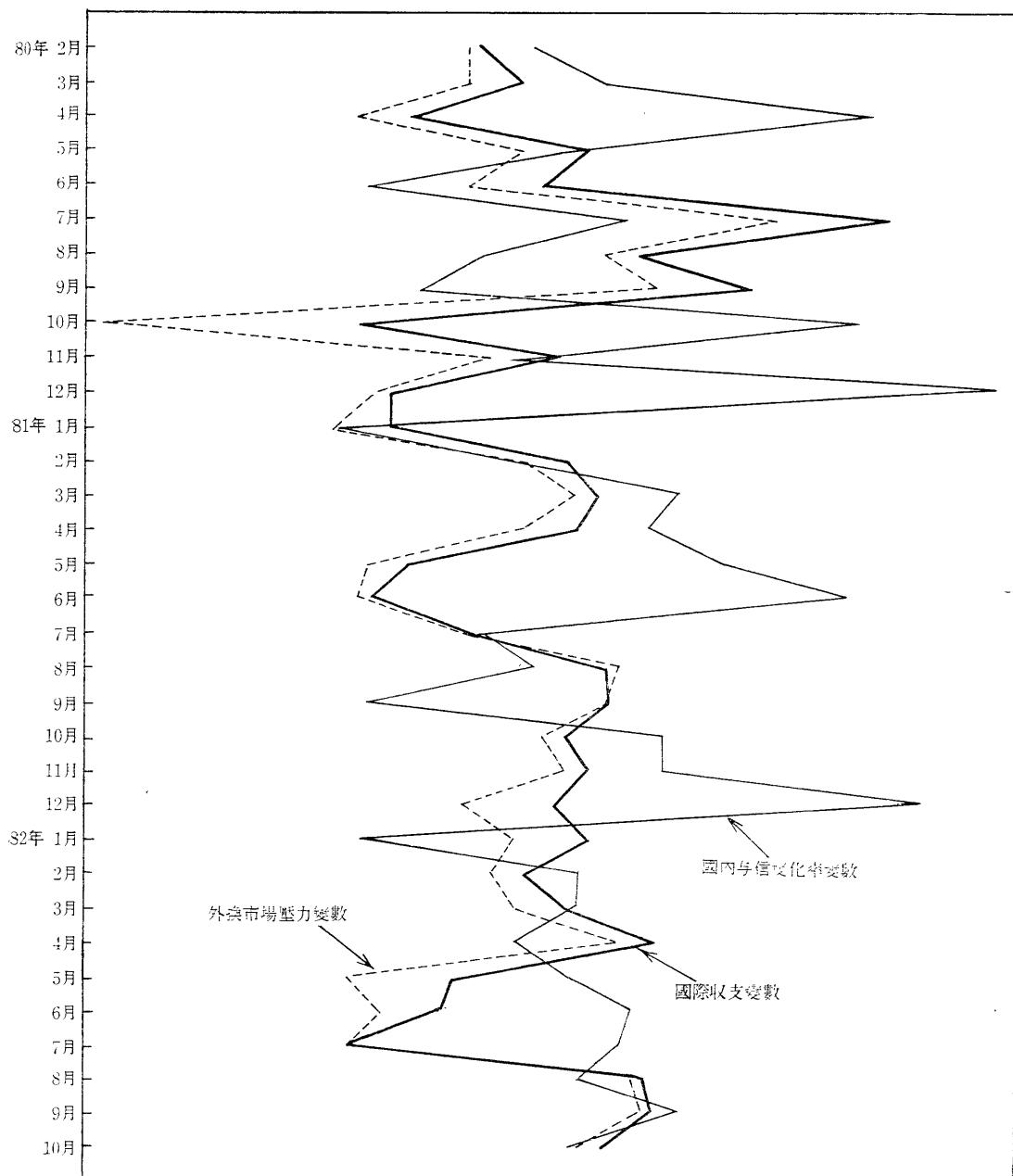
〈表 3〉은 國際收支方程式으로 式(13)을 逆으로 바꾸어 놓은 式(14)의 回歸分析結果를 보여 준다. 여기서는 時差를 6으로 하든, 3으로 하든 F_f 統計值는 歸無假說을 95% 有意水準에서 기각할 수 있는 基準統計值에 미달되기 때문에 역시 國際收支가 國內與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假說을 기각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表 2〉와 〈表 3〉의 결과를 종합하면 中央銀行측의 能동적인 市場介入行爲가 反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國際收支와 國內與信의 두 變數사이에는相互

因果關係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本研究에서의 主要關心은 단순한 國際收支에의 通貨的 接近보다는 管理變數換率制度下에서의 國際收支와 換率의 同時的 決定에 대한 通貨의 틀을 이용한 分析에 있으므로 「外換市場壓力」變數와 國內與信變數와의 因果關係를 檢證해 볼 필요가 있다.

〈表 4〉는 管理變動換率方程式 $(r+e)_t = c_3 + \sum_{i=-n_1}^{n_2} \varphi d_{t+i} + \varepsilon_3 \dots \dots (15)$ 를 回歸分析하여 國際收支와 換率의 同時變動과 國內與信과의 因果關係를 檢證한 결과인데 時差와 무관하게 낮은 F_f 值은 「外換市場壓力」變數가 國內與信에 逆영

〔圖 2〕 國際收支・「外換市場壓力」・國內與信變數의 實際值



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表 5〉는 (15)를 역으로 바꾼

$$d_t = c_4 + \sum_{i=-n_1}^{n_2} \phi(\gamma + e)_{t+i} + \varepsilon_4 \dots \dots \dots \quad (16)$$

를 희귀분석한 것인데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時差를 썼을 때 F 統計值 3.16은 基準值 3.01을 조금 초과하므로 國內與信이 國際收支와 換率의 同時變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假說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最少自乘法에 의해 回歸分析을 할 경우, 사용되는 時系列은 時間經過에 따라 分散하나 共分散의 变하지 않는 靜的인 過程(stationary process)임이 요구되는데 一般物價水準, 名目所得, 通貨量등의 時系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上昇하고 있으므로 各變數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通貨政策이 經濟活動에 영향을 주는一方의 因果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經濟活動의 变화가 通貨量變化에 영향을 주는지를 檢證하기 앞서 「심즈」는 經濟活動을 나타내는 名目所得變數와 通貨量時系列에서 系列相關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系列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X_t = \ln x_t - 1.5 \ln x_{t-1} + 0.5625 \ln x_{t-2} \dots \dots \dots \quad (17)$$

여기서 x 는 實際值이며 X 는 조정된 變數이다. 그러나 本檢證에 관련된 3개의 時系列 즉 國際收支, 外換市場壓力 그리고 國內與信變數는 이미 「퍼센트」로 측정된 것이어서 추세변수의 性格을 띠고 있지 않다. 그래서 上記한 「심즈」의 系列調整方法은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圖 2]는 3계열의 實際值를 보여주고 있다.

〈表 2〉 〈表 3〉 〈表 4〉 〈表 5〉에 나타난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심즈」檢證에서 사용된 二元方程式上의 從屬變數가 說明變數의 未來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歸無假說을 명백히 기각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두 變數는相互因果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指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管理變動換率制度가 1980年 初에 채택된지 얼마되지 않아 本研究에서는 月別 資料를 使用하였다. 半일 分期別 내지 年度別 資料를 쓸 수 있었다면 아마 더 좋은 結果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V. 要約과 結論

우리나라의 換率制度는 解放이후부터 本質적으로 固定換率制度의 性格을 떤 것이었으나 1980年 2月末에 複數通貨「바스켓」制度로 개편되어 換率流動化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對美換率도 日日單位로 變動되고 있으나 現在 우리나라의 換率制度는 中央銀行의 能動的介入이 허용되는 이른바 管理變動換率制度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總通貨「베이스」上의 純海外資產 概念을 통해 본 國際收支도 換率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變動되어 왔다. 一國의 換率이나 國際收支의 결정에 대한 研究分析에 있어서 國內通貨供給이나 與信이 理論上 중요한 說明變數가 되므로 本研究에서는 國際收支와 換率의 同時變動을 從屬變數로, 總通貨「베이스」의 重要한部分인 國內與信의 變化를 說明變數로 취급하여 두 變數間의 體系的인 關係를 把握하기 위

해 實證的 分析을 시도하였다.

本研究에서 다룬 소위 「外換市場壓力」 모델의 理論的 主張은 貨幣市場에서 外生的인 國內信用創出로 인해 貨幣의 超過供給壓力이 생겼을 때 換率의 平價切下나 外換保有額의 減少, 아니면 이들의 적당한 組合으로 이 超過供給壓力이 解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結果는 國內與信이 外生的으로 增加했을 때 이에 따른 貨幣需要의 增加分을 초과하는 部分中一部는 國際收支의 窓口를 통해서 빠져나가 貨幣供給이 그만큼 줄어드는 한편, 自國貨幣의 平價切下는 國內交易財의 價格引上을 통하여 物價가 引上됨으로써 貨幣需要가 그만큼 증가되어 貨幣市場의 均衡을 이루하게 된다는 本모델의 理論的 主張을 잘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回歸分析結果만 가지고, 두 變數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다고 확실한 結論을 내릴 수는 없다. 理論上으로도 中央銀行의 能動的인 介入이 허용되는 管理變動換率制度下에선 因果가 반드시 國內與信에서 「外換市場壓力」 變數로 흐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갑작스런 海外資產의 增加는 總通貨上의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供給의 增加를 초래

하는데 中央銀行의 一定한 通貨供給水準을 유지하려 할 때는 國內資產 즉, 國內信用을 출입으로써 通貨供給의 超過分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려므로 國際收支變數와 國內與信變數와는 계속 負의 關係가 成立하나 因果關係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쳅즈」因果檢證法을 사용하여 「外換市場 壓力」回歸方程式上의 두 變數사이에 因果關係가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해내려고 하였다.

本檢證에서 나타난 結果를 綜合해 보면 「텝즈」檢證結果, 단순히 國內與信과 國際收支間에는相互因果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外換市場壓力」 變數와 國內與信間에는 後者에서前者로의一方의 因果가 강하게 作用하고 있다고 하겠다.

國際收支와 換率決定에 있어 國內通貨供給이나 信用創出이 중요한 因果要因이 되고 있음에 비하여,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研究는 다소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려므로 本研究에서 규명한 國內與信과 國際收支 또는 換率과의 關係는 開放經濟體制下에서의 通貨政策樹立에 유익한 참고가 되리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業務便覽(貿易 및 國際收支編)』,
1982.
韓國銀行, 『調查月報』, 1980年 1月~1982年 10
月。
韓國銀行, 『韓國의 外換管理』, 1981.
Blejer, Mario I. and Leiderman Leonardo,
“A Monetary Approach to the Crawling-

- Peg System: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 89, No.1, Feb. 1981, pp.132—151.
Blejer, Mario I., “On Causality and the 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 of Payments, The European Experience”, *European Economic Review*, No.12, Sep. 1979,

- pp.289~296.
- Calvo, Guillermo and Alfredo Rodriguez, "A Model of Exchange Rate Determination Under Currency Substitution and R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No.85, May/June 1977, pp.617-625.
- Connolly, Michael and Jose Dantas Da Silveira, "Exchange Market Pressure in Post War Brazil: An Application of the Girton-Roper Monetary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V.69, No.3, June 1979, pp.448-454.
- Dornbusch, Rüdiger, "The Theory of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s and Macroeconomic Polic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78, No.2, May 1976, pp. 255-275.
- Frenkel, Jacob A. and Harry G. Johnson (ed.), *The 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 of Payments*, London: Allen & Unwin;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1976
- _____, *The Economics of Exchange Rates: Selected Studie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8.
- Girton, Lance and Don Roper, "A Monetary Model of Exchange Market Pressure Applied to the Postwar Canadian Exper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77, pp.537-548.
- Kim, Inchul, "The Partial Adjustment Theory of the Balance of Pay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April 1983.
- Lizondo, Jose, "A Simple Model of Reserves and Exchange Rates Changes", *Three Essays on Inter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h. D Dissertation,
- 1979.
- Magee, Stephen P., "The Empirical Evidence on the Monetary Approach to the Balance of Payments and Exchange R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No.66, May 1976, pp.163-170.
- Modeste, Nelson, "Exchange Market Pressure During the 1970's in Argentina: An Application of the Girton-Roper Monetary Model",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13, No.2, May 1981.
- Mundell, Robert A., *International Economics*, New York: Macmillan, N.Y., 1968.
- Mussa, Michael, "The Exchange Rate, the Balance of Payments and Monetary and Fiscal Policy Under a Regime of Controlled Floating",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No.78, May 1976, pp.229-248.
- Parkin, Michael, "Inflation, the Balance of Payments, Domestic Credit Expansion and Exchange Rate Adjustment", Robert Z. Aliber (ed.), *National Monetary Policies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Chicago: Univ. Chicago Press, 1974.
- Shin, Hyunchul, "Money, Income and Causality-the Case of Korea-", *Asian Economies*, No.26, Sep. 1978. pp.13-28.
- Sims, Christopher A., "Money, Income and Caus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72, pp.540-552.
- Zellner, Arnold, "Causality and Econometrics", K. Brunner and A.H. Meltzer (ed.), *Three Aspects of Policy and Policy Making*,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V.10, North-Holland, 1978, pp. 9-54.

〈附表〉 對美「달러」貨 換率 變遷 推移

	1 「달러」當 换率				備 考
	圓	圓	원	對充資 金換率	
1945. 10. 1		15		(0.015)	美軍政當局의 公定換率(GARIOA援助 및 美軍政廳의 對民間 債務支給에 適用) 朝鮮換金銀行 창설
1947. 6. 11					朝鮮換金銀行의 對美「달러」貨 公定換率(軍政廳의 對民間 債務支給에 適用)
7. 15		50		(0.05)	外國換預置證制 실시
1948. 2					" 실시에 따라 形成된 最初의 自由賣買率
7. 1		850		(0.85)	韓美間 換金에 관한 暫定 協定
9. 28		450		(0.45)	對充資金 換率設定
12. 15		450		(0.45)	複數換率制度 實施(政府保有外換에 적용되는 公定換率 450圓, 一般換率 900圓)
1949. 6. 13		900		(0.90)	外換競賣制에 의해 一般換率 900圓으로 결정
11. 12		900		(0.90)	「外國換賣規程」제정 공포
1950. 5. 1	1,800			(1.80)	韓國銀行 창립
6. 12					財務部長官 特別措置(6.25動亂)에 의한 換率
11. 1	2,500			(2.50)	對充資金 換率 6,000圓으로 책정
1951. 5. 1	2,500			(2.50)	
11. 10	6,000			(6.00)	
1952. 5. 24	6,000			(6.00)	Meyer協定에 의거 설치된 合同 經濟委員會에서 換率決定
1953. 2. 14		60		(6.00)	通貨改革(100:1 平價切下 圓→圜)經濟再建 및 經濟安定計劃에 관한 韓美經濟協約
12. 15		180		(18.0)	
1955. 1. 10		180		(18.0)	複數換率體制 성립(援助弗·用役弗: 350圜, 公定換率·入札弗: 180圜)
8. 8		500		(50.0)	政府保有「달러」公賣率 계속 上昇. 對充資金換率도 500圜으로 公布(單一公定換率制)
1960. 2. 23		650		(65.0)	IMF와의 協議換率
1961. 1. 1	1,000			(100.0)	公定換率 発표(宗教·用役弗: 1,249圜, 對日輸出弗: 1,420圜, 其他地域輸出弗: 1,280圜)
2. 2		1,300		(130.0)	1 「달러」對 1,250圜의 基準換率 + 50圜의 證書率, 預置集中 買上集中並行 실시
1962. 6. 10			130.0		通貨改革(10:1 平價切下 圓→원)
1964. 5. 3			256.53		變動換率制度 채택(基準換率 255원)
1965. 3. 22			256.53		" 실시
12. 31			272.60		
1966. 12. 31			272.00		
1967. 7. 18			272.65		1967. 4 KEB 新設, 5個市銀 甲類 昇格, 外國換銀行에 dealer機能 賦與 1967. 4. 17 外國換專門 委員會 및 外換證書交換室 설립
11. 25			271.50		BOK 集中基準率 告示
11. 28			271.60		各 外國換銀行이 사용적으로 對顧客賣買率 決定告示
12. 11			274.60		對顧客賣買率 KEB에서 告示, 他外國換銀行은 이를 適用
12. 31			274.60		
1968. 12. 31			281.50		
1969. 11. 3			304.35		4.4% 引上(外國換銀行 對顧客電信換賣渡率 291.90원)

	1「달리」當換率				備 考
	圓	圓	원	對充資 金換率	
12. 31			304.45		→305.10원)
1970. 9. 14			313.25		外換交換室 設置
12. 31			316.65		
1971. 6. 28			370.80		13% 引上(外國換銀行 對顧客電信換賣渡率 328.90원 →371.60원)
12. 31			373.30		
1972. 2. 1			376.50		BOK集中基準率은 市場率을 그대로 準用, 外換市場 改編
6. 13			399.90		變動換率制 實施以後 最高率임.
12. 31			398.90		
1973. 12. 31			397.50		
1974. 12. 7			484.00		21.3% 引上(外國換銀行 對顧客 電信換賣渡率 400원 →485원)(基準換率 480원)
12. 31			484.00		
1975. 12. 31			484.00		
1976. 12. 31			484.00		
1977. 12. 31			484.00		
1978. 12. 31			484.00		
1979. 12. 31			484.00		
1980. 1. 12			580.00		19.8% 引上(外國換銀行 對顧客電信換賣渡率 485원 →585.50원)
2. 26			580.00		
2. 27			580.50		換率制度改編(複數通貨「바스琪」制度)으로 換率 流動 化 實施
12. 31			659.90		
⋮			⋮		
1983. 1. 31			751.50		
2. 28			753.10		

資料：韓國銀行

農家所得構造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柳炳瑞

▷ 目次 ◁

- I. 經濟發展과 農家所得構造問題
- II. 我們 나라 農家所得의 構成現況
- III. 外國의 農家所得現況
- IV. 農家所得構造改編의 必要性
- V. 農家所得構造의 改編方向
- VI. 要約 및 結論

I. 經濟發展과 農家所得構造問題

我們 나라 國民經濟는 經濟開發의 計劃化가 本格的으로 推進된 1962年以後 1981年까지 20年間 年平均 8.3%의 實質成長을 했다. 이 러한 高度成長은 自立經濟의 目標를 工業化에 開發戰略에 따라 製造業을 中心으로 한 2次 產業部門의 擴大에 의한 것이다.

1960年代 初부터 시작된 工業化主導의 開發

戰略은 投資財源을 確保하기 위해 國內에서 利用可能한 資源을 總動員했으며 不足分은 果敢한 外資導入으로 充當했고 이와 같은 工業化는 輸出第一主義와 關聯되었기 때문에 資本의 構成, 原料의 調達, 그리고 技術 및 市場構造面에서 國民經濟의 對外依存度를 계속 深化시켰다.

Industrialization에 主導된 經濟開發政策에 따라 2, 3次 產業部門은 先進國型體制導入이 容易했고 그 리하여 先進產業社會構造로의 一面을 갖출 수 있는 與件이 되었다.

高度成長過程에서 農業部門도 높은 成長을 해 1962~81年間 年平均 3.3%의 成長을 했다. 2, 3次 產業에 비해 農業部門에는 外國體制導入이 自然 및 기타 與件으로 보아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았고 他部門에 비해 相對的으로 開發速度가 늦어지고 있다.

經濟의 高度成長은 農業을 둘러싼 諸與件을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變化를 가져오게 했으나 農業部門은 그 構造自體의 特殊性으로 인해 經濟의 高度化에 副應하지 못하여 經濟의 均衡

筆者: 成均館大學校 農業經濟學科 副教授(本原稿 執筆當時 韓國開發研究院 副研究委員)

開發과 그 發展速度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農業從事者들의 大部分은 農業을 하나의 產業으로 보다는 生業으로 보고 自給農業을 하고 있다. 經濟的效率性에 입각한 農業보다는 先祖들로부터 물려받은 小農形態가一般的이다. 經濟가 開發되면서 生存위주의 農業이 交換經濟에 접하게 되어 農業生產物中一部는自家消費에, 一部는 2,3次產品의 購入을 위해 交換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2,3次產業部門의 急進的인 開發은 農·工間 또는 都·農間所得隔差를 深化시켜 社會的衡平의 問題가 야기케 되었다.

農業의 開發을 지연시키고 있는 主要한 要素中의 하나는 農業開發政策 그 自體이다. 이는 좁은 耕地面積과 過多한 農業人口을 가지고 있으면서 農業勞動力を 포함한 農業資源이 보다 生產的인 部門으로 移動될 수 없도록 묶어 놓는 政策이다.

1981年 農家戶當 平均耕地規模는 1.08ha에 머물렀다. 1ha程度의 規模를 가지고는 農業活動에 의한 農業所得으로는 農家の 家計費조차 充當할 수 없게 될뿐만 아니라 他部門從事者들의 所得水準과 비교할 수도 없다.

農業政策의 變化나 制度改善은 그리쉽게 이루어 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現存規模를 基礎로한 農家所得增大問題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農業所得은 農業生產性, 農產物價格 및 農業經營費등의 要因에 의해서 決定되는데 이를 모두 劃期的으로 變化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자니 農業外所得을 增大시킬 수밖에 별 대책이 없게 된 것이다.

現小農下에서는 農業所得增大的 물론 農外所得을 增大시키는 複合所得形態構造를 취하게끔하고 農業所得比重보다는 農外所得比重이

커지도록 構造的 變化를 가져오게끔 政策的配慮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制度改善에 따라 耕地規模가 커지고 農業이 營利目的의 近代的產業으로 育成이 되면 農業所得增大政策을 實施하여 專業農形態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經濟發展에 副應한 農業構造調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農家所得構造改編問題가 蒙起되고 있는 것이다.

II. 우리나라 農家所得의 構成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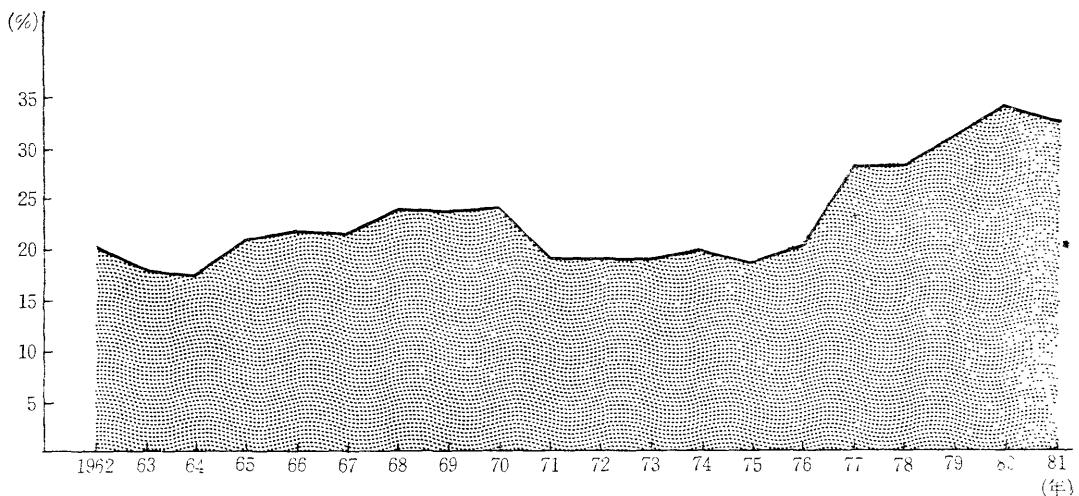
1. 農家所得構造의 推移

우리 나라의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農業所得은 農作物收入과 養蠶, 養畜, 農產物加工등으로부터 얻은所得을 合한 것이고 農外所得은 兼業所得과 勞賃收入 및 其他收入(財產, 被贈收入)으로 区分되고 있다.

農家所得中에 農業所得이 차지하는 相對的比重은 1960年代 前半期中에는 계속 增加하고 있었으나 後半期에 들어 減少하는 추세에 있으며 70年代 初盤부터 다시 커지는 경향에 있다. 70年代 後盤에는 점차 減少하는 경향에 있다.

農外所得中 兼業所得과 財產, 被贈收入은 1960年代 後半期에 相對的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勞賃收入의 경우는 一定한 趨勢가 없이 變動되고 있다. 就業機會가 많이 주어진 年度에는 勞賃收入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커지는 反面 就業機會가 없을 경우에는 그림

〔圖 1〕 農家所得中 農外所得比重



지 못하다.

耕地規模별로는 小農일수록 農業所得의 比重은 적고 대신 農外所得인 兼業所得, 勞賃收入 및 財產, 被贈收入의 比重이 크며 大農일수록 農業所得의 比重은 크고 農外所得比重이 작아진다. 1981년의 경우 0.5ha未滿의 農家에서는 農業所得이 全體所得의 36.0%에 머무르고 있는데 農外所得은 64.0%로 나타나 있고 0.5~1.0ha 農家는 農業所得이 63.4%, 農外所得이 36.6%를 차지하고 있었고 1.0~1.5ha의 農家는 農業所得이 73.9%, 農外所得이

26.1%, 1.5~2.0ha 農家는 農業所得이 79.1%, 農外所得이 20.9%이고 2.0ha以上 農家는 農業所得이 82.2%, 農外所得이 17.8%로서 農外所得比重이 減少하고 있다. 耕地規模가 작을수록 農業以外의 活動에서 所得源을 찾으려는 傾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農外所得構成內容을 살펴보면 1981년의 경우 兼業所得 2.9%, 勞賃收入 10.0%, 財產被贈收入이 19.9%로서 兼業所得의 比重이 相對적으로 적고 勞賃 및 財產被贈收入의 比重이 높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表 1〉 耕地規模別 農家所得의 構成比(1981)

(단위 : %)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 外 所 得			
			合 計	兼業所得	勞賃收入	財產被贈
平 均	100.0	67.2	32.8	2.9	10.0	19.9
0.5ha 미만	100.0	36.0	64.0	8.8	23.8	31.4
0.5 ~ 1.0	100.0	63.4	36.6	2.8	11.3	22.5
1.0 ~ 1.5	100.0	73.9	26.1	1.1	7.4	17.6
1.5 ~ 2.0	100.0	79.1	20.9	1.1	4.7	15.1
2.0ha 以上	100.0	67.2	17.8	1.5	3.8	12.5

資料：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2.

耕地規模別로 살펴보면 小農은 兼業所得 8.8 %, 勞賃收入 23.8%, 財產被贈收入이 31.4%로 되어 있고 2.0ha以上의 大農에 있어서는 兼業所得 1.5%, 勞賃收入 3.8%, 財產被贈收入 12.5%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勞賃收入比重이 크게 나타나 있다. 勞賃收入이 農外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커진 것은 農村에 있어서 就業機會가 擴大되어 給料 등을 받는 傷給者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農家所得의 構成內容

가. 農業所得

農業所得은 農作物收入, 畜產收入, 養蠶 및 其他收入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農業所得은 農業經營構造와 農產物價格變化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農業收入을 構成하고 있는 農作物收入은 穀物類收入과 經濟作物收入으로 区分할 수 있다. 穀物類는 주로 米穀과 大麥 등으로 되어 있으며, 1965年度의 穀物類收入은 農業所得의 約 78%를 점하고 있었으나 經濟作物 및 畜產部門의 所得이 相對的으로 增大됨으로써 1981年度에는 그 比重은 더욱 減少해서 60.1%에 머물게 되었다. 經濟作物收入은 1960年代 後半부터 시작되는 農家所得增大特別事業의 實施로 인해 經濟作物生產에 注力한 結果로 農業所得中 構成比가 1965年的 8.8%에서 1970年에는 12.5%로 增大되었고 1981年에는 21.5%로 擴大되었다.

畜產收入은 1970年代 後半에 들어와 比重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1960年代 後半부터 시작한 農特事業實施와 經濟全體의 開發로 인한 1人當所得增大로 畜產物需要가 擴大됨으로 인해 畜產物部門의 開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畜產部門의 比重은 1965年 約 3%에서 1981年에는 16.2%로 增大되었다. 蠶

〈表 2〉 農業收入面에서 본 類別 農業經營構造의 變化推移
(단위 : %)

	農業收入	穀物類	經濟作物	畜產	養蠶	其他
1965	100.0	78.1	8.8	2.7	0.3	10.1
1970	100.0	73.3	12.5	3.2	1.1	9.9
1975	100.0	71.5	13.2	3.3	2.2	9.8
1978	100.0	62.5	21.2	14.4	1.3	0.6
1979	100.0	68.2	20.8	7.6	1.3	2.1
1980	100.0	58.9	25.7	12.1	1.2	2.1
1981	100.0	60.1	21.5	16.2	0.7	1.5

資料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 1971, 1976~82.

〈表 3〉 農作物 作況構造

	合計	米穀	麥類	雜穀	豆類	薯類	菜蔬	特用物	果實	其他作物	副產物
1965	100.0	62.2	16.0	1.6	3.9	4.0	5.1	4.2	0.6	0.4	1.9
1970	100.0	63.1	11.9	1.0	4.4	2.9	9.2	3.4	1.7	0.2	2.2
1975	100.0	62.7	11.5	0.7	3.0	4.1	8.5	4.5	2.1	0.8	2.1
1976	100.0	64.7	9.7	0.5	3.2	3.2	9.8	4.0	3.1	0.1	1.7
1977	100.0	68.8	3.3	0.4	2.3	2.1	11.0	5.4	4.4	0.4	1.9
1978	100.0	61.4	7.5	0.5	2.8	2.4	13.3	5.7	4.9	0.5	1.0
1979	100.0	62.8	7.9	0.5	2.0	2.1	13.0	4.9	5.0	40.	1.4
1980	100.0	56.5	5.9	0.8	2.9	2.4	18.7	5.0	5.9	0.5	1.4
1981	100.0	62.7	5.1	0.6	2.4	1.8	15.4	4.9	5.7	0.3	1.2

資料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82.

業은 經濟作物 및 畜產部門에 比較해 볼 때 그
리 展望이 밝지 못한 部門으로서 1960年代 後
半부터 시작되는 農特事業實施로 많은 開發을
해 1970年代 初에는 農業所得中 그 比重이 增
大되고 있으나 1970年代 後半부터는 中共 등
의 國際市場參與로 輸出需要의 減少로 인해
사양길에 들어서서 그 相對的 比重이 減少되
어 1981年度는 0.7%에 머물게 되었다.

農作物收入을 作物別로 살펴보면 米穀收入
은 自給을 위한 生產增大와 二重價格制 등으
로 農作物收入中 그 比重이 60% 以上을 차지
하고 있다. 1965年度에는 農作物收入中 米穀
의 比重이 約 62%線에 머물러 있었으나 生產
增大와 高米價政策등으로 1970年代 初에는 約
67%로 上昇되었고 이와 같은 水準이 1970年
代 後半까지 계속되었으나 1981年度의 比重은
62.7%로 下落하였다.

大麥은 二重價格制등으로 相對的比重이 계
속 60年代 後半과 70年代 初盤까지는 10%以上
이었으나 197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1人當 所
得增大로 인한 食生活高度化로 보리쌀 消費減
少등에 연유한 生產減少등으로 1981年度에는
5.1%에 머물렀다. 雜穀과 豆類는 1960年代와

1970年代를 통해 그 比重에는 별 變化가 없었
다. 經濟作物中 菜蔬收入比重은 1人當 國民所
得增大와 거의 같은 추세로 上昇하여 1965年
5.1%, 1970年 9.2%, 1981年에는 15.4%로
增加되고 있다.

나. 農外所得

農外所得은 兼業所得, 勞賃所得 및 財產被
贈收入으로 構成된다. 農家所得에 대한 兼業
所得比率은 1970年代 後半에 들어 2~3%에
불과하며 勞賃收入은 9~14%, 財產, 被贈收
入은 6~15%를 占하고 있다.

1) 兼業所得

農外所得에 대한 兼業所得比率은 197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2~3%로 아주 安定의 양
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農家所得이 增加하
는 정도의 成長率은 兼業所得도 增加하고 있
다. 이 중 農業에 따른 서비스業으로 發生되
는收入은 현저하게 增加되고 있으며 商工礦
業으로부터 오는 收入 또한 急激히 增加되고
있으나 林產物 및 水產物의 收入比重은 현저
하게 줄고 있다. 특히 70年代 後半期에 들어와
서 林產物 및 水產物 收入比重은 줄고 農業에

〈表 4〉 兼業所得의 構成

(단위 : %)

	合計	農業에 대한 서비스業	林產物	商工礦業	水產物	一般 서비스業	其 他
1 9 6 5	100.0	3.2	19.7	28.2	31.3	14.7	2.9
1 9 7 0	100.0	10.7	5.7	46.9	18.0	15.4	4.6
1 9 7 5	100.0	8.9	7.5	54.0	9.6	15.4	0.3
1 9 7 6	100.0	8.9	5.7	53.4	9.7	15.4	7.7
1 9 7 7	100.0	11.6	4.5	58.8	4.3	11.6	9.2
1 9 7 8	100.0	10.3	3.5	68.6	3.1	9.4	5.1
1 9 7 9	100.0	13.0	4.7	63.3	4.4	10.9	3.7
1 9 8 0	100.0	11.2	6.8	60.1	3.2	10.1	8.6
1 9 8 1	100.0	12.0	6.2	57.5	2.2	7.3	14.8

資料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 1971~82.

따른 서비스業收入과 商工礦業으로부터 發生하는 收入比重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은 農業의 機械化에 따른 서비스業發展과 政府의 副業團地造成事業등으로 農閑期副業이 育成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労賃收入

勞賃收入은 農外所得中에서 가장 현저하게增加하고 있는 部門으로서 農家所得中에서 9~14%를 차지하고 있다. 農業의 機械化가 점차 이루어지고 除草劑등의 農藥의 擴大使用으로 農作物生產에 投入되는 勞動時間은 減少되며 이와 같은 剩餘勞動力を 他部門에 投入해서 收入을 發生케 한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農業의 機械化와 農業의 科學化로 營農에 投入되는 必要勞動時間은 短縮시키는 반면 農村地域에 勞動集約的인 工業을 育成시켜 剩餘農村勞動力を 흡수한다면 勞賃收入은 增大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勞賃收入은 農業勞賃, 其他勞賃, 給料 및 기타 謝禮金으로 나누어지는데 60年代 初盤에는 農業勞賃의 比重이 커으나 점차 農業勞賃의 比重은 줄어들고 給料와 其他勞賃의 比重이 增大되고 있다. 農業勞賃은 自家勞動力投下로는 不足하기 때문에 農村

內部에서든 혹은 都市勞動者들을 營農活動에 고용하고 그 뜻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農村內의 所得再分配效果는 가져올 수 있지만 農家全體로 보아서는 農外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農業勞賃部門을 擴大시켜 農外所得을 增大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農外所得增大에 바람직한 勞賃收入部門은 其他勞賃과 給料形態이다. 이를 위해 農業以外에 農村地域에 非農業活動機會를 擴大하여 非農業就業機會를 擴大시켜야 한다.

3) 財產, 被贈收入

貨貸料, 配當利子, 送金補助, 家事收入等으로 構成되며 農家所得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0%內外이다. 送金補助收入이 가장 큰 項目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工業部門의 成長과 都市化로 인해 家口員의 一部가 離村하여 工場이나 家政婦등의 職業에 就業하여 얻은 收入의 送金으로 離村人口의 增加와 勞賃등의 增加에서 온 結果이다.

III. 外國의 農家所得現況

〈表 5〉 労賃收入의 構成

(단위 : %)

	合計	農業勞賃	其勞賃	他勞賃	給料	謝禮金
1 9 6 5	100.0	29.5	24.7	34.3	11.5	
1 9 7 0	100.0	19.7	28.6	43.7	8.0	
1 9 7 5	100.0	19.7	21.8	49.4	9.1	
1 9 7 6	100.0	17.4	18.2	56.7	7.7	
1 9 7 7	100.0	17.6	18.8	52.8	10.8	
1 9 7 8	100.0	16.9	22.6	51.2	9.3	
1 9 7 9	100.0	15.3	25.9	52.1	6.8	
1 9 8 0	100.0	14.8	23.1	55.9	6.3	
1 9 8 1	100.0	15.5	23.3	55.9	5.3	

資料：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 1971~82.

1. 臺灣

臺灣의 農業은 韓國에 비해 自然條件上比較的 좋은 位置에 있다. 이러한 天惠의인 好條件을 勘察 臺灣政府는 農地改革을 1950年代初까지 完了하고 經濟開發에 着手했다. 經濟開發은 우선적으로 農業開發부터 시작했다. 農業開發方向은 日本治下때부터 많이 이루어졌던 水利施設開發과 農村下部構造開發에 重

點을 두었다. 水利施設開發로 農業生產性을 向上시켰으며 한편으로는 耕地面積의 擴大에 注力하였다.

農家所得構造를 살펴보면 1966年 農業所得比重이 66.0%, 農外所得比率이 34.0%로 農業所得이 主宗을 이루었다. 그러나 工業化가 推進되면서 農家所得構造는 變化되고 있다. 1970年 農業所得은 農家所得中 48.7%를 占하고 農外所得比率은 51.3%가 되어 農業外所得比重이 더 크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趨勢는 계속되어 1975年 農業所得比重은 더욱 減少되어 46.3%가 되었고 農外所得比重은 53.7%가 되었다. 1980年에는 더욱 더 현저히 農業所得比重이 減少하여 26.4%가 되었고 農外所得比重은 73.6%가 되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農業所得自體가 減少한 것이 아니라 農外所得이 相對的으로 더 빨리 增加했기 때문이다. 1966年 戶當 農家所得은 NT \$ 32,320이었으나 1980年

에는 NT \$ 207,297로 6.4倍가 增加했는데 農業所得은 1966年에 NT \$ 21,331에서 1980年 NT \$ 54,726으로 2.5倍가 增加하는 한편 農外所得은 NT \$ 10,989에서 NT \$ 152,571로 무려 13.9倍가 增加했다.

農家規模別 所得資料가 可能한 1979年度 臺灣의 營農規模別 戶當 農家所得을 比較해 보면 平均 戶當 農家所得은 耕地規模와 正의 相關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0.5ha未滿 農家階層의 平均 戶當 農家所得은 NT \$ 155,000이었으며 3.0ha以上의 農業經營規模의 平均 戶當 農家所得은 NT \$ 239,000이었다. 그러나 農外所得比率은 經營規模와는 逆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0.5ha未滿 階層에서 農外所得比率은 87.2%이며 3.0ha以上 農家階層에서는 44.2%에 그치고 있다.

農外所得을 細分해서 살펴보면 1966年 農外所得中 紿料 및 其他勞資部分이 農家所得中

〈表 6〉 臺灣의 農家所得構成

(단위 : NT \$, %)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合計	兼業所得	給料 其他勞資	其他事業收入
1 9 6 6	32,320 (100.0)	21,331 (66.0)	10,989 (34.0)	905 (2.8)	6,496 (20.1)	3,588 (11.1)
1 9 7 0	35,439 (100.0)	17,259 (48.7)	18,180 (51.3)	957 (2.7)	12,758 (36.0)	4,465 (12.6)
1 9 7 5	86,061 (100.0)	39,846 (46.3)	46,215 (53.7)	2,410 (2.3)	38,478 (38.9)	10,327 (12.0)
1 9 7 6	100,873 (100.0)	41,761 (41.4)	59,112 (58.6)	3,430 (3.4)	40,753 (40.4)	14,929 (14.8)
1 9 7 7	105,944 (100.0)	42,907 (40.5)	63,037 (59.5)	3,390 (3.2)	44,602 (42.1)	15,045 (14.2)
1 9 7 8	130,298 (100.0)	43,520 (33.4)	86,778 (66.6)	4,560 (3.5)	62,282 (47.8)	19,936 (10.3)
1 9 7 9	164,629 (100.0)	44,944 (27.3)	119,685 (72.7)	8,890 (5.4)	86,924 (52.8)	23,870 (14.5)
1 9 8 0	207,297 (100.0)	54,726 (26.4)	152,571 (73.6)	12,852 (6.2)	108,209 (52.2)	31,210 (15.2)

註 : ()內 數字는 比率임.

資料 : Council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Development, *Basic Agricultural Statistics*, R.O.C., 1982.

〈表 7〉 臺灣의 農家規模別 農家所得構造(1979)

規 模	農家所得 (NT\$)	農業所得 (%)	農外所得 (%)
0.5ha 以下	154,506	12.8	87.2
0.5 ~ 0.9	160,112	23.0	77.0
1.0 ~ 1.4	178,805	32.5	67.5
1.5 ~ 1.9	189,259	40.6	59.4
2.0 ~ 2.9	210,953	51.2	48.8
3.0ha 以上	238,526	55.8	44.2
平 均	164,629	27.3	72.7

資料 : Taiwan Provincial Bureau of Accounting and Statistics, *Report on the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1979.

20.1%를 점하고 있어 主所得源이었으며 兼業所得은 2.8%, 其他事業外所得은 11.1%에 그쳤다. 1970년에 들어와 農外所得比率은 51.3%로서 農業所得比率보다 相對的으로 커졌다. 農外所得中 兼業所得比率은 2.7%로 1966年水準과 거의同一하다. 그러나 紙料 및 其他勞資部門이 急增하여 36.0%가 됨으로써 1966년에 비하여 16.0%포인트가 높아졌다. 1978년

까지 兼業所得比率은 3%水準에서 安定的으로 增大되고 있었고 其他 事業外收入는 12~14%水準에서 安定되었다. 그러나 紙料 其他 労資所得은 急增해서 47.8%가 되었다. 1980年에 들어서 農外所得比率은 74%로 前年に 비하여 1%포인트정도 增加했으나 紙料部門은 별로 變動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世界的不況에 영향을 받아 2次產業部門의 沈滯가 原因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日 本

日本의 農業도 小農經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專業形態의 農業보다는 兼業形態가 일반이며 一種兼業農보다 二種兼業農比率이 월등 높다.

全國平均農家所得構成內譯을 살펴보면 1962

〈表 8〉 日本의 農家所得構成(經常價格 戶當平均)

(단위 : 千円, %)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 外 所 得				
			合 計	兼業所得	給料, 勞	其他	其他事業外
1 9 6 2	525.4 (100.0)	269.8 (51.4)	255.6 (48.6)	49.5 (9.4)	187.8 (35.7)	18.3 (3.5)	
1 9 6 5	760.8 (100.0)	365.2 (48.0)	395.6 (52.0)	58.0 (7.6)	311.1 (40.9)	26.5 (3.5)	
1 9 7 0	1,393.2 (100.0)	508.0 (36.5)	885.2 (63.5)	96.7 (6.9)	736.2 (52.8)	52.3 (3.8)	
1 9 7 5	3,414.4 (100.0)	1,146.0 (33.6)	2,268.4 (66.4)	181.0 (5.3)	1,920.6 (56.3)	166.8 (4.8)	
1 9 7 6	3,662.0 (100.0)	1,156.6 (31.6)	2,506.4 (68.4)	197.4 (5.4)	2,133.3 (58.3)	175.6 (4.7)	
1 9 7 7	3,984.5 (100.0)	1,172.9 (29.4)	2,811.6 (70.6)	220.7 (5.5)	2,399.4 (60.2)	191.5 (4.9)	
1 9 7 8	4,221.1 (100.0)	1,196.5 (28.3)	3,024.6 (71.7)	228.1 (5.4)	2,597.3 (61.5)	199.2 (4.8)	
1 9 7 9	4,417.7 (100.0)	1,126.7 (25.5)	3,291.0 (74.5)	247.8 (5.6)	2,830.4 (64.1)	212.8 (4.8)	
1 9 8 0	4,524.0 (100.0)	905.6 (20.0)	3,618.4 (80.0)	256.3 (5.7)	3,125.1 (69.1)	237.0 (5.2)	

註 : ()내 숫자는 百分比임.

資料 : 日本農林水產省, 『農家經濟調查』, 當該年度.

年 農業所得比重이 51.4%, 農外所得比率이 48.6%였다. 工業化가 促進되면서 農業所得比重에 대해 農外所得比重이 커지기 시작하여 1965년에는 農業所得 48.0% 農外所得 52.0%로 農外所得比重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農外所得比重은 急速히 增大되어 1970年 63.5%, 1975年 66.4%로 되더니 1980年度에는 80.0%로 되어 金額으로는 3,618,400円이 되는 한편 農業所得은 純對額이 前年에 비하여 減少하여 905,600円으로 農家所得中 20.0%를 占하였다.

耕地規模別로 農家所得現況을 살펴보면 1980年現在 0.5ha未滿의 農家所得은 4,605,400円인데 農業所得은 150,100円으로 農家所得의 3.3%에 불과하고 農外所得은 4,455,300円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다. 0.5~1.0ha의 農家階層은 農業所得이 4,455,300円으로 推計되었는데 이 중 農業所得은 606,100円이며, 農外所得은 3,906,700円으로 農外所得比率이 86.6%가 된다. 1.0~1.5ha의 農家所得은 4,379,700円으로 耕地規模 0.5~1.0ha의 平均 戶當所得과 거의 같으나 農業所得은 1,288,300円으로 急增하는 한편 農外所得은 3,091,400円으로 急激히 下落해서 農外所得比率은 70.6%에 달하고 있다. 1.5~2.0ha의 農家戶當平均所得은 4,380,500円으로 1.0~1.5ha의 農家보

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階層 農家の 平均農業所得은 1,848,400円으로 計測되고 農外所得은 2,532,100円으로 推定되었다. 그리하여 農外所得比率은 57.8%에 달했다. 2.0ha以上의 大農의 農家所得은 4,634,200円, 農業所得은 2,833,500円, 農外所得은 1,800,700円으로 나타나 있고 農外所得比率은 38.9%로 나타나 있다. 耕地規模가 커갈수록 農家所得規模는 커지며 農業所得規模 또한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農外所得規模는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작아지고 있다(表9 參照).

日本에 있어서 農外所得은 1962年度에 이미 農家所得中 48.6%를 占했다. 農外所得中 兼業所得은 9.4%, 給料 및 其他勞賃이 35.7%, 其他事業外收入이 3.5%로 되어 있어 農外所得은 주로 給料 및 其他勞賃으로 構成되어 있다. 工業化가 계속되면서 農村에 農外就業機會는 擴大되어 1963年에 이미 農外所得比率이 農業所得보다 커져 50.6%를 占하게 되었다. 그以後 계속 農外所得比率이 增大되어 왔으나 1967年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增加하여 1970年에 들어와서는 63.5%가 되었다. 이는 就業機會의 擴大로 給料 및 其他勞賃部門이 52.8%로 急擴大된 데 그原因이 있었다. 兼業所得은 계속 減少하여 1962年 9.4%에서 1970年 6.9%

〈表 9〉 日本의 耕地規模別 農家所得(1980)

(단위 : 千円, %)

規 模	金額			比 率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平 均	4,524.0	905.6	3,618.4	100.0	20.0	80.0
0.5ha 未滿	4,605.4	150.1	4,455.3	100.0	3.3	96.7
0.5 ~ 1.0	4,512.8	606.1	3,906.7	100.0	13.4	86.6
1.0 ~ 1.5	4,379.7	1,288.3	3,091.4	100.0	29.4	70.6
1.5 ~ 2.0	4,380.5	1,848.4	2,532.1	100.0	42.2	57.8
2.0 ~	4,634.2	2,833.5	1,800.7	100.0	61.1	38.9

資料 : 日本農林省, 『農林水產統計』, 1982.

로 되었고 其他事業外收入은 3.8%로 1960年代를 통해 거의 安定되어 있었다. 1977年에 들어와 農外所得比率은 70.6%가 되었으며 紙料 및 其他事業以外部分이 60.2%로 增加되었다. 1980年에 들어와 農外所得部門이 80.0%로 擴大된 것은 勞賃所得比率이 69.1%로 急速히 擴大된 것이 主要因이 되고 있다.

V. 農家所得構造改編의 必要性

1. 農業經營規模의 零細性

1981年 戶當平均 耕地面積은 1.08ha였다. 이와 같은 耕地面積으로는 農業을 專業化할 수 없다. 農業所得만으로는 家計費를 充足하지 못하여 부득이 農外所得源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農業을 포기하고 他分野로 轉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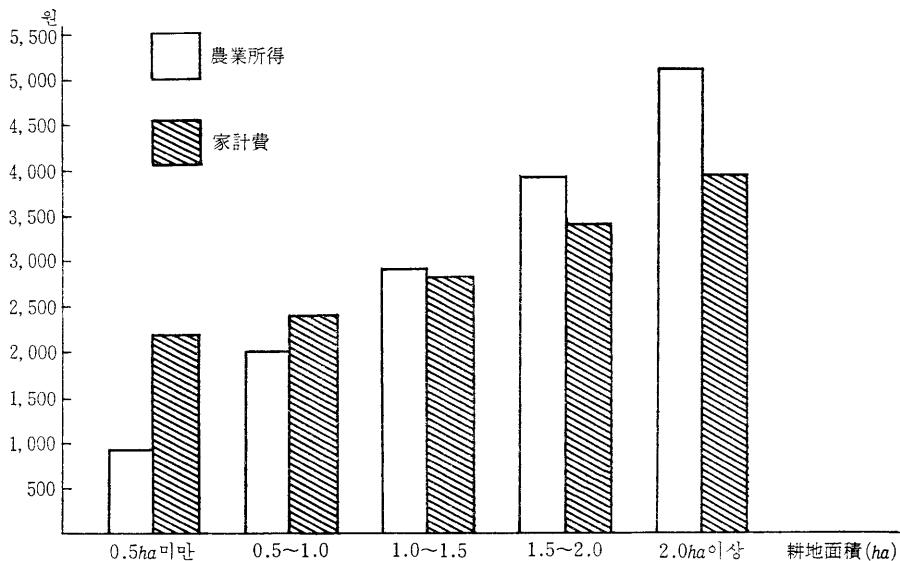
耕地規模別農家分布를 보면 0.5ha未滿의 階層에 속하는 農家戶數가 30.9%로 이들이 所有하고 있는 耕地面積은 總耕地面積 2,188,000ha 중 205,254.7ha로 9.4%에 지나지 않고 0.5~1.0ha規模階層에 속하는 農家戶數는 764,203戶로 全體農家戶數 2,030,000戶의 37.6%가 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耕地는 560,825ha로 25.6%가 된다. 1.0ha以下의 耕地를 所有한 農家戶數는 68.5%가 되며 이들이 所有한 耕地面積은 35.0%가 된다. 만약 1.0~1.5ha規模의 農家를 포함시킨다면 87.9%가 되며 이들이 所有하고 있는 農地는 56.9%가 된다.

農業을 近代的인 產業으로 育成시키려면 營農活動에 의한 收益이 他產業部門에서의 活動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收益과 比較될 만하고 또한 農業所得으로 農家の 家計費를 充足하고 剩餘分으로 農業의 單純再生產은 물론 擴大再生產을 可能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970年 農家經濟調查資料에 의하면 戶當平均年間 農業所得은 194,037원이었는데 家計費는 207,766원으로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93.4%에 불과했다. 農業所得으로만은 家計費를 充足할 수 없어 그 不足되는 분은 農外所得으로 充當해야 한다.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耕地規模가 작을수록 더욱 적어진다. 1970年度 0.5ha未滿 農家の 農業所得은 82,887원으로 推定되었는데 家計費는 152,729원이 들어 農業所得으로서는 家計費를 54.3%程度밖에 充當할 수 없었다. 耕地規模 0.5~1.0ha의 農家の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 또한 88.3%로 여전히 農業所得만으로는 家計費를 充足시킬 수 없었다. 耕地規模 1.0~1.5ha의 農家는 農業所得이 家計費總額보다 많아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가 103.6%로 3.6%程度는 家計費를 充足시키고 남아 賄蓄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다. 1.5~2.0ha規模 農家는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가 119.3%로 높아졌고 2.0ha以上規模의 農家는 112.4%로 나타나 있다. 1981年에 있어서도 0.5~1.0ha規模 農家階層에 까지 農業所得으로 家計費를 充足시킬 수 없었으며 大規模로 갈수록 農業所得으로 家計費를 充足시킬 수 있는 程度는 增大되고 있다. 그러나 平均值로 보면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92.5%에 지나지 않아 現 農業與件으로 보아서는 農業以外의 所得源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以上에서 檢討해 본 결과 耕地規模가 작아도 1.0~1.5ha가 되어야만 農業所得으로 家計

〔圖 2〕 耕地規模別 農業所得과 家計費 (1981)



費를 充足시킬 수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으며 그 以下 規模의 農家에서는 必然的으로 農業以外의 所得源을 찾아야만 生計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農業生產性增大의 緩慢

우리나라의 經濟開發은 1960年代 初부터 急進的으로 이루어져 現在는 상당한 水準에 와 있으나 農業部門은 아직도 相對的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主要理由中의 하나는 經濟發展에 副應하는 農業의 構造調整政策의 未備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營農規模와 過多한 農家人口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2,3次產業에 從事하는 사람들과 같은 水準의 所得을 올리자니 保護的인 農業政策을 實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政策은 產業間 資源配分上 誤謬를 가져오겠음 했으며 現在의 小規模의 非效率的인 農業이 定着도록 誘導해 왔다.

小規模의 營農이기 때문에 農家所得을 增大

시키기 위해서는 農業生產性을 增大시키고 生產物의 價格을 높은 水準에 維持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農業生產性增大는 期待한 만큼 向上되지 못하였다.

農業部門의 GNP는 1950年代에 年平均 2.1 %의 成長을 하는 한편 非農業部門은 年平均 4.4%의 成長을 했다. 1960年代 第1次 및 第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期間의 農業部門의 GNP 成長率은 年平均 3.7%의 成長을 했으나 同期間非農業部門은 11.5%를 成長했다. 1970年代 第3次 및 第4次 5個年經濟開發期間中の 農業部門成長은 年平均 0.9%였으며 非農業部門은 10.5% 成長을 했다.

한편 個別農作物의 増產率을 보면 1970年度에 있어서 食糧作物全體로 보아 0.63%가 每年 減產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중 米穀은 年平均 0.35%의 増產率을 보였으나 麥類는 -2.4%의 成長을 했다. 이와 같이 農產物의 增產이 低調한 것은 農業部門에 대한 投資가 크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도 있겠지만 農

業과 非農業部門에 대한 均衡開發을 했다는 日本, 台灣等에서도 農業의 成長은 非農業部門에 비해서 相對的으로 낮은 것이 일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小農體制의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 農業生產增大策에만 依存하는 것은 限界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農產物價格을 높은 水準에 維持시켜야 한다. 그러나 現 우리나라 經濟與件으로 보아 繼續적인 農產物價格引上은 一般物價를 上昇시켜 國內物價의 安定을 해치고 國際競爭力を 弱化시켜 輸出을 어렵게 할 可能性이 있다.

3. 農外所得源의 開發未備

1. 0ha미만의 小規模農家の 戶當平均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 農業生產性增大와 農產物價格支持政策을 實施해 왔으나 여러가지 與件으로 보아 農家所得을 增大시키는데 滿足치 못한 結果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農業所得을 繼續增大시키는 동시에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는 兼業農을 育成해야 한다. 兼業農의 農外所得은 構造面에서 農業을 基礎로 하는 兼業所得보다는 非農業就業機會의 擴大를 통한 勞賃收入을 增大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國과 農業與件이 비슷한 日本과 台灣에 있어서는 工業開發과 함께 農外所得中 勞賃收入部門이 急速히 開發되었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는 工業開發은 急速度로 이루어지고 있지 만 農村地域의 農外所得比率은 이와 比例해서 增加되지 않고 있다. 日本과 台灣에 있어서 農外所得中 急成長을 한 부분은 非農業部門의 勞賃收入이다. 이와 같이 農村地域에 있어서 勞賃收入을 增大시킬 수 있었던 理由로는 工業

의 地方分散과 道路交通網이 잘 開發되어 통근거리내에 食品加工工場, 섬유工場, 비금속제품工場 및 木製品工場들이 分散位置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韓國의 경우는 서울, 부산地域등지에 工業이 集中되어 있다. 工業이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理由로서는 大都市에는 下部構造施設이 잘되어 있고 銀行 등金融機關들의 開發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勞動力이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技能工 등 勞動力を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큰 製品消費市場에 접해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이 외에 韓國의 工業開發戰略이 內需產業보다는 輸出主導型產業의 育成이었기 때문에 製品을 生產해서 外國에 輸出하기 편한 大都市부근 高速道路邊 및 港灣등에 工場이 集中位置해 있다. 또한 政府의 行政體系가 극히 中央集權的이기 때문에 重要政策決定이 首都인 서울에서 이루어지므로 自然히 企業이 서울에 인접해 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集中的인 工業化類型이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農村의 就業機會의 擴大를 가져오지 않았다.

工業의 地域的인 集中的 開發 못지않게 商業 및 서비스業의 集中 또한 農外所得增大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農村地域에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는 就業機會造成을 어렵게 한 또 다른 理由는 農村地域에 家內手工業開發의 低調이다. 現在 實施中인 家內手工業은 農家의 副業으로는 開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어떠한 理由에서 한地域에 發生한 家內手工業은 그 地域의 開發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이들 手工業은 극히 零細하여 農家의 副業形態로 存在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農村地域에 專業的인 家內手工業人으로 活動하고 있다. 農村地域에 存在하는 家內手工業에 대한 農民의 就業機會는 极히 적게 나타나 있다. 家內手工業에 대해 政府가 育成策을 講究한다면 農外就業機會가 擴大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信用制度는 서울을 中心한 首都圈, 釜山, 大邱, 光州, 大田 등의 大都市에서는 잘 開發이 되었으나 中小都市나 農村地域에는 전연 開發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地方工業, 商業 및 서비스業이 發達되지 않고 있다. 또한 流通制度 및 社會間接資本形成이 農村地域에 開發이 안되었기 때문에 農外就業機會를 提供할 수 있는 農村工業이 育成되지 못하고 있다.

小農이 大部分인 韓國의 農村에 農外就業機會를 擴大시킴으로써 勞賃收入을 增大케 해서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만 있다면 農家所得增大로 農村의 후생을 增大시킬 수 있는 반면 農業에 대한 農民의 投資增大로 農業을 開發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V. 農家所得構造 改編方向

1. 從來의 農家所得增大 施策

農業問題 및 農家所得問題는 基本的인 農業構造問題가 解決이 되지 않는 한 결코 풀릴 수 없는 것이다. 基本問題의 理解조차 없이 農業 및 農業所得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政策을 實施했기 때문에 政策效果를 舉揚치 못하고 있는 事例가 많다.

解放後 1950年代를 통해 韓國의 農業開發政策은 1949年에 단행된 農地改革外는 뿐로 重要한 것이 없었다. 이期間中 解放 및 6·25事變과 더불어 起起된 政治的混亂속에서 經濟安定이 國家의 最優先政策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產業構造上 絶對的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農業은 食糧의 安定的 供給의 役割을 擔當하도록 되었다. 이期間中 物價의 安定은 바로 穀價安定을 通過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物價의 安定을 위해서는 穀價上昇이 抑制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國內에서는 農家所得보다는 食穀增產에 힘썼고 不足分은 外國의 農產物 특히 美國의 剩餘農產物을 導入해서 食糧需給을 安定시켰다.

1960年 初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經濟政策에 일대 革新이 가해졌다. 지금까지의 農業為主의 產業構造가 2, 3次產業으로 構造的變化를 가져 오게한 起點이 되었던 것이다. 1962年에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始作되면서 韓國經濟는 擴大政策으로 바뀌었으며 主要開發分野는 工業化였다. 이期間中 農業開發政策은 여전히 食糧增產施策에 集中되었다. 食糧增產을 위해서 土地基盤造成事業을 實施했는데 그 主要事業은 耕地擴大, 土地改良, 種子更新等에 대한 政府支援이 制度化 되었다. 農漁村經濟의 惡循環을 除去하고 農村金融의 正常化를 위한 措置로 農漁村高利債整理와 農業銀行과 舊農協의 統合에 의한 새로운 綜合農協이 發足되었다. 綜合農協의 創設은 農村에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效率的인 統合이라는데 意義가 있으며 이로써 農業의 近代化를 農協運動으로 이룩해 보자는데 뜻이 있었다.

農家所得增大事業으로서는 自立安定農家造成事業으로서 一部農家를 選定, 融資支援하여

畜產 및 開墾등에 의한 耕地擴大 등을 통한 所得增大를 과했으나 全體農家를 對象으로 하지 않은 事業이기 때문에 農民間의 不和와 農村의 輿論이 좋지 못해 中斷되었다.

1960年代 中盤에 들어서 價格 및 所得補償政策으로서의 試圖가 이루어져 契約栽培와 價格豫示制度가 部分的으로 導入實施되었고 適地適作原則下에 主產地造成事業을 實施하기始作했다. 主產地造成事業은 곧 農家所得增大的 特別事業으로 轉換되었으며 米麥을 除外한 經濟作物등 成長農產物을 對象으로 하였다.

1967年代부터 始作되는 第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에 있어서도 農業의 目標는 食糧增產에 의한 國民食生活의 安定이 있고 附隨的으로 所得과 利潤을 目標로 하는 農業을 發展시켜 農家所得을 增大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한 制度的措置로서는 農業에 관한 憲法이라 할 수 있는 「農業基本法」을 日本의 것을 模倣해서 1967年に 制定公布하였으며 農民의 農業資金調達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 「農地擔保法」이 制定되었다. 또한 農產物의 價格安定과 農家經濟의 向上을 目標로 한 「農產物價格安定基金法」과 農業生產에 있어서 災害豫防과 그事後對策을 講究함으로써 生產力增進과 農業經營의 安定을 위한 「農業災害對策法」이 마련되었다. 開墾促進을 위한 「農耕地造成法」이 마련되었고 農林水產物의 貯藏處理 및 加工業을 開發育成함으로써 農漁民의 所得을增進시키기 위해서 「農漁村開發公社」를 設立했다.

農家所得增대政策으로서 가장重要的 것은 1960年代 末부터 始作된 高米價政策으로의 轉換과 二重麥價制實施이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農家所得增大的 特別事業이 계속 추진되었고 1972年을 起點으로 시

작된 農村새마을運動은 農村의 生活環境을 根本的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農村社會에 自助, 協同, 勤勉을 點火시켜 農民들에게 活氣와 自信感을 불어 넣게 했다고 評價되고 있다.

우리나라 農業政策은 收益性이나 效率性等經濟的原理에 立脚하는 것보다는 價值的面에置重한 農產物의 增產施策一邊道였기 때문에 農家所得增대를 위한 農業所得增大的施策이나 農外所得增大的施策은 1960年代 前半까지만 해도 本格的으로 實施되지 않았다. 1960年代 後半부터 農家所得問題에 關心이 기울어지자 政府에서는 高米價政策 農家所得增大的 特別事業, 農閑期勞賃散布事業, 農閑期副業事業施策을 推進했다. 이 모든 施策들은 現在의 1.0ha規模의 農業을 계속維持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은規模에서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單位面積當 生產量을 增大시켜야 하며 農產物價格을 높은 水準에維持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小規模營農에 의한 農業所得增大的 農業生產增大的 緩慢과 經濟安定化施策 및 其他經濟與件에 의한 高農產物價格政策의 계속推進의 어려움등에 의하여 스스로의 限界에 부딪치고 있다. 그리하여 農閑期勞賃散布事業과 副業園地造成事業을 實施하게 되었고 1970年代初 全般的으로 展開되고 있었던 새마을運動을 農家所得增대와 直結시킴으로써 새마을運動의 求心事業으로서 農家工產品開發事業을着手하여 「새마을工場」을 建設하였다. 「새마을工場」事業은 農民들이 農業生產에 그치지 않고 工產品의 生產에도 參與하도록하여 農家の 農外所得을 增大시키는 同時에 工產品의 生產 및 輸出과 雇傭의 增大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施策遂行으로 인한 農家所得增效果는 그리 크게 나타나 있지 않다.

2. 農家所得構造改編의 代案

가. 小農體制農業代案

農家所得構造의 改編方向은 農業構造의 目標設定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農業構造의 長期目標가 무엇인가를 設定한 다음 이 目標達成에 알맞는 農家所得構造政策을 實施해야 한다.

韓國의 農業은 지금까지 先祖들로부터 물려 받은 世襲的인 小農이며 農業에 대한 自身의 資質有無와 關係없이 宿命的으로 하는 自給自足型에 가까운 農業이었다. 工業化나 經濟開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變化를 싫어하는 保守的인 形態의 現小農體制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適合한 形態의 農業이었다. 農村의 價值觀의 變化 및 現農業從事者의 全面的인 世代交替가 당분간 일어나지 않는다고 假定하고 기타 여러가지 經濟與件으로 보아 現在의 農業構造形態를 그대로 存續시키면서 2,3次產業에 從事하는 사람들과 같은 水準의 所得을 維持토록 하려면 農業所得은 물론 農業外所得을 增大시켜야 한다.

農業所得과 農外所得增大的 短期的으로 일시에 急進的으로 이룩될 수는 없고 長期的으로 서서히 增大시켜야 效果가 크게 나타난다.

이미 언급했듯이 農家所得問題는 農業의 構造的인 問題의 解決 없이는 결코 解決될 수 없다. 農民들이 얻는 所得은 2,3次產業에 從事하는 賃金勞動者들의 所得이나 企業家들이 얻는 所得과는 큰 차이가 있다.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構成되는 混合所得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農業은 小農의 自給自

足形態에 가깝기 때문에 自己土地, 自己資本 및 自家勞動力을 基礎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農家所得은 自己土地에 대한 地代, 自己資本에 대한 利子 및 自家勞動에 대한 勞賃收入의 混合體가 되고 있다.

1981年 戶當平均耕地面積은 1.08ha이며 이 중 畦은 0.64ha, 田地 0.43ha이다. 順은 規模의 自給自足에 가까운 農業을 하다보니 自己消費에 필요한 主穀인 穀 및 麥類를 生產하고 豆類, 薯類, 菜蔬 및 特用作物을 生產해서 自家消費를 하고 剩餘分은 都市에 販賣하는 것이 일반이다. 畜產으로서는 韓牛 1~2마리, 霍지 1~2마리, 犬 몇마리를 기르는 것이 전형적인 標準農家이다. 自然災害나 價格變化等 經濟與件變化에 따른 危險分散을 目的한 復合營農이라기 보다 自家消費充當을 위한 復合營農을 옛부터 實施해 왔다.

經濟가 開發되면서 農民들도 市場經濟에 접하게되고 所得增大問題가 起起된다.

農家所得中 農業所得이 主宗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農家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農業所得을 增大시켜야 한다. 農業所得은 生產된 農產物에 價格을 乘한 것으로부터 經營費를 除外한 것이다. 그래서 農家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最小限 3가지 要因을 考慮할 수 있다. 첫째 農業生產性의 增大이다. 여타 여건이 주어졌다고 볼 때 農業生產性向上은 그만큼 農業所得을 增加시키고 있다. 穀의 경우 1962年 10a當 265kg이 生產되었고 植付面積은 1,139千ha에 달했다. 19年後인 1981年에는 비록期間中 다소 起伏은 있었지만 10a當 生產量이 414kg에 달해 56.2%의 增產을 가져왔고 植付面積도 1,224千ha로 增加해서 總生產量은 增加하였다. 그러나 單位面積當生產量은 氣候條

件이나 營農技術水準에 의존하는 바 커서 增產效果는 緩慢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考慮해야 할 要因은 農產物價格水準이다. 生產性의 向上 없이도 價格이 上昇하면 農業所得은 增加하게 된다. 政府는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 1960年代 後半부터 1970年代를 통하여 高 農產物價格政策을 實施해 왔다. 農產物中 米麥이 가장 重要한 作物이기 때문에 米麥價格의 上昇은 곧 農業所得의 增大로 나타나게 된다. 1970年代中 米穀에 대한 政府收買價는 年平均 21.6%라는 높은 率로 上昇되었으며 大麥에 대한 政府收買價는 每年 20.1%로 上昇되었다. 同期間中 都賣物價는 每年 18.4%로 上昇한 데 비하면 높은 引上率이었다. 그러나 높은 農產物價格上昇은 一般物價水準을 引上시켜 다시 實質農家所得을 減少시킬 우려가 있으며 經濟安定施策效果를 舉揚시킬 수 없게 한다.

세째로 農業所得에 영향을 주는 要因은 農業經營費 혹은 農業生產費다. 지금까지 農業生產增大施策과 農產物價格政策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形態로 試圖되어 왔으나 農業生產費節減問題에 대해서는 關心을 두지 않았다. 費用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土地生產性을 增大시키는 데 급급했으며 비싼 費用으로 生產을 했으니 農產物價格을 높게 維持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國內 農產物價格이 國際 農產物價格에 비해서 2~7倍程度가 비싸게 된 것이다. 이렇게 비싼 費用을 들여 增產을 强要하나 과연 주워진 農業資源을 가지고 自給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農業純收入를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農業總收益을 增加시켜야하나 그보다도 農業生產費를 節減시키는 것이 效果的일 수가 있다.

生產費를 節減시키는 일은 長期를 要할뿐만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營農技術開發이나 土地制度改善 등에 의하여 生產費는 引下될 수 있다.

農業生產性增大, 農產物價格政策 및 生產費引下措置로 農業所得을 增大시킬 수는 있지만 2,3次產業의 開發速度는 더 急進的으로 이루어져 農業從事者와 非農業從事者와의 所得隔差는 더욱 擴大될 것이豫想된다. 그러므로 農業外所得을 增大시켜야 한다. 오늘날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가 그 代表的인 例가 된다. 農業所得 및 農外所得額의 絶對額을 增大시키며 더우기 農外所得比重을 急速度로 增加시키는 것이다.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施策과 增產施策에 의한 政府의 努力으로 農民들은 사명감을 갖고 결코 農業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계속 農業을 하며 農外事業에 就業할 것이다. 그리하여 專業農家와 第1種兼業農家는 減少하고 第2種兼業農家는 계속 增加할 것이다. 第2種兼業農家는 農外所得만으로 家計費를 充足하고 剩餘分을 남길 수 있게 된다. 工業化와 人口增加로 인해 土地需要는 增大되고 農地價格은 계속 上昇하기 때문에 農地를 계속 所有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小農體制는 영구히 持續될 것이며 農業에 대한 勞動力投入減少로 農業生產性은 減少될 것이며 小規模耕地에 過多한 農業機械投入등으로 農業生產費는 增大되어 農產物價格을 높은 水準에 維持토록 하는 政治的 壓力이 強力히 나타나고 비교적 손쉬운 米作農民을 하고 勞動力이 豐富이 要求되는 田作農業은 褐庇하는 自給自足農業으로 轉落할 可能성이 있어 農外所得增大事業의 逆效果도 있다.

4. 專業自立農代案

工業化나 經濟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小農의 現體制가 그린대로 적당한 形態였으나 現在 및 앞으로의 經濟與件으로 보아서는 現在의 韓國의 農業形態를 계속 維持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農業은 生存을 위한 自給自足形態의 段階를 벗어나 交換經濟의一部分으로의 農業으로 轉換되어 가고 있다.

전적으로 商品生產의 農業은 아니지만 市場經濟原理에 밀접히 접근되어 있는 農業이다. 어느나라의 農業이든 막론하고 農業이나 農業政策은 保守的이어서 變化를 急進的으로 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나마 탈바꿈을 하고 있다.

現在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農家所得構造改編政策은 小農體制의 農家所得增大를 위한 施策으로 適切한 措置이지만 얼마간의 制度의改善을 결들이면 專業自立農으로 轉換을 가져올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現政府는 農家所得構造改編措置는 農家所得構造를 農業所得爲主에서 農外所得比重을 增大시켜 農家所得이增加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措置는 農業의 構造를 改善하는데效果的일 수가 있다. 즉, 小農의 混合所得體制의 農業에서 自立專業 農家所得中心의 營利를 위한 農業으로 移轉시키는 過度的措置로서 農外所得增大施策은 必要한 것이다.

農外所得增大를 위해 이미 農漁家副業團地造成事業 및 새마을工場事業을 實施했지만 經濟의與件을考慮하지 않은 劃一的인 事業推進으로 大部分成功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中成功的인 것도 있기 때문에 成功的인 事業은持續的으로 育成하고 特히 現在 比較的推進이 잘되고 있는 民藝品工場事業은擴大育成할充分

한 必要性이 認定되고 있다. 農外所得은 農外就業所得 즉, 勞賃所得을 為主로 해서 增大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니 農村地域에 就業機會를擴大시킬 수 있는 農村工業을 育成시켜야 한다.

農村의 就業機會를擴大하기 위해서는 農村工業化를 推進해야 한다. 農村工業化를 위해서는 地方中心都市와 農村地域에 位置한 既存製造業을 계속 育成하고 이를 既存工業들이 與件이 좋은 大都市로 移住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租稅, 金融의 支援을 強化하고, 새로운 農村工業의 원활한 育成을 위해서는 새마을工場事業과 같이 散發的으로 工場을 立地케 하지 말고 小規模의 農村工業開發促進地區(農工地區)를 指定하여 造成하고 農工地區內에 入住하는 企業에 대하여 租稅 및 金融을 支援하여 大企業의 分工場 및 外國人投資에 의한 新設製造企業을 農村地域에 적극적으로 誘致해야 한다. 工場을 誘致함에 있어 政府主導의 地域 및 業種選定方法은 止揚하고 政府에서는 農村地域에 製造業體가 導入될 수 있는 與件造成즉, 道路建設 및 鋪裝 등 社會間接資本形成만을 하고 企業家로하여금 地域이나 業種選定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農村工業化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農村地域의 中心都市와 그 背後農村地域의機能을 連繫하여 相互依存할 수 있는 農家就業圈을 設定開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都市와 農村을 一體로 한 地域開發로 都農間의 隔差를 解消하고 農村內 非農業部門就業擴大로 轉業 및 脫農等의 離村을 防止하여 都市過密人口集中을 抑制하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農村의 工業化로 農村地域에 就業機會가 擴

大되면 兼業農問題等 農業에 否의 效果를 가져오나 農地所有上限線을 10ha정도로 引上調整하고 農地貸貸借의 制度化로 營農規模를 擴大시킬 수 있도록 하며 農業經營을 機械化하면 規模가 큰 專業自立農이 發生할 것이다. 現在의 多數小農들을 保護하는 것보다는 小數의 大規模專業自立農을 集中的으로 育成하는 것이 農業을 產業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農村의 工業化 以後에 나타나는 大規模專業農은 經濟的收益性에 立脚한 企業農的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現在와 같은 政府의 지나친 保護는 要求되지 않지만 生產費節減 등을 위한 技術開發投資나 農民自身들이 할 수 없는 社會間接資本形成등은 계속 政府가 實施해야 한다.

VI. 要約 및 結論

1981年度 農家戶當平均耕地面積은 1.08ha였으며 農業經營活動에 의한 農業所得은 2,476,463원이었다. 同年 農家戶當平均家計費는 2,676,090원으로 推定되어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92.5%에 미쳤다. 이와 같은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土地를 中心한 營農規模와 밀접한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耕地規模가 0.5ha未滿의 農家에 있어서는 겨우 41.9%, 0.5~1.0ha의 農家는 84.7%에 달하였다. 1.0~1.5ha農家는 105.7%로서 農業所得에 의해 農家の 家計費는 充足이 되었다. 1.0ha未滿農家에 있어서는 農業所得으로는 家計費를 充足못하고 있으며 비록 1.0~1.5ha規模의 農家에 있어서도 農業所得이 2,948,012

원으로 都市勤勞者所得 3,817,224원의 64.9%에 달해 都市의 經濟的與件을 勘察해 보더라도 農業活動에 의한 報酬가 너무 적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零細農뿐만 아니라 中農層에서도 農業所得外 農外活動에 의한 所得源을 찾아 農外所得을 增大시켜 農家所得을 向上시킬 필요가 있다. 1.5~2.0ha農家는 農業所得이 3,890,317원으로 都市勤勞者平均戶當所得과 같은 水準이며 2.0ha以上 農家는 5,101,332원으로 都市勤勞者所得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農家所得構造改編問題는 農業構造問題와 밀접히 聯關되어 있기 때문에 構造의 인問題를 解決하지 않고서는 所得問題를 쉽게 解決할 수 없는 것이다.

營農規模가 커질수록 農業所得比重은 增加하고 農外所得比重은 減少하고 있다. 1981年 農家所得中 農外所得比는 0.5ha 未滿의 零細農에 있어서는 64.0%로 農業所得比重보다 훨씬 컷으며 2.0ha以上 農家에 있어서는 17.8%로 減少하여 大規模로 갈수록 農業所得比重이 커져 專業農的性格을 갖추게 되고 있다.

韓國의 農業은 지금까지 先祖들로부터 물려 받은 世襲의 小農形態이며 農業에 대한 自身들의 資質有無와 關係없이 宿命的으로 하는 半自給自足型農業이 一般이다. 最近에 와서 農村에도 經濟的概念이 조금씩 導入되면서 農民들도 收支打算是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지만 政府의 政策을 위시 經濟原理를 떠난 農業이 部分的으로 進行되고 있다. 農業의 役割中의 하나는 食糧生產이다. 國民들에게 安全하게 食糧을 生產供給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그러나 費用이야 어떠하던 간에 増產을 強要하는 것은 農民立場에서 보면 조금 무리한 政策이다. 生產은 農民이 하는 것이기 때-

문에 收支가 맞지 않는 農業增產을 強要하는 것은 農民들로 하여금 非經濟的 行爲를 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農業을 過保護하는 것은 農業勞動力を 위시한 農業資源을 生產性이 높은 分野로의 移轉을 막아 農業自體의 開發이나 國家經濟全體를 위해서合理的인 施策이 못되는 것이다.

小農制度를 中心한 政府의 政策은 결국 우리나라 農家の 營農規模를 1ha에 계속 머물게 했으며 그로 인해 農家所得構造改編問題를 야기시켰다.

大規模下에서의 農業所得增大必要性에 비해 小規模營農에 있어서는 混合所得體制를 維持함으로써 農家所得을 올릴 수 있다. 즉, 農業生產增大와 農產物價格支持등으로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고 他面 農業外所得源을 開發하여 農外所得을 增大시키도록 해야 한다.

農外所得增大는 여러가지 方法을 통해서 達成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方法은 農村內에 就業機會를 擴大하기 위한 農村工業化이다. 農村工業化는 短期的으로는 金融稅制등의 改善 및 支援으로 農村內既存工場을 大都市변으로 移住해가는 것을 防止해야 하며 長期的으로는 農村地域에 道路建設 및 鋪裝등을 포함한 下部構造建設을 實施 工業이導入될 與件을 造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方向이다. 또한 農村工業化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農村地域에 農家就業圈을 設定하고 이를 中心한 中心地方都市에 小規模工業團地를 造成해 工

業을 誘致하는 것이 좋다. 從來 세마을 工場事業은 散發的으로 導入이 되었고 與件이 造成이 안된 地域에 劃一的으로 工場이 導入되었기 때문에 效果가 적었다.

小農制度下의 農家所得增大施策의 하나로 農村工業化施策은 農業構造關係制度改善을 併行 實施한다면 별 마찰없이 小農體制에서 營利를 目的한 規模가 큰 企業農體制部分을 擴大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農村地域에 工業의 導入은 兼業農의 增大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生產性의 下落은 물론 小規模營農體制를 永續시킬 可能性도 있다.

工業化나 經濟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小農의 現體制가 그런대로 適當한 形態의 農業이었으나 經濟가 開發이 되어 經濟與件이 變化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農業型態는 變形되어져야 한다. 그 方向은 우선 政府主導下의 農業開發政策에서 政府의 介入을 最小限으로하고 市場原理를 導入한 利潤目的의 產業으로서의 農業으로 育成시켜야 하는 것이다. 利潤追求는 技術革新에 의한 生產費引下에 의하여 可能하며 이와 같은 營利追求農家를 對象으로 專業農으로 育成하여 農業活動에 의한 農業所得만으로 農家の 家計費를 充當하고 單純再生產은 물론 擴大再生產을 可能케 하며 他部門從事者들과 所得水準은 물론 投資收益이 均衡을 이루할 수 있도록 하는 專業企業農比率을 擴大하고 小規模半自給自足型農家比率을 점진적으로 減少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 1982.
- 農水產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70~82.
- _____,『農產物生產費調查結果報告』, 1981.
- _____,『農林統計年報』, 1970~81.
- 農業協同組合中央會,『農協年鑑』, 1980~81.
- 臺灣省政府農林廳,『臺灣農家記張報告』, 1979.
- 劉錫祚,『韓國農業의 未來像 : 西紀 2000年代
를 바라보며』, 建大出版部, 1967.
- 日本農林水產省統計情報部,『農林水產統計』,
1981.
- 竹中一雄外,『日本農業自立戰略』, 1981.
- 韓國開發研究院,『主要農業政策改善方案』,
1982.
- _____,『農外所得增大를 위한 綜合對策』,
1982.
- 韓國農村經濟研究院,『轉換期의 農政課題와
政策代案』, 1978.
- Council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De-
velopment,『Basic Agricultural Statistics』,
R.O.C. 1982.

機械工業育成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金 勝 鎮

▷ 目 次 ◁

- I. 序 論
- II. 機械工業의 保護現况과 問題點
- III. 機械工業의 支援現况과 問題點
- IV. 機械工業에 있어 技術開發을 위한 支援制度의 現况과 問題點
- V. 機械工業의 其他關聯制度의 現况과 問題點
- VI. 機械工業育成政策의 評價과 改善 方案

I. 序 論

機械工業이란 韓國標準產業分類(KSIC) 38에 該當하는 組立金屬製品, 機械 및 裝備製造業을 指稱하는데 이는 다시 組立金屬(KSIC 381), 一般機械(KSIC 382), 電氣機器(KSIC 383), 輸送機器(KSIC 384), 精密機器(KSIC

385) 등으로 分類된다¹⁾. 또한 機械工業은 機能別 및 生產工程別로 基礎部品, 中間組立品, 完製品 등으로 分類될 수 있다.

이러한 機械工業은 資本財를 生產 供給하는 產業으로서 前後方聯關效果가 크고 熟練勞動 즉, 技術人力集約的 產業이라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物的賦存資源이 相對的으로 不足하고, 良質의 勞動力を 갖춘 우리나라가 早晚間 比較優位를 確保할 수 있을 것으로期待되는 產業이다.

한편 生產形態面에서 볼 때 機械工業은 部品生產 및 部品組立形態의 產業으로서 部品生產의 分業化를 통한 專門生產으로부터 오는 規模의 經濟效果가 큰 產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規模의 經濟效果를 最大限으로 圖謀하기 위해서는 企業間의 都給增進을 위한 系列化가 要請된다. 이와 아울러 機械部品生產業體와 機械部品組立業體의 技術과 施設이 均衡있게 發展되어야 機械工業의 發展이 圓滑할 것이다.

또한 機械工業은 그 發展初期段階에 巨額의 設備投資가 所要되어 製品市場의 確保가 어려

筆者：韓國開發研究院 副研究委員

1) 機械工業內의 5個部門에 대해서 深層分析한 研究報告書는 之後에 發刊될 豫定임.

을 뿐만 아니라 특히 他產業에 資本財를 生產供給하는 產業이므로 景氣變動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特性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機械工業은 그 發展初期段階에는 政府의 保護育成이 必要한 것으로 判斷되며, 過去 70年代 우리나라 機械工業 역시 政府에 의한 各種 保護支援을 받아 왔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機械工業에 대한 保護支援制度의 現況을 分析評價하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機械工業의 保護現況과 問題點

1. 輸入制限

가. 機械工業에 對한 輸入制限推移

1971年까지는 國內機械工業의 未發達로 輸

入自由化率이 相對的으로 높았으나, 1972年初 機械工業育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機械工業의 全部門에 대한 輸入制限이 大幅 強化되었다(表 1 參照). 그 後 1978年에 政府의 輸入自由化擴大方針에 따라 機械工業部門에 대한 輸入制限이 一部 緩和되었으나 1979年以後에는 계속된 景氣沈滯로 輸入自由化的 推進이 다시 停滯된 상태에 있다.

機械工業部門에 대한 輸入制限은 특히 1972年 以後 他部門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매우 높았으며 그 中에서도 특히 電氣機器部門에 대한 輸入制限은 매우 包括的이었다.

나. 現行 輸入制限 實態

輸入制限은 基本的으로는 輸出入期別公告에 依하고 있으나 그 以外에도 各種 特別法, 公告(例: 輸入監視品目, 輸入先 多邊化品目 等)에 依하여 追加的 制限이 行하여지고 있으며, 特別法에 依한 輸入制限承認品目 및 輸入自由承認留保品目을 합하면 輸入自由化率이, 總製

〈表 1〉 機械工業 關聯製品의 輸入自由化率 推移(1968~82)

(단위 : %)

	組立 金屬	一 般 機 械	電 氣 機 器		輸 送 機 器		精 密 器	機 械 工 業 計	全 產 業
			電 子	自 動 車	造 船				
1968	44.4	66.7	40.0	40.0	70.4	33.3	80.0	60.5	55.9
1970	46.0	62.1	34.3	40.0	66.7	16.7	80.0	60.5	53.7
1972	38.1	37.9	17.1	10.0	59.3	0.0	80.0	42.1	38.0
1974	44.4	40.9	17.1	10.0	59.3	0.0	80.0	39.5	40.2
1976	39.7	28.8	14.3	10.0	59.3	0.0	80.0	42.1	35.4
1978	54.0	41.0	22.9	10.0	59.3	0.0	80.0	44.7	44.5
1979	77.8	47.0	28.6	10.0	59.3	0.0	60.0	47.4	54.1
1980	81.0	47.0	28.6	10.0	59.3	0.0	60.0	47.4	55.0
1981	81.0	47.0	28.6	10.0	59.3	0.0	60.0	47.4	55.0
1982	79.4	47.0	31.4	10.0	59.3	0.0	60.0	47.4	55.0
									71.3

註: 1) 輸入自由化率은 CCCN 4單位 基準으로 「輸入自動承認品目數/總品目數」를 意味함. 따라서 CCCN 8單位 基準 輸入自由化率에 비하여 약간 過小評價되고 있음.

2) 各年度 上半期 輸出入期別公告基準임.

3) 輸送機器中 自動車은 CCCN 4單位 基準으로 볼 때 1972年 以來 完全 輸入制限되어 있음.

資料: 商工部, 『輸出入期別公告』, 各年度.

造業의 경우는 75.7%에서 46.0%로, 全產業의 경우는 74.7%에서 45.7%로 감소된다(表 2 參照)。

機械工業의 경우 總 2,059個 CCCN 8單位品目中 期別公告를 通한 制限品目은 764個뿐이었으나 其他 特別法 및 各種 規制措置에 依한 制限品目이 330個에 이르고 있어 實質輸入

自由化率은 46.9%에 불과한 實情이다.

또한 輸入自由化率을 實際 輸入된 金額基準으로 살펴보면 品目基準으로 살펴 본 경우에 比하여 매우 낮은 輸入自由化率을 보여 주고 있다(表 3 參照). 따라서 機械工業의 경우는 需要가 많은 主要製品에 對하여 아직 輸入制限을 包括的으로 實施하고 있음을 알 수 있

〈表 2〉 現行 輸入自由化實態(1982 上半期)

(단위: 數)

	CCCN 8單位 品目 數 (A)	期別公告上 輸入制 限品 目 (B)	其他措置에 依한 制 限品 目 (C)	輸入自由化率(%)	
				I (A-B)/(A)	II (A-B-C)/(A)
組立金屬	360	34	146	90.6	50.0
一般機械	797	306	81	61.6	51.4
電氣機器	425	243	39	42.8	33.6
(電子)	(191)	(137)	(8)	(28.3)	(24.1)
輸送機器	221	118	32	46.6	32.1
(自動車)	(67)	(66)	(1)	(1.5)	(—)
(造船)	(55)	(39)	(15)	(29.1)	(1.8)
精密機器	256	65	30	74.6	62.9
機械工業計	2,059	764	330	62.9	46.9
製造業	6,618	1,610	1,964	75.7	46.0
全產業	7,465	1,886	2,169	74.7	45.7

註: 現行 輸入自由化率이 〈表 1〉과 다른 것은 이곳에서는 CCCN 8單位 基準으로 推定하였기 때문이다.

資料: 貿易協會, 『輸入便覽』, 1982.

〈表 3〉 金額基準 輸入自由化率¹⁾

(단위: %)

	1977	1978	1979	1980	1981
組立金屬	27.6	49.9	78.6	72.9	56.3
一般機械	21.3	24.8	25.9	21.9	25.8
電氣機器	2.0	3.0	4.5	3.8	3.8
(電子) ²⁾	(0.0)	(0.0)	(0.0)	(0.0)	(0.0)
輸送機器	36.2	28.5	46.8	42.0	34.2
(自動車) ²⁾	(—)	(—)	(—)	(—)	(—)
(造船)	(10.6)	(10.7)	(19.2)	(8.0)	(4.1)
精密機器	25.4	29.7	32.5	23.0	23.6
機械工業計	18.3	21.5	28.3	23.3	22.7

註: 1) CCCN 4單位 基準으로 輸入自由化品目의 輸入額을 總 輸入額으로 나눈 數值임. 따라서 實質 輸入自由化率보다 약간 過小評價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自動車의 경우는 輸入自由品目이 전혀 없으며, 電子의 경우는 輸入自由品目的 輸入額이 總輸入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아서 나타나는 數值임.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다(특히 耐久性 消費財인 電子製品과 自動車의 경우에는 輸入이 거의 완전히 制限되고 있음).

2. 關 稅

機械工業製品 특히 電子 및 自動車製품은 期別公告, 特別法 等을 通한 輸入制限 以外에 關稅를 통하여 追加保護를 받아 왔으나 關稅를 통한 保護는 量的 輸入制限때문에 큰 役割을 하지 못하였다. 즉, 高率關稅 對象品目들의 輸入이 制限되었기 때문에(例: 家電製品, 自動車, 時計 등) 機械工業에 대한 輸入額加

重平均 法定關稅率은 製造業 平均에 비하여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表 4 參照). 實績關稅率은 他部門의 輸出用 原資材 減免이 많았기 때문에 機械工業의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製造業平均과 큰 차이가 없었다.

反面 國內와 國際 製品價格으로 比較・推定되는 名目保護率을 살펴보면 機械工業의 경우 他部門에 比해 높은 保護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5 參照). 따라서 現 關稅構造는 各種 輸入規制와 關稅減免때문에 產業保護의 정도를 적절히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3. 保護制度의 問題點

〈表 4〉 機械工業의 法定 및 實績關稅率(1980)
(단위: %)

	輸入額加重率 法定關稅率	實績關稅率 ¹⁾
機械工業	14.3	8.6
製造業 ²⁾	16.8	7.8

註: 1)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關稅는 全額 減免된 것으로 假定, 實績關稅率 計算에 包含시키지 않았음.

2) 製造業에서 飲食料品 및 煙草는 除外하였음. 솔·담배는 奢侈財로 看做 150%의 높은 關稅가 賦課되고 있음.

〈表 5〉 名目保護率 推計(1978)

(단위: %)

	單純平均 法定關稅率	名目保護率
加工食品	36.3	32.0
飲料 및 煙草	132.9	20.9
建設材料	27.7	-10.3
第1 中間財	22.9	- 4.9
第2 中間財	31.4	- 2.5
非耐久消費財	48.5	15.6
耐久消費財*	45.1	41.2
機械*	28.8	15.5
輸送裝備*	49.8	20.7
製造業計	39.6	6.6

註: *는 機械關聯部門임.

資料: 南宗鉉,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1.

品目에 따라 狀況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一般的으로 大部分 機械工業製品의 경우, 광범위한 量的 輸入制限으로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外國製品과의 競爭이 일체 배제되어 있어 品質向上 및 生產性向上을 위한 刺戟劑가 不足한 狀況이었다. 또한 量的 輸入制限은 關稅의 輸入調節機能을 마비시켜 關稅는 產業政策의 仁側面보다는 財政關稅로서의 役割이 더욱重要視되고 있으며, 關稅構造 또한 많은 경우 商品의 國際競爭力과 關係 있는 構造를 가지고 있다.

臺灣의 경우는 1974年 2月 以來 量的 輸入

〈表 6〉 韓國・臺灣의 實績關稅率

(단위: %)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韓國	8.4	6.0	4.6	6.5	8.9	5.7
臺灣	14.1	10.8	9.4	10.1	9.8	8.0

資料: 韓國: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臺灣: CEPD,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1.

制限을 거의 철폐하였으나 實績關稅率은 韓國에 비하여 계속 높은 水準을 維持하여(表 6 參照), 關稅의 輸入調節機能이 韓國보다 強한 편이다.

量的 輸入制限은 또한 產業의 國際競爭力評價를 어렵게 만들어 政府의 效率的 產業政策遂行에 障碍가 될 수 있으며, 制限品目的選定 및 制限品目的 輸入許可에 대한 客觀性이 항상 問題가 될 수 있다.

III. 機械工業의 支援現況과 問題點

1. 金融支援

가. 資金의 供給面

機械工業은 政府의 重工業化政策에 따라 1970年代 初부터 製造業中 同工業의 比重보다 훨씬 많은 資金을 供給받아 왔고, 특히 70年代末에는 大規模機械工業體建設로 資金供給이 相對적으로 더욱 擴大되어 왔다. 물론 機械工業은 그 性格上 附加價值創出에 많은 時間이 所要되는 工業이기는 하나 70年代에 걸쳐 계속 附加價值比重보다 높은 支援을 받은 事實

2) 이와 같은 사실은 機械工業의 資本集約度를 감안하더라도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機械工業의 平均資本集約度는 製造業平均보다 낮았으며, 한편 部門別로 보면 一般機械, 輸送機器部門의 資本集約度는 製造業總平均보다 높았으므로, 部門別 相對的 貸出檢討時 資本集約度의 差異를 감안하여야만妥當하다고 判斷된다.

3) 部門別 資本集約度 差異를 감안할 경우 電子機器部門은 最近產業의 比重과 거의 비슷한 貸出을 받아온 것으로 判斷되나, 電氣機器를 除外한 其他部門은 資本集約度差異를 감안하더라도 모두 相對적으로 높은 貸出을 받아온 것으로 判斷된다.

은 機械工業에 대한 資金分配이 他工業들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好意의 意向을 나타내 주고 있다²⁾(表 7 參照).

機械工業部門別로 貸出殘額의 比重과 附加價值의 比重을 살펴보면 電氣機器部門은 附加價值比重에 비하여 훨씬 적은 貸出을 받아 왔고, 其他 部門은 附加價值比重에 비하여 모두 相對적으로 높은 貸出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表 8 參照). 특히 一般機械, 輸送機器, 精密機器部門은 最近 2~3年間 相對的 貸出比重이 크게 增加하여 왔다³⁾.

나. 資金의 費用面

機械工業은 資金의 供給面에서 뿐만 아니라 費用面에서도 機械工業育成資金, 國民投資基金, 產銀資金等을 통하여 相對적으로 유리한 條件의 資金을 많이 供給받아 왔다. 즉, 總貸出額中 政策金融의 比重을 살펴보면 機械工業

〈表 7〉 機械工業에 對한 相對的 貸出比重

	製造業中 機械工業의 比重(%)		相對的 貸出比重 (A/B)
	貸出殘額基準 (A)	附加價值基準 (B)	
1968	14.9	14.0	1.06
1970	17.3	12.6	1.37
1972	15.7	11.0	1.43
1974	15.1	16.1	0.94
1976	20.3	17.1	1.19
1978	25.2	20.3	1.24
1979	27.1	19.4	1.41
1980	30.0	17.0	1.76
1981	30.6	16.4	1.80

註: 1) 貸出殘額은 預金銀行, 產業銀行, 輸出入銀行의 貸出殘額의 合計임.

2) 附加價值는 經常價格 基準임.

3) 機械國產化 資金中 多部分이 機械工業이 아닌 實需要者 部門에 計上되고 있기 때문에, 機械工業에 對한 實質貸出比重은 이 表에 나타난 數值보다 높음.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은 製造業中 가장 많은 政策金融을 받은 部門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9 參照).

一般金融과 政策金融의 利子率 差異는 1970年代 初에는 10% 以上이었으며 1979年 末까지도 5%에 달하였으나, 1980年 以後 政府의 政策金融 縮小方針에 따라 利子率 差異가 점차 縮小되어 왔으며 1982年의 6.28措置 以後에는 그 差異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政策金融中 國產機械購入資金은 特惠金融의 供給에도 봉우하고 國內金利와 國際金利 특히 外國의 輸出入銀行金利와의 差異로 因하여 最近 金利差異가 縮小 혹은 逆轉될 때 까지 國產機械使用을 誘導하기 위한 큰 誘因(merit)이 되지 못하였다(表 10 參照). 그러나 1982年의 6.28措置 以後 同資金의 金利가

10%水準으로大幅引下됨에 따라 同資金에 대한 需要가大幅增加되어 1982年 10月末 現在 增額 策定되었던 1,586億원이 모두 消盡되었다.

다. 需要者金融

과거 우리나라의 政策金融은 주로 生產者에貸出된 生產者金融 為主였다. 施設投資金融 혹은 運轉資金支援의 形態로 供給되는 이 生產者金融은潛在的 需要가 供給能力을 超過하였던 70年代에는 適切한 政策이었으나, 지금과 같이 需要不足으로 인한 低稼動率 狀況下에서 供給되는 生產者金融은 企業으로 하여금 高金利의 非制度金融에 대한 資金需要를 銀行金融으로 代替하는 効果밖에 없는 反面 需要者金

〈表 8〉 機械工業部門別 相對的 貸出比重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組立 金 屬	2.41	2.07	1.90	2.07	1.71	2.04	1.99	1.80
一般 機 械	2.11	1.54	1.57	1.91	2.60	2.50	4.13	3.70
電 氣 機 器	0.41	0.44	0.52	0.62	0.65	0.65	0.68	0.65
輸 送 機 器	1.03	1.76	2.22	1.81	1.26	1.72	3.04	3.25
精 密 機 器	1.85	1.77	1.13	2.18	2.60	3.98	3.17	3.31
機 械 工 業 計	0.94	1.17	1.19	1.30	1.24	1.41	1.76	1.80

註：總製造業 貸出中 機械工業에 對한 貸出比重을 總製造業 附加價值中 機械工業의 附加價值比重으로 나눈 數值임.

資料：韓國銀行

〈表 9〉 總貸出中 政策金融의 比重(1980)

	總 貸 出 金 ¹⁾ (10億원)	政 策 金 融 ²⁾ (10億원)	政 策 金 融 比 重 (%)
機 械 工 業	2,599.9	1,380.6	53.1
製 造 業	8,668.8	2,662.6	30.7

註：1) 預金銀行, 產業銀行, 輸出入銀行貸出金의 合計임.

2) 國民投資基金, 產業合理化資金, 其他 產銀貸出 및 輸出入銀行資金, 預金銀行의 機械工業育成資金等의 計임. 國民投資基金中 機械國產化資金은 實需要者部門別로 貸出殘額이 留하고 있기 때문에 이表에서는 機械工業部門의 政策金融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따라 시 機械工業의 政策金融比重은 약간 過小評價되었다고 볼 수 있음.

資料：韓國銀行.

融은 内需增大를 통하여 企業의 低稼動率을 提高시킬 수 있으리라 判斷되므로 同 需要者 金融의 擴大가 要望되는 바이다.

廣義의 需要者金融에는 國民投資基金中 國產機械購入資金, 產銀機械工業資金中 一般國產化 및 플랜트國產化資金, 韓銀再割資金에서 融資되는 狹義의 需要者金融과 「팩토링」 (factoring) 金融 등이 있다(表 11 參照).

2. 租稅支援

機械工業은 그간 主要製品의 경우 모두 租稅減免規制法(1966. 8. 3 制定)에 依하여 投資

金額의 一部를 法人稅·所得稅 等에서 指除받거나, 所得稅·法人稅의 時限附 減免(3年 全額, 2年 半額) 혹은 特別減價償却의 혜택을 받아왔다. 1982年부터는 直接減免이 撤廢되어 特別減價償却만이 認定되고 있으며(機械·電子工業의 경우만 投資稅額控除와 特別減價償却中 指定) 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制度가 새로 마련되었다.

租稅減免對象은 機械, 電子, 造船, 航空工業關聯製品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을 生產하는 者로서 大部分의 主要機械製品은 다 포함되어 있으나 家庭用 電子製品, 自動車 等은除外되어 있다⁴⁾.

〈表 10〉 國際金利比較

(단위 : %)

	國產機械 購入資金	外國輸出入銀行金利		
		美 國	日 本	英 國
1978. 6	15.0~16.0	8.5	7.5 ~8.0	8.0 ~8.5
1979. 6	"	8.75~9.25	7.25~8.0	7.75~8.25
1980. 6	21.0~22.0	9.0 ~9.5	7.5 ~8.75+	7.5 ~8.75+
1981. 6	18.5~19.5	12.0~15.0	7.5 ~8.75+	7.5 ~8.75+
1982. 3	13.5~14.5	13.5~14.0	9.10	10.00+
1982. 9	10.0	13.5~14.0	9.20	10.00+

註:各國 모두 貸出期間 5年以上 資金基準이며 +는 fee 혹은 commission을 意味함.

資料:韓國銀行, 『國民投資基金統計』, 1982.

The Banker Research Unit, Export Finance Service, various issues.

〈表 11〉 需要者金融實績推移

(단위 : 億원)

	1980	1981	1982
1) 國民投資基金中 國產機械購入資金	410	638	1,586 ¹⁾
2) 產銀機械工業資金	319	397	500 ¹⁾
3) 狹義의 需要者金融	509	2,262	4,593 ²⁾
4) 「팩토링」 金融	17	653	537 ²⁾
合	1,255	3,950	7,216

註:1) 10月末 現在.

2) 9月末 現在.

4) 租稅減免規制法은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減免 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事業中 同法에 規定된 事業에 對하여 直接稅의 減免를 부여하고 있다. 中小企業, 技術 및 人力開發,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 海外事業, 海外投資, 外國航行事業, 資源開發事業, 防衛產業, 地方移轉事業, 產業合理化事業, 國際金融機構, 投資促進 等.

〈表 12〉 製造業 各部門別 内國稅減免 實績(1979)

	算出租稅額 (A) (10億원)	租稅減免額 (B) (10億원)	租稅減免率 (B/A) (%)	總租稅減免 額中比重 (%)	附加價值 比重 (%)
製造業計	269.3	57.1	21.2	100.0	100.0
飲食料品	28.4	1.4	4.9	2.4	21.2
織維, 衣服 및 皮革	31.0	2.4	7.7	4.2	18.2
木製 및 同製品	2.9	0.0	0.0	0.0	1.7
종이, 印刷 및 出版	12.8	2.3	18.0	4.1	3.4
化學, 石油, 石炭, 正午	81.0	12.9	15.9	22.5	20.9
非金屬礦物	15.5	1.1	7.1	2.0	4.4
鐵鋼 · 非鐵	28.5	17.0	59.6	29.8	9.0
機械工業	59.1	18.5	31.3	32.5	19.4
組立金屬	6.7	1.1	16.4	1.9	2.3
一般機械	7.9	3.2	40.5	5.5	2.3
電氣機器	26.2	9.1	34.7	15.9	9.5
輸送機器	16.2	4.7	29.0	8.3	4.6
精密機器	2.1	0.5	23.8	0.7	0.7
其他	10.2	1.4	13.7	2.5	1.8

註：租稅減免規制法 第12條 重要產業減免 規定에 依한 租稅減免에 限함.

資料：國稅廳

〈表 13〉 產業基地 支援施設 投資現況

(단위 : 億원)

	工期	總事業費	1980年까지 綜 合	1981 豫 算	備 考
既完工事業		317	210	—	
玉浦	1974~80	182*	156*	—	造船
蔚山	1966~80	102	43	—	石油化學 및 肥料
龜尾	1971~80	33*	11*	—	電子
繼續事業		6,870	2,771	375	
浦項	1968~83	1,730	876	161	鐵鋼
昌原	1974~84	624*	307*	67*	機械
溫山	1974~87	543	391	8	非鐵金屬
麗川	1974~87	1,013	362	15	石油化學
北坪	1974~90	1,089	623	51	시멘트
其他	1962~86	1,871	212	72	
合計		7,187	2,981	375	
(機械工業 關聯基地)		(839)	(474)	(67)	

註：*는 機械工業 關聯基地임.

資料：經濟企劃院, 『豫算概要』, 各年度.

1979年の 경우 機械工業에 對한 租稅減免額은 全製造業에 대한 租稅減免額中 32.5%로 가장 많았으며 平均租稅減免率(減免額/算出稅額)도 31.3%로 1次金屬 다음으로 높았다(表 12 參照). 따라서 機械工業은 他工業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많은 租稅減免를 받아 義을 알 수 있다. 또한 機械工業部門別로 租稅減免率을 살펴보면 一般機械工業과 電氣機器工業의 減免率이 가장 높았는 바 이는 1979年前後 完工된 大規模 一般機械 및 重電機器工場들에 대한 減免率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財 政 支 援

機械工業에 대한 政府의 財政支援은 크게 財政出資, 產業基地支援施設建設, 利差補填, 工業支援을 위한 商工行政費 等으로 나눌 수 있다.

機械工業에 대한 政府의 直接出資는 1980年 및 1981年에는 韓國重工業 1個社에 국한되었으나 그 規模는 1980年에는 經濟開發費의 7.5%에 달하는 千億원(產銀出資形態), 1981年에는 經濟開發費의 6.7%에 달하는 千億원(韓電出資形態)에 각각 이르렀다.

機械工業支援을 위한 產業基地建設은 창원(機械工業), 구미(電子), 옥포(造船) 等 3個地域에 局限되었으며 投資規模는 80년까지의 支出基準으로 總 產業基地建設費의 15.9%에 달하고 있다(表 13 參照).

政策金融에 대한 政府의 利差補填은 最近 每年 급속히 증가하여 1981年에는 總 一般會計豫算의 1%, 經濟開發豫算의 5.4%에 해당하는 805億원에 달하였다(表 14 參照). 그 중 機械工業育成을 위하여 사용된 資金(機械工業

育成資金, 造船工業育成資金, 國民投資基金의一部, 產銀資金一部)에 대한 利差補填이 總 利差補填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74年以後 매년 급격히 增加하여 1979年에는 34.9%에 달하였다가 그후 약간 減少하여 1981年에는 31.1%에 머물고 있다.

마지막으로 機械工業支援 行政經費는 機械工業振興基金, 試驗 및 指導를 위한 行政經費, 其他經費 等으로 구성되어, 그 規模는 年度別 事業內容에 따라 <表 15>과 같이 變化하였다.

4. 支援制度의 問題點

機械工業을 幼稚產業으로 看做하여 金融支援을 實施하는 當爲性은 認定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低利의 金融支援은 高率의 인플레 이션下에서 負의 實質金利를 惹起시켜(表 16 參照) 有限한 資本의 浪費를 招來하기 쉽고(주어진 生產要素現況에 비추어 지나친 資本集約的 投資誘導), 企業의 財務構造를 惡化시키는 主要要因이 될 수 있으며(銀行負債의 累積 혹은 債還期間 延期傾向), 利差補填을 위한 國民負擔을 加重시킬 可能성이 크다.

우리 나라 機械工業의 有形固定資產增加率을 보면 景氣沈滯가 極에 達했던 1980~1981年期間中에도 지속적으로 30% 以上的 增加를 示顯하여 製造業全體의 增加率을 上廻하고 있는데, 이는 機械工業部門에 支援된 低利의 政策金融에 基因했다고 料된다(表 17 參照).

또한 機械工業部門의 總 資本經營利益率은 1980年에는 -2.94%, 1981年에는 -0.30%로서 負의 經常利益率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製造業 全體의 製常利益率보다 낮은 水準이며

〈表 14〉 機械工業關聯資金에 대한 利差補償實績

(단위 : 百萬원)

	機械工業 育成資金	造船工業 育成資金	國民投資基 金	產業金融債 券	小計 (A)	總利差 補償(B)	機械工業關聯利 差補償의 比重 (A)/(B) (%)
1974	1,429	47	949	44	2,469	12,727	19.4
1975	1,089	50	2,059	31	3,229	16,698	19.3
1976	778	59	4,677	37	5,551	24,940	22.3
1977	591	59	7,612	26	8,288	27,761	29.9
1978	234	37	8,151	28	8,450	27,655	30.6
1979	274	35	19,062	33	19,404	55,677	34.9
1980	104	22	16,367	42	16,535	54,325	30.4
1981 ³⁾	27	10	24,906	80	25,023	80,523	31.1

註 : 1) 國民投資基金 중 機械工業을 위하여 쓰인 資金(國產機械購入, 特殊鋼除外 機械工業體建設, 計劃造船, 防衛產業, 造船所建設, 電氣電子, 產業機械化, 延拂輸出資金 등)이 차지하는 比重을 利用推定.

2) 總產銀貸出 중 機械工業에 관한 貸出比重을 利用推定.

3) 豐算基準임.

資料 : 財務部

〈表 15〉 機械工業支援行政經費推移

(단위 : 百萬원)

	農機 械化	造船工業 育成	機械工業 育成	電氣電子 工業	精密機器	航空工業	計
1972	3,152	950	1,781	7,182	48	—	13,113
1973	662	—	1,250	105	112	—	2,129
1974	217	—	1,448	15	385	—	2,065
1975	532	—	2,474	51	722	—	3,779
1976	—	—	945	—	810	—	1,755
1977	140	3,071	1,726	67	934	—	5,938
1978	526	3,448	1,913	66	1,059	—	7,012
1979	1,126	2,681	2,291	59	763	—	6,920
1980	23,839	2,096	4,431	74	3,255	626	34,321

資料 : 財務部, 『決算書』, 各年度.

〈表 16〉 主要貸出의 實質金利 推移

(단위 : %)

	(1) 商業어음 割引率 ¹⁾	(2) 機械工業 育成資金의 貸出金利	(3) 國民投資基 金中計劃造 船의 貸出 金利	(4) GNP 디플레이터 上昇率	實質金利		
					實質金利 商業어음割引 (=1)-(4))	機械工業育 成資金貸出 (=2)-(4))	國民投資基 金貸出 (=3)-(4))
1974	15.5	11.3	10.5	29.6	-14.1	-18.3	-19.1
1975	15.0	12.0	12.0	24.7	- 9.7	-12.7	-12.7
1976	17.0	13.0	12.3	17.7	- 0.7	- 4.7	- 5.4
1977	15.0~18.0	13.0	10.3	16.3	1.7~-1.3	- 3.3	- 6.0
1978	18.5	15.0	11.0	20.6	- 2.1	- 5.6	- 9.6
1979	18.5	15.0	11.0	19.3	- 0.8	- 4.3	- 8.3
1980	22.5	20.2	16.0	25.8	- 3.3	- 5.6	- 9.8
1981	18.0	17.0	14.0	20.5	- 2.5	- 3.5	- 6.5

註 : 1) 優良業體에 대한 預金銀行의 어음割引率임.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表 17〉 有形固定資産 増加率¹⁾ 推移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製造業總括	33.42	36.28	29.32	26.10	36.56	33.54	27.05	22.23
機械工業	44.92	48.74	36.40	41.46	39.23	38.37	32.34	30.18
組立金屬機械	24.51	24.47	41.64	44.72	26.78	47.41	46.85	52.00
一般機器	43.41	35.21	58.42	80.22	86.68	71.64	25.31	41.11
電氣機器	34.33	42.96	47.16	46.89	62.21	62.83	25.34	15.96
輸送機器	57.80	58.36	27.49	24.25	29.33	33.04	18.26	36.63
精密機器 ²⁾	3.13	55.61	47.59	35.78	11.91	33.51	24.10	10.29

註：1) 有形固定資產增加率 = $\frac{\text{當期有形固定資產增加分}}{\text{前期末有形固定資產}} \times 100$

2) 精密機器是包含在其他機械工業分野中。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各年度。

〈表 18〉 機械工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¹⁾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製造業總括	5.66	3.88	4.61	4.53	4.98	3.37	-0.23	0.02
機械工業	6.86	6.84	4.41	5.95	2.82	1.86	-2.94	-0.30
組立金屬機械	13.36	11.99	8.99	8.01	3.98	0.55	1.68	-3.27
一般機器	6.13	8.05	4.42	4.27	5.71	2.56	-9.56	-1.30
電氣機器	9.10	10.58	8.16	6.20	4.67	3.45	-0.86	3.16
輸送機器	4.18	2.82	0.98	5.22	0.89	-0.20	-3.78	-1.69
精密機器 ²⁾	15.87	11.05	19.96	20.22	7.30	10.82	11.28	10.42

註：1) 總資本經常利益率 = $\frac{\text{經常利益}}{\text{總資本}} \times 100$

2) 精密機器是包含在其他機械工業分野中。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各年度。

〈表 19〉 機械工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日本)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組立金屬機械	5.2	0.9	2.3	1.7	2.6	4.0	3.1
一般機器	5.2	2.7	2.9	3.1	3.6	5.2	5.2
電氣機器 ¹⁾	3.5	2.0	4.4	4.2	4.4	5.3	5.2
輸送機器	2.5	2.9	4.4	4.4	4.2	4.7	4.3
造船	4.3	3.5	4.0	2.3	-1.6	-0.4	1.4
精密機器	2.5	3.4	4.5	5.1	5.3	5.7	6.2

註：1) 造船工業除外。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1982。

〈表 20〉 機械工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臺灣)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組立金屬機械	2.4	-1.8	0.7	-0.3	4.0	4.0	3.2
一般機器	5.9	12.6	3.6	5.8	3.0	3.0	3.1
電氣機器 ¹⁾	10.6	8.3	10.1	9.3	8.3	8.3	7.0
輸送機器	6.7	11.6	8.0	13.1	5.2	4.2	3.7
造船	2.4	28.2	8.2	2.9	-16.7	-21.8	-9.6
精密機器 ²⁾	4.3	3.9	4.5	5.4	5.0	4.8	4.1

註：1) 造船工業除外。

2) 精密機器是包含在其他機械工業分野中。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1982。

(表 18 參照), 日本 및 臺灣에 比해서는 훨씬 낮은 水準이다(表 19, 表 20 參照). 이는 機械工業部門에 대한 低利金融支援이 助長한 非效率性이라고 判斷되며, 더우기 複雜多岐한 政策金融體制는 金融支援의 效果判斷을 어렵게 만들어 效率的인 幼稚產業育成戰略에 遷跌을 가져올 可能性이 크다.

租稅減免 역시 機械工業의 育成을 위하여 그 必要性은 認定되고 있으나 政府가 對象品目을 選定하고 支援을 實施하는 것은 機械工業의 複雜性, 世界市場의 急速한 變化速度等을 감안할 때 거의 不可能한 것으로 判斷되는 反面 機械工業의 거의 모든 主要製品에 대하여 모두 租稅·金融特惠를 賦與하는 것은 支援의 效果를 半減시켜 幼稚產業發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N. 機械工業에 있어 技術開發을 위한 技術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 技術開發을 위한 支援制度 現况

가. 稅制上의 支援制度와 그 現况

技術開發投資의 誘因을 위한 現行 稅制上의 支援制度는 損金處理의 認定, 稅額控除 및 特別減價償却의 認定 등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具體的 内容은 다음과 같다.

① 技術開發準備金에 대한 租稅特例

技術開發에 所要되는 費用充當을 위해 技術開發準備金의 損金計上을 認定하는制度이다. 電氣·電子를 포함하는 機械工業은 1978年 製造業 積立額의 46%를 寄與하였고 本 積立金使用額의 49%를 차지하였다(表 21 參照).

②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稅額控除

企業으로 하여금 當該年度에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10%를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할 수 있게 하는制度이다.

③ 研究用品의 關稅減免

政府出捐의 研究機關의 研究用品으로 輸入하는 物品에 대해서는 關稅가 免除되고 있다.

④ 技術 및 人力開發을 위한 施設投資에 대한 支援

新規開發技術의 企業화 및 研究試驗·職業訓練用 施設投資에 대하여 投資稅額控除(6~10%)와 一時償却(資產取得原價의 50%內의 特別償却) 中 하나를 選擇 適用받을 수 있게 하는制度이다.

〈表 21〉 業種別 準備金 積立·使用現况(1978年度 準備金 積立業體)
(단위: 億원)

	業體數	積立額	構成比	使用額	構成比	使用率 (%)
製造業	147	293	100.0	239	100.0	79
非鐵金屬	5	6	2.0	5	2.1	86
金屬	11	9	3.1	9	3.8	90
電氣電子	20	52	17.7	50	20.9	97
機械	46	84	28.7	68	28.4	81
其他 製造業	65	142	48.5	107	44.8	75

資料：科學技術處

⑤ 技術開發 先導品目에 대한 特別消費稅 暫定稅率 適用

1982年末 現在 「VTR」, 「비데오테이프」 및 「マイ크로웨이브 오븐」等 3가지 品目은 技術開發 先導品目으로 指定되어 있으며, 各各에 대한 現行特消稅 基本稅率은 40%, 40%, 28% 인바 同 品目들에 대해 實際로 適用되는 稅率은 82年 以後 처음 4年間은 基本稅率의 10%, 5年次에는 基本稅率의 40%, 6年次에는 基本稅率의 70%를 각各 賦課하도록 되어 있다.

⑥ 國內로 誘致된 外國 技術者의 所得에 대해서는 勤勞 始作 以後 첫 5年間 勤勞所得稅를 免除하여 주고 있다.

⑦ 技術導入 契約에 의하여 技術提供者에게 支拂되는 代價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는 技術提供後 5年間은 全額免除되고 그 후 3年間은 50%가 減免된다.

⑧ 技術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

實用新案權의 讓渡 및 貸與로 인한 所得稅는 5年間 免除된다.

⑨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플랜트 엔지니어링」, 綜合建設技術用役 그리고 專門技術用役 等과 같은 技術用役事業은 事業開始後 5年間 所得金額의 50%를 控除받게 된다.

⑩ 以上의 여리 支援 以外에도 公認技術振興團體等에 支出하는 寄附金에 대한 損金處理認定, 試驗研究와 開發費의 任意償却 許容, 職務와 關聯된 優秀發明으로 使用者로 부터 支給받은 補償金에 대한 所得稅 非課稅 等에 의한 稅制上 支援制度가 實施되고 있다.

나. 金融上의 支援制度와 그 現況

技術開發支援 金融機關으로는 韓國產業銀

行, 長期信用銀行, 中小企業銀行,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 韓國技術振興株式會社(KAIST開發技術企業化 支援機能), 韓國開發投資株式會社 等이 있으며 이들은 新製品의 研究開發, 新技術의 企業化, 技術導入 및 訓練, 製造工程의 改善 그리고 「엔지니어링」事業 等을 支援하여 주고 있다.

1982年 6月末 現在 技術開發支援實績은 508 億원인데 이 中 韓國產業銀行은 63%,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는 21%, 그리고 中小企業銀行은 16%를 각各 供給하였다(表 22 參照).

〈表 22〉 技術開發을 위한 貸出實績

(단위 : 億원, %)

	1979	1980	1981	1982年 6月末 現在	構成比
韓國技術開發 株式會社	—	—	94	107	21
韓國產業銀行	36	33	45	320	63
中小企業銀行	4	32	146	81	16
長期信用銀行	4	—	6	—	—
計	44	65	291	508	100

資料 : 科學技術處

다. 其他 支援制度와 그 現況

① 技術振興擴大會議 設置運營

政府는 1982年初부터 汎國家的으로 技術向上을 推進하겠다는 政策意志를 具現하기 위하여 大統領 주재로 技術振興擴大會議를 設置運營해 오고 있다.

② 產業技術研究組合의 結成

政府는 研究開發活動을 單獨으로 違行하기 어려운 中小企業들의 共同研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하여 產業技術研究組合의 設立을 嘉勵하고 있다.

產業技術研究組合에 대해서는 長期低利資金의 優先支援, 政府가 所有한 工業所有權의 無

〈表 23〉 產業技術 研究組合 設立現況

既設立('82.1~'82.5)	推進中
필름 콘텐서研究組合	自動車部品分野 8個
해드램프研究組合	電子部品分野 5個
클리치研究組合	
콤비네이션램프研究組合	
遺傳工學研究組合	

資料：科學技術處

償利用 特典賦與 等 여러가지 支援政策이 實施되고 있으나 1982年 5月 現在 既設立된 研究組合은 5個에 不過하다(表 23 參照)。

③ 技術用役業의 育成

個別專門技術을 組織化하여 新로운 產業시스템을 創造하는 技術用役業을 育成하기 위해 政府는 1981年末 技術用役業育成法 및 施行令을 改正하고 金融支援條項을 明示的으로 規定함으로써 金融面에서의 優先的인 支援을 可能하도록 하였다.

④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의 設立

政府는 企業活動을 위한 產業技術 및 海外經濟에 관한 情報를 審集, 提供하게 하기 위하여 1981年 1月에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을 設立한 바 있다.

2. 技術開發을 위한 支援制度의 問題點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技術開發을 위한 政府의 積極的인 努力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技術水準은 先進國에 비해서 현저하게 低位에 있어 우리의 國際競爭力 提高에 가장 큰 障礙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低技術水準의 主原因是 물론 우리의 日淺한近代化의 歷史, 科學水準의 低位, 高級科學技術人力의 不足, 未治한 先進技術導入, 自體技術蓄積의 貧乏等의 問題點이 있다.

困, 未治한 研究開發投資 등에 의한 우리의 技術開發能力의 低位에 起因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企業들이 積極的으로 技術革新을 하는 風土가 造成되지 못하였고 또 政府의 支援만 있으면 技術開發이 自動的으로 이루어지리라는 安易한 着想 등에도 起因하였다고 判斷된다. 換言하면 企業의 安易한 利潤追求와 技術開發에 대한 認識의 不足때문에, 또 政府의 重點開發戰略의 未備와 技術開發을 誘發하지 못한 產業政策때문에 技術開發이 難關에 逢着하였다. 그러므로 技術開發을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技術革新風土가 造成되어야만 하며, 둘째, 技術開發能力이 提高되어야만 하며, 세째, 技術支援制度가 改善되어야만 할 것이다.

V. 機械工業의 其他關聯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 國產化政策

가. 國產化政策의 現況

1) 標準國產化率의 公告

標準國產化率은 產業設備建設에 있어서 實需要者의 源泉의 國產化를 誘導하기 위하여 最小限度의 國產化 義務率을 賦課하는 指標로서 導入施設機械 事前申告制와 같이 1976年 3月부터 實施된 制度이며, 標準國產化率의 公告는 1976年 3月에 6個業種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後 점차 擴大되어 23個業種에 이르고 있다(表 24 參照).

2) 導入機械施設 事前申告制度

國內에서 生產할 수 있는 機械施設의 導入

을 抑制코자 美貨 百萬弗 以上의 機械施設을 導入하고자 하는 者는 機械工業振興會(81年 7月 以前에는 商工部)에 事前申告하여 國產供給 可能與否의 檢討와 國產化率 承認을 반도록 하고 있으며(1976年 3月부터 實施), 同制度와 標準國產化準 公告制度에 의하여 百萬弗 以上 導入機械施設의 國產化 比重은 1976年 以後 점차 向上되었다(表 25 參照).

〈表 24〉 標準國產化率 適用對象事業

實施時期	事業名
1976. 3. 19	시멘트, 비료, 배탄을, 火力發電, 精油, 포르말린
1977. 2. 7	폴리에틸렌, 나프타分解, 合成고무, 폴리에스터, 製鐵
1977. 12. 30	PVC, 폴리프로필렌, 가성소다, 水力發電
1979. 5. 17	原子力發電, 카프로락탐, 製紙
1980. 4. 17	타이어, 工業用 液化가스
1981. 1. 29	VCM, EDC, 소나희

資料：韓國機械工業振興會

〈表 25〉 導入機械施設 國產化 實績

	申告件數	申告金額 (百萬弗)	國產化 金額 (百萬弗)	國產化 比率 (%)
1976 (3~12)	51	1,524.9	388.9	25.5
1977	80	1,770.7	557.3	31.5
1978	122	2,457.5	808.0	32.9
1979	165	1,742.0	668.8	38.4
1980	102	1,339.2	671.1	47.9
1981	119	734.8	297.2	40.4

資料：韓國機械工業振興會

3)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國產化促進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KFX資金으로 外產機械를 購入하고자 할 경우 이의 國產機械 使用可能性與否를 商工部長官에게 事前問議하도록 國務總理 指示事項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1981年 7月부터 實施되어 왔다(官需用機械의 國產使用現況은 〈表 26〉과 같음).

이러한 制度의 實施가 要請되기 까지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官需用機械의 國產使用의 不振한 理由로서는 첫째, 購入資金의 制約과 둘째, 需要機關의 外產機械 選好傾向이 그 主要原因으로 指摘될 수 있다. 즉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이 機械設備를 購入하고자 할 경우 內資不足으로 國產機械購入의 制限되고, 借款資金에 의한 機械購入은 國際入札의 不可避하기 때문에 價格 및 非價格競爭力面에서 不利한 國產機械의 購入이 制約받아 왔다. 아울러 需要機關은 國產機械의 使用이 充分한 경우에도 (例를 들면 工高實習用機械) 필요이상의 高級機械를 使用하고자 하는 性向이 있어 結果적으로 低稼動率에 허덕이는 國內機械工業界를 를 外面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26〉 官需用機械의 國產使用 現況

(1978年 基準) (단위 : 百萬 원)

	購買額 (A)	國產機械 (B)	外產機械 (C)	國產 使用率 (B/A)
一般機械	77,236	41,366	35,870	53.6%
精密機器	23,810	12,587	11,223	52.8%
輸送機器	143,551	78,333	65,218	54.5%
計	244,597	132,286	112,311	54.1%

資料：韓國銀行, 『產業聯關分析表』, 1980.

4) 國產機械購入資金支援

機械工業에 대한 金融支援은 1968年 財政資金에 의한 機械工業資金 12億 원을 產業銀行과 中小企業銀行을 통하여 放出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아울러 그 해 政府는 韓國銀行으로 하여금 財政資金 50%, 金融資金 50%의 比率에 따른 財源을 確保하고 이를 機械工業育成을 위한 資金으로 支援하도록 制度화하였다. 특히 1969年 1月에 새로이 「機械工業育成資金取扱規程」이 制定되면서 同 資金에 의한 支援이 本格화되었다. 이 制度는 取扱銀行이 造成하는 金融資金으로 財源을 充當하고 同 資金

의 貸出金利와 一般貸出金利와의 差異를 政府豫算으로 補填하는 方式을 취하여 오다가 1974年 國民投資基金法이 制定됨에 따라 그 財源을 國民投資基金으로 轉換하였다.

國民投資基金中 國產化促進을 위하여 使用되는 資金으로서 國產機械購入資金의 支援實績은 〈表 27〉과 같다.

〈表 27〉 國產機械 購入資金의 支援實績
(단위 : 億원)

	1978	1979	1980	1981	1982(P)
總額	346	345	410	638	1,586
一般國產化	171	173	244	520	n.a.
플랜트國產化	174	172	147	107	n.a.
國產一號機	—	—	20	11	n.a.

資料 : 機械工業振興會

5) 國產機械品質保障制度

機械類品質保障 및 瑕疵保證制度는 1968年 4月에 韓國機械工業振興會로 하여금 實施하기 한 以來 81년까지 運用되어 왔으나 契約額의 10%를 瑕疵保證金으로 積立하는 것이 業界의 資金壓迫을 加重시킬 憂慮가 있고 紛爭調整을 業界의 自律機能에 맡겨도 無妨하다는 政府의 判斷에 의하여 廢止되었으나, 이의한 機械類品質保障制度가 廢止된 以後 實需要者들이 機械瑕疵發生에 따른 被害를 補償받지 못해 國產機械에 대한 不信이 높아가는 實情을 감안하면 國產機械의 需要를 創出하고 信賴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의 復活이 바람직하다.

6) 新規開發機械(國產一號機)에 대한 支援

國內에서 最初로 開發된 新規開發機械類에 대하여 重點支援을 함으로써 機械類의 國產化와 技術開發促進을 圖謀하고자, 1979年 4月에 商工部 公告 第79-43으로 告示된 新規開發機械類 申告要領에 依據하여 申告된 機械類에 대

하여 審查를 거쳐 合格된 製品을 國產一號機로 指定하는 制度이다. 新規開發機械의 要件은 i) 國內에서 最初로 開發된 品目, ii) 國產化率(金額基準)이 60% 以上, iii) 外國技術導入 없이 自體開發된 品目, iv) 性能檢查結果 國際水準品, v) 價格面에서 國際競爭力を 保有하고 있는 品目, vi) 商工部長官 및 審查委員會에서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品目 等이다.

新規開發機械로 指定된 品目이 받을 수 있는 惠澤은 i) 官需購買時 隨意契約締結品目으로 指定되며, ii) 新規開發品의 生產을 위한 施設投資에 所要되는 內外資를 優先支援받고, iii) 新規開發品의 生產에 必要한 生產資金을 支援받으며 vi) 國產一號機 購入資金을 支援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1979年 이 制度를 施行한 以來 1981年 9月까지 新規開發機械로 指定된 品目數는 總 79業體 92個品目이다.

나. 國產化政策의 問題點

이제까지의 國產化政策의 特徵은 한마디로 말하여 政府主導下의 選別的 資金支援 및 輸入禁止等 直接的 支援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의한 政府의 直接支援政策은 機械工業分野에 있어서 生產基盤을 構築하게 한 點은 否認할 수 없으나, 國產化政策分野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로 指摘되는 國產機械類品質水準과 需要者의 國產機械에 대한 認識不足等을 考慮하지 않은 채一律的인 政策이 施行되어 온 점도 看過할 수 없다.

이의한 國產化政策의 功過를 둘어켜 볼 때 向後의 國產化政策은 長期的인 觀點에서의 機械類品質向上 및 이에 따른 需要者의 國產機械에 대한 信賴度가 提高될 수 있도록 技術開

發의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漸進的인 輸入自由化를 통하여 機械類實需要者를 保護하고 健全한 競爭基盤을 構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 機械工業界의 技術水準이나 財務構造等의 現況을 考慮할 때 機械工業의 長期的 發展을 위해서는 制限의in 支援이 繼續 必要하다는 點도 留意하여야만 할 것이다.

2. 特別消費稅制

가. 制 度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은 크게 4種으로 나뉘어져 있는바 第2種에는 大部分의 機械工業關聯製品이 包含되어 있으며 그 中 大部分은 家庭用 電子製品이고 그 以外 自動車, 오트, 피아노, 時計, 光學機器等이 課稅對象에 包含되어 있다.

特消稅의 實質的 負擔은 防衛稅(特消稅의 30%) 및 附加價值稅의 追加負擔을 생각할 경우 名目稅率보다 매우 높은 狀況이다(例: 特消稅 名目稅率이 40%일 경우 實質負擔은 $[1 + (0.4 \times 1.3)] \times 1.1 = 1.672$ 로서 67.2%에 이

〈表 28〉 彈力稅率 適用品目 및 稅率
(1982年 11月 基準)

品 目	基本稅率	彈力稅率
乘用車 1,500cc 以下	15%	10.5%
1,500~2,000cc	20%	14% (82. 12. 31) 까지
擣發油	160%	130%
輕油	10%	7%
칼라 TV 大型	40%	28% (82. 6. 30) 부터

資料：特別消費稅法

르고 있음).

그리고 特消稅率은 景氣調節機能을 고려하여 基本稅率의 上·下 30% 範圍內에서 法律의 改正敘이 大統領令으로 彙力稅率을 適用可能케 되어 있는데 現行 適用品目 및 稅率을 列舉하면 〈表 28〉과 같다.

또한 2種에서 規定된 物品中 技術開發을 先導하는 物品으로서 輸出戰略上 內需基盤의 擴大가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해서는 暫定稅率이 適用될 수 있는데, 最初 4年間에는 基本稅率의 10%, 다음 1年間에는 基本稅率의 40%, 그 다음 1年間에는 基本稅率의 70%의 特消稅率이 適用된다. 이 暫定稅率의 適用對象品目을 要約하면 〈表 29〉와 같다.

〈表 29〉 暫定稅率適用品目 및 稅率
(1982年 11月 基準)

	基 本 稅 率	暫 定 稅 率		
		1982~85	1986	1987
VTR	40%	4%	16%	28%
Video Tape	40	4	16	28
Microwave Oven	28	2.8	11.2	19.6

資料：特別消費稅法

나. 機械工業 關聯製品에 대한 特消稅 徵收實績 및 效果

機械工業 關聯製品 특히 家庭用 電子製品, 自動車 등은 그간 奢侈財로 看做되어 高率의 特消稅가 賦課되어 왔는바, 1979년과 같은 경우에는 機械工業 關聯製品에 대한 特消稅額이 全製造品에 대한 特消稅 總額中 34.5%에 達하였다(油類를 包含할 경우 이 比率은 78.2%에 이르고 있음)(表 30 參照).

이에 따라 특히 自動車와 같은 경우는 自動

車 및 捷發油에 대한 高率의 特消稅로 인하여國內需要가 所得對比 현저히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으며⁵⁾, 高率의 特消稅는 家電製品들의需要增加에도 하나의 障碍要因이 되어 왔다.

다. 問題點

우리 나라 機械工業部門의 技術蓄積 및 輸出增大를 위한 國際競爭力 確保를 위해서는 內需基盤의 構築이 要求되는데 高率의 特消稅는 內需增大에 대한 하나의 障碍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특히 捷發油에 대한 高率의 特消稅는

〈表 30〉 特別消費稅 徵收實績

(단위 : 10億원)

	1978	1979	1980	1981
機械工業製品	118.0	166.6	109.5	141.8
(電氣機器)	(90.1)	(119.2)	(84.5)	(117.9)
(自動車)	(23.3)	(35.8)	(20.6)	(19.2)
油類	120.5	210.6	362.7	352.1
飲料	23.1	20.1	24.7	28.8
砂糖	32.2	39.5	54.7	66.2
其他製造品	27.6	45.8	51.3	59.9
製造品計	321.4	482.6	602.9	648.8
入場行爲計	2.8	3.2	3.3	3.6
輸入分	8.9	13.5	6.8	11.2
特別消費稅計	333.1	499.2	613.1	663.6
間接稅計	1,382.8	1,873.4	2,404.0	2,916.8
內國稅計	2,252.5	3,037.5	3,675.8	4,595.8
國稅計	3,652.2	4,767.6	5,814.9	7,268.1

註：特別消費稅는 賦課基準이나 徵收基準과 거의 同一
합

資料：國稅廳,『國稅統計年報』。

5)所得(1人當 GNP) 대비 自動車保有臺數(臺/千人)의 國際推移는 다음과 같은 回歸方式으로 推定된다.
1976年 現在 世界 75個國에 대해서 自動車保有臺數(臺/千人 ; A)와 1人當 GNP(PGNP)를 單純回歸方程式에 의하여 推定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ln A = -5.1553 + 1.2144 \ln PGNP; R^2 = 0.8997 \\ (25.59)$$

同回歸方程式에 의해서 우리나라所得水準에 相應하는 自動車保有臺數는 41.6臺/千人인데 反하여 1980年 現在 우리나라 自動車의 實際保有臺數는 6.6臺/千人으로 나타나고 있다.

乘用車 國內需要 不振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며 기타 家電製品의 경우에도 特消稅는需要增加의 커다란 沮害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3. 系列化·專門化 推進

他產業에 비해 聯關效果가 큰 機械工業이 開發戰略產業으로서 發展하기 위해서는 專門生產技術을 保有한 中小企業의 系列化 및 專門化의 推進이 急先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機械工業에 있어서의 中小企業比重은 製造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보다 相對的으로 낮은데, 이는 機械工業의 下部構造가 脆弱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특히 自動車工業과 電子工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表 31 參照).

또한 우리나라의 機械工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은 日本의 그것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電子工業部門에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이 相對的으로 落後된 것을 立證하고 있다.

政府는 中小企業系列化의 促進을 위하여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1978. 12. 5 改正)을 制定하여 系列化特定業種 및 指定系列化品目指定, 部門別 專門化 및 系列化業體指定, 中小企業型 專門機械工場指定, 系列化審議會構成 등一連의 措置를 취하였다. 그리고 系列化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業體當 施設資金은 5億원 以內, 運轉資金은 1億원 以內에서 資金支援을 하며, 系列化承認業體에 대하여는 最高 10億원의 信用保證基金을 支援하여 주고 있다.

또한 金融機關에 의해 通格業體로 選定된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0.5%포인트 低率의 優

待金利를 適用하고 있으며, 母企業에 대한 稅制支援과 아울러 母企業과 受給企業(中小企業)間의 利害問題를 自律의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 系列化促進協議會를 設置(1981. 6. 1)하였으나, 中小企業 支援制度上 金融支援面에서 貸出期間이 韶고 節次가 複雜하며, 그에 따르는 附帶費用이 過多할 뿐만 아니라 信用保證 業務遂行이 困難하여

滿足스러운 成果를 成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稅制支援面에서도 代金決済보다 먼저 納稅를 해야되기 때문에 資金壓迫을 받으며 技術開發에 대한 稅制支援이 微微하고 中小企業들의 技術開發能力未備, 納期問題·製品價格·製品規格·代金決済 등으로 인한 利害對立, 國內市場의 狹小性, 國際下請制度의 未發

〈表 31〉 中小企業¹⁾의 比重

(단위 : %)

	分類	事業體數		從業員數		出荷額		附加價值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1975	製造業	96.2	99.5	45.7	70.7	30.8	51.3	31.7	56.9
	機械工業	95.8	99.2	44.9	59.7	31.2	40.7	32.6	46.6
	自動車工業	92.0	97.8	35.6	35.6	15.4	16.8	21.5	23.3
	電子工業	81.1	96.6	23.4	45.6	15.3	24.1	14.4	26.3
1979	製造業	96.5	99.5	47.8	73.5	32.2	53.2	35.2	56.7
	機械工業	95.3	99.2	41.6	62.1	28.4	40.9	34.6	46.7
	自動車工業	94.3	97.6	31.5	35.6	12.0	16.2	17.8	20.8
	電子工業	85.4	96.9	24.5	48.7	15.5	24.9	19.2	27.0
1980	製造業	96.6	n.a.	49.6	n.a.	32.0	n.a.	35.2	n.a.
	機械工業	95.6	n.a.	43.6	n.a.	29.0	n.a.	33.0	n.a.
	自動車工業	94.6	n.a.	31.1	n.a.	13.9	n.a.	26.0	n.a.
	電子工業	85.5	n.a.	26.4	n.a.	15.9	n.a.	19.1	n.a.

註 : 1) 從業員 299人 以下 企業을 中小企業으로 分類하였다.

資料 : 金載元, 『系列화의 現況 및 問題點』, 韓國開發研究院, 1982. 7.

〈表 32〉 受給依存度¹⁾(製造業)

(단위 : %)

	韓國 (1980)	日本 (1966)
全製造業	30.1 (40.7) ²⁾	53.6
1~3(名)	—	52.3
4~9	—	53.7
5~9	18.1 (22.5)	—
10~19	27.2 (34.5)	54.8
20~29	{ 38.3 (52.0)	54.5
30~49		55.6
50~99	50.6 (52.6)	50.9
100~199	50.1 (63.1)	56.6
200~299	48.5 (54.0)	55.5

註 : 1) 全事業體數에 대한 受給企業比率(%)임.

2) () 내는 機械工業의 受給依存度임.

資料 : 金載元, 『系列화의 現況 및 問題點』, 韓國開發研究院, 1982. 7.

達, 相對的으로 높은 生產費用, 政府支援制度의 不合理性 등으로 最近까지 專門化·系列化는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며 〈表 32〉에 表示된 것처럼 韓國의 全製造業部門에 있어서의 受給依存度는 1980年 現在 30.1%로서 日本의 1966年의 受給依存度인 53.6%에 비해 크게 低調한 實情이다.

V. 機械工業育成政策의 評價와 改善方案

1. 機械工業育成政策의 評價와 機械工業育成의 基本戰略

機械工業은 70年代에 集中的인 政府支援을 받아온 重化學分野에서 가장 核心的 部門이었으며 政府의 集中的 支援은 지금도 繼續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集中的 支援에도 不拘하고 機械工業이 아직도 國際競爭力を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支援의 幅과 規模의 問題이기 보다는 方法의 問題로 判斷되어 이러한 支援方法上의 問題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機械工業 全般에 걸친 輸入規制는 國際競爭을 차단하여 低品質의 內需用 製品生產

6) 多品種小量生產의 特性을 갖는 部品產業의 育成에 있어 國內市場의 狹小화으로써 蒼起되는 機械工業育成의 制約性에 대해서는 追後에 研究할 豫定임.

7) 國內技術水準은 機械工業의 國際競爭力を 決定하는 重要한 要因이기 때문에 機械工業에 있어 國內技術水準, 世界技術動向과 技術測面에서의 우리나라 機械工業의 比較優位展望 등에 대해서는 追後研究할 豫定임. 다만 우리나라 機械工業의 技術現況과 問題에 관해서는 金珍佑, 『機械工業의 技術現況과 問題』, 韓國開發研究院, 1982. 12을 參照바람.

을 促進하였다.

둘째, 低品質製品 為主의 生產體制는 市場擴大를 不可能하게 하였던 바 이는 또한 機械工業製品의 品質向上에 必要한 專門化와 系列化에 對한 障碍要因이 되어 왔다.

세째, 國內市場의 保護와 實質水準 「마이너스」의 政策金利下에서 提供된 金融 및 租稅支援은 過度한 投資를 誘導하여 構造的 不況產業을 招來하였다.

네째, 機械工業의 過保護는 技術開發動機를 弱化시키고 各種 技術 및 人力開發 支援施策의 積極的인 活用을 沮害하였다.

以上과 같은 問題點을 認識할 때 向後 機械工業 育成을 為한 基本戰略은 다음과 같다.

① 需要의 擴大

規模의 經濟에 立脚한 機械工業 生產體制를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機械工業製品에 대한 最小限의 需要가 確保되어야 한다⁶⁾.

② 國際競爭의 導入

輸出指向의 機械工業構造를 發展시키고 非效率的 品目에의 投資가 止揚되어야 한다.

③ 技術開發의 支援

機械工業의 發展은 企業人の 技術開發能力에 依存하는 만큼 積極的 技術開發支援이 要望된다⁷⁾.

2. 機械工業育成政策의 改善方案

가. 輸入規制의 大幅 縮小와 關稅의 輸入調節機能 強化

現行 機械工業에 대한 保護政策은 輸入의 量的 規制와 關稅를 통한 規制 등 二重的 構造를 가지고 있는 바, 輸入의 量的 規制는 國

內市場에 있어서의 潛在的 國際競爭可能性外
자 排除시켜 國內產業의 競爭力向上에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可能性이 있으므로 安保 保健
등 不可避한 極少數 製品에 限定시키고 輸入規制政策은 關稅制度 하나로 統一시키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保護가 꼭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一部 機械製品들의 경우에는 量的 輸入制限의 撤廢와 同時に, 補完的으로 關稅率을 引上함으로써 初期에는 量的 輸入制限과 같은 效果를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量的 輸入制限과 關稅를 통한 保護는 國內業界에게 크게 다른 意味를 附與할 것이다.

그리고 期別公告의 縮小日程 計劃에 關해서는 政府·業界·學界가 共同으로 곧 具體的作業을 수행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實施計劃을 確定하고 事前豫示할 것이 절실히 要請되고 있다.

나. 金融支援制度의 改善

1) 金融正常化

幼稚產業인 機械工業의 育成을 위한 金融支援은 負의 實質金利로 因한 資本의 浪費와 財務構造의 惡化를 防止하고 利差補填으로 因한 國民의 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利子率面에서 보다는 資金供給面에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一般 商業銀行은 一般 資金을 供給하고 開發銀行은 育成이 필요한 部門에 開發資金을 集中供給함으로써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幼稚產業인 機械工業의 育成이라는 두 目標를 同時に 追求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모든 制度金融의 金利를 統一시킨 1982년의 政府의 6.28措置는 올바른 政策轉換으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政策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市中銀行의 民營화와 融資對象事業의 妥當性에 對한 判斷能力 提高, 利子率의 流動화와 私金融의 制度金融화等과 같은 金融正常化 措置가 시급히 先決되어야 할 것이다.

2) 需要者金融體制의 擴充

機械工業部門의 資金供給은 特히 大部分 製品이 生產財 내지 耐久消費財인 點을 감안할 때 同部門에 대한 資金供給은 生產者金融보다는 需要者金融(延拂輸出資金 包含)을大幅擴大함으로써 需要增進을 도모하는 것이 同工業의 效率的 發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判斷된다. 그리고 國民投資基金中 國產機械購入資金의 경우 金利를 固定시키는 것보다 海外利子率과 聯動시켜(例를 들면 海外利子率에서 1~2% 差減한 水準) 國產機械購入이 外國機械의 購入보다 金利條件면에서 有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國民投資基金`運營體制改善

同 基金은 莫大한 經濟開發所要財源을 安定的に 長期低利로 確保하기 위한 目的을 갖고 시작되었으나, 基金의 調達方法을 強制預託에 依存하고 있었기 때문에 預託義務機關들에게 資金壓迫과 期待收益의 犠牲을 強要하는結果를 招來하여 왔는데 이는 金融機關運營의 自律化 方針에 相馳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投資基金의 一部를 租稅나 關稅收入에서 調達하여 預託義務機關들의 資金壓迫을 緩和하는 것이 要望된다.

한편 機械工業의 育成을 위한 同 基金의 量의 擴充은 基金運用上의 赤字를 補填하기 위한 財政負擔의 增加로 制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支援對象의 嚴選으로 支援規模의 過大한 擴大를 防止하고, 資本市場育成을 통한

企業의 直接金融의 擴大가 要望된다.

다. 租稅·財政支援制度의 改善

租稅減免은 政府가 對象品目 혹은 業種을 選定하기 보다는 對象活動(例: 技術開發, 人力開發投資 等)에 對한 間接減免을 大幅強化함으로써 幼稚產業인 機械工業育成이 間接的으로 誘導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一部業種의 경우 效率的 發展을 위하여 政府의 直接的 支援이 꼭 必要하다고 判斷된다면 그 對象은 現在와 같이 大多數의 機械工業製品이 아닌 極少數의 品目에 限定되어야 할 것이며 그 支援方法도 技術開發等을 有한 補助金 支給의 形態를 取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일 것으로 判斷된다.

라. 技術開發政策의 改善

1) 技術革新風土의 造成

機械工業에 있어 우리의 技術水準은 先進諸國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어 우리의 國際競爭力を 強化하는데 가장 큰 制約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데, 이는 過去 低賃金, 高인플레이션 因한 負의 實質金利, 政府의 保護支援 등과 같은 企業들에게 有利한 經濟與件의 存續으로 民間企業들이 危險負擔이 큰 技術開發投資를 積極的으로 遂行하지 않더라도 國際競爭力を 維持할 수 있었는데 起因한 것이다. 換言하면 過去 우리의 經濟는 “技術革新은 危險하다. 그러나 技術革新을 하지 않는다면 더 危險하다”는 警告가 適用되는 競爭的 企業環境이造成되지 않았기 때문에 企業家들이 技術革新을 試圖하는데 積極的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技術開發을 위한 經濟風土의 造成을 위해서는 選別의 輸入自由化를 통한 市場開放의 促進

과 各種競爭制限行為를 排除하여 企業間의 競争을 強化함으로써 技術開發動機를 誘發시켜야만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新技術製品이 研究開發되었을 경우에 限해서는 政府購買 등의 方式에 의한 時限附 保護支援이 必要할 것이다.

2) 技術開發能力의 提高

기술開發能力을 提高하기 위한 對策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措置가 必要하다.

① 技術教育機關, 研究所 및 企業을 통한 科學技術人力의 養成促進과 同人力에 關한 長短期 綜合需給計劃이 樹立·執行되어야만 한다.

② 先進技術의 導入을 擴大하여 이의 完全消化 및 改良을 圖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外國人直接投資의 嘉勵 등으로 外國技術導入環境을 改善하되 同種技術의 重複導入은 止揚되어야만 한다.

③ 自體技術開發을 促進시키되 모든 技術을 順次的으로 開發하기 보다는 戰略的 核心技術을 一次的으로 集中開發하고 이를 基盤으로 上位段階의 尖端技術에 挑戰하도록 하여 先進國이 相對的으로 脆弱한 技術部門을 選定하여 限定된 研究開發資源을 集中投入하여야만 한다.

④ 制限된 研究人力과 資源을 効率的으로 配分·活用하기 위하여 汎國家의 技術開發體系(R & D Network)를 構築하여 技術開發段階別 連繫性提高와 協力 및 分業體系를 確立하는 同時에, 國內外의 有能한 技術者로 構成된 用役會社를 發足시켜 企業의 技術問題에 대한 諮問을 遂行하여야만 한다.

⑤ 尖端技術獲得을 위한 先進國과의 科學外交를 強化하고 科學技術人力의 海外訓練, 國

際共同研究參加, 頭腦 및 情報의 交流를 積極推進하여야 한다.

⑥ 國民生活의 科學化, 合理的 國民精神의 培養 등을 위한 汎國民의 科學化運動을 展開하여 科學技術優位의 社會雰圍氣를 造成하여야 하며 政府 各經濟部處에 「엔지니어」專門職을 增設하여 重要經濟政策決定에 있어 이들 「엔지니어」들의 充分한 諮問을 받도록 한다.

3) 技術開發을 위한 各種支援制度의 改善

技術開發을 위한 政府의 支援制度는 다음과 같이 改善되어야만 한다.

① 企業의 創意力이 要求되는 產業生產技術分野에 대해서는 間接的 支援方法으로 技術革新雰圍氣를 造成하여야 하지만, 半導體, 「컴퓨터」, 精密化學, 精密機械, 生命科學 등의 尖端·未來技術은 投資의 危險性, 投資所要의 大規模性, 優期期間의 長期性때문에 民間企業單獨으로는 投資遂行이 困難하므로 政府의 間接的 支援뿐만 아니라 補助金 등을 通한 直接的 支援이 必要하다.

② 技術開發投資에 대한 支援強化로 研究開發費의 對 GNP 比率을 現在의 0.61%水準에서 2%水準까지 漸進的으로 擴大하고, 技術開發投資의 政府 對 民間比率을 現行 50:50에서 40:60의 水準으로 民間負擔의 比率을 提高시켜야만 한다.

③ 技術開發先導品目 및 研究用品에 대한 特消稅減免擴大, 技術開發用施設投資의 一時償却率提高, 民間研究所의 研究用品輸入에 대한 關稅免除 등을 위해 現行租稅支援體制의 改編이 要望된다.

④ 新로운 發明의 企業化(venture capital)에 대한 政府支援의 強化가 必要하다.

⑤ 品質為主로의 政府入札制度의 改善, 技

術導入節次의 簡素化, 官需購買時 技術開發費의 原價反映 등 現行 支援制度의 修正補完이 要望되며, 海外技術動向 및 情報의 迅速한 提供을 위한 工業新聞의 發刊, 技術諮詢을 適時에 받기 위한 모든 高級科學技術人力의 名簿作成 등이 必要하다.

마. 其他 關聯制度의 改善

1) 國產化政策의 改善

가) 國產機械購入資金의 擴大

國產機械購入資金은 그 需要에 비해서 支援規模가 적어 貸出받기가 어려운 反面 外產機械類購入時 提供되는 外國輸出入銀行貸出은比較的容易하게 融資받을 수 있기 때문에 外產機械의 購入이 增大되는 要因이 되고 있다. 특히 支援條件에 있어서도 資金融資制限(例를 들어 플랜트 國產化資金을 貸出받은 業體는一般國產化資金을 貸出받을 수 없음)으로 國產機械購入이 不可能한 경우가 많은 反面 外產機械購入時에는 貸出限度上의 制約은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6.28措置以後 國產機械購入資金의 金利引下로 國產機械에 대한 選好度가 提高되었기 때문에 이에 相應한 國產機械購入資金의 擴大가 要望된다. 아울러 融資時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別途 擔保要求를 止揚하고 機械自體를 擔保로 設定할 수 있도록 許容되어야 할 것이다.

나) 「리이스」制度의 改善

一般的으로 實需要者가 直接 機械를 購入하는 경우보다 資金 負擔을 輕減시키고, 機械의 陳腐化에 따른 危險을 회피할 수 있는 有利한需要者支援制度의 하나로 권장되어온 「리이스」制度는 「리이스」會社의 機械購買資金에 對한國內 別途財源造成이 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主로 海外金融에 依存하게 되어 結果的으로 國內「리이스」實績의 88.1%가 外產機械를 實需要者에게 「리이스」하고 있는 實情이다(表 33 參照). 따라서 「리이스」에 대한 國內資金調達擴大方案이 要望되며,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는 制限된 用途에 使用할 것을 前提로 한 金融機關의 優先 貸出方案이나, 「리이스」會社의 社債發行 限度額의 增大와 같은 措置들이 考慮될 수 있다.

다) 플랜트入札의 合理化

플랜트入札에 있어 外國業體를 主契約者로 한 國際入札制를 止揚하고 國內產業設備製作業體 또는 「엔지니어링」會社를 主契約者로 한 國內入札을 實施하며, 高級技術集約部門에 대하여서는 外國業體와의 「콘서시움」形成에 의한 參與를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國產化行政의 改善

國產化 對象品目의 選定에 있어서는 動態的 國際比較優位가 있으며 前後方聯關係果와 輸入代替效果가 큰 品目을 戰略品目으로 選定하여야 할 것이다.

〈表 33〉 「리이스」實績(1977~80)

(단위: 千 \$, %)

會社名	計	國產機械	外產機械
韓國 開發 リ이스	203,203 (100.0)	36,495 (17.9)	166,708 (81.9)
韓國 產業 リ이스	207,346 (100.0)	17,229 (8.3)	190,117 (91.7)
和信타이거리이싱	41,191 (100.0)	200 (0.5)	40,991 (99.5)
計	451,740 (100.0)	53,924 (11.9)	397,816 (88.1)

資料：韓國機械工業振興會

8) 좀더 詳細한 內容은 韓國開發研究院,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4號에 收錄된 金載元, 趙振衡, 『都給組織의 實態와 對策』을 參照바람.

9) 좀더 具體的인 事例에 關해서는 鄭求鉉, 『企業活動에 대한 政府의 規制實態』, 韓國開發研究院, 1982. 11을 參照바람.

아울러 國產化 推進에 있어서도 段階的으로 經濟性 있는 國產化를 誘導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며, 部品開發 및 輸入과의 合理的인 調整이 있어야 하며 競爭力이 確保되는 品目에 對하여 段階的인 輸入自由化 및 이의 事前 豫示制度를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思料된다.

2) 特別消費稅의 縮小調整

特別消費稅制는 特히 電子, 自動車工業의 發展에 大的 障碍要因이 되고 있어 빠른 時日內에 다른 稅源을 發掘, 大幅引下 내지 撤廢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된다. 特消稅 對象品目的 輸入自由化는 特消稅引下와 同時に 實施하여 國內製品의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競爭力を 向上시키고 特消稅引下에 따른 稅收減少를 關稅增大로 一部 補填함이 바람직하다.

3) 系列化 專門化의 推進⁸⁾

中小企業의 系列化와 專門化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① 技術 및 經營指導體制의 擴充, ② 系列化·專門化 幹旋機構의 設立, ③ 小規模地方銀行設立의 促進, ④ 對中小企業 金融方式의 改善, ⑤ 代金決済方式의 改善과 企業間協力의 側面支援 및 ⑥ 海外市場의 開拓과 國際間 專門系列化의 幹旋等이考慮될 수 있으며 이러한 政策의 效果的 遂行을 為해서는 ① 市場情報의 普及, ② 長期資金의 供給, ③ 創業 및 轉業의 支援 및 ④ 技術人力의 養成과 같은 政策手段을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4) 企業活動에 對한 政府의 不合理한 行政制限

많은 企業活動에 있어서 政府의 不合理한 各種 行政規制가 機械工業發展의 沮害要因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各種 不合理한 行政規制의 撤廢가 절실히 要望되고 있다⁹⁾.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度.
- 經濟企劃院, 『豫算概要』, 各年度.
- 科學技術處, 『科學技術年鑑』, 各年度.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 國民銀行 調查部, 『Factoring 制度』, 1981. 12.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年度.
-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0.
- 勞動部, 『每月勞動統計調查報告書』, 1982. 1.
- 商工部, 『機械工業振興對策』, 1982. 6.
- 商工部, 『輸出入期別公告』, 各年度.
- 商工部, 『機械國產化推進上의 問題點 및 對策』, 1981. 4.
- 財務部, 『決算書』, 各年度.
- 韓國機械工業振興會, 『機械工業의 現況 및 課題 및 對策』, 1982. 2.
- 韓國貿易協會, 『輸入便覽』, 1982.
- 韓國產業銀行, 『80年代의 戰略產業』, 1981.
- 韓國銀行, 『產業聯關表』, 1978.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各年度.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 韓國銀行, 『國民投資基金統計』, 1982.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 金栽元·趙振衡, 「都給組織의 實態와 對策」,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2.
- 金珍佑, 『機械工業의 技術現況과 問題』, 韓國開發研究院, 1982. 12.
- 南宗鉉,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1.
- 鄭求鉉, 『企業活動에 대한 政府의 規制實態』,
韓國開發研究院, 1982. 11.
- 日本銀行, 『產業聯關表』, 1975.
- 日本銀行, 『經濟統計年報』, 1981.
- 日本通產省, 『通商白書』, 1981.
- 日本通產大臣官房調查統計部, 『工業統計表』,
各年度.
- 日本科學技術廳, 『科學技術白書』, 各年度.
- 勞動法令協會, 『賃金センサス』, 1980.
- 臺灣, CEPD,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1.
- 臺灣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 *Industry of Free China*, 1982. 2.
-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1980.
-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1963~1980.
- The Banker Research Unit, *Export Finance Service*, various issues.
- Chi Shive, *Structural Change and Protection Policy of Taiwan Economy*, (mimeo).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案內

①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 122 頁
高級洋裝 · 1,200 원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 158 頁
高級洋裝 · 1,800 원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純 著 18 切 判 · 250 頁
高級洋裝 · 2,000 원

④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 146 頁
高級洋裝 · 3,000 원

⑤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共著 18 切 判 · 318 頁
柳炳瑞 共著 高級洋裝 · 4,000 원

⑥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阜 編 18 切 判 · 254 頁
A.O. Krueger 編 高級洋裝 · 4,000 원

⑦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 判 · 198 頁
高級洋裝 · 4,000 원

⑧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 294 頁
高級洋裝 · 4,000 원

⑨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共著 18 切 判 · 336 頁
L.E. Westphal 共著 高級洋裝 · 4,000 원

⑩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阜 著 18 切 判 · 236 頁
高級洋裝 · 4,000 원

⑪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 202 頁
高級洋裝 · 3,000 원

⑫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18 切 判 · 250 頁
高級洋裝 · 3,500 원

⑬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 508 頁
高級洋裝 · 4,000 원

⑭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 492 頁
高級洋裝 · 4,000 원

⑮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 342 頁
高級洋裝 · 4,000 원

⑯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 532 頁
高級洋裝 · 4,500 원

⑰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 252 頁
高級洋裝 · 3,500 원

⑱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 370 頁
高級洋裝 · 3,500 원

⑲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 244 頁
高級洋裝 · 3,500 원

⑳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 214 頁
高級洋裝 · 3,500 원

㉑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阜 著 18 切 判 · 410 頁
高級洋裝 · 4,000 원

㉒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共著 18 切 判 · 194 頁
M. Roemer 共著 高級洋裝 · 3,500 원

㉓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 306 頁
高級洋裝 · 5,000 원

㉔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 204 面
高級洋裝 · 3,500원

㉕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18 切 判 · 166 面
朴俊卿 著 高級洋裝 · 3,500원

㉖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 198 面
高級洋裝 · 4,000원

㉗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共著 18 切 判 · 250 面
林栽煥 著 高級洋裝 · 4,000원

㉘ 織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 180 面
高級洋裝 · 3,500원

㉙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 192 面
高級洋裝 · 4,000원

㉚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 470 面
高級洋裝 · 5,500원

㉛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5,000원

㉜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원

㉝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 236 面
高級洋裝 · 4,000원

㉞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共著 18 切 判 · 270 面
E.S. Mills 著 高級洋裝 · 4,500원

㉟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 306 面
高級洋裝 · 5,000원

㉛ 韓國工業화와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000원

㉜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18 切 判 · 336 面
金學洙 著 高級洋裝 · 5,500원

㉝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N.F. McGinn 外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원

㉞ 貿易·外援助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18 切 判 · 256 面
田英鶴 譯 高級洋裝 · 4,000원

㉟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 414 面
高級洋裝 · 5,000원

㉛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 384 面
高級洋裝 · 5,000원

㉜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 ~ 75
A. Keidel 著 18 切 判 · 268 面
高級洋裝 · 4,500원

㉝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統 共著 18 切 判 · 396 面
D.H. Perkins 高級洋裝 · 6,000원

㉞ 需給構造과 物價政策
李 焰 著 18 切 判 · 288 面
高級洋裝 · 5,000원

㉞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壇 共著 18 切 判 · 410 面
L.P. Jones 高級洋裝 · 4,500원

㉞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 判 · 214 面
高級洋裝 · 4,0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18 切 刊 · 530 頁
E.S. 페이슨 高級洋裝 · 6,500 원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刊 · 228 頁
高級洋裝 · 4,000 원

49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 刊 · 432 頁
高級洋裝 · 7,000 원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共著 18 切 刊 · 428 頁
閔載成 高級洋裝 · 7,000 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共著 18 切 刊 · 402 頁
李珍周 高級洋裝 · 7,000 원

K D I 圖書會員制案內

本研究院은 그간 本院의 刊行物을 필요로 하는 學界 및 企業界의 끊임 없는 購讀要請에 副應하고, 本研究院의 研究結果를 보다 廣範圍하게 普及함으로써 國內의 經濟動向과 政府의 經濟政策 등 필요한 學術的情報를 讀者 여러분에게 보다 손쉽게 傳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製作實費에 의한 KDI 圖書會員制를 實施합니다. 讀者 여러분의 뜻은 參與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會員에 대한 特典

- ① 會員加入期間(1年) 중 本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但,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除外).
- ② 本研究院 圖書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림.

2. 會 費 : 50,000원

3. 加入期間 : 年中 언제나 接受하되 接受된 날로부터 1年間 會員으로서의 資格이 유지됨. 계속 會員資格을 유지하실 분은 有効期間 終了以前에 再登錄을 要함.

4. 加入方法

- ① 직접 本院 出版課에 拂入하거나
- ②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514919)에 拂入하시되 團體의 경우는 事業者登錄番號 및 代表者名을, 個人의 경우는 住民登錄番號를 明記해야 함.

5. 其 他

- ① 刊行物 發送料는 本院이 負擔(國內發送에 限함).
- ② 受信處의 變更이 있을 때는 즉시 本院 出版課에 通知해야 함.
- ③ 加入會費 50,000원 외 다른 費用負擔은 없음.

6. 問議處

우편번호 : 13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한국개발연구원 출판과 (전화 967-3287)